

2016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지원

작은나눔 큰사랑
우수사례집

2016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지원

작은나눔 큰사랑
우수사례집

발간사

삼성복지재단은 1991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사회복지 지원이 단순 물품 후원에 그쳤던 방식에서 벗어나 사회복지 현장에서 꼭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서술 양식을 개발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업비 지원이 익숙하지 않았으나 이후 재단의 자금 후원으로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많아지면서 삼성복지재단에서는 단순히 자금을 후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사회복지 현장의 실무자들이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그 역량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사후 지원 시스템을 개발해 실무자들의 역량 강화에 주력하였습니다. 이는 현장의 실무자들이 사회복지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주체라는 점과 이들의 역량에 따라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수준이 향상될 수 있다는, 사회복지도 인제가 중요하다는 삼성의 경영 철학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지원 사업이 단순한 자금 지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원받는 동안 자문 교수의 슈퍼비전, 팀별 모임, 연합 워크숍 등을 통해 슈퍼비전, 피어 슈퍼비전, 실무자 간 인적 네트워크와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지원하여 왔으며 항상 새로운 프로그램과 분야 개척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회의 변화에 따라 사회복지 현장도 이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기획 주제를 시의적절하게 제시하여 복지 현장의 변화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치매 가족, 학교사회사업, 청소년 자원봉사, 노숙인, 청소년 거리 상담, 소액 금융, 가족 치료, 지역 기반 기관 연합 등의 주제들이 재단의 집중 지원 이후 사회적으로 제도화 되어간 점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대 들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비롯한 많은 민간 재단 및 법인에서 삼성복지재단의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지원 사업을 사회복지 지원의 모형으로 생각하는 등 사회복지계 지원 사업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많은 변화가 있어 왔지만 사회복지 지원 방법은 계량적인 평가와 서술에 머물러 왔다는 판단 아래 2011년에는 사회복지 현장 서비스에 대한 기획과 평가 틀도 질적 서술과 평가로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기획 매뉴얼을 새롭게 발간하여 시대에 맞는 사회복지 현장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지난 26년간 1,934개 기관에 389억원을 지원해온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지원 사업은 2017년부터는 삼성복지재단에서 직접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우수사례집은 2016년 지원 기관의 사례들이며 지원 기관과 실무자 노력의 결실로 우리나라 사회복지 발전에 의미가 있는 사례들입니다. 정답이란 것이 없는 사회복지 현장이지만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종사자뿐만 아니라, 연구자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로서 우리나라 사회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향상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지원 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현장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으로 지도해주신 자문 교수님들과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 열정으로 노력해주신 실무자 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2월
삼성복지재단

차례

제1장

8	사례 1	철로변 쇠퇴 주거지 내 독거 노인의 사회 지지망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사업 “희(喜)스토리” 개금종합사회복지관
16	사례 2	안산 지역 내 사회적 고독감 및 정서적 단절로 인한 소외 여성 독거 어르신 의 유사 가족 이웃 맺기 프로젝트 “할미다방” 본오종합사회복지관
24	사례 3	배우자와의 이별(사별, 이혼)로 홀로 사는 여성 노인의 New Life Style Plan Project “Bravo My Life!”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
36	사례 4	지역 사회 아동과 어르신 예술 나눔 활동가 간의 세대 통합 프로젝트 탐골미술관 “이상(理想)한 실험실의 상상 II” 서울노인복지센터
46	사례 5	옥상 텃밭 강사 양성을 통한 노인 역량 강화와 아동의 먹거리 소중함 인식을 함께한 1·3세대 소통 프로그램 “느끼고 나누고 소통하고” 신평사랑채노인복지관
50	사례 6	중증 노인성 질환 환자 주 간병자의 소진 예방을 위한 지지 체계 형성 및 간병 스트레스 완화, 삶의 활력 증진 프로그램 “스트레스 Down, 에너지 Up! 비타민!!”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
60	실무자 소감	
62	자문 교수 소감 고정은 경희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제2장

66	사례 7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실제적·창의적·융합적 작품 활동을 통한 청소년 기능 습득(역량·경쟁력 강화) 및 지역 사회 환경 개선 프로그램 “손재주 개념 학생단” 그루터기지역아동센터
73	사례 8	경계선 지적 기능 청소년의 사회 기능 향상 및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주민 참여형 취미 활동을 기반으로 한 지역 사회 연계 통합 사업 “한울타리 II”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88	사례 9	건강한 놀이·문화 공간 중심의 지역 사회 돌봄 공동체 구축을 통한 학령 전환기 청소년의 비전 찾기(꿈 그리기) 프로젝트 마을에 기반을 둔 “청소년 Dream Secret 놀이터”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98	사례 10	장애인 당사자가 만들어가는 공공 안내 장애인 픽토그램 개발·보급 사업 “part 1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관광 안내 픽토그램 개발” 서귀포시장애인지립생활센터
104	사례 11	시각 장애 청소년의 수학 교육 기반 확보를 위한 촉각 수학 교재 개발 및 교육 지원 프로젝트 “수학 자신감 up! 상상 수up!”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설리번학습지원센터
118	사례 12	한국·베트남 다문화 가정 부부 갈등 예방 및 해소를 위한 베트남어·베트남 문화·부부 코칭 교육 프로그램 “우리 남편의 베트남 학교” 한베문화교류센터
126	실무자 소감	
129	자문 교수 소감 박정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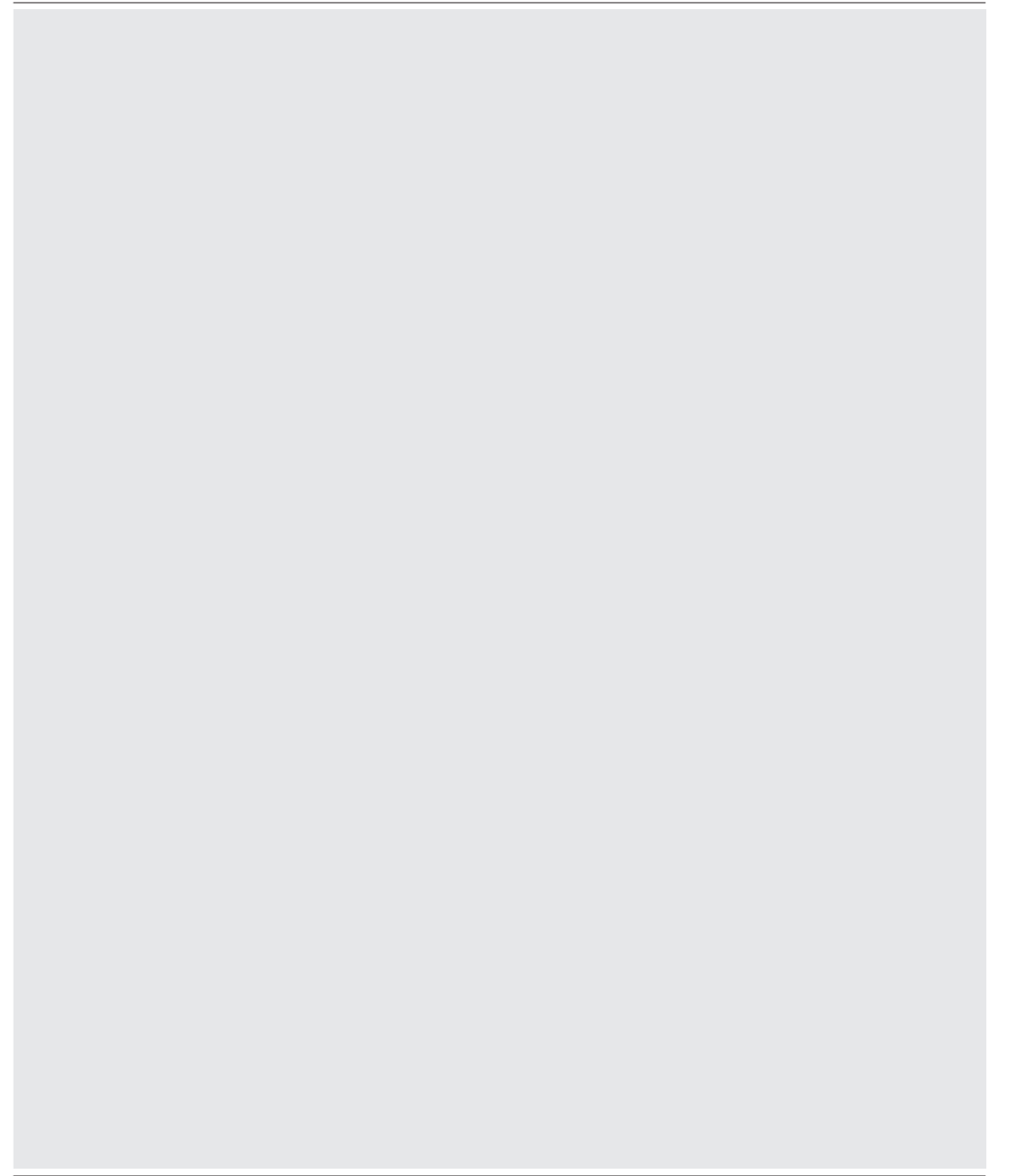
제3장

132	사례 13	농촌 지역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강점 인식과 멘토링 기법을 활용한 내적 역량 강화 및 사회적 관계망 확대를 통한 올바른 양 문화 정체성 확립 프로그램 “다(多) 문화 브릿지(bridge)” 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
144	사례 14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자아 정체성을 찾기 위한 멘토링 체험 프로그램 “나만의 ID” 동삼종합사회복지관
153	사례 15	저소득 밀집 지역 아동·청소년의 자아 존중감 확립을 위한 UCC 스토리텔링 기법 활용 프로그램 “마을 인터넷 방송 Little VJ 특공대” 생명종합사회복지관
163	사례 16	정신 질환 부모를 둔 저소득 청소년의 회복 탄력성 증진 및 사회적 관계망 기반 가족 역량 강화 프로젝트 “다함께 한 : 뽀 자람 Project” 이화여자대학교 종합사회복지관
171	사례 17	마을 단위 강점 체계(만화, 영상, 복지, 공연·기획)를 중심으로 한 빈곤 가정 청소년의 직업 연계 인턴십 프로그램 “+UP” 춘의종합사회복지관
178	사례 18	20대 정신 장애인들의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Sam College” 태화샘솟는집
188	실무자 소감	
191	자문 교수 소감 엄태영 경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제4장

194	사례 19	발달 장애인 자녀의 평생 설계 수립을 위한 부모 동료 지원 (Parent Peer Support) 프로그램 “Future Planning 미리미리 2” 과천시장애인복지관
206	사례 20	성인 중증 발달 장애인의 지역 사회 내에서의 자립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한 맞춤형 역량 강화 프로젝트 군포시장애인지원보호센터
219	사례 21	탈 시설 장애인 자립 생활 멘토링 교육 시스템 구축 및 사회 참여 확대 사업 “선배에게 배우는 자립 이야기, 자립 생활 멘토링 프로젝트”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227	사례 22	청각 장애 청소년·대학생의 사회 진출 확대 및 지역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미디어 퍼포먼스 교육, 기획 & 제작, 공연 프로젝트 “DO(Deaf One’s youth) 공연단”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238	사례 23	다문화 장애 아동 가정을 위한 통합적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모델화 사업 “다문화 장애 가정 희망 - MAP 프로젝트” 두 번째 이야기 안산시장애인복지관
250	사례 24	전환기 발달 장애 가정의 부모 역량 강화를 통한 맞춤형 진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맘 코치가 간다! II” 종곡종합사회복지관
262	사례 25	발달 지연 아동 가족의 자기 주도적 미래 청사진 설계를 통한 가족 역량 강화 프로그램 “Step by Step 초보 가족 일기” 춘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272	실무자 소감	
275	자문 교수 소감 이지수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제1장



철로변 쇠퇴 주거지 내 독거 노인의 사회 지지망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사업

“희(喜)스토리”



개금종합사회복지관 김세영

I. 프로그램 실시 배경

부산진구 지역의 개금3동 철로변은 부산의 중심 지역에 있으나, 저소득 독거 노인의 비율이 높고 철길 때문에 마을이 고립되어 있다. 철로변 지역은 소음 문제가 심각하고 범죄에 취약하며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 또한 사회 기반 시설로 접근하는 동선이 열악해 철로변 거주지의 청년층이 빠져나가고, 신체적·경제적 이유로 이동이 어려운 노령층이 다수 거주하면서 공동화 현상이 빨라지고 있다. 이 때문에 도심 철로변 주거지에 거주하는 노년층 다수는 소외감과 사회적 고립감 등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현 거주지로 인한 낮은 자존감을 느낀다. 이는 무기력함과 우울감을 유발하며 이웃 관계를 악화시킨다.

이에 개금종합사회복지관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위한 지역 속의 복지 서비스를 통해, 이웃 간의 공감과 사회 지지 체계 형성을 기반으로 마을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본 프로그램은 철로변 주거지 내 거점 지역에서 미술 공예, 음악 등을 매개로 삼아 과거 회상, 회상 공유를 통해 참여자의 우울감을 줄이고 이웃과의 관계를 형성할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기차 여행, 이웃과 함께 먹거리 나누기, 철길 마을 시화전을 시행하여 사회적 지지망 강화, 정서적 및 사회적 고립감 감소라는 세부 목표를 가지고 이웃과의 공감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II. 프로그램 개요

1. 목적

사회적 고립감과 우울감이 높은 철로변 쇠퇴 주거지 내 독거 노인이 이웃 간의 공감과 관계망을 기반으로 사회 지지 체계를 형성해 마을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계기를 마련한다.

2. 목표

목표 1. 회상 공유를 통해 우울감을 감소시킨다.

목표 2. 이웃과의 소통을 통해 사회적 지지망을 강화한다.

목표 3. 사회 지지 체계 강화를 통해 정서적 및 사회적 고립감을 감소시킨다.

목표 4. 철로변 거주 지역 주민의 공동체 의식 형성 기반을 마련한다.

3. 프로그램 대상

대상 구분	산출 근거	인원 수
주된 참여자	철로변 쇠퇴 주거지(개금3동 9, 8, 10통)에 거주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독거 어르신	19명
주변 참여자	주된 참여자가 본 사업에 초대된 이웃, 철길 마을 캘린더·철길 시화전에 참여한 지역 주민	198명

III. 프로그램 진행 및 평가

1. 세부 프로그램 진행 내용

프로그램	일정	횟수	세부 내용	수행 방법	
참여자 모집	1~3월	3회	· 프로그램 홍보 및 안내 활동 · 프로그램 참여 희망 또는 필요한 세대 방문, 상담 후 선정	· 지역 주민 대표(통장, 부녀회장, 경로당 회장)의 참여자 추천 · 본 복지관 독거 노인 자살 예방 사업 gatekeeper(희망 지킴이)의 참여자 추천 · 추천 세대 1:1 가정 방문, 상담 및 프로그램 홍보, 안내	
경로당 협약식	3월	1회	· 마을 내 접근이 용이한 거점 지역으로 경로당 선정 · 장소 협조에 대한 협약식 진행	· 경로당 대표(회장, 부회장, 총무)에게 사업 설명 및 안내 · 경로당 대표를 통한 장소 대여에 대해 경로당 회원들의 협조 요청 · 장소 대여 및 복지 서비스 세대 추천 등의 협약서 체결	
회상 공유하기	(만들어) 보古	3~5월	15회	미술 공예를 통한 회상 공유	한지 공예, 짚풀 공예, 손뜨개 공예 등 어르신들이 과거 익혔던 작업을 재현해 이를 회상하고 관련된 추억과 감정을 참여자들이 공유
	듣古	6~7월	4회	음악을 통한 회상 공유	· 옛 음악 디방 디제이 방식 · 생애 주기별로 당시 사연을 이야기하고, 그와 관련된 음악을 신청하면 음악 기기로 음악을 듣거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함.
	말하古	8~11월	8회	삶, 마을의 이야기를 통한 회상 공유	· 마인드맵과 압화를 활용, 과거와 현재 삶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시화(花)로 표현 · 우리 마을에 대한 추억과 감정을 한 줄 시로 표현하고 참여자 간 공유

프로그램	일정	횟수	세부 내용	수행 방법	
이웃과 함께 나누기	주된 참여자	3~7월	7회	주된 참여자 간의 지지망 강화를 위한 먹거리 나눔 활동	· 매월 2회 함께 만들어 먹고 싶은 먹거리를 참여자 간에 선정함. · 담당 복지사가 식재료를 준비하면 참여자 간에 식기구, 조미료를 분담하여 준비함. · 준비한 재료로 먹거리를 함께 만들어 나눠 먹고 소감을 공유함.
	주변 참여자	8~12월	9회	주변 참여자와의 관계망 확대를 위한 먹거리 나눔 활동	· 마을 내 소외된 이웃을 발견하고 주변 이웃에게 먹거리를 나눠 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구상함. · 총 9회 중 7회는 이웃을 경로당에 초대하여 먹거리를 함께 나누어 먹고, 2회는 이웃 가정에 방문하여 먹거리 나눔 활동을 진행함.
기가 차게 즐거운 여행	주된 참여자	5월	1회	주된 참여자 간의 결속력 강화를 위한 기차 여행	철로변 주거지의 기차 소음 탓에 생긴 지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 인식으로 바뀌도록 기차 여행을 진행함.
	주변 참여자	10월	1회	주변 참여자와의 관계망 확대를 위한 기차 여행	· 이웃과 함께 나누기에 초대할 이웃 중, 기차 여행을 희망하는 이웃과 함께 동행함. · 주변 참여자 선정 및 여행 장소, 식사 메뉴 등은 주된 참여자 간에 협의 후 진행함.
내 이웃의 재발견	4월	1회	재능 기부 형식의 일일 감사 활동	참여자가 가진 노하우(손뜨개)를 이웃에게 알려주는 일일 감사 활동을 진행함.	
철길 마을 시화전	12월	1회	철길 마을 시화전 개최	희상 공유하기 프로그램의 공예 작품과 시화(花) 작품을 지역 내 거점지인 경로당에 전시, 지역 주민 누구나 관람하게 함.	
철길 마을 캘린더	12월	1회	2017년 캘린더 제작 및 배포	철길 마을 시화전에 전시한 참여자 작품을 2017년 캘린더로 제작해 지역 내 무료 배포함.	
평가회	12월	1회	1년간의 활동 내용을 돌아보고 참여자 간 소감을 공유	· 월별 활동 사진을 공유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소감 나누기 · 본 사업에 대한 사후 척도 검사 및 다음 연도 계획에 대한 욕구 조사 실시	

2. 과정 평가

프로그램	목표량	산출량	평가 결과
참여자 모집	20명	19명	· 안내지, 현수막 부착만으로는 프로그램 목적을 전달하고 참여자를 모집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이에 지역 주민 대표(통장, 부녀회장, 경로당 회장)의 협조로 어르신 모임과 각 가정(70세대)을 방문해 홍보하면서 프로그램 의미와 목적을 전달하기 쉬워졌음. · 대면 홍보·상담을 진행한 어르신 중 우울감을 느끼는 독거 노인 중에서 프로그램 참여자를 희망하는 어르신을 우선 순위로 선정함.
경로당 협약식	1회	1회	·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어르신은 프로그램 참여를 부담스러워 함. 이에 경로당과의 협약을 거쳐 일정 시간대에 장소를 빌려 프로그램을 진행함. · 경로당과의 협약으로 지역 주민의 신뢰를 얻고 관심을 유도하면서 참여자 수가 증가함.

프로그램	목표량	산출량	평가 결과	
희상 공유하기	(만들어) 보古	10회	12회	· 초기 모임에서 참여자 간의 어색한 분위기를 해소하고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방법으로 미술 공예 희상 공유 프로그램("만들어 보古")을 실시함. · 전통 공예품을 만들면서 떠오르는 추억과 경험에 대해 부담 없이 대화하는 모습, 작품에 대한 만족감과 성취감을 확인하였음.
	듣古	10회	4회	생애 주기별 음악을 듣고 회상을 유도하고자 했으나 참여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 이후 노래 교실처럼 노래를 부르며 스트레스를 풀고 싶다는 참여자의 욕구를 반영, 희상 요법과 노래방 기기를 활용한 음악 다방 디제이 방식을 구현함.
	말하古	8회	8회	·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 살아온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시로 써서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유도하고자 했으나, 참여자 대부분이 시 쓰는 일에 대한 부담을 느껴 프로그램 진행에 한계가 있었음. · 자문 내용을 반영해 글쓰기 위주의 활동보다는 초기 참여자들이 흥미를 느꼈던 미술 활동을 주요 활동으로 진행하고, 시 창작은 부수적으로 진행함에 따라 시로 표현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던 참여자들이 자신이 만든 미술 작품에 한 줄, 두 줄씩 점차 글을 넣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음. · 본 세부 프로그램에서 진행한 작품은 철길 마을 시화전에 전시했으며 철길 마을 캘린더로도 제작해 주변 이웃들에게 배포함.
이웃과 함께 나누기	주된 참여자	4회	7회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논의하고 조리에 대한 역할 분담 등을 통해 참여자 간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함.
	주변 참여자	6회	9회	· 초대할 이웃, 먹거리, 준비 물품 등을 참여자 간에 논의하고 진행하면서 주체적으로 활동을 수행함. · 먹거리 나눔으로 주변 이웃과의 관계망을 확장함. · 총 46명의 이웃에게 나눔 활동을 실천함. - 8월 : 9명(경로당에 초대하여 콩국수 나누기) - 9월 : 5명(경로당에 초대하여 만두국 나누기) - 10월 : 5명(각 가정에 방문하여 모과청 나누기) - 11월 : 19명(각 가정에 방문하여 김장 김치 나누기) - 12월 : 8명(경로당에 초대하여 팔죽 나누기) · 초대할 참여자 중 4명은 일반 사례 관리가 필요한 세대로 판정됨에 따라 복지관 내부에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함. · 식사 초대 등 나눔 활동을 통해 소외된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더불어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세대를 발굴·연계하는 매개 활동이 이뤄짐.
기가 차게 즐거운 여행	주된 참여자	1회	1회	· 참여자 간의 결속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음. · 8통과 10통 참여 집단이 함께 기차 여행을 다녀옴으로써 참여 집단 간의 소통을 유도함. · 즐거운 경험과 추억을 통해 기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 인식으로 바꾸는 계기를 마련함.
	주변 참여자	2회	1회	· 기차 여행 장소, 식사, 동행할 이웃 등을 참여자들이 논의하고 일부 계획하도록 하여, 나들이의 복지 수혜자에 그치지 않고 주체적 역할을 맡도록 함. · 이웃과 함께 나누기에 참여한 이웃을 포함해 기차 여행을 희망하는 이웃 9명과 함께 동행함. · 주변 참여자와의 관계망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함.
내 이웃의 재발견	4회	1회	1회	"만들어 보古" 세부 프로그램에서 진행한 손뜨개 공예 활동 이후 남은 재료를 활용해, 주변 이웃에게 만드는 방법을 전수하는 재능 기부 활동을 자체적으로 진행함.

프로그램	목표량	산출량	평가 결과
철길 마을 시화전	1회	1회	· 철길 마을 시화전을 통해 자신의 작품을 타인에게 보여줌으로써 성취감과 만족감을 갖게 유도함. · 철로변 내·외부 지역 사회 구성원이 철길 마을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느끼는 계기가 됨.
철길 마을 캘린더	1회	1회	· 향후 마을 공동체 활동 진행의 발판을 마련함. · 참여자의 작품 및 활동 사진을 2017년도 캘린더로 제작하여 일상 생활에서 수시로 상기하도록 함. 또한 이는 다음 연도 활동에 대한 강화물이 되었음.
평가회	1회	1회	· 참여자 활동 사진을 통하여 당시 감정을 상기하고 참여자 간에 소감을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함. · 모든 참여자가 차후 사업에 참여를 희망함을 확인하고, 다음 연도 사업에 대한 의견을 공유함.

3. 효과 평가

성과 목표 1.	평가 지표	측정 도구	평가 방법
회상 공유를 통해 우울감을 감소시킨다.	· 우울감 변화 정도 · 프로그램 만족도	· 한국형 노인 우울 척도(KGDS) · 과정 기록지 · 만족도 조사지	· 사전·사후 설문 조사 · 만족도 설문 조사 · 관찰 기록을 통한 질적 평가 분석
평가 결과			

· 양적 평가
- 노인 우울 척도 분류 방법 : 14~18점은 경도 우울증, 19점~21점은 중도 우울증, 22점 이상은 심도 우울증.
- 총 19명의 참여자 중 최초 참여자 16명을 대상으로 한국형 노인 우울 척도(KGDS)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함.
- 조사에 응답한 16명 중 13명은 사전 조사 대비 1~7점의 차이로 우울감 감소를 보였으며, 3명은 변화가 없었음.
- 사전 검사 시 7명은 경도의 우울증, 3명은 중도의 우울증, 2명은 심도의 우울 증상이 나타났으며 사후 검사 시 5명은 경도의 우울증, 1명은 중도의 우울 증상으로 참여자의 우울감이 변화하였음.
- 사전 검사 시 경도 우울증 기준 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던 4명 중 2명은 사전 검사보다 낮은 점수로 나타났으며, 2명은 변화가 없었음.
- 경도 우울증을 가진 A구성원은 사전·사후 동일 점수로 우울감에 변화가 없었음.
- 해당 세부 프로그램의 만족도 조사 결과 19명 모두가 만족 또는 매우 만족이라 응답함.
· 질적 평가(프로그램 관찰 내용)
- 참여자들은 회상 공유 세부 프로그램 진행 중에 과거의 추억을 공유하고 예전에 익혔던 기술을 다시 재현하면서 성취감이나 만족감을 표현함. 프로그램 과정 중 참여자들이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했는데 프로그램으로 다시 시작한 뜨개질을 저녁 늦게까지 하고 나니 잠이 잘 오더라, 옛날 가족들을 위해 하루 종일 뜨개질 했던 기억도 났다" "그러고 보니 우리 동네만의 재미있는 추억이 있다, 과거 여름철 무더운 날씨에 기차길 지나가는 다리에 이부자리를 챙겨와 이웃 주민들과 함께 잠을 자곤 했던 기억이 난다" "혼자 하면 재미없는 일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하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 등의 대화를 나누는 것을 확인함.

성과 목표 2.	평가 지표	측정 도구	평가 방법
이웃과 소통을 통해 사회적 지지망을 강화한다.	· 사회적 지지 체계 변화 정도 · 프로그램 만족도	· 사회적 지지 척도 · 과정 기록지 · 참여자의 인터뷰 내용 · 만족도 조사지	· 사전·사후 설문 조사 · 만족도 설문 조사 · 인터뷰, 관찰 기록을 통한 질적 평가 분석

평가 결과

· 양적 평가
- 사회적 지지 척도 해석 방법 : 총점 범위 25점에서 10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것으로 해석함.
- 프로그램 참여자의 사회적 지지 척도 변화에 관해 사전·사후 비교 분석 결과, 프로그램 참여자의 사회적 지지 척도 변화 정도($t=-7.616$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남.
- 프로그램 실시 전 참여자의 사회적 지지 척도는 평균 54.94점이었으나, 프로그램 실시 후 70.88점으로 평균 15.94점 높아짐. 이로써 프로그램 실시 전후 참여자의 사회적 지지 체계가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 프로그램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해당 세부 프로그램의 만족도 조사 결과 19명 중 1명(세부 프로그램인 기차 여행 불참으로 무응답함)을 제외하고 "만족" 또는 "매우 만족"이라 응답함.
· 질적 평가(인터뷰, 프로그램 관찰 내용)
- 프로그램 관찰 내용 중 "혼자서 밥을 먹으면 이 맛이 안 난다, 매일 이웃과 모여서 누구와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는 것이 즐겁다" "아들이 매년 가을이 되면 감을 보내주는데 회원들과 나눠 먹고 싶어 가지고 왔다" 등의 대화로 미뤄보아,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 간의 관계가 형성되었으며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모습이 보임.
- 프로그램 전후로 이웃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묻는 질문에 "얼굴만 알던 지냈던 사람인데 이제는 안부도 묻고 먹을 것도 나눠 먹는 사이가 되었다" "이바구(이야기)가 잘 통하고 손톱에 봉숭아물도 들어 주는 이웃이 생겼다"는 답변을 통해 친밀한 관계 형성을 확인함.

성과 목표 3.	평가 지표	측정 도구	평가 방법
사회 지지 체계 강화를 통하여 정서적 및 사회적 고립감을 감소시킨다.	정서적 및 사회적 고립감 변화 정도	· 정서적 및 사회적 고립감 척도 · 참여자의 인터뷰 내용	· 사전·사후 설문 조사 · 인터뷰, 관찰 기록을 통한 질적 평가 분석

평가 결과

· 양적 평가
- 정서적 및 사회적 고립감 척도 해석 방법 : 총점 범위 30점에서 120점으로,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적 및 사회적 고립감을 크게 느끼는 것을 의미함.
- 프로그램 참여자의 정서적 및 사회적 고립감 척도 변화에 관해 사전·사후 비교 분석 결과, 프로그램 참여자의 정서적 및 사회적 고립감 척도 변화 정도($t=5.094$ $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남.
- 프로그램 실시 전 참여자의 정서적 및 사회적 고립감 척도는 평균 74.56점이었으며, 프로그램 실시 후 65.63점으로 평균 8.93점 감소함. 프로그램 실시 전후 참여자의 정서적 및 사회적 고립감이 줄어든 것으로 보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질적 평가(인터뷰 내용)
- "이웃과의 관계 형성을 통해 자신의 삶에서 변화된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아래와 같이 답변함.
- "이전에는 홀로 TV 보는 것이 삶의 낙이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부담스러웠는데 지금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활동이 삶의 즐거움이 되었다."
- "늙어 갈수록 아무도 모르게 혼자 죽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걱정이 많았다. 나에게 보고가 생겼을 때 걱정해주고 찾아와줄 이웃이 생긴 것 같아 안심이 된다."

성과 목표 4.	평가 지표	측정 도구	평가 방법
철로변 거주 지역 주민의 공동체 의식 형성 기반을 마련한다.	마을에 대한 인식 변화	· 참여자의 인터뷰 내용 · 과정 기록지	인터뷰, 관찰 기록을 통한 질적 평가 분석
평가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적 평가 - “우리 마을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마을을 위한 활동은 힘들고 어려운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만든 작품으로 전시회를 열고 주민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를 나누니 이게 마을을 위한 활동이구나 하고 기쁨을 느꼈다”고 답변함. - 세부 프로그램 중 ‘마을’ 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참여자들과 함께 마인드맵으로 꾸렸을 때 떠오르는 단어로 “이웃, 나눔, 마음, 인정, 우애, 양보, 사랑” 등을 말하는 모습에서, 마을에 대한 참여자들의 긍정적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음. 			

IV. 사업 성과

1. 관계 중심의 접근법을 통한 노인 우울감 해소

본 사업은 우울감을 느끼는 철로변 거주 독거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참여한 어르신 대부분은 신체적·경제적·정서적 어려움 때문에 집 안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 이웃과의 관계 등 사회적 관계망이 약했고, 이로 인해 정서적·사회적 고립감을 많이 느끼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이에 사회 지지망 강화 및 공동체 형성을 통해 철로변 내 독거 노인의 우울감을 해소하고자 했다. 또한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들 간의 관계 변화에 중점을 두었고, 강화된 이웃 관계가 개인의 긍정적 변화로 이어지게 하였다. 본 사업에서는 그들만이 겪었던 과거의 경험을 공유하며 공감대를 형성했고, 이를 기반으로 이웃과 소통하고 관계를 강화하여 이웃 간의 연대 의식을 고취했다.

2.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복지 지원

본 복지관은 영구 임대 아파트 내에 위치해 철로변 주택가 지역 주민들이 접근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다. 이 때문에 해당 지역 주민은 복지관 중심으로 이뤄지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취약 계층 복지 증진을 위한 방법으로 거점 지역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가 필요했다. 따라서 복지 서비스를 마을 내로 이동해 지역 주민의 욕구에 적합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본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어르신이 접근하기 용이한 경로당을 거점으로 삼고, 이웃과의 소통 기회를 넓히는 장으로 활용했다. 이를 계기로 경로당이라는 새로운 복지 서비스 창구를 개발함으로써, 복지관의 다양한 자원을 복지 사각 지대에 놓인 취약 계층에게 지원하는 데 기여하였다.

3. 철로변 마을 공동체 활동을 위한 기반 마련

같은 시대, 같은 공간에 살았다는 공감대가 있는 철로변 거주 어르신들은 본 사업을 통해 자신의 다양한 경험과 감정을 소통하고 공유하며 관계를 형성했다. 이러한 관계 형성을 기반으로 사회적 지지 체계를 구축하여, 이웃을 대상으로 나눔과 기여 활동을 펼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이 소외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돕기 위해 논의하는 모습, 마을 행사를 위해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에서 차후 마을 공동체 활동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V. 향후 계획

다음 연도에는 낙후 지역으로 인식된 철로변의 부정적 이미지를, 주민들의 주도적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마을 이미지로 바꾸고자 한다. 철길 마을에 대한 철로변 내·외부 구성원의 인식 변화를 위해 마을 내 나눔 활동을 꾸준히 확산하도록 지원하며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마을 외부 구성원과의 교류를 돕고자 한다. 이에 철로변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 스스로 자조적 역할을 수행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게 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안산 지역 내 사회적 고독감 및 정서적 단절로 인한 소외 여성 독거 어르신의 유사 가족 이웃 맺기 프로젝트

“할미다방”



본오종합사회복지관 이슬

I. 프로그램 실시 배경

본오종합사회복지관이 위치한 본오1동은 독거 어르신이 밀집 거주 중인 지역이다. 어르신들은 빈 몸으로 집을 나와 홀로 살기 위해 이곳저곳 방황하다 안산에서 가장 낙후되고 집값이 싼 이곳에서 남은 노년 생활을 보내고자 자리를 잡았다. 다른 가족 구성원은 모두 살 길을 찾아 뿔뿔이 흩어졌고, 어르신 역시 과거 수집과 고물을 찾아 떠돌아다니며 경제 활동을 하는 실정이다. 지금 이러한 모습이 본오동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르신의 모습이다.

특히 여성 독거 어르신은 고립된 공간에서 홀로 사는 데 익숙해져 이웃과 친밀한 유대 관계를 맺거나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지 않는 경향이 많다. 이들의 관계 철회 내지 축소는 우울증을 넘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기 쉽다. 이들은 노화와 질병으로 쇠약해진 건강에 대한 염려와 더불어, 죽음에 대한 강한 불안을 느끼며 살아간다. 자신이 고독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면 어르신들은 며칠간 잠조차 이루지 못하고 불안해했다. 이는 주위에 관계를 맺어온 이웃이 없거나 소통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여성 독거 어르신에게는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마땅치 않고, 기존 서비스를 중심으로 진행해 온 지원 체계가 전부이다. 이에 따라 민간 차원의 사회적 지지망 체계 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본 복지관에서는 현재 어르신의 정서 상태를 감안할 때 일방적인 도움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우리 지역의 여성 독거 어르신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각인(사회적 박탈감 해소)하고, “행복에 대한 기억”을 찾는 과정에서 심리적 고독감을 해소하며, “이웃이 이웃을 돕는 자조 프로그램”을 접할 기회이다. 본 복지관은 2001년부터 일관되게 지향하고 꿈꿔온 가치관인 ‘열린 가족, 머물고 싶은 마을,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 공동체’를 함께 실현할 기회를 어르신들께 제공하고자 한다.

II. 프로그램 개요

1. 목적

우리 마을에 거주하며 정서적 단절을 느끼는 소외 계층 독거 여성 어르신을 대상으로 자조적인 집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계’, ‘배움’, ‘이웃’에 대한 중요함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여성 독거 어르신의 잠재적 역량을 이끌어 내 고독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한다.

2. 목표 및 하위 목표

목표 1. 지역 내 여성 독거 어르신 프로그램을 자조적으로 운영하여 고독감 및 심리적 박탈감을 해소한다.

하위 목표 1. 참여자 간 관계 강화 집단 프로그램 실시(연 1회)

하위 목표 2. 나의 어린 시절 주제 토크 “끝나지 않은 이야기” 실시(연 1회)

하위 목표 3. 지역 내 독거 여성 어르신 밥상 나눔 진행(연 2회)

하위 목표 4. 강점 관점을 통한 인터뷰 강점 찾기 프로그램 실시(연 1회)

목표 2. 여성 독거 어르신의 동질감을 기반으로 ‘배움’, ‘관계’, ‘이웃’에 대한 중요성을 강화하여 지역 사회 내의 사회적 지지망을 확대한다.

하위 목표 1. 지역 내 독거 여성 어르신의 지역 사회 연계 활동(연 1회)

하위 목표 2. 지역 주민 대상의 나눔 활동 진행(연 2회)

하위 목표 3. 연합 문화 활동 “집 나간 할미” 실시(연 1회)

하위 목표 4. 독거 어르신 100명 대상 협동 활동 진행(연 1회)

3. 프로그램 대상

대상자 구분	· 지역 내 65세 이상 여성 독거 어르신 - 사회적 지지망 및 공적 서비스에서 배제된 여성 독거 어르신 - 경제적 어려움과 극심한 고독감을 느끼는 여성 독거 어르신 - 사별로 인한 스트레스와 무기력함을 느끼는 여성 독거 어르신 - 무료 경로 식당을 이용하는 어르신, 밀반찬 지원 서비스 대상 어르신, 교육 프로그램 수강 어르신, 지역 내 소외 계층 어르신
주된 참여자	본 프로그램에 욕구가 있는 여성 독거 어르신 8명
선정 기준	· 65세 이상 독거, 기초 생활 수급자 여성 어르신 · 정서적으로 단절되고 고독감을 느끼는 여성 어르신 · 본오종합사회복지관 경로 식당을 이용하는 여성 독거 어르신 추천 - 개별 면담을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충분한 설명 진행, 욕구 반영

Ⅲ. 프로그램 진행 및 평가

1. 세부 프로그램 진행 내용

프로그램	일정	횟수	세부 내용	수행 방법	
관계 강화 프로그램	첫 만남	4/21	1회	· 자기 소개 진행 : 별칭 정하기 · 모임 규칙 정하기 · 주제 토크 진행 : 주제 카드를 통한 이야기 나눔(나의 어렸을 적, 가장 외로웠던 날, 내 생애 가장 행복했던 기억, 고마운 사람, 나의 가족 등 이야기 나눔)	
	강점 인터뷰	4/21	1회	개별 인터뷰 가장 좋아하는 음식, 가장 잘하는 요리, 좋아하는 활동이나 놀이, 현재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가고 싶은 곳, 지금의 마음 상태,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듣고 싶은 말 등, 강점 관점으로 긍정적 질문을 통한 인터뷰 진행	
	밥상 나눔 "밥풀꽃"	5/4	2회	· 어렸을 적 먹었던 반찬으로 1인 1가지 반찬 도시락 싸오기 · 반찬 나누기 · 함께 먹을 밥상 차리기	· 1인 1가지씩 준비한 반찬을 접시에 담아 밥상 차리기 · 어렸을 적 먹었던 반찬을 함께 나눠 먹기 · 어린 시절 나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끌어내 함께 공감하고 나누기 · 저녁 식사를 위해 서로 남은 반찬 나누기
	주제 토크 "끝나지 않은 이야기"	6/28	2회	· 밥상 수다 진행 · 다양한 주제로 동질감을 기반으로 서로 공감하기	건강 관리, 즐겨보는 TV 프로그램, 나의 저녁 일상, 기억에 남는 장소, 적적할 때, 내 마음이 편할 때 등의 주제를 통해 어르신들의 속내를 끌어내어 서로 위로와 주고 나 혼자 아니라는 인식을 갖도록 유도함.
	할미 생신 파티	9/9	1회	· 참여자의 생일을 서로 직접 챙겨주고 축하하기	· 각자 손수 쓴 카드 메시지와 선물 준비 · 1인 1가지씩 준비한 음식으로 생일상을 차려 깜짝 생일 파티 진행
문화 교류 프로그램	할미 아메리카노	8/19	1회	· 바리스타 체험 · 라테 아트 체험	지역 사회(카페)와 연계, 일일 카페 바리스타 체험 진행
	"할미다방" 커피 나눔	11/4	1회	지역 주민 대상 커피 나눔	참여자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커피 나눔 진행
	할미콘 아이스크림 나눔	6/29	1회	복지관 내 아동 대상 아이스크림 나눔	복지관 내 어르신과 아동 세대 간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기 위한 나눔 활동 진행
	집 나간 할미 "서울 구경"	10/20	1회	주제 토크를 통해 참여자가 가고 싶은 곳 가기	· 서울 주요 장소 투어 · 통인시장 엽전 도시락 체험, 광장시장, 청계천 등
	송년 모임	12/5	1회	· 1년 동안의 활동 소감 · 2017년도 계획 나눔	· 저녁 식사를 함께하면서 1년 동안의 활동을 사진으로 돌아보며 소감을 나눔. · 2017년도 활동 방향과 계획 나눔.
	산타 할미	12/23	1회	경로 식당 이용자 100명, 재가 어르신 27명, 노인 주야간 보호센터 이용자 18명 대상 선물 나눔 진행	· 산타로 변장하여 성탄절 선물 나눔 진행 · 복지관 내 어르신 간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1년 동안의 마무리 인사를 함께 나눌 수 있게 함.

2. 과정 평가

프로그램	수행 시기	목표량	산출량	평가 결과	
관계 강화 프로그램	첫 만남 + 강점 인터뷰	4/21	1회	1회	· 처음 만난 참여자들은 익숙하지 않은 첫 모임에서 어색하거나 약간의 불편함을 보임. · 자기 소개를 하고 별칭과 모임의 규칙을 정하면서 의견을 나누기 시작함. - 모임에 빠지지 않기, 하루 전날 모임 시간을 짝꿍에게 알려주기, 물컵 챙겨오기, 별칭 부르기 등 참여자가 정한 규칙을 토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자신에 대해 편안하게 이야기함. - "할미다방" 모임 시작을 알리고, 참여자들이 활동에 대해 기대하게 됨.
	밥상 나눔 "밥풀꽃"	5/4	2회	2회	· 1인 1가지의 반찬 도시락을 챙겨서 함께 밥상을 차리고 식사를 진행함. - 과거 무료 경로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급히 마치고 돌아가거나, 파지를 줬거나 TV를 보는 게 전부였던 참여자들에게 밥상 모임은 하루 중 유일하게 함께 밥을 먹는 자리였음. 식사를 하면서 어제 있었던 일 이야기, 건강 이야기, 가족 이야기 등 사소한 일상을 함께 나누고 홀로 사는 어르신들 간의 공감대를 형성함. - 늘 점심 밥상을 받기만 했던 참여자들이 직접 해운 반찬과 밥으로 밥상을 차리고 나눠 먹으며 지난 사연과 어려움(7년, 고립, 이별 등)을 함께 이야기하며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함. - 밥을 먹기 위한 모임이 아닌, 밥상을 통해 그때 그 시절 먹었던 반찬을 회상하고 여럿이 마주보고 먹는 식사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마음 속 이야기를 꺼내고 말벗이 된 참여자들이 서로를 지지하게 됨.
	주제 토크 "끝나지 않은 이야기"	6/28	2회	2회	· 다양한 주제 카드를 놓고 참여자가 하나씩 카드를 뽑으며 이야기함.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에 대해 이야기하며 진정한 '행복'을 다시 인식하고 지금의 정서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었음. - 강점 관점 질문(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잘 지낼 수 있었던 것, 참여자들이 웃게 만드는 것들, 그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지 등)을 통해 참여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이야기를 끌어내어 긍정적인 심리를 형성하게 하고 정서적 도움을 줌. - 평소 이야기 상대가 없었던 참여자들은 주제 토크에서 말 못할 어려운 이야기도 꺼내며 서로 함께 슬퍼하고, 좋은 일에는 함께 박수치며 기뻐함. - 살아온 이야기뿐만 아니라 건강 관리, 생활 정보(지인이 병원에 동행할 때 일정을 맞춰서 같이 가기로 약속함, 아침 스트레칭 방법, 진료비 할인 정보 등)를 공유하며 도움을 주고받음.
	할미 생신 파티	9/9	1회	1회	· 사업 계획상의 프로그램은 아니었으나, 어르신들 사이에 관계가 형성되면서 생일을 챙기자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고 모임 활동의 일부로 진행하게 됨. - 평소 홀로 생일을 맞이했던 참여자들은 서로 생일 날짜를 공유하면서 생일 잔치를 하기로 정함. - 각자 생일상 차림을 위해 반찬과 다과를 챙기고 케이크, 선물, 음악, 편지 등 역할을 분담하여 생일을 쓸쓸히 보내지 않게 배려했. 참여자들이 다 같이 모여 생일을 축하하고 서로를 챙기는 과정에서 라포가 형성됨.

프로그램	수행 시기	목표량	산출량	평가 결과	
문화 교류 프로그램	할미 아메리카老	8/19	1회	1회	· 여성 독거 어르신들과 협력해 예술·문화적 활동을 제공할 유명 카페 레스토랑을 지역 사회 내에서 발굴, 여성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체험과 라테 아트 교육을 진행함. - 청년들이 1:1로 바리스타 교육과 라테 아트 등을 어르신들이 즐겁게 배울 수 있게 진행하였으며, 어르신들은 다소 생소했지만 너무 재미있었다며 직접 서빙과 일일 바리스타 체험을 함. - "내 평생 이런 곳은 처음이고, 즐겁고 행복하다" "이제 얼굴도 익혔으니 인사하고 지내고 싶다" 등 만족감을 드러냄. - 바리스타 체험 및 문화 활동에는 8명 참여함.
	"할미다방" 나눔 활동	11/4, 6/29	1회	2회	· 기초 생활 수급자 또는 독거 노인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서비스를 받기만 했던 참여자들이 직접 주체가 되어 주민들에게 즐거운 나눔 활동을 진행함. - 커피, 아이스크림, 핫도그 등 "할미다방" 모임에서 준비한 다과를 나누면서 주민들도 동네 어르신들과 가벼운 인사를 나누게 됨. - 나눔 활동을 통해 여성 독거 어르신들과 이웃의 거리를 좁히고, 이웃들이 어르신께 친근하게 다가갈 계기를 마련함 - 주민 총 280명을 대상으로 나눔 활동 2회 진행
	집 나간 할미 "서울 구경"	10/20	1회	1회	· 경제적 어려움과 정서적 단절로 외출 기회가 없는 독거 어르신께 그들이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함. - 평소 가보고 싶은 곳에 대한 주제 토크를 통해서 그들이 장소와 일정을 참여자들 스스로 계획함. - 흔한 서울 구경이었지만 참여자들에게는 일상에 즐거움을 주는 하루였음. 혹시나 길을 잃을까 서로를 챙기고, 단체 활동임을 인식하고 질서 있게 행동하는 참여자의 모습을 볼 수 있었음. - 그들이 활동 후 참여자들 간의 관계 증진과 정서적 지지가 강화됨. - 참여자들 모두 그들이 활동에 대해 가장 높은 만족감을 보였으며, "다음에는 어디로 갈까" 하며 활동을 지속하고 싶은 욕구를 보임.
	송년 모임	12/5	1회	1회	· 1년 동안의 모임 활동을 되돌아보고 그동안 찍은 사진을 보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다시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함. - 사진을 통해 당시를 돌아보며 행복했던 순간,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다시 해보고 싶은 활동 등 소감을 나눔. - 참여자들은 물질적 이득이나 눈에 보이는 지속적인 서비스보다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하며 하루하루 즐겁게 보내는 것을 의미 있게 여겼음. - 활동을 종료하고 다음 연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면서 참여자들의 변화와 만족감을 평가함(설문지, 사전·사후 척도). - 내년에도 모두가 모임 활동에 계속 참여하고 싶어 함. 모임 활동으로 마음이 편해지고 정서적 지지를 얻어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고 답변함.
산타 할미	12/23	1회	1회	· 성탄절을 맞이하여 복지관에서 함께 만나왔던 어르신 150명께 연말 인사와 선물 나눔을 진행함. - 산타로 변장한 "할미다방" 참여자들이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하자"는 인사와 선물 나눔을 함으로써, 상호 교류가 없던 독거 어르신들이 이웃 간의 정과 관계를 생각해보게 만들음. - 무료 급식을 받는 독거 노인이 아닌, 모두가 이웃이라는 공동체 인식을 전하려는 노력을 실천함.	

3. 효과 평가

1) 양적 평가

성과 목표 1.	성과 지표	측정 도구	평가 방법
지역 내 여성 독거 어르신 및 소외 계층 어르신의 심리적 고독감 및 사회적 박탈감 해소	정서적 및 사회적 고립 척도 사전·사후 검사	척도 검사지	· 프로그램 진행 1일차 사전 검사 · 프로그램 종료 후 사후 검사
	참여자의 심리·정서적 변화	만족도 설문지	매 회기 프로그램 진행시

평가 결과

· 정서적 및 사회적 고립 척도 사전·사후 검사
- 평균 54.7점에서 60.3점으로 향상됨(5.6점 향상).
- 사후 검사 시에는 사전 검사와 달리 척도 문항(#1. 내 삶 속에서 관계 맺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다 #2. 나는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이 편안하지 않다 #3. 나는 내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 할 공통 화제가 없다)에서 7명 모두 긍정적 답변을 함.
- 참여자들은 평균 연령 89.4세로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스스로 높이 평가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이며 참여자들과 관계를 다졌고, 주변 사람들과 프로그램에 대한 애착이 생긴 것을 발견함.
· 참여자의 심리·정서적 변화
- 식사와 대화를 중심으로 모임 활동을 진행하면서 살아온 이야기, 일상, 앞으로의 계획, 꿈, 겪는 어려움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음.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속내를 끌어내면서 참여자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점에 위안을 얻음.
- 혼자 있기 적적해 모임 활동을 시작했지만, 마음이 편해지고 항상 힘을 얻고 간다고 이야기함. 참여자 모두가 이에 공감하고 모임 활동하면서 친구도 생기고 다 이웃이 된 것 같아 좋다고 이야기함.

성과 목표 2.	성과 지표	측정 도구	평가 방법
여성 독거 어르신의 남은 노년 생활에 있어 안정적인 사회적 지지망 보호 체계 확대	노인의 생활 만족도 척도 사전·사후 검사	척도 검사지	· 프로그램 진행 1일차 사전 검사 · 프로그램 종료 후 사후 검사
	사회적 지지 척도 사전·사후 검사	만족도 설문지	매 회기 프로그램 진행시
	프로그램 만족도	· 인터뷰 질문지 · 설문지	

평가 결과

· 노인 생활 만족도 척도
- 사전 검사 22점에서 28점으로 5점 향상됨.
- 척도 문항(#1. 앞으로 내 주위에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 많이 생길 것 같다 #2. 나는 가치 있는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이다)에서 7명 모두가 "그렇다"라고 답함(사전 답변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함).
- 노인 생활 만족도 척도 검사 결과 참여자들은 현재 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했고 어르신들 간의 관계 형성으로 일상 생활의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보임.
· 사회적 지지 척도
- 사회적 지지 척도, 지지에 대한 자각 48.4점에서 51.4점으로 평균 3점 향상됨.
- 참여자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의 수는 평균 3명으로, 가까운 친인척이라고 답한 사람은 2명이었고, 그 외에는 종교인, 복지관 사회복지사, 방문 간호사, 동사무소 직원, 자녀, 경찰 등 전문 요원이 대부분이었음. "할미다방" 모임을 하면서 참여자들이 서로를 주변 자원으로 인식하고, 문제가 있을 때 이야기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됨.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지지에도 큰 도움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프로그램 만족도
- 월 1회 만남을 아쉬워하며 월 2회로 만남 횟수를 늘리고 싶은 욕구를 보임. 참여자들이 "할미다방" 모임으로 삶의 즐거움을 얻었으며, 상호 라포 형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음.
- 모임 날이면 참여자들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만나면 마냥 즐겁고 재미있다" "같이 밥 먹고 이야기 나누니 그것만으로도 힘이 된다"고 하며 모임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나눔.
- 참여자는 모두 기초 생활 수급자이며 독거 여성 어르신으로 복지관 내 경로 식당을 이용했음. 과거에는 참여자 간의 교류나 상호 작용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으나, 1년 동안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로는 서로를 챙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음.

2) 질적 평가

연구 질문 1.	평가 지표	측정 도구	평가 방법
“할미다방” 프로그램이 독거 여성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감 해소를 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내러티브 접근	사전·사후 검사	면접, 관찰

평가 결과

- 집단 면담과 관찰에서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것은 “같이”, “함께”, “어울려”, “고마움”, “편안함”, “대화”, “이야기”, “친구” 등이었음. 참여자들이 사회적 고립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고 정서적 지지를 얻는 데 “관계”가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음.
- 대화를 통해 사람과 관계를 맺고 대화로 풀어나가는 여성 고유의 특성을 독거 여성 어르신들 관계 안에서 발견할 수 있었음.
- “할미다방”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에게 관계를 맺어주는 중심점이자 소통의 매개 역할을 함.

연구 질문 2.	평가 지표	측정 도구	평가 방법
참여 어르신에게 본 프로그램은 어떤 의미로 작용하였는가?	내러티브 접근	사전·사후 검사	면접, 관찰

평가 결과

- 프로그램 참여 전에는 “할미다방”을 “홀로 사는 내가 위험하고 외로울까 봐 도와주는 곳”으로 인식함. 이후 참여자들은 “친구들이 있는 곳” “나의 이야기를 터놓고 말할 수 있는 곳”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 “걱정 없이 웃을 수 있는 곳”으로 각자가 “할미다방” 프로그램에 대해 달라진 느낌을 이야기함.
- 참여자의 잠재적 역량이나 강점 인식 정도에 대해서도 프로그램 후 차이가 있었음. 개인 내적 임파워먼트 척도 검사 시 사전은 평균 61점, 사후 65.4점으로 4.4점 향상됨.
- 참여자들이 홀로 지금까지 잘 지내올 수 있었던 내적인 힘을 발견하도록 돕고, 개개인의 강점을 발굴하여 라포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 “할미다방”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 지역 사회와 연계해 나눔 활동을 실천할 기회를 제공, 이웃과 만날 계기를 마련하고 독거 노인도 지역 사회의 구성원이자 이웃임을 알리는 기회가 됨.

IV. 사업 성과

1. 독거 어르신의 관계 형성 및 사회적 지지망 확장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협동하는 경험이 거의 없고 무료 경로 식당, 집, 종교 시설을 오가는 일상이 전부였던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들과 협력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경험하며 자연스럽게 지역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했다. 이제 복지관에서 서로 안부를 묻는 일을 시작으로 서로를 챙기고 다독이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야기를 들어줄 말벗도 생겼다. 참여자들의 일상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졌고 그것을 스스로 가치 있는 일로 인식하였다. 참여자들은 “할미다방” 모임을 거듭하면서 심리적 고독감과 사회적 고립감에서 벗어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고, 스스로 마음의 평안과 일상의 행복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2. 소외된 독거 어르신이 아닌,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이란 인식 확대

본오1동의 독거 어르신은 스스로를 나약하고 소외된 존재, 희망과는 거리가 먼 존재로 여겨 왔다. “할미다방” 프로그램에서는 부정적 자기 인식에 빠진 어르신의 내적 강점을 끌어내 스스로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웃과의 소통을 실천하는 구심점을 마련하였다. 참여자들은 직접 차린 밥상을 통해 자신감과 만족감을 얻었고, 또한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나눔 활동을 펼치면서 지역 사회 내 독거 어르신의 존재를 새롭게 인식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참여자들은 참여자 간의 관계 증진을 경험하고 사회적 지지망을 확보하면서 지역 사회 내에서 스스로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였고,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며 긍정적 변화를 경험하였다.

V. 향후 계획

2016년 “할미다방” 프로그램은 모임의 정체성을 참여자 안에서 드러내고, 모임에서 참여자가 받는 도움은 무엇이며, 왜 모임에 참여하는지 스스로 느끼고 알아가는 해였다. 활동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소통의 구심점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참여자들 사이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던 관계의 역동이 생겼으며 이로 인해 일상에도 변화가 생겼다. “할미다방” 프로그램은 독거 어르신도 지역 사회의 구성원이자 공경의 대상인 이웃 어르신임을 지역 사회 내에서 인식하게 하고, 주변 이웃들이 이분들을 한 번 더 돌아보고 살필 기반을 만들고자 했다.

2017년 활동은 여성 독거 어르신들이 올해 활동을 기반으로 지역 사회 안에서 이웃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어르신들이 이웃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통해 노후 생활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게끔 지원하고자 한다.

배우자와의 이별(사별, 이혼)로 홀로 사는 여성 노인의 New Life Style Plan Project

“Bravo My Life!”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 윤숙현

I. 프로그램 실시 배경

한국의 여성 노인들은 우리 사회를 지배해 온 성 차별 주의, 가족 중심 주의 등의 규범과 더불어 사회 문화적 편견을 강요받으며 살아왔다. 남성 배우자에게 의존적이었던 가부장 사회 내의 여성에게 배우자의 상실은 삶의 물질적, 정신적, 사회적 기반을 잃는 것과 다름없기에, 다른 세대와 달리 더 큰 충격과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신체적 노화 증세를 겪으며 각종 질병으로 나약해지는 이 시기에 배우자의 상실은 노년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우울감과 외로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사회 관계망 감소로 인한 사회적 고립은 삶의 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본 복지관에서는 독거 어르신 우울 증세 감소를 위한 지지 체계 구축 프로그램 등의 선행 경험을 바탕으로, 배우자와의 이별에 있어 충격이 큰 초기 노인(55~64세)의 우울 감소를 위한 Peer-Group 지지 체계를 구축하고 노인 발달 과업인 자아 통합을 도모함으로써 삶의 만족도 및 수용 능력 확대를 비롯한 능동적 노후 생활을 완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II. 프로그램 개요

1. 목적

초기 노인(55~64세) 중 배우자의 이별(사별·이혼)로 정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여성 독거 노인을 대상으로 Peer-Group의 지지 체계 구축과 New Life Style Plan(경제 활동·여가 활동·사회 참여·건강 증진)을 지원함으로써 자아 통합을 이룩하고, 능동적인 노후 생활을 완성하고자 한다.

2. 목표

목표 1. 종결 시 대상자 탈락률 0% 달성

목표 2. 참여자의 80% 한국형 노인 우울 검사 척도(KGDS) 4단계 중 1단계 향상

목표 3. 참여자의 80% 자아 통합감 향상(각 하위 척도 자아 존중감, 자아 효능감, 생활 만족도 5점 향상)

목표 4. 참여자의 80% 능동적 노후를 위한 자체 설문 만족

3. 프로그램 대상

대상자 구분	주된 참여자	배우자와의 이별(사별 및 이혼)을 경험하여 홀로 사는 여성 노인
	주변 참여자	없음
인원 수	총 18명(탈락자 7명)	

III. 프로그램 진행 및 평가

1. 세부 프로그램 진행 내용

프로그램	일정	횟수/인원	수행 방법
사업 홍보 및 대상자 모집	연중	19회/5명	· 사업 홍보 - 지역 교회 주보 복지관 소식란, 복지관 내 홍보 게시판, 홈페이지 및 SNS 등 이용자 모집 안내문 게재 - 홍보 전단 배포(신문 삽지, 동 주민센터 및 사회복지 시설 홍보 공문 발송, 복지관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 대면 안내 등) · 대상자 모집 -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 지역 주민 등 사업 홍보 - 프로그램 참여자 그룹 내 눈덩이 표집을 활용한 추가 모집
오리엔테이션	4, 9월	2회/6명	복지관 소개, 프로그램 취지 안내, 담당자 및 참여자 소개, 일정 및 프로그램 논의, 점심 식사 진행
참여자 상담	연중	67회/539명	· 프로그램 일정 안내, 개인 상담 등 - 주 1회 전화 및 문자 안내, 참여자 초기 상담(Intake), 1:1 포커스 인터뷰(프로그램 평가)
집단 상담	1집단 5~7월 2집단 10~11월	18회/66명	· ‘회상’을 주제로 2개 집단을 운영함. 1집단은 총 10회, 10명이 참여함. 2집단은 1집단 커리큘럼을 수정 보완해 총 8회, 4명이 참여함. · 커리큘럼(2집단 기준) - 1회기 : 자기 소개 및 명찰 만들기, 레크리에이션, 규칙 정하기 - 2회기 : 사진 속 추억과 현재 비교하기, 청년기 나의 꿈 소개 - 3회기 : 자녀 출생~출가 과정 이야기, 내게 기쁨을 주는 3요소 알기 - 4회기 : 연애·결혼 생활 이야기, 빈 의자 기쁨을 활용해 속마음 꺼내기 - 5회기 : 슬픔 해결 방법, 삶에 대한 감정 표현하기, 서로 칭찬하기 - 6회기 : 인생 정의, 그래프 그려 점수 매기기, 향후 하고 싶은 것 - 7회기 : 내가 가장 자랑스러웠을 때, 앞으로 내가 행복해지는 방법 - 8회기 : 좌우명 발표, 나에게 주는 상장 만들기 · 강사 : 고동량(당시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 부장), 1집단 1~5회기 강사 진행 이후 담당자 직접 진행

프로그램	일정	횟수/인원	수행 방법
N.L.S.P.	건강 증진	4~12월 18회/130명	· 건강에 대한 개념 인식과 신체 건강 발판 마련, 정신 건강 강화를 통한 사회적 고립 탈피를 위해 시행함. 5~6월 각 1회, 8월 이후 주 1회 실시 - 헬스장 체험 : 인바디 측정, 트레이너 1 : 1 상담, 노인 질환 예방 교육, 스트레칭, 근력 강화 운동(4월, 총 1회) - 생활 체조 : 유승희 서구청술대 생활 체조 강사 지도로 댄스 음악을 활용한 유산소 및 스트레칭(5~12월, 총 17회)
	여가 활동	4~12월 10회/68명	· 참여자가 많이 경험해보지 못했거나, 새로운 분야지만 향후 가정에서 취미로 해볼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해 진행 - 4월 : 영화 관람 - 5월 : 수성못 나들이(3호선 모노레일 및 오리배 체험) - 6월 : 네일 아트 - 7월 : 레크리에이션, 원석 팔찌 만들기, 비누 꽃다발 만들기(월 2회) - 8월 : 영화 관람 - 9월 : 화관 만들기 - 10월 : 도예 체험(접시, 화분 만들기), 팔공산 나들이(월 2회) - 12월 : 다도 체험
	사회 참여	4~12월 6회/39명	· 여가 활동의 연장선에서 재능 나눔 방식으로 물품 제작 및 나눔 활동 진행 - 4월 : 봄 요리(스프링 롤) 만들기(요양 보호 시설, 경로당에 나눔) - 5~6월 : 손수건 만들기(지역 주민에 나눔) - 7월 : 초코칩 · 녹차 쿠키 만들기(정신 장애인 사회 복지 시설에 나눔) - 9월 : 리본 공예(플리마켓 판매, 수익금 복지관 전달) - 11월 : 과일청 만들기(음식 바자회 판매, 수익금 복지관 전달)
	경제 교육	6~11월 4회/31명	· 노년기의 여유로운 재무 환경 조성을 위한 경제 교육 - 6월 : 성인 금융 상식 및 노년기 재무 관리(KRX한국거래소 협조) - 8월 : 보이스피싱, 금융 다단계, 보험 사기 예방(금융감독원 협조) - 9월 : 재무 관리, 연금 관리, 상속 관리(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협조) - 11월 : 기관 및 일자리 참여 방법 안내(대구중부시니어클럽 협조)
자조 모임	6~12월 10회/69명	· 사회적 관계망 강화, 독서를 통한 새로운 가치관 습득, 개인 정체성 재평가 위한 유언장 쓰기 등 다양한 활동 진행 - 6월 : 함누리 희망나눔 축제 참여, 벽화거리 방문 및 향후 프로그램 논의 - 8월 : 점심 식사 및 하반기 자조 모임 활성화 논의, "마법의 코칭" 독서 서평 나눔 - 9월 : 미소와 행복을 함께하는 한가위 축제 참여, 지진 대비 교육 - 11월 : 유언장 쓰기 - 12월 :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 음식 바자회 참여, "행복한 인생" 특강	
사이코드라마	10~11월 3회/18명	· 강사 이형진(대구대학교 겸임 교수) 지도로 사이코드라마 진행 - 1회 : 내 인생 되돌아보기(빈 의자 기법, 걸림돌 해결하기) - 2회 : 소원 풀이(마술 가게) - 3회 : 미래에 대한 희망(미래 역할 놀이)	
만족도 조사 (사전 검사 포함)	연중	8회/39명	· 사전 · 사후 조사 : 한국형 노인 우울 검사(KGDS), 자아 존중감, 자아 효능감, 생활 만족도 척도 활용 · 만족도 조사 : 1집단 집단 상담 및 프로그램 종강 시 자체 만족도 조사
증강식	12/14	1회/11명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 기금 전달(과일청 판매 금액), 만족도 조사, 동영상 감상, 수료식(상장 및 기념품 전달)

2. 과정 평가

프로그램	목표량	산출량	평가 결과
사업 홍보 및 대상자 모집	10회/-	19회/5명	· 애로사항 - 대상자 특성에 따른 모집 난항 예상 · 자문 - 참여자 수보다 프로그램 지향점에 초점 맞출 것 - 눈덩이 표집을 활용해 자연스럽게 참여 권유 - 가능한 모든 홍보 방법을 동원할 것 - 홍보 전단을 나눠 주면서 복지관 방문 및 개인 상담 유도 · 대처 - 대상자 모집 범위를 대구광역시 전체로 확장, 이혼·사별 외 기타 사항 인정, 참여 연령대 조정(55~65세 → 60대 전체) - 전단 제작 및 신문 삽지 활용 - 동 주민센터 · 사회복지 시설 직접 방문을 통한 홍보 - 참여자의 지인 소개 및 초청 적극 권유 · 성과 - 이용자 3명 모집하여 오리엔테이션 실시 - 이후 눈덩이 표집으로 신청서 기준 최종 18명 참여 - 사업 홍보의 경우 목표치를 훨씬 웃도는 190%를 실시함. - 대상자 모집 관련 초기 목표는 사별, 이혼 각 10명씩 모집이었으나 사별 8명, 이혼 8명, 기타 사유(무단 가출, 미혼) 2명으로 총 18명만 모집함. - 사업 홍보 및 대상자 모집 인원 수는 실적을 계획하지 않았으나 9월 이후 신규 참여자 5명이 실적에 포함되었기에 19회/5명으로 최종 마감. - 혼자서는 활동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참여자 인터뷰를 통해, 동반 참여가 새로운 활동을 유도하는 데 큰 동력이 됨을 확인함. 눈덩이 표집을 통한 참여자 발굴은 매우 효과적이었음.
오리엔테이션	1회/20명	2회/6명	· 성과 - 딱딱하고 형식적인 분위기 탈피 - 복지관 및 프로그램에 대한 호감 및 신뢰 증진을 위한 편안한 자리 마련 - 참여자 대부분이 "대접받는 기분이다"라고 표현하는 등 호감 상승 확인 - 목표 대비 건수 200% 달성, 참여 인원 수의 경우 초기 참여자 모집 부진으로 30% 달성 - 하반기 2집단 모집으로 오리엔테이션 1회 추가 진행, 계획 대비 초과 달성 - 초기 계획은 참여자를 사전에 모두 모집하여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는 것이었으나, 집중 홍보 시기에 단 3명의 참여자만 모집함으로써 참여자 수가 미달 산출됨.
참여자 상담 및 관리	20회/400명	67회/539명	· 애로사항 -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자의 열의 부족 - 복지관에 대한 물리적 · 심리적 거리감 - 라포 형성 어려움 · 대처 - 매주 다른 내용으로 프로그램 구성하여 흥미 유도 - 주 1회 전화 또는 문자를 활용한 프로그램 안내 및 안부 연락(라포 형성) · 성과 - 담당자와 참여자 간의 친밀감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애착 증진 및 출석률 향상 - 개인 상담을 통한 사회적 관계망 확인, 욕구 발견 · 계획 대비 실적 각 335%/134% 달성. 이는 프로그램 출석 요청 및 개인 상담(Intake 과정 및 포커스 인터뷰 포함), 복지관 행사 안내 등 프로그램 당일 외 참여자와의 상담, 관리 차원의 개입을 모두 포함한 수치임.

프로그램	목표량	산출량	평가 결과	
집단 상담	10회/ 200명	18회/ 6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로사항 - 담당자의 집단 경험 전무, 관찰자 역할 부재, 출석률 저조 · 대처 - 집단 상담 관련 교육에 담당자 참석, 1집단을 담당자 아닌 타 직원(부장)이 일부 운영하여 진행 - 담당자는 관찰자로 참여하며 역동 관찰 · 성과 - 참여자와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진행자가 투입되면서 보다 편안한 분위기 형성, 담당자의 관찰 및 보조로 흐름 보완, 사전 역동 관찰로 진행자 교체 후에도 담당자, 참여자 모두 부담이 없었음. - 동일한 사건을 경험한 참여자들의 공감대 형성, 새로운 사회적 지지 체계 형성 및 확장 - 사별, 이혼 2집단 상담을 각 10회 진행하려 하였으나 집단 상담 첫 회기 진행 시 참여자 수 미달(9명)로 통합 진행함. 하반기에는 신규 참여자의 지속적 발생으로 2집단을 새로 구성, 총 18회 집단 상담을 실시함으로써 목표의 180%를 초과 달성함. 	
N.L.S.P.	건강 증진	24회/ 480명	18회/ 13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 -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장년층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체조 활동으로 높은 만족도 도출 - 실제 가정에서 기상 후 체조 동작을 따라한 참여자 증가 · 아쉬운 점 - 프로그램 진행과 복지관 강당 일정이 겹쳐 부득이하게 프로그램실에서 진행함에 따라 참여자 수가 증가한 하반기에는 장소가 비좁았음. · 주 1회 주제별 건강 관리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자 했으나 진행 초반 참여자의 흥미 증진을 위해 N.L.S.P. 프로그램을 순환하여 4, 5월 격월 진행해 목표 대비 75% 달성함. · 참여 인원 중 관절염 등으로 활발한 신체 활동이 어려운 참여자들이 건강 증진 프로그램 시간이 지나 출석하거나, 다양한 사유로 결석하면서 27%의 성과 도출
	여가 활동	8회/ 160명	10회/ 68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 - 단순 활동이라 해도 미경험 주제를 활용해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참여자에게 성취감 및 정서적 만족감, 즐거움 제공 - 노래를 주제로 2달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자 했으나 프로그램을 변형하여 기본 월 1회 실시, 목표 대비 125% 달성 - 정원 미달 및 높은 결석률 등으로 계획 대비 42%의 참여자 수 도출
	사회 참여	9회/ 180명	6회/ 39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 - 봉사를 여가 활동의 연장선으로 접근해, 봉사가 부담스럽거나 어렵지 않다는 인식 고취 - 제작품 판매를 통한 수익금 전액 캠페인 기부금 전달, 개인 성취감 증진 · 아쉬운 점 - 참여율이 낮을 경우 나눔처에 적합한 수량을 맞추기 위해 당일 참여자의 부담 증가 - 재능 나눔 방식이라 대상자와 소통하며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직접 경험 전무 · 초기 사회 참여 프로그램의 경우 단순 봉사 활동뿐만 아니라 경제 활동을 목표로 하는 사회 교육까지 계획했으나, 참여자의 즐거움에 초점을 두고 여가 활동의 연장선이 됨에 따라 프로그램이 변형되었음. 따라서 목표 대비 66%/21% 계획 달성
	경제 교육	6회/ 120명	4회/ 3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참여자들의 구직 욕구 파악, 실질적 도움이 되고자 노인 일자리 창출 현장인 시니어 클럽 기관 방문

프로그램	목표량	산출량	평가 결과	
N.L.S.P.	경제 교육	6회/ 120명	4회/ 3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 - 참여자와 비슷한 연령대 강사로 노후 준비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참여자가 가장 원하는 욕구에 직접 개입 · 계획과 유사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나 출석률 저조로 66%/25% 성과 도출
	자조 모임	7회/ 140명	10회/ 69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로사항 - 복지관 행사와 프로그램 진행 중복 - 작은 글씨로 인해 독서에 대한 부담 표출 · 대처 - 행사 참여 방식의 자조 모임으로 프로그램 전환 - 함께 읽기 부담 없는 분량을 큰 글씨로 타이핑해 독서 진행 · 성과 - 참여자들이 직접 즐길 거리를 찾아 자유롭게 여가 시간으로 활용 -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과 동참하여 복지관 홍보 효과 특수 - 가족과의 소통 창구로써 자조 모임 프로그램 내용(유언장) 활용 · 서평 나누기, 중식 지원 등 비교적 다양하게 자조 모임을 진행하여 계획 대비 초과 실시했으나 출석률 저조(142%/49%)
	사이코드라마	-	3회/18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로사항 - 1~3회기 모두 참여자 변동으로 연속성 저하, 같은 아파트에 사는 참여자 때문에 자유로운 표현 어려움 · 성과 - 1집단에서 라포가 형성되지 않아 이야기할 수 없었던 부분을 자유롭게 표현 - 2집단 참여자에 대한 심도 있는 접근 - 도구 및 게임을 활용한 자연스러운 롤플레이팅 진행 · 계획에 없던 부분이었으나, 자문 교수 및 기관 내 슈퍼비전을 통해 집단 상담의 부족한 면을 보완하고자 시행, 당시 프로그램 출석률이 60~80%에 이르렀으나, 10월 나들이 시즌과 맞물려 참여자의 개인 일정이 잦았던 탓에 오후 프로그램 결석률이 높았음.
	만족도 조사 (사전 검사 포함)	2회/40명	8회/39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로사항 - 사전 조사 시 오류 발견(양면 출력한 조사지를 단면으로 생각해 뒷면 미응답) - 글을 읽기 어렵거나 난해한 단어가 있어 설문 조사를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 · 대처 - 모든 설문 조사지는 단면 출력 - 글자 크기 확대 - 글 읽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참여자는 직원이 1:1 도움 -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의 문제점 보완 위한 포커스 인터뷰 진행 · 성과 - 사전·사후 조사만 생각하고 계획하였으나 실제 사전 조사의 경우 신규 참여자의 발생으로 인해 여러 차례 실시함. - 설문 조사 또한 사전·사후, 1집단 집단 상담 만족도, 종강 시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등 총 4가지를 진행해 목표 초과 및 유사 달성(400%/97%)
	사업 평가회	1회/50명	1회/1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 - 참여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보여준 모습을 담은 상장을 제작하고 수여해 행복감과 자아 존중감 고취 - 기념품으로 개인별 4단 액자를 제작해 수여함으로써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감 증진 · 아쉬운 점 - 프로그램 중 참여자들이 이룬 성과물을 전시해 1년을 돌아보고 지인을 초대해 함께 나누고자 하였으나 여건이 적합지 않아 무산됨. · 외부 손님 미초청으로 계획 대비 성과 미달성(100%/22%)

3. 효과 평가

1) 양적 평가

성과 목표 1.	성과 지표	자료원 및 자료 수집 방법
종결 시 대상자 탈락률 0% 달성	출석률	· 출석부 · 운영 일지

평가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성 참여를 포함, 본 프로그램의 참여 인원은 모두 20명이었음. 그러나 실제 이용 신청자는 18명에 그쳤으며, 이중 7명이 개인 사정으로 중도 포기 및 불참해 약 38%의 탈락률을 보임(사유 : 구직 활동 1명, 4회 연속 불참으로 인한 탈락 6명). · 참가 중인 이용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프로그램을 계획했으나, 예상과 달리 참여자 대부분이 활발한 경제 및 사회 활동 중이었음. 이러한 변수는 높은 탈락률의 사유가 되었음. · 높은 탈락률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는 프로그램 출석에 대한 참여자들의 의지가 매우 강했음.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도 잠시 복지관에 들러 건강 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가거나, 출석 전날 서로 연락해 같이 가자고 권하기도 함. 또한 제 시간에 오지 않는 참여자에게 전화해 빨리 오라고 독촉하고, 빠지면 안 된다며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자고 서로 다독이는 모습에서 지속적으로 참여해 온 참여자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애착을 알 수 있었음. · 당초 목표와 달리 프로그램 참여자의 탈락률은 높았으나,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자의 강한 애착은 출석률과 참여 의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음. 			

성과 목표 2.	성과 지표	자료원 및 자료 수집 방법
참여자의 80% 한국형 노인 우울 검사(KGDS) 척도 4단계 중 1단계 향상	우울 척도 점수	· 참여자 · 척도 검사지

평가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사후 검사에서 한국형 노인 우울 검사(KGDS)를 실시하였으며 검사 결과 내 오류(일괄 체크, 일부 문항 미응답 등)가 있는 참여자는 결과 도출에서 제외함. 또한 9월 이후 신규 참여자의 경우 사전·사후 검사의 변화 수치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 검사 미실시. · KGDS 척도는 1~13점, 14~18점(우울 의심 및 경도 우울), 19~21점(중도 우울), 23~30점(심한 우울)까지 4단계로 구분함. · 사전 검사 결과 탈락자를 포함하여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응답한 참여자는 9명으로 나타났으며 사후 검사의 전체 문항 응답자는 11명이었음. 그러나 중간 탈락자, 신규 참여자를 제외하고 사전·사후 검사에 모두 올바르게 응답한 참여자는 4명에 그쳤음. 전체 참여자 집단에서 사전 검사 최고점인 19점을 기록한 참여자가 중도 탈락함으로써 프로그램 효과를 극명하게 확인하거나 일반화를 도출하는 것이 어려워짐. · 참여자 4명의 사전·사후 KGDS 점수는 아래 표와 같음. 			

〈KGDS 사전·사후 검사 점수 평균값〉			
	사전 점수 평균	사후 점수 평균	비고
전체 참여자 18명*	7.20**	7.18	▼0.02
사전·사후 전체 응답자 4명	6.75	8.75	▲2.0

* 전체 참여자 : 사전 검사 응답 9명, 사후 검사 응답 11명(중복 4명)

** 중간 보고서에서 사전 점수 평균을 15점 내외로 표기하였으나 역점수 환산에서 오류가 있어 다시 점수 환산하였으며, 이로 인한 결과 변동 있음.

· 전체 참여자 집단 기준 점수 비교 시, 4명을 제외한 각 사전 검사 응답자 5명과 사후 검사 응답자 7명은 다른 집단임. 사전 조사 대상을 통제 변수로, 프로그램 자체를 독립 변수로 볼 때 사후 검사 점수가 미미하게나마 감소한 것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이 우울감 완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실제 프로그램 효과성을 검토할 수 있는 대상인 사전·사후 전체 응답자 4명(A, B, C, D)의 점수를 보면 정반대의 결과가 도출되었음. A와 B 참여자는 사전 검사와 비교해 사후 검사에서 각각 5, 8점이 상승했고, C와 D 참여자는 각각 1, 4점이 하락함.

평가 결과

· 본 참여자들은 모두 1집단 참여자들임. A 참여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B 참여자는 고부 갈등 및 자녀의 가족 해체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는 등 집단 상담 등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며 타 참여자로부터 느낀 상대적 박탈감이 오히려 점수의 변동을 가지고 왔다고 볼 수 있음.

· 즉, 목표와 달리 참여자 대부분의 정확한 사전 검사 자료 미확보와 더불어 점수 변화의 폭이 1단계 내에서 미세하게 나타났기에 성과는 미달성함.

성과 목표 3.	성과 지표	자료원 및 자료 수집 방법
참여자의 80% 자아 통합감 향상 (각 하위 척도 자아 존중감, 자아 효능감, 생활 만족도 5점 향상)	자아 통합감 점수	· 참여자 · 척도 검사지

평가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아 존중감, 자아 효능감, 생활 만족도를 통합한 내용으로 사전·사후 척도 검사를 실시함. · KGDS와 동일하게 검사 결과 내 오류(일괄 체크, 일부 문항 미응답 등)가 있는 참여자는 결과 도출에서 제외함. · 9월 이후 신규 참여자는 사전 검사 미실시. · 사전 검사 응답자 9명, 사후 검사 응답자 11명. 사전·사후 전체 응답자는 4명임. · KGDS에서 각각 5점과 8점 상승하면서 우울감이 증가했다고 보이는 참여자들은 자아 통합감도 13점, 12점씩 하락하였음. · KGDS 점수가 하락한 참여자들은 자아 통합감도 동일하게 감소했음. 이 중에서도 생활 만족도가 동일하게 큰 폭으로 감소함. 이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문제가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음. · 자아 통합감이 무려 19점 상승한 D 참여자는 적극적으로 타 참여자의 출석을 독려하고 스스로도 복지관에 오는 것에 만족감을 드러내며 많은 애착을 보인 사례였음. · 각 척도를 5점씩 향상하지 못하였고 참여자 80%의 조사 결과를 얻지 못해 목표는 달성 실패했으나 참여자간 응집력에 있어서 참여자 개인의 마음가짐이 자아 통합감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KGDS 척도 및 자아 통합감의 반비례 관계를 알 수 있었음. 			

성과 목표 4.	성과 지표	자료원 및 자료 수집 방법
참여자의 80% 능동적 노후를 위한 자체 설문 만족	만족 비율	· 참여자 · 만족도 조사 설문지

평가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의 80%가 '능동적 노후를 위해 진행된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하는 결과를 얻고자 했음. ·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는 종강식 출석자 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함. 참여자 전원 응답, 100% 회수 · 프로그램 만족도와 관련해 참여자 11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매우 만족" 36%(4명), "만족" 45%(5명)로 총 81%가 만족했으며 2명(18%)은 무응답. 만족 사유(주관식)를 보면 "같은 입장인 사람들을 만나서 반갑고 여가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음" "그냥 좋음" "운동 배운 것을 집에서 해 봄" 등이 있었음. 개인적 만족감은 물론, 새로운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통한 지지 체계 형성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냄. 			

2) 질적 평가

최초 사업 계획 당시 질적 평가를 염두에 두었으나 진행하면서 따로 실시하지 않았음. 결과 평가를 앞두고 프로그램의 최종 목적에 대해 참여자 개인의 달성 여부를 심도 있게 파악하고자, 당시 실현 가능한 현상학적 연구 방법으로 새로운 질문을 구성해 포커스 인터뷰를 진행함.

연구 질문 1.	패러다임	자료 수집 방법	자료원	자료 수집 시기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를 맺은 참여자들은 나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었는가?	내러티브 접근	포커스 인터뷰	참여자 6명	12월, 결과 평가

평가 결과

- 본 질문은 사회적 지지 체계 구축에 대한 평가 지표로, 참여자들이 프로그램에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 어떤 도움을 얼마나 받았는지 파악할 수 있었음.
- 인터뷰 응답 내용
 - C : "꼭 나를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보다 서로가 걱정해주는 게, 저 사람도 나를 아니까 나한테 '뭐 아픈 건 좀 어떨노? 야야 어떤데, 어떻게 지냈어?' 이렇게 물어봐주는 게 도움이 되지. 사람이 살아가면서 나이 먹을수록 친구가 많아야 되고 전화 한 번 했을 때 내한테 급히 달려올 친구가 있으면 인생 잘 살았다 하잖아. 그러니까 도움이 됐지."
 - D : "마음의 도움이 되지. '그래, 아파서 어쩌노, 혼자 있으면 서럽다. 밥이라도 챙겨 먹어라. 병원에 꼭 가라' 그런 얘기해주면 내가 위안이 되지."
 - A : "그 사람 한 번 몸으로 인해서 이롭고, 서로 빛지고도 나를 반가이 맞아주고 또 친구들이 그렇잖아. 보고 본 척 만 척 이려면 재미없잖아. 싱글빙글 나를 한 번 쳐다봐주고 웃어주고 손 잡아주고 그게 얼마나 좋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를 한 번 더 웃게 해 주잖아. 친구가 나보고 웃는데 내가 안 웃을 일이 없지. 그 사람이 내 밥그릇 뺏어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안 웃을 일이 없고 좋은 점이 많지."
 -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해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정서적으로 큰 도움이 되며 위로를 받았다는 일관된 응답을 함.
 - 그 외의 응답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같이 놀러 다니고 사람을 만나면서 속에 있는 답답함이 풀렸다" "울 데가 있다는 것 자체가 도움 된다"가 있었음.
 - 이러한 인터뷰 결과로 미루어 보아 참여자들은 "Bravo My Life!"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비슷한 상황을 겪은 참여자들로부터 공감대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지 체계까지 형성할 수 있었음. 이러한 공감대 및 지지 체계가 비록 물질적인 도움은 아니지만 심리적, 정서적으로 많은 위안을 얻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연구 질문 2.	패러다임	자료 수집 방법	자료원	자료 수집 시기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금과 다른 방법으로 살 것인가?	현상학적 연구	포커스 인터뷰	참여자 6명	12월, 결과 평가

평가 결과

- 두 번째 연구 질문은 참여자의 자아 통합 정도를 살펴보기 위한 질문임. 자아 통합이란 '과거의 행동, 심리 등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 후회나 미련이 없는 상태'로 정의함.
- 참여자에게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4시간 후에 죽는다면 무엇을 하고 싶었는가?"라는 선행 질문으로 죽음에 대한 인식을 파악한 다음 특정 행위를 하겠다고 응답하는 경우 "그것은 그 행동, 또는 생각을 이전에 하지 못했던 미련이 있기 때문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참여자의 대답을 듣고 본 질문을 제시하였음.
- 본 질문의 경우 "본인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나이로 다시 돌아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기회를 받아들이겠는가? 받아들이다면 지금껏 살아온 것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살 것인가?"라는 의미이며, 참여자가 이전에 이루지 못했던 것과 그에 대한 미련을 파악하고자 함.
- 응답자 6명 중 3명은 새로운 인생을 살지 않을 것, 3명은 새로운 인생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응답하였음.
-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참여자의 경우, 2명은 지금이 가장 행복하기에 후회도 미련도 없다고 하였으나 다른 1명은 지금과 달리 좀 더 활발하고 사교적으로 살고 싶다고 응답함. 그러나 어려운 일을 너무 많이 겪었기에 굳이 그 연령대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응답하였음.

평가 결과
· 반면,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고 한 3명의 참여자의 경우, 2명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 사랑하며 살고 싶다고 응답하였고 1명은 자녀와의 이별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응답하였음.
· 이 응답과 더불어 참여자들과 '죽음'에 관하여 이야기했을 때 대부분이 죽기 싫다거나 죽음을 두려워하는 반응보다는, 이미 죽음을 통한 이별을 사전에 경험했거나, 또는 죽음에 가까워지기 시작하는 나이에 접어들어 따라 죽음을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음. 이를 종합해 결론을 내보면 개인에 따라 60여 년간 살아온 삶의 방식은 다양하고 가치관에 따라 우선시하는 가치도 모두 다양하게 나타남. 때문에 자아 통합의 경우에도 가치관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인다고 할 수 있음.

연구 질문 3.	패러다임	자료 수집 방법	자료원	자료 수집 시기
적극적인 삶을 살기 위해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내러티브 접근	포커스 인터뷰	참여자 6명	12월, 결과 평가

평가 결과

- 능동적 노후 생활을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가치를 위해 활동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참여자에게 "가치 있는 인생은 무엇인가? 나만의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60~80세가 되어서도 중요한 것인가?"라는 사전 질문을 한 후 "그렇다면 나만의 가치 있는 삶, 적극적인 삶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질의함.
- 인터뷰 응답 내용에서 공통 범주는 봉사(헌신)와 가족으로 나타남.
- F :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남을 즐겁게 하는 게 좋고 또 먹는 것도 같이 나눠 먹는 게 좋고 나보다 남을 더 배려하는 그게 가치 있는 삶이다. 나는 지금 70~80%밖에 적극적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 내가 축소되는 게 남편도 없고 또 아들 장가도 못 보냈고 경제적인 것도 조금 그렇고. 그 세 가지가 안 돼. 100% 적극적인 사람들은 경제적인 거 신경 안 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나는 아직까지 내 경제가 모자란다."
- A : "가치 있는 인생은 남에게 민폐는 주지 말고 그냥 누구한테 양심을 속이지 말고 어디에서든 떳떳한 사람이 되고, 남이 너를 봤을 때 뒷꼭지 대고 손짓하는 그런 짓은 하지 마라. 잘 살고 못 사는 건 너무 연연하지 마라. 사람이 먹을 만큼 있으면 되지 또 너무 가진 것도 없고 내가 힘도 안 되는데 너무 욕심내서 할라 카면 힘들어서 인생 재미없다.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런 삶을 이루어야 되는지,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정말로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다면 나는 돈으로 어디다 불우이웃도 하고 봉사 자주 다니고 이런 건 못해. 못하지만 내가 길 가는 할머니 집 보따리를 집어줄 수는 있고 이웃집에 밥 못 먹는 할머니, 아이들이 있다면 할머니 반찬을 갖다 줄 수도 있고 그 정도지."
- D : "가치 있는 인생을 위해서는 사람의 도리를 하면서 살아야지. 친구들 밥도 자주 사 줘야 되고."
- 각자의 가치관인 양심, 도리 등과 더불어 베푸는 것에 초점을 둔 분이 계신 한편, 가족 내의 역할에 초점을 둔 참여자도 있었음.
- C : "나는 내 인생을 잘 살았다고 생각해.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새끼들에 최선을 다했고 남부럽지 않게, 손가락질 안 받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 가치 있게 살았다고 생각해. 가치 있는 인생은, 여기서 뭘 하든 더 나아지진 않잖아. 몸이고 마음이고 정신이고 더 좋아지진 않잖아. 하루하루 갈수록 지금 이 생활에서 그냥 최선을 가지고 살지. 더 나은 삶을 살겠다는 거, 더 가치 있게 해 보겠다는 거, 그건 몸부림이지. 함부로 행동할 수는 없는 거 같아. 나이가 먹을수록 한 해 한 해 갈수록 몸도 마음도 더 못해지지. 나아지지는 않으니까 뭘 더 가치 있게 하겠어. 하지만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 같아요. 지금 내 일을 놓고 싶은 맘은 없어. 내 힘이 있을 때까지는 힘에 안 부치고 몸이 따라준다면 일은 손에서 안 놓고 싶어. 지금 내 힘에 맞게, 몸에 맞게 하면 나머지 그냥 내 인생에 맞게 하는 거지. 얼마 전에 내가 다쳤던 것처럼 되면 적극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식한테 민폐가 되는 거지. 몸과 마음이 따르면 그건 안 하는 것보다 못 하는 거 아닌가."
- B : "내 기준에서 잘 살았다는 인생은 생활에 실패 안 하고 가정 율타리 안의 생활이지. 나는 내 애들하고 잘 살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엄마 자리에서 중심을 잡아가지고 밀고 나간 게 성공했다고 생각해. 여기서 변화가 필요하다면 좀 더 화끈하게 살고 싶어. 내가 근검절약하면서 살았으니까 앞으로는 내가 자식한테 해주고 싶으면 화끈하게 사줄 수 있고, 어디라도 가 가지고 맨날 얻어먹지만 말고 밥도 내가 한 번씩 살 수 있고 당당하게 놀러 가자 하고, 하다못해 기름 값이라도 애들한테 주는 그런 엄마가 되고 싶어."
- 그 외의 반응으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잘 하고 착하고 정직하게 살면서 스스로 뭘 할 것인가, 비어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계속 고민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응답이 있었음.
- 포커스 인터뷰에 응한 참여자 모두가 가치 있는 삶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였고, 다들 그런 삶을 위해 물질적 또는 정신적 행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즉, 참여자 전원이 가치 있는 삶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능동적인 노후 생활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를 파악할 수 있었음.

IV. 사업 성과

1. 복지관 신규 이용자 발굴 및 중장년 세대의 새로운 욕구 확인

본 복지관에서 실시한 2014 이용자 욕구 조사 분석 결과 장애인 및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이 실시되고 있으나 흔히 '끼인 세대'라고 표현되는 중·장년을 위한 사업은 전무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삼성복지재단의 지원을 받아 은퇴 및 노후를 맞이한 세대 중에서도 특별히 이별을 경험한 여성을 대상으로 Peer-Group 지지 체계 및 자아 통합 증진, 능동적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신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덕분에 대구 전역에서 복지관 신규 이용자를 모집할 수 있었고, 본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예상하지 못했던 해당 세대의 다양한 생활 모습과 욕구를 파악할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2016년 한 해 동안 본 프로그램 외에도 50~60대 여성을 위한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등 새로운 성과를 도출하였다.

2. 능동적 삶을 위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

본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참여자 간의 라포 형성 및 지지 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소그룹 활동이 활발해졌다. 개중에는 유희를 즐기는 그룹도 있었으나 사회 활동을 즐기는 그룹도 있었다. 특히 참여자 간 동반 봉사를 통한 사회 참여로 능동적 삶을 함께 누리기도 하였다. 예컨대 봉사 단체에서 매월 무료 급식, 교통 정리 봉사 등에 활발하게 참여하던 1집단 참여자가, 활동 의지는 있으나 방법을 몰라 애태우던 2집단 신규 참여자를 봉사 활동에 인도한 경우도 있었다. 이렇듯 서로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관계망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때 참여자들은 더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봉사 활동 경험이 전무한 참여자에게 새로운 활동의 초석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3. 다양한 경험을 통한 여가 시간 활용 및 향후 일상 생활 증진

본 프로그램에서는 참여자들이 경험해본 적 없는 활동을 다양하게 실시하면서 참여자들의 일상 생활 및 여가 증진에 노력을 기하였다. 여가 활동의 경우 1회성 활동이 주를 이루었으나 복지관에서의 경험을 가정 내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때문에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을 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도 취미, 여가 활동에 활용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다. 더불어 건강 증진 프로그램도 집에서 손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도구와 기구 없이 간단한 동작으로 구성된 체조 활동을 주로 실시하여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집에서 쉽게 할 수 있어 좋았다"는 긍정적 의견을 보였다. 현재 프로그램은 종료되었으나 복지관에서 진행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되새기며 일상 생활에 도입·활용한다면 새로운 취미, 여가 활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향후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우울감 감소 및 생활 만족도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V. 향후 계획

참여자들은 종강식에서 이구동성으로 "이런 모임이 또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흠어지기에는 너무 아깝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만났으면 좋겠다"는 등의 아쉬움을 표하였다. 참여자들 스스로 정기적인 봉사 활동이나 자조 모임을 해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복지관에서도 참여자들이 향후 자조 모임을 통해 서로간의 지지 체계를 확장하고 능동적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게 프로그램실을 사랑방처럼 자유롭게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다음 연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참여자들과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을 때, 프로그램이 계속 이어졌으면 하고 회비를 내서라도 다시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이를 감안하여 내년에는 참여자 자조 모임 및 사회 활동의 일환으로 월 1회 정기 봉사 활동을 계획하여, 이를 활용한 새로운 목적의 프로그램을 구성하고자 한다.

지역 사회 아동과 어르신 예술 나눔 활동가 간의 세대 통합 프로젝트

답골미술관 “이상(理想)한 실험실의 상상 II”



서울노인복지센터 김찬호

I. 프로그램 실시 배경

서울노인복지센터 답골미술관은 “아동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미술을 매개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세대 통합의 장이다.” ‘답골미술관 운영 규정 - 설립 취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답골미술관은 세대 통합의 장으로 기능하고자 마련된 상징적인 공간이다.

본 프로그램은 답골미술관 공간에서 지역 사회 아동과 어르신이 문화 예술 활동을 매개로 세대 간 소통과 교류의 폭을 넓히고, 노인 전문 자원봉사 영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지난 2015년에 이어 연속 사업으로 수행한 답골미술관의 “이상(理想)한 실험실”은 지역 사회 아동과 어르신 자원봉사자가 함께 답골미술관의 전시를 관람하고, 전시와 관련된 문화 예술 활동을 체험함으로써 1·3세대 간 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고자 하였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세대 간 단절은 세대 갈등으로 이어지며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세대 간 갈등의 원인이 되는 여러 사회 문제나 세대 간 인식 차이가 커질 경우, 다른 세대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이어져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세대 통합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또한 오늘날 노인 계층은 사회 참여에 대한 욕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성공적인 노년을 보내기 위한 방법으로 사회 참여 활동을 지속하고자 한다. 그 중 자원봉사는 중요한 사회 참여 활동으로 분류되며, 다양한 자원봉사 영역에의 참여 욕구 역시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답골미술관의 “이상(理想)한 실험실”은 아동과 노인에게 새로운 문화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세대 간 교류를 확대하고, 아동에 대한 노인의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상호 작용을 증가시켜 궁극적으로 세대 통합의 가치에 가까워지는 의미 있는 실험이 될 것이다.

II. 프로그램 개요

1. 목적

지역 사회 아동 협의체와의 연계 및 어르신 예술 나눔 활동단의 주체적 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미술관의 문화 예술 활동을 매개로 노인 전문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여 1·3세대 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간다.

2. 목표 및 하위 목표

목표 1. 지역 사회 아동 협의체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 사회 네트워크를 활성화한다.

하위 목표 1. 지역 사회 아동 협의체 2개 기관과 협약을 실시한다.

하위 목표 2. 지역 사회 아동 협의체 산하 아동 기관 2개 기관과 연계한다.

하위 목표 3. 협약 기관 간 정기 간담회를 연 2회 실시한다.

하위 목표 4. 전문가 자문 회의를 연 2회 실시한다.

목표 2. 예술 나눔 활동단의 주체적 활동 역량과 자조 모임을 강화한다.

하위 목표 1. 어르신 예술 나눔 활동가를 20명 이상 조직한다.

하위 목표 2. 예술 나눔 활동가 자조 모임을 격주 1회 실시한다.

하위 목표 3. 소양 교육 및 활동 역량 강화 교육을 월 1회 실시한다.

하위 목표 4. 예술 나눔 활동단 정기 간담회를 연 4회 실시한다.

목표 3. 세대 통합 실천 활동을 통해 세대 간 인식(태도) 변화를 이끌어낸다.

하위 목표 1. “찾아오는 미술관” 프로그램을 기관별 7회(총 14회) 실시한다.

하위 목표 2. “찾아가는 공작 교실” 프로그램을 기관별 3회(총 6회) 실시한다.

하위 목표 3. 세대 통합 실천 활동 결과를 담은 전시를 연 1회 실시한다.

3. 프로그램 대상

대상 구분	산출 근거	목표 인원 수	참여 인원 수
주된 참여자	서울시에 거주하며 미술·공예에 관심이 있고,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기를 희망하는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 (예술 나눔 활동가)	20명	25명
주변 참여자	서울노인복지센터 인근 지역의 육아 종합 지원 센터 및 지역 아동 센터 협의회 산하 아동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	80명	115명

III. 프로그램 진행 및 평가

1. 세부 프로그램 진행 내용

프로그램	일정	횟수	산출량	수행 방법
지역 아동 기관 협의체 협약	3~4월	3회	3개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 공문, 기관 방문을 통한 모집·홍보 - 기관과 인접한 종로구, 서대문구, 중구, 성북구 내 육아 종합 지원 센터, 지역 아동 센터 협의회 대상 - 2015년 "이상한 실험실" 성과와 사업 취지 소개, 사업 일정, 협약 내용 안내 · 지역 사회 아동 기관 협의체 협약 체결 - 성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3/15) - 서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3/23) - 종로구지역아동센터협의회(4/12)
협의체 산하 아동 기관 연계	3~5월	5회	5개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을 체결한 아동 기관 협의체를 통해 "이상한 실험실" 참여 아동 기관 모집·홍보 · 아동 기관 협의체 산하 아동 기관 연계 -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산하 낙산어린이집, 창일어린이집 연계(3월) - 성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산하 우리어린이집 연계(4월) - 서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 산하 집랜드어린이집 연계(5월) - 종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산하 청암지역아동센터 연계(5월)
지역 사회 연계 강화 협약 기관 정기 간담회	5. 12월	2회	1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상한 실험실" 협약 기관 정기 간담회 실시 - 5/26, 12/6(총 2회, 10명 참여) - 프로그램 성과 공유 및 평가, 협력 사항 점검, 향후 진행 일정 안내 등 - 내용 : 사업 수행 간 협의체 역할과 협력 방안 모색, 기관 대상 세대 통합 실천 활동 결과 보고 및 성과 공유, 아동과 예술 나눔 활동가의 소통 방안 제안(조별 활동, 별명 짓기 등), 아동의 사회성과 협동심 향상을 위한 공동 작품 기획 제안 등
전문가 자문단	3~11월	9회	1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자문단 위촉 - 3/16, 10/18(총 2회, 6명) - 자문 위원 : 전시 해설·체험(패션 & 텍스타일 디렉터), 아동 보육(낙산어린이집 원장), 사회복지(연세대학교 교수) · 전문가 자문단 통합 자문 회의 - 내용 : 이상하고 새로운 실험 주제 설정의 필요성 (지역 아동 센터로의 활동 기반 확대, 아동의 연령층 다양화), 다양한 통합 방법 모색(세대 통합, 계층 통합), 활동에 대한 의미 부여 및 설명(리사이클 등), 본 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위한 평가 시간 정례화 · 매달 전시 해설 및 체험 자문 실시 - 3~11월(총 7회, 7명) - 전시 관련 문화 예술 활동 기획 및 프로그램 내실화 도모

프로그램	일정	횟수	산출량	수행 방법	
예술 나눔 활동단	2월	1회	2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게시물, 기관지, SNS를 통한 참여자(예술 나눔 활동가) 모집 및 홍보 · "이상한 실험실" 사업 설명회 실시 - 2/12(총 1회, 24명) - 2015년 "이상한 실험실" 성과와 사업 취지 소개, 사업 수행 일정, 예술 나눔 활동가의 역할 안내 등 · 예술 나눔 활동가 총 26명 선발 - 선정 기준 : 2015년 예술 나눔 활동가 참여 어르신, 미술·공예 등 문화 예술 활동이나 아동 대상 활동에 관심 있는 어르신 - 예술 나눔 활동가 최종 25명 활동 	
예술 나눔 활동단의 주체적 활동 역량 및 자조 모임 강화	자조 모임	2~11월	20회	348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 나눔 활동가 자조 모임 - 2~11월(총 20회, 348명) - 세대 통합 실천 활동 팀별 기획 및 준비, 활동 평가, 그룹 스터디 등 - 격주 1회 진행, 1회 평균 예술 나눔 활동가 17.4명 참여 - 팀별로 세대 통합 실천 활동을 기획, 준비함으로써 예술 나눔 활동가의 주체적 활동 역량 강화 - 자조 모임 종료 후 예술 나눔 활동가 실천 노트에 활동 내용, 소감 및 평가 등 기록 - 활동과 관련해 담당자와 수시로 소통. · 예술 나눔 활동가 미술 체험 - 6/17(총 1회, 23명) - 예술 나눔 활동가 그룹 스터디의 일환으로, 실크스크린 기법을 활용한 실크 스카프 만들기를 체험함. - 참여자가 원하는 주제와 체험으로 만족도가 높았음. · 예술 나눔 활동가 문화 체험 - 7/1(총 1회, 16명) - 경기도지박물관 전시 관람, 곤지암 화담숲 산책길 걷기 등 - 문화 체험 장소 선정에서부터 체험 프로그램 내용, 사전 답사까지의 전 과정을 예술 나눔 활동가가 주체적으로 기획하여 진행함.
활동 역량 강화 교육	소양 교육	8월	1회	17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11(총 1회, 17명) - 아동에 대한 이해와 의사 소통 교육 - 세대 통합 실천 활동 관련 사전 질문지를 자체 제작하는 등 교육 기대감이 높았음.
	활동 교육	3~10월	10회	18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10월(총 10회, 186명) - 월별 세대 통합 실천 활동을 위한 사전 활동 역량 강화 교육 - 전시 해설 및 체험 프로그램 사전 실습
예술 나눔 활동가 정기 간담회	5. 11월	2회	39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27, 11/18(총 2회, 39명) · 주요 의제 - 예술 나눔 활동 건의, 애로사항 수렴 - 예술 나눔 활동 평가 - 미술 체험·문화 체험 내용 논의 - 향후 활동 방안 논의 	

프로그램	일정	횟수	산출량	수행 방법	
세대 통합 실천 활동	찾아오는 미술관	3~11월	32회	657명	· 아동 눈높이에 맞는 전시 해설과 전시 내용에 맞는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함. · 어린이집 아동이 탐골미술관에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 · 총 32회, 어린이집 아동 657명 참여 · 월별 프로그램 - 3월 : "어르신과 디자이너의 콜라보"전 관람, 짚으로 태피스트리 만들기 체험 - 4월 : 나눔의 등 축제 "달아 달아 마음 달아" 관람, 한지 열기구 등 만들기 체험 - 5월 : 하지권 사진전 "절집, 두 번째 이야기" 관람, 오색 단청 엮서 그리기 체험 - 6월 : "삶의 예술 - The Fashion, 내 삶의 한 자락"전 관람, 염색 종이로 나만의 티셔츠 꾸미기 체험 - 7월 : "꽃신, 아름다운 발걸음"전 관람, 친구와 함께 꽃 모양 과자 빙수 만들기 - 8월 : 여주장복 수채화반 전시 "여름, 그리고 꿈" 관람, 점묘법을 이용한 경험화 그리기 체험 - 9월 : 신인 작가 지원 사업 단체전 "도약의 단초2" 관람, 재활용품을 활용한 악기 만들기 체험 - 10월 : "이상한 실험실" 세대 통합 전시 관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주는 그림 엮서 그리기 체험
	찾아가는 공작 교실	5~11월	6회	64명	· 예술 나눔 활동가가 지역 아동 센터로 방문해 진행 · 총 6회, 지역 아동 센터 아동 64명 참여 · 월별 프로그램 - 5월 : 오색 단청 엮서 그리기 - 6월 : 염색 종이로 나만의 티셔츠 꾸미기 - 7월 : 친구와 함께 꽃 모양 과자 빙수 만들기 - 8월 : 점묘법을 이용한 경험화 그리기 - 9월 : 재활용품을 활용한 악기 만들기 - 10월 : "이상한 실험실" 세대 통합 전시 관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주는 그림 엮서 그리기
	결과 발표 전시	10월	1회	1,318명	· 이상한 실험실 세대 통합 전시 : "탐골미술관에 간 어른이와 어린이" - 10/5~21, 탐골미술관에서 진행 - 세대 통합 실천 활동 내용을 담은 결과 발표 전시 진행

2. 평가

1) 양적 평가

성과 목표 1.	성과 지표	자료원	자료 수집 방법	자료 수집 시기
지역 사회 연계 강화	지역 사회 네트워크 연계 활성화 정도	담당자	네트워크 성과 척도 설문 조사	· 사전·사후 검사 - 사전 검사(2월) - 사후 검사(12월)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	협약 기관 담당자	만족도 설문 조사 (자체 제작)	프로그램 실시 후

성과 목표 1.	성과 지표	자료원	자료 수집 방법	자료 수집 시기
예술 나눔 활동단의 주체적 활동 역량 및 자조 모임 강화	자기 효능감 향상	예술 나눔 활동가	자기 효능감 척도 설문 조사	· 사전·사후 검사 - 사전 검사(2월) - 사후 검사(12월)
	활동 역량 강화		노인 역량 강화 척도 설문 조사	
	교육 만족도		한국판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설문 조사	프로그램 실시 후
	자조 모임 만족도			
실천 활동을 통한 세대 간 인식(태도) 변화	아동에 대한 태도 변화	예술 나눔 활동가	아동에 대한 태도 척도 설문 조사	· 실험 설계에 의한 사전·사후 검사 - 사전 검사(2월) - 사후 검사(12월)
	세대 통합 프로그램 만족도	예술 나눔 활동가	만족도 설문 조사(자체 제작)	프로그램 실시 후

평가 결과

·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 설문 조사는 올해 연계한 5개 기관에서 실시했고,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과 세대 통합 실천 활동 내용으로 구분해 자료를 수집함.

-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 측면에서는 프로그램 참여 신청 방법, 담당 사회복지사의 프로그램 준비 정도, 프로그램이 1·3세대 교류에 적합했는지 여부에 대한 설문 결과, 전체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67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음.

- 세대 통합 실천 활동 내용 측면에서는 3~10월 사이 총 8회 진행한 전시 해설과 체험 프로그램이 1·3세대 교류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 조사하였음. 세대 통합 실천 활동의 전체 만족도는 5점 만점에 전시 해설이 평균 4.59점, 체험 프로그램이 평균 4.72점으로 나타났다. 전시 해설은 "어르신과 디자이너의 콜라보"전(3월), 체험 프로그램은 염색 종이로 나만의 티셔츠 꾸미기(6월), 친구와 함께 꽃 모양 과자 빙수 만들기(7월), 재활용품을 활용한 악기 만들기(9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주는 그림 엮서 그리기(10월) 활동에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음을 알 수 있음.

- 본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1·3세대 교류에 도움이 되었는지 묻는 질문에는 5개 기관 모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 질문 역시 5개 기관 모두 "참여하겠다"에 응답하였음. 이를 통해 프로그램에 대해 전체적으로 만족하였으며, 지속적인 참여 의사 역시 확인할 수 있었음.

- 예술 나눔 활동단의 주체적인 활동 역량 및 자조 모임 강화, 실천 활동을 통한 세대 간 인식(태도) 변화에 대한 성과 목표 측정을 위해 실험 설계에 의한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였음. 그 효과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 분석, 독립 표본 t-test, 대응 표본 t-test, 반복 측정 다변량 분산 분석을 활용하였음.

- 연구 대상자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 집단(예술 나눔 활동가)과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통제 집단(일반 어르신)이며, 인원은 각각 20명으로 구성하였음.

- 자기 효능감과 노인 역량 강화, 아동에 대한 태도 변화 중 자기 효능감과 아동에 대한 태도 변화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됨. 본 연구에서 주의한 일련의 종속 변수 중 자기 효능감과 아동에 대한 태도 변화의 경우,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사전 점수에 있어서 동질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음. 이는 프로그램 참여자를 선정할 때, 지속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고자 2015년 예술 나눔 활동가로 활동한 적이 있는 어르신과, 미술·공예에 관심이 있으며 자원봉사 활동을 희망하는 어르신을 임의로 선발하였기 때문임. 이 과정에서 기관에서 실시 중인 다른 문화 프로그램이나 사회 활동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 어려웠고, 그로 인한 동질성을 확보하지 못함. 따라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사전 점수 이질성 등을 감안하여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사전 점수와 사후 점수를 비교하기 위해 반복 측정 다변량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음.

- 사전·사후 2차례에 걸쳐 반복 측정된 자기 효능감, 노인 역량 강화, 아동에 대한 태도 변화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Pillai의 트레이스=0.970, F=431.432, p(0.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사전·사후 검사와 실험·통제 집단의 상호 작용 경우에도 유의미한 차이(Pillai의 트레이스=0.754, F=42.653, p(0.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로써 연구 대상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기 효능감, 역량, 아동에 대한 태도가 시간에 따라 변화했음을 알 수 있음.

2) 질적 평가

연구 질문 1.	패러다임	자료원	자료 수집 방법	자료 수집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아동 기관 협의회와의 연계가 세대 통합 프로그램 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협약 절차를 통한 연계성 강화 역할 구분을 통한 협조 체계 구축 정기 간담회를 통한 문제점 및 개선점 파악 사업에 대한 공동 평가 	귀납법적 연구	협약 기관 담당자	심층 면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2월) · 사후(12월)

평가 결과

· 기관과 인접한 종로구·서대문구·중구·성북구 육아 종합 지원 센터와 지역 아동 센터 협의회를 대상으로 사업을 적극 홍보한 결과, 총 3개 기관(종로구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 성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과 협약을 체결, 지역 사회 네트워크를 마련하였음.

- 사업 초기에는 지역 사회 아동 기관 협의체 산하 아동 기관을 연계하는 내용 외에 아동 기관 협의체의 실질적 역할이 없었음. 이에 협약 기관 정기 간담회에서 협력 사항을 점검하고 조정하였음.

- 협약 기관 정기 간담회를 통해 협약 기관과 프로그램의 세대 통합 실천 활동 성과를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아동과 예술 나눔 활동가가 긴밀하게 소통할 방안들을 모색하였음. 그 결과 조별 활동, 별명 짓기, 공동 작품 기획 등의 내용을 프로그램에 적용하는 등 협약 기관과의 연계성 강화에 힘썼음.

- 사업 마무리 시점(11월)에는 본 사업에 대한 공동 평가를 위해 담당자가 각 협약 기관에 방문하여 설문 조사를 비롯해 사업의 수행 방법, 문제점 및 개선 사항 등을 논의하였음.

연구 질문 2.	패러다임	자료원	자료 수집 방법	자료 수집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 나눔 활동가의 주체적인 자조 모임 참여가 노인의 사회 참여(동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자조 모임 참여의 적극성 자조 모임 내 역동 자조 모임 활동이 세대 통합 프로그램(지속) 참여에 미친 영향 	내러티브 접근	예술 나눔 활동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관찰 · 심층 면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2월) · 사후(12월)

평가 결과

· 사업 초기에는 예술 나눔 활동가들이 자조 모임을 격주 1회로 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거나 의구심을 드러낸 경우가 많았음. 그러나 자율적 모임 활동에는 대부분이 동의했고 참여율이 높았음.

· 자조 모임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각 어린이집, 지역 아동 센터별로 활동 팀을 구성하였고, 각 팀장 주도 하에 보다 많은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팀별 논의와 발표 시간을 많이 가졌음.

· 자조 모임은 점차 '기획-평가'의 내용으로 진행되었음. 자조 모임 내 역동은 주도적인 일부 예술 나눔 활동가에게서 시작됐지만,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분위기와 팀워크 등은 함께 만들어 나가려는 연대 의식을 바탕으로 한 것임.

·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 예술 나눔 활동가들이 원하는 주제와 체험 내용으로 문화 체험과 미술 체험이 진행되었고, 활동가 스스로도 주체적 활동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음.

· 또한, 각 팀별로 아동과 함께하는 세대 통합 실천 활동 진행 일정이 달랐기 때문에, 자조 모임에서는 다른 팀이 원활한 활동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서로 돕거나 활동을 보완하기도 하였음.

· 자조 모임을 마친 후에는 예술 나눔 활동가가 활동 중 느낀 소감을 비롯해 필요 내용 등을 실험 노트에 쓰게 하였음. 다음 노트 내용을 보면 자조 모임, 아이들과의 세대 통합 실천 활동 등을 통해 예술 나눔 활동가 스스로가 많은 변화를 경험했고, 필요 역량도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A(예술 나눔 활동가) : 아이들과 한바탕 놓고 나면 순수하고 맑은 여운이 퍼지는데, 그 사이 잠시 동심에 젖어보기도 한다. "아동과 노인의 세대 교감, 즉 소통이 중요하니 무엇을 하면 잘 통할까?" 우리가 계속 연구하고, 또 실천한 덕분에 나의 성장과 더불어 이제 탐골미술관은 '교류의 장'이자 서울노인복지센터의 '꽃'이 되었다.

- B(예술 나눔 활동가) :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을 만날 때 조금씩 자신감이 붙었고, 앞으로의 노년 생활을 계획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었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활동에서 오히려 내가 성장한 것 같아 신기하고 놀랍다.

연구 질문 3.	패러다임	자료원	자료 수집 방법	자료 수집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대 통합 프로그램 참여 대상 상호간에 인식 및 태도 변화는 어떠한가? - 노인에 대한 아동의 인식 변화 - 아동에 대한 노인의 인식 변화 - 프로그램 참여 전후 다른 세대에 대한 태도 변화 	내러티브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 나눔 활동가 · 아동 · 담당자 	심층 면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2월) · 사후(12월)

평가 결과

· 사업 초기에 참여 아동은 전시나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많았음. 그러나 점차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존재를 인식하면서 아동이 먼저 예술 나눔 활동가에게 말을 걸어오거나 다음 만남에 대한 기대감 등을 표현하였음. 특히 티셔츠, 악기 등 완구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대화의 양이나 친밀감이 늘었으며, 같이 활동하며 즐거웠던 경험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아이들이 많았음.

· 사업 초기에 아동은 활동 중 어려움이 있으면 주로 인솔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어르신 예술 나눔 활동가가 그 역할을 대신하였음. 이로써 아동과 활동가 상호 간에 긍정적인 관계 형성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확인할 수 있음.

· 10월에 열린 마지막 세대 통합 실천 활동 중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주는 그림 엽서 그리기"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아동들이 그림 엽서에 지난 1년간의 활동에 대한 고마움과 애정을 전하자, 많은 어르신 예술 나눔 활동가들이 성취와 보람을 느꼈음.

· 어르신 예술 나눔 활동가 중에는 처음에 그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된다고 생각했다가, 세대 통합 실천 활동을 거듭하며 아동에 대한 공부를 더욱 많이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분이 많았음. 어린이집 원장님과 의 소양 교육 시간에 많은 질문을 하며 궁금증을 해소하는 모습에서 아동에 대한 애정과 관심, 적극적인 노력을 엿볼 수 있었음.

· 어린이집 인솔 교사 역시 "처음에는 어르신을 '사회적 약자이며, 도움을 드려야 하는 존재'인 수동적인 존재로 보았으나, 예술 나눔 활동가의 전문성과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 등을 보며 사회의 어른으로 느끼고, 존경심을 갖게 되었다"고 말하였음.

· 탐골미술관 "이상한 실험실" 세대 통합 전시를 본 한 관람객은 "노인복지관에서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할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놀라운데, 전시를 통해 다른 세대와도 그 성과를 공유하는 모습이 보기 좋고, 진정한 세대 통합의 의미를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말하였음.

IV. 사업 성과 및 제언

1. 어르신 예술 나눔 활동가의 주체적 역량 강화

본 프로그램은 미술·공예 활동과 지역 사회 내 사회 참여 활동에 관심이 있으며,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을 주된 참여자로 설정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 프로그램 참여자의 절반 이상이 "보람 있는 여가 생활을 보내기 위해서"(55%)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프로그램 참여자가 사회 참여 활동을 보람 있는 여가 생활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 결과, 사업 초기 선발된 어르신 예술 나눔 활동가 26명 중 25명이 꾸준히 활동하며 자조 모임을 지속했고, 전년도에 이어 연속 참여한 어르신 예술 나눔 활동가들의 프로그램 수행 경험 역시 전반적인 역량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반복 측정 다변량 분산 분석을 통해,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기 효능감, 노인 역량 강화, 아동에 대한 태도가 변화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자조 모임이나 세대 통합 실천 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이 주체적으로 활동하고, 성공적인 경험을 해본 영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2. 지역 사회 네트워크 연계 강화와 협력 체계 구축

올해는 작년 사업 평가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아동의 욕구와 정보 파악이 용이한 지역 사회 아동 기관 협의체와의 연계 강화를 사업 중점 목표로 추진하였다. 그 결과, 총 3개 지역(중로구, 서대문구, 성북구)의 아동 기관 협의체와 협약을 체결해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지역 사회 네트워크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보다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협약 기관 정기 간담회를 연 2회 실시하여 본 프로그램의 성과를 공유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지역 사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청암지역아동센터에 신규 프로그램이 연계되는 등 부수적인 성과가 있었으며, 향후에도 지역 사회 아동 기관 협의체를 통한 욕구 조사 실시, 사업 참여 기관 확대 등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3. 지역 사회 내 노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

흔히 노인은 피곤하고, 아프며, 느리고, 새로운 것들을 잘 배우지 못하며, 어떠한 활동에 잘 참여하지 않고 고립되어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식된다(이윤경, 2007). 그러나 본 프로그램의 결과를 통해 노인 또한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활동적이며, 새로운 것들을 배워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었다. 이 자체만으로도 본 프로그램은 노인의 성공적인 노화에 충분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지역 사회 아동에게 어르신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단순히 ‘할아버지, 할머니’로서가 아니라, 미술관에서 그림을 읽어주고 재미있는 체험을 함께하는 존재로서의 새로운 노인상도 제시하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사회에서 각자의 재능과 전문성을 살려 이를 지속적으로 지역 사회에 나누고 기여할 수 있는 ‘생산적이고 역동적인 존재’로 노인을 인식하게 하고, 지역 사회 내 아동을 함께 돌보는 선배 시민의 모습도 엿볼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현재뿐만 아니라 향후 미래의 노인들에게 지역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V. 향후 계획

전년에 비해 한층 역량이 강화된 예술 나눔 활동가와의 성공적인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프로그램을 지속해나갈 것이다. 다만 월별 전시에 따라 세대 통합 실천 활동을 기획하다보니 준비 시간이 촉박하고 내실 있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만큼 지난 2년간 축적된 프로그램 노하우를 바탕으로 연간 커리큘럼을 확정하고자 한다. 기본적인 커리큘럼은 그대로 가져가되, 격월 혹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실험하는 등 프로그램 내실화를 꾀하고자 한다.

또한 “찾아가는 공작 교실”을 확대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전시 주제와 내용에 큰 구애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르신 예술 나눔 활동가가 지역 사회로 적극적으로 들어간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어린이집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인 지역 아동 센터에서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았고, 어르신 예술 나눔 활동가의 성취감 역시 높게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아동 센터 협의체와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많은 지역 아동 센터와 “찾아가는 공작 교실”을 진행하며 세대 통합의 가치를 확산하고자 한다.

옥상 텃밭 강사 양성을 통한 노인 역량 강화와 아동의 먹거리 소중함 인식을 함께한 1·3세대 소통 프로그램

“느끼고 나누고 소통하고”



신평사랑채노인복지관 김민경

I. 프로그램 실시 배경

노인들은 점차 노년기로 접어들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신체·생리적 기능의 퇴화, 사회적·심리적 변화로 인해 자기 유지 기능과 사회적 역할 기능이 약화되어 가는 어려움을 겪는다. 하지만 오늘날의 노인들은 과거와 달리 신체적·정신적으로 보다 건강한 노년을 맞이하며 사회 활동에 대한 욕구도 증가하고 있다. 현대 사회의 노인 문제에서는 경제적·의료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고립, 소외감 등 역할 상실에서 오는 심리적 문제도 점점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 참여는 타인과의 교류로 대인 관계를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노인들이 쉽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3세대와의 통합 프로그램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되어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세대 간의 소통과 상호 이해 능력인 세대 공감 능력의 함양을 통해 다양한 세대가 서로 협력하고 공동체 의식을 공유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요즘, 노인이 연륜을 바탕으로 아동에게 자신의 지식을 전할 수 있는 공간이 텃밭이라고 생각되어 1·3세대 텃밭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II. 프로그램 개요

1. 목적

옥상 텃밭 동아리 회원을 대상으로 옥상 텃밭 강사를 양성하여 옥상 텃밭 운영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아동은 건강한 먹거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연을 이해하여 1·3세대 통합의 기회를 갖는다.

2. 목표

목표 1. 옥상 텃밭 강사 양성 과정을 수료해 개인 역량을 강화한다.

목표 2. 참여 아동이 자연과 교류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소중함을 인식한다.

목표 3. 텃밭이라는 매개체로 1·3세대가 공감과 소통으로 교류한다.

3. 프로그램 대상

대상 구분	산출 근거	인원 수
주된 참여자	텃밭 가꾸기에 관심이 있고, 옥상 텃밭 강사 양성 과정에 참여한 노인	10명
주변 참여자	1·3세대 텃밭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아	50명

III. 프로그램 진행 및 평가

1. 세부 프로그램 진행 내용

프로그램	일정	횟수	세부 내용	수행 방법
사업 설명회	1월	1회	· 옥상 텃밭 강사 양성 프로그램 안내 · 1·3세대 텃밭 프로그램 안내	· 관내 및 구보 홍보 · 홈페이지 홍보 · 어린이집 공문 발송
옥상 텃밭 강사 양성 교육	2~5월	20회	옥상 텃밭 강사 교육 및 프로그램 구성 안내 (직무·소양·보수 교육)	전문 강사를 활용한 교육
실습 실시	4월	1회	실제 활동 시 어려움 해소를 위한 활동 전 실습	어린이집 아동 대상으로 실습 실시
강사 수료식	5월	1회	참여자에게 소속감,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수료식 실시	수료증 및 강사증 전달
1·3세대 텃밭 프로그램	6~11월	30회	아동 대상으로 절기에 적합한 식물 및 채소 파종, 수확하기	복지관 텃밭 내 활동 실시
간담회	5, 10월	4회	· 활동에 따른 건의 사항 안내 · 어린이집 교사 대상 간담회	전문 강사가 참여하는 간담회 실시로 활동 어려움 해소

2. 과정 평가

프로그램	목표량	산출량	평가 결과
사업 설명회	1회/20명	1회/15명	· 어르신 및 어린이집 교사 대상 설명회 실시(1회) ·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및 활동 방향 설정
옥상 텃밭 강사 양성 교육	20회/200명	20회/140명	· 회기별 커리큘럼에 따라 교육 진행 · 실습, 소양 교육, 보수 교육, 직무 교육 실시
실습 실시	2회/20명	1회/15명	· 실습을 통해 참여자의 자신감 향상 · 복지관에 대한 신뢰도 향상

프로그램	목표량	산출량	평가 결과
강사 수료식	1회/10명	1회/7명	· 강사로서의 책임감 부여 · 강사 직함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참여자가 있었음.
1·3세대 텃밭 프로그램	50회/500명	30회/324명	· 아동을 대상으로 한 텃밭 활동으로 세대 교류 기회 제공 · 배움과 나눔을 실천할 계기가 됨. · 채소를 활용한 요리 실시로 아동 편식 예방
지역 사회 나눔	3회/15명	1회/7명	· 지역 주민과 채소 및 과일 나눔 실시 · 가족과 수확물 나눔 실시
간담회	4회/40명	4회/32명	· 활동에 따른 건의 사항 안내 · 어린이집 교사 간담회

3. 효과 평가

성과 목표 1.	성과 지표	자료원	자료 수집 방법
옥상 텃밭 강사 양성 과정을 수료해 개인 역량을 강화한다.	역량 강화 정도	옥상 텃밭 강사 활동자(7명)	· 개인 내적 임파워먼트 척도(사전·사후 조사) · 텃밭 활동 일지
평가 결과			

· 개인 내적 임파워먼트 척도 분석
- 총 10개 문항으로 사전·사후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프로그램 참여자 7명 중 71%(5명)가 프로그램 참여 전보다 새로운 일에 대한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낀다고 응답하였음.
- 사전 조사에서는 “나는 어떤 일을 했을 때 내가 잘 했는지 자신감이 없다”는 문항에서 7명 중 6명이 “대체로 그렇다”로 답했으나, 사후 조사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또는 “별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음.
- 텃밭 활동 일지에서는 “새로운 것을 알아가면서 기쁨을 느낀다”는 소감과, “아동과의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법이 고만”이라는 의견이 많았음.

성과 목표 2.	성과 지표	자료원	자료 수집 방법
참여 아동이 자연과 교류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소중함을 인식한다.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인식과 식생활 변화 정도	1·3세대 프로그램 참여 아동	스티커 조사(사전·사후)
평가 결과			

· 아동 대상 스티커 조사 실시
- 아동 눈높이에 적합한 스티커 조사를 실시, 프로그램 참여 아동의 의견을 수렴했음.
- 작물 수확 시 해당 작물의 편식 여부를 조사했는데, 자신이 직접 키우고 수확한 작물은 앞으로 먹을 수 있다고 응답하였음.
- 산만한 아동들이 있었으나 요리 교실, 작물 수확 등의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음.

성과 목표 3.	성과 지표	자료원	자료 수집 방법
텃밭을 매개로 1·3세대가 공감과 소통으로 교류한다.	· 텃밭 프로그램 진행 횟수 · 공감 및 소통을 통한 교류 정도 · 1·3세대 유대감 향상 정도	· 참여 노인 · 어린이집 교사 · 참여 아동	인터뷰 스티커 조사

평가 결과
· 참여 노인 인터뷰 : “배운 걸 아이들하고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이 많이 됐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할머니’ 하면서 잘 따라줘서 무사히 마무리까지 했지”라고 밝히면서, 프로그램 참여 전에는 자신이 없고 3세대를 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프로그램 참여로 3세대와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었음. · 어린이집 교사 인터뷰 : “아이들이 복지관에 오는 걸 좋아해요. 주1회 외부 활동이 있긴 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채소도 수확하고 물도 주면서 많이 친해진 것 같고, 가정에서도 텃밭 활동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채소를 잘 안 먹던 아이들도 식단에 수확한 채소가 올라오면 채소 이름을 이야기하며 잘 먹는 것 같아요.” - 참여 노인들은 배운 것을 활용하고 아동들과 소통하는 법을 알게 되고, 아동들은 텃밭 활동에 대한 흥미와 텃밭 강사(참여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었음을 인터뷰로 확인함.

IV. 사업 성과

1. 노인 사회 참여 확대 및 프로그램 확대

기존 복지관의 프로그램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에만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본 복지관의 텃밭 프로그램은 노인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알게 되고 이에 대해 정보를 습득할 계기를 제공하였다. 또한 노인들은 텃밭 가꾸기를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아동들에게 가르치며 사회 참여 기회를 갖고 자신감 또한 높아졌다. 이로써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텃밭 프로그램은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했던 텃밭 동아리를 발전시켜, 텃밭 강사 활동에 이르기까지 프로그램이 양적·질적으로 확장한 사례였다.

2. 세대 간 교류 및 소통 기회 확대

본 기관은 노인복지관이기에 노인 대상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며 세대 간 화합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현대 사회는 핵가족화로 인해 세대 간에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세대 간 교류와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텃밭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로써 세대 간 이해도를 높이고 텃밭을 매개로 한 상호 작용을 통해 1·3세대가 서로의 특성을 이해할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 내 노인복지관이 노인만 이용하는 곳이 아님을 널리 알렸으며, 모든 세대가 함께 소통하고 교류하는 장(場)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V. 향후 계획

설치한 텃밭을 활용한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1·3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유지하되, 노인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동년배 텃밭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동년배 간 배움을 확장하고 나아가 1·3세대 프로그램도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6년에는 텃밭 작물을 나누는 활동이 미비했으나, 2017년에는 텃밭에서 수확한 작물을 지역 사회 주민과 나누는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증 노인성 질환 환자 주 간병자의 소진 예방을 위한 지지 체계 형성 및 간병 스트레스 완화, 삶의 활력 증진 프로그램

“스트레스 Down, 에너지 Up! 비타민!!”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 우일심

I. 프로그램 실시 배경

우리 사회는 다양한 노인 문제에 미처 대비하지 못한 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중증 노인성 질환 환자가 늘고 있는데, 이들은 완치가 어렵고 질환 특성상 장기적인 지원과 간병이 필요하다. 하지만 사회적 지원이 부족해 이에 대한 부담을 환자를 간병하는 가족이 도맡는 상황이다. 혼자 환자를 도맡아 간병하는 주 간병자는 큰 심리적·정서적 부담을 느끼며, 이는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쳐 가정 불화, 우울증으로 인한 간병 살인 등 또 다른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의 심각성은 이슈화된 바 있으나 해결 방안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했다. 이에 본 복지관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실질적으로 접근한 경험적 근거를 바탕으로, 사각지대에 처한 대상자에게 공공 기관보다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민간 기관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느끼는 문제나 감정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하도록 그룹별 자조 모임을 형성하고, 개별 심리 검사 및 사례 관리를 연계하며, 간병에 필요한 교육과 심리적·정서적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 간병자의 간병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삶의 활력 증진을 도와 소진되는 것을 예방하고 가정 내에서 가족 간병을 지속할 수 있게 돕고자 한다.

II. 프로그램 개요

1. 목적

가정 내에서 중증 노인성 질환 환자를 주 간병하는 배우자 및 자녀(자녀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그룹을 나눠 자조 모임을 운영하여 지지 체계를 형성하고, 장기간 간병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완화하며 삶의 활력을 증진하도록 하여 소진을 예방하고 가족 간병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

2. 목표 및 하위 목표

목표 1. 참여자 간 공감대 형성을 위한 배우자 및 자녀(자녀의 배우자)로 집단을 나눈 자조 모임을 구성하여 지지 체계를 형성한다.

하위 목표 1. 지역 내 중증 노인성 질환 가족을 간병하는 배우자 및 자녀(자녀의 배우자)를 모집한다.

하위 목표 2. 배우자 그룹과 자녀(자녀의 배우자) 그룹으로 2개의 자조 모임을 구성한다.

하위 목표 3. 자조 모임 내 참여자간 심리적·정서적 지지 체계가 형성되도록 한다.

목표 2. 참여자들의 장기간 중증 노인성 질환 환자 가족 간병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완화한다.

하위 목표 1. 참여자 개별 상담으로 심리 상태를 파악하여 심화 상담, 경제적 지원 등 통합 사례 관리를 제공한다.

하위 목표 2.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간병 스트레스를 줄이도록 한다.

하위 목표 3. 웰다잉 교육을 통해 가족의 죽음에 대해 인정하고 불안감을 완화한다.

목표 3. 장기간 가족 간병을 유지 지속할 수 있도록 참여자 삶의 활력 증진을 도모한다.

하위 목표 1. 힐링 테라피를 통해 간병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감소시킨다.

하위 목표 2. 힐링 여행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들에게 여가 생활을 제공한다.

하위 목표 3. 휴(休) 여행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들이 지친 심신을 쉼 수 있도록 한다.

3. 프로그램 대상

대상자 범위	개념적 범위	서울시 중랑구 및 인근 지역에 거주하며, 가정 내에서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 등급을 받은 환자를 간병하는 배우자 및 자녀(자녀의 배우자)
	기관 이용자	2014~2015년 프로그램 참여자 중 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참여자
대상자 구분	주된 참여자	가정 내에서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 등급을 받은 환자를 간병하는 배우자 및 자녀(자녀의 배우자) 10명
	주변 참여자	참여자의 가족 구성원 10명(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가족 구성원)
대상자 선정 기준	접수·상담	· 접수, 직접 방문, 추천, 의뢰된 대상자의 상담 및 초기 면접 · 2014~2015년 선행 프로그램 참여자 중 프로그램 참여 의지가 있는 참여자 상담 후 접수 · 접수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 진행
	선정 기준	· 본 사업의 선행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지원자 중 참여자 연령(40대 이상) 및 간병 기간(2년 이상)에 따라 우선 선정 · 프로그램 참여 의지를 파악하여 우선 선정 · 복지관 직접 방문이 가능한 참여자

III. 프로그램 진행 및 평가

1. 세부 프로그램 진행 내용

프로그램	일정	횟수	세부 내용	수행 방법	
프로그램 홍보·모집	홍보	2~12월	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안내 및 홍보 · 참여자 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관 정문에 홍보 현수막 설치 · 복지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 소식지 등에 홍보물 게재 · 유관 언론사 및 지역 내 신문 등의 매체를 통한 기사 배포 · 방문 요양 시설 관련 기관, 병원, 동 주민센터, 기타 사회 복지 관련 시설 등을 방문, 실무자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 및 게시판을 활용해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선행 프로그램 참여자 대상 홍보 · 전화, 직접 방문, 타 기관 실무자 추천 등으로 접수된 참여자 초기 면접 진행
	모집				
지지 체계 형성 및 운영	비타민 형성하기 (O.T)	4월	60대 이하 그룹 2회 60대 이상 그룹 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설명 · 사전 척도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및 기관 소개 · 프로그램 진행 일정 안내 · 프로그램 진행 관련 사전 척도 검사 진행 (간병 부담 척도, 생활 만족도 척도, 우울증 척도)
	비타민 자조 모임 구성	4월	60대 이하 그룹 1회 60대 이상 그룹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참여 의지가 있는 대상자 모집 · 대상자 모집 후 60세를 기준으로 2개의 자조 모임 집단 형성 	
	비타민 자조 모임 활동	4~12월	60대 이하 그룹 1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참여 후 집단별 자조 모임 진행 · 참여자들 간 라포 형성, 지지 체계 형성 및 강화 · 서로의 경험과 감정을 공유하고 공감하며 이해하기 · 나만의 간병 노하우 공유 · 참여자 간의 감정 공유를 통해 서로 스트레스 해결 방안 찾아보기 	
			60대 이상 그룹 11회		
심리·정서 지원	개별 통합 사례 관리	5~12월	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 개별 사례 관리 · 기타 복지 서비스 연계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 우울증 척도 측정 · 참여자 개별 사례 관리 진행 · 척도 결과 및 담당자 관찰을 바탕으로 심층 접근이 필요한 참여자에게 심리 상담 서비스 연계 · 참여자에게 물질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복지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후원 물품 또는 필요 서비스 제공
	비타민 활력 (웃음 치료)	5~6월	60대 이하 그룹 2회 60대 이상 그룹 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웃음을 활용해 신체적·정서적 고통과 스트레스 경감 · 의도적 혹은 반복된 웃음을 통해 참여자의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일정	횟수	세부 내용	수행 방법	
심리·정서 지원	비타민 웰다잉 교육	9~10월	60대 이하 그룹 5회 60대 이상 그룹 5회	웰다잉 교육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삶과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 · 본인과 환자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 완화 · 삶의 궁극적 목적에 대해 생각하고 나의 과거 돌아보기 · 나의 인생 그래프 그려보고 유언장 작성하기 · 앞으로의 삶의 자세 다짐하기
		5월~	수시		
힐링 테라피	향기 테라피	6~7월	60대 이하 그룹 3회 60대 이상 그룹 3회	정서 안정을 위한 힐링 테라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자가 강사 역할 수행 - 아로마 향초와 천연 비누 제작 - 완성 제품으로 스트레스 및 긴장 완화, 숙면 유도에 도움을 줌
		푸드 테라피	7월		
	힐링 테라피 룸		5월	상시	힐링 테라피 룸 개설, 상시 운영
	쉼과 여행 지원	비타민 여행 사전 모임	9월	60대 이하 그룹 1회 60대 이상 그룹 1회	여행 일정 및 내용 계획 세우기
비타민 힐링 여행			10~11월	60대 이하 그룹 1회	
	비타민 휴(休) 여행	60대 이상 그룹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 휴(休) 여행 	

2. 과정 평가

프로그램	목표량	산출량	평가 결과	
프로그램 홍보·모집	홍보	수시/ 불특정 다수	수시/ 불특정 다수	복지관 정문, 지역 신문, 홈페이지, 관내 게시판에 홍보물 부착 및 동 주민센터, 병원, 복지 관련 시설 등 외부 기관 26개 방문, 홍보 진행
	모집	1회/12명	1회/17명	· 자발적 참여자와 외부 기관 추천 등을 통해 총 17명의 대상자와 상담(대면 및 전화 상담)을 진행 · 참여 기준에 적합한 11명의 참여자 선정
지지 체계 형성 및 운영	비타민 형성하기 (O.T)	2회/12명	2회/11명	· 참여자들은 서로 환자를 간병하는 같은 처지란 걸 알지만 이에 대해 타인과 공감하는 대화를 나눌 기회가 적었고, 각자의 성향도 달랐음. - 서로를 파악하고 라포 형성할 계기 제공
	비타민 자조 모임 구성 및 운영	10회/12명	11회/11명	· 60세를 기준으로 참여자를 2개 집단으로 분류, 자조 모임 구성 · 10회기로 계획했으나 참여자의 적극적인 참여로 1회기를 추가 진행함. · 자조 모임 활동이 참여자 간의 라포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되며, 서로의 경험과 감정 공유를 통해 집단 구성원 간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함. · 자조 모임은 담당자 개입을 최소화하고 진행 내용을 참여자들이 직접 논의, 결정해 높은 만족도가 나타남.
심리·정서 지원	개별 통합 사례 관리	수시/12명	수시/11명	· 척도 검사를 통한 객관적 관찰, 담당자의 주관적 관찰로 참여자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접근 및 상담 진행 · 심층 상담이 필요한 참여자 2명은 심리 전문가에게 의뢰, 심층 상담을 진행함. · 다른 참여자 1명은 우울 증상과 감정 기록이 심해져 현재 심층 상담 진행 중
	비타민 활력 (웃음 치료)	2회/12명	2회/11명	· 2회기의 웃음 치료를 통해 스스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자존감을 높이고 긍정적 감정을 표현하였음. · 참여자는 노래에 맞춘 체조 등을 낫설어 하였으나, 중요하다고 느끼거나 다른 가족들과 함께 하고 싶은 내용은 메모하는 등 적극적 모습을 보임.
	비타민 웰다잉 교육	5회/12명	5회/10명	· 총 5회기의 웰다잉 교육 진행 - 죽음에 대한 강한 거부감 완화 - 궁금한 점을 함께 나누며 죽음이라는 현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계기 제공
	비타민 동행 활동	1회/12명	1회/11명	· 참여자의 의지가 아닌 간병 대상 가족 때문에 프로그램에 불참한 경우, 가정을 방문해 기 진행한 프로그램 내용 전달 · 이와 더불어 필요한 사례 관리를 함께 진행, 참여자가 프로그램에 대한 애정과 소속감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침.
힐링 테라피	향기 테라피	2회/12명	3회/10명	· 담당자가 직접 강사 역할을 수행, 참여자들이 편한 분위기에서 프로그램 참여
	푸드 테라피	1회/12명	1회/10명	· 스스로 작품을 만들면서 결과와 관계없이 높은 만족도를 보임. - 이에 1회기를 늘려 프로그램 진행
	힐링 테라피 룸	수시/12명	수시/10명	· 참여자들이 언제든 찾아와 편히 쉬 수 있도록 차, 향초, 음악 등 구비 - 참여자들은 자신만의 아지트 같은 느낌이라며 긍정적인 피드백 보임.

프로그램	목표량	산출량	평가 결과	
심과 여행 지원	비타민 여행 사전 모임	1회/12명	1회/10명	참여자들이 논의를 거쳐 여행의 모든 것을 직접 계획하는 등 적극적으로 프로그램 참여
	비타민 힐링 여행	2회/12명	2회/10명	· 그룹별로 2회기씩, 참여자들이 계획한 내용대로 여행함. · 상황에 따른 유동적 진행도 병행해, 좀 더 편히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유도함. · 간병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떠났지만, 참여자들은 잠시 걱정을 내려놓고 자신만을 위한 치유와 휴식의 시간을 보낸 것에 크게 만족함.
	비타민 휴(休) 여행			

3. 효과 평가

1) 양적 평가

성과 목표 1.	성과 지표	측정 도구	평가방법
그룹별 자조 모임을 구성, 지지 체계 형성	자조 모임 참석 적극성 정도	· 프로그램 출석부 · 프로그램 과정 기록지	· 프로그램 출석부 분석 · 프로그램 과정 기록지 해석
	참여자가 간 유대감 형성 정도	· 사회적 지지 척도 · 참여자 심층 인터뷰	· 사회적 지지 척도 검사지 사전·사후 분석 · 참여자 심층 인터뷰 분석
	자조 모임 참여 만족도	· 만족도 조사 · 참여자 심층 인터뷰	· 만족도 조사지 분석 · 참여자 심층 인터뷰 분석
평가 결과			

· 자조 모임 참석 적극성 정도 분석
- 참여자 출석부와 과정 기록지 분석 결과, 60대 미만 그룹 참석률은 93.2%, 60대 이상 그룹은 97.6%로 두 그룹 모두 높은 참여율을 보임.
· 참여자 간 유대감 형성 정도
- 두 그룹의 사회적 지지 척도를 분석한 결과 60대 미만 그룹의 척도는 55점 만점 중에 4.7점이 향상되었고, 60대 이상 그룹은 125점 중 16.5점이 향상된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음. 또한 참여자들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서로가 같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유대감이 형성되고 깊은 관계를 바탕으로 한 지지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답하였음.

성과 목표 2.	성과 지표	측정 도구	평가방법
노인성 질환 가족 간병에서 발생되는 스트레스 완화	심리·정서 프로그램 만족도	프로그램 과정 기록지	프로그램 과정 기록지 해석
	개별 통합 사례 관리 연계 정도	· 프로그램 과정 기록지 · 우울증 척도 검사지	· 프로그램 과정 기록지 해석 · 우울증 척도 검사지 사전·사후 분석
	간병 스트레스 수치 10% 감소	· 간병 부담 척도 · 참여자 심층 인터뷰	· 간병 부담 척도 검사지 사전·사후 분석 · 심층 인터뷰 분석

평가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정서 프로그램 만족도 및 개별 통합 사례 관리 연계 정도 - 참여자의 심리 정서적 안정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음. 웃음 치료, 힐링 테라피 등이 기억에 남았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자조 모임 만족도 역시 높게 나타남. - 우울증 척도지 분석 결과 60대 미만 그룹은 63점 만점 중 14.3점, 60대 이상 그룹은 30점 만점 중 0.7점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 간병 스트레스 수치 10% 감소 - 참여자의 간병 부담 척도지를 분석한 결과 60대 미만 그룹은 150점 만점 중 12.75점이 줄어들어 간병 부담이 11.6%로 감소했고, 60대 이상 그룹은 90점 만점 중 22점이 줄어들어 간병 부담이 9.4%로 감소함. - 프로그램 전반적으로는 간병 스트레스 수치가 10.5% 감소된 것으로 나타남. 참여자의 심층 인터뷰를 통한 주관적 분석으로는 60대 미만 참여자의 경우 간병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나, 60세 이상 참여자들은 본인 건강도 좋지 않은 면이 조금씩 있는 상태여서 간병 부담이 많이 줄어들기는 어렵다고 평가됨.

성과 목표 3.	성과 지표	측정 도구	평가 방법
참여자 삶의 활력 증진 도모	생활 만족도 향상 여부	생활 만족도 척도	생활 만족도 척도 검사지 사전·사후 분석
	활력 프로그램 만족도	· 프로그램 과정 기록지 · 참여자 심층 인터뷰	· 프로그램 과정 기록지 분석 · 참여자 심층 인터뷰 분석

평가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 만족도 및 활력 프로그램 만족도 - 참여자의 생활 만족도 척도 분석 결과, 60대 미만 그룹은 135점 만점 중 8.6점이 향상되었고, 60대 이상 그룹은 90점 만점 중 22점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참여자들의 활력 프로그램 만족도를 보면 "이유 없이 크게 웃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고 근심을 잊을 수 있었으며, 삶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할 계기가 되어 만족했다"고 응답함.

2) 질적 평가

연구 질문 1.	평가 지표	측정 도구	평가 방법
프로그램의 참여가 간병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이 되었는가?	내러티브 접근	· 심층 인터뷰 · 참여자 관찰	· 인터뷰 분석 · 과정 기록지 분석

평가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 심층 인터뷰 결과 프로그램 참여만으로도 행복감을 느꼈으며 "마음이 편해졌다,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되어 행복했다, 마음이 즐거워지고 너그러워진 것 같다, 밝아졌다" 등 긍정적 응답이 중복 발견됨. · 위와 같은 긍정적 응답과 프로그램의 높은 출석률 등을 종합할 때, 프로그램 참여가 참여자의 간병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임.

연구 질문 2.	평가 지표	측정 도구	평가 방법
자조 모임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참여자들에게 심리적·정서적 지지를 얻는 데 도움이 되었는가?	내러티브 접근	· 심층 인터뷰 · 참여자 관찰	· 인터뷰 분석 · 과정 기록지 분석

평가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음에는 담당자가 자조 모임을 주도하고 진행하였으나, 점차 참여자에게 주도권을 넘겨 활동을 계획하여 진행하도록 하였음. 이 과정에 낯설어하던 참여자들도 다음에는 어떠한 활동을 하고 무슨 이야기를 할지 서로 열심히 토론하게 됨. · 평소 다른 사람들과 친해지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참여자들도, 이 프로그램에서는 라포가 굉장히 빠르게 형성되고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하게 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지지할 수 있어 행복했다고 응답하였음. 참여자의 요구에 따라 자조 모임을 1회기 늘려 진행하였을 정도로 자조 모임 활동에 대한 만족감이 높게 나타남.

연구 질문 3.	평가 지표	측정 도구	평가 방법
개별적 심리 접근과 개별 사례 관리가 간병 스트레스 감소에 영향을 미쳤는가?	내러티브 접근	· 심리 전문 검사지 · 심층 인터뷰 · 참여자 관찰	· 인터뷰 분석 · 과정 기록지 분석 · 심리 검사지 해석

평가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사례 관리를 진행하면서 참여들의 개인적 상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대한 맞춤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었음. · 척도 검사와 담당자 관찰 결과를 토대로 심리 상담사에게 전문적 심층 상담을 의뢰하여, 참여자 2명과 총 17회기 상담을 진행함. 상담을 통해 자존감을 높이고 감정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참여자도 마음이 편해졌다고 응답하였음. 극적인 변화를 제공하기보다는 참여자가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고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해소한 시간이었다고 평가됨. · 프로그램 진행 후반부에 참여자 1명이 급격한 우울 증상 악화와 심한 감정 기복을 보여 심층 상담 10회기를 의뢰함. 현재 7회기의 상담이 진행되었으며 참여자가 화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검사 결과에 따라 본인의 감정을 분리하는 것에 대한 상담이 진행 중임.

연구 질문 4.	평가 지표	측정 도구	평가 방법
삶의 활력 증진이 가족의 간병을 지속하는 데 영향을 미쳤는가?	내러티브 접근	· 심층 인터뷰 · 참여자 관찰	· 인터뷰 분석 · 과정 기록지 분석

평가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참여로 삶의 활력이 증진되고 다양한 사례를 접하면서 참여자의 생각에 여유가 생겨, 환자를 보다 너그럽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고 응답하였음. · 전에는 환자의 행동을 이해하기 힘들어 화가 났지만, 프로그램 참여 후 중증 노인성 환자들이 변하는 과정과 이유를 알고 환자를 이해하는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다고 응답함.

IV. 사업 성과

1. 참여자의 간병 스트레스 완화

중증 노인성 질환 환자의 간병은 주로 가족 한 명이 희생하는 마음으로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간병자는 환자뿐만이 아닌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상처받기도 하고, 간병을 하면서 받는 다양한 스트레스로 우울 증상과 소진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참여자들을 위한 다양한 심리적·정서적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갖게 하고, 환자와 다른 가족에 대해서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참여자들이 점차 활력과 여유를 찾았으며, 프로그램도 밝고 활력 있는 분위기로 발전하는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다. 또한 참여자의 간병 스트레스가 완화되어 삶의 활력이 증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2. 사회적 지지 관계망 형성 및 강화

본 프로그램은 처음에 참여자 간의 공감대를 위해 배우자와 자녀로 그룹을 나눠 형성하려 했다. 그러나 참여자의 연령 폭이 넓어 담당 교수의 자문 아래 환자와의 관계가 아닌, 60세를 기준으로 그룹을 형성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환자와의 관계가 다른 경우는 있었으나 비슷한 연령대라는 공감감이 있어 참여자 간의 라포가 형성되고 긍정적으로 강화될 수 있었다. 또한 서로를 단순히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관계 정도로 여기지 않고, 모든 것을 나누고 공감할 인생의 동료이자 동반자로 느끼는 관계로까지 발전되어 프로그램 이후의 만남도 주도적으로 계획할 만큼 사회적 지지 관계망이 강화되었다.

V. 향후 계획

1. 자조 모임의 확대

비타민은 3년차 진행된 프로그램이며, 본 프로그램 참여 그룹 외에도 노인성 질환 환자를 간병하는 또 다른 가족 그룹이 꾸준히 자조 모임을 하고 있다. 앞선 선행 그룹의 경우 참여자들이 간병하던 노인성 질환 환자들이 계속 사망하고, 본인 건강이 악화되는 등 외부 환경의 이유로 자조 모임 참여자 인원이 줄고 있다. 본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따로 진행되는 자조 모임을 병합하여 확대 진행한다면 참여자의 수가 늘어 사회적 지지 관계가 확장되며, 그들을 기반으로 신규 참여자의 지속적 유입도 가능해 자조 모임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되는 바, 자조 모임을 확대 진행하고자 한다.

2. 참여자의 모임 진행 관련 주도성 강화

올해 진행 프로그램 중 여행 프로그램의 경우 참여자들이 처음부터 주체가 되어 진행했고 만족도 역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조 모임 진행의 경우 처음에는 담당자가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결정하였으나,

점차 참여자에게 결정권을 넘기고 담당자는 조력자 역할만 했다. 참여자들이 자조 모임의 내용을 주도적으로 논의하여 진행하게 함으로써 프로그램에 대한 소속감과 애정이 더욱 강해졌다고 본다. 참여자의 간병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서로의 지지 체계를 형성하여 삶의 활력을 지속적으로 유지 증진하기 위해서는, 참여자가 원하는 활동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한 프로그램 진행이 필요하다. 따라서 담당자 역할을 최소화하고 참여자의 프로그램 진행 주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실무자 소감

개금종합사회복지관 김세영

한 해 동안 진행해왔던 프로그램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철로변 마을에 첫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는 저의 설렘과 달리 이웃들과 대면하지 못하고 돌아서야 했습니다. 이어진 두 번째 만남에서 어르신들은 “또 왔네” 하며 조금씩 관심을 가져주기 시작했고, 세 번째 만남에서 “무슨 말을 하려고 계속 찾아오는 거야? 들어가 보자”라며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철로변 어르신들과의 관계가 어느덧 1년이 되어 갑니다.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고민했고, 지역 주민들 또한 모든 프로그램에 즐겁게 참여해주셨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희로애락을 경험하면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사람 간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철로변 마을 지역 주민들과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며 함께 즐길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합니다. 지원해주신 삼성복지재단과, 사회복지사로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힘써주신 고정은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년 동안 함께하면서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주신 실무자 모임 선생님들께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본오종합사회복지관 이슬

그간 해보고 싶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할 기회를 주신 삼성복지재단에 감사드립니다. 이 기회를 통해 귀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각 기관의 현장 실무자들과 소통하면서 고정은 교수님께 받은 슈퍼비전을 통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독거 여성 어르신과 함께한 “할미다방” 프로그램을 정말 재미있게 마음껏 해볼 수 있었습니다. 잘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는 다른 방법을 고민해 과감하게 시도했고, 잘되는 부분은 자신감을 얻어 더 열심히 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어려움 역시 좋은 밑거름이 되었으며, 스스로 자극받고 발전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업뿐만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다지고 사회복지사들이 역량을 키울 기회를 주신 삼성복지재단에 좋은 인연을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 윤숙현

아무것도 모르는 1년차, 잠 줄여가며 쓴 제안서가 선정되니 ‘큰일 났다’는 생각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엔 많은 장벽들이 뻥히 보였지만 그때마다 “넘어져도 괜찮다”며 지지해준 조은애 선임, 프로그램이 시작되자마자 주눅 든 담당자에게 “우리 선생님 너무 좋아, 내일은 뭐 할까?”라며 오히려 힘이 돼주신 참여자들 안에서 지난 1년은 말 그대로 꽃길만 걸어온 시간이었습니다. 주변의 도움을 받아가며 보이지 않던 가파른 능선을 드디어 정복한 지금, 돌아보면 혼자 이룬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엄청난 태풍을 가져왔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때는 몰랐던 많은 것들을 알게 된 2016년은 여러모로 감사한 일이 많은 해였습니다. “Bravo My Life!” 프로그램 참여 어머님들께 많은 것들을 받은 이 해는 오랫동안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님들과 수없이 많이 외친 구호를 언제나 마음속에 간직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파이팅!

서울노인복지센터 김찬호

지난 1년간 25명의 어르신 예술 나눔 활동가와 어린 친구들에게 크고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서로의 생활 공간을 오가며 눈높이를 맞추고 마음을 나눈 시간들. 작은 미소, 작은 눈 맞춤, 짧은 한마디 말로 시작한 우리 실험은 조금씩 빛을 보기 시작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다음에 또 만나요.” “그래, 다음에 또 만나자! 안녕.” 이렇게 ‘어른이’와 어린이가 함께 나눈 시간이 한동안 제 머릿속을 맴돌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그 시간을 함께하며 가장 성장한 사람은 저 자신이었습니다. ‘어른이’와 어린이의 소통과 교감에서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고, 배울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모두의 ‘이상한’ 실험이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희망합니다. 지난 1년간 아낌없이 지원해주신 삼성복지재단을 비롯해 우리 성장을 진심으로 지지해주신 고정은 교수님,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든든한 버팀목이 된 ‘칠선생’ 선생님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신평사랑채노인복지관 김민경

처음 사업에 선정되었을 때의 벅찬 감정은 잊을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사로서 삼성복지재단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큰 보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과 고민도 많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어르신과 아이들이 함께한 시간은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복지관은 노인들만 이용한다’는 지역 사회의 편견을 없앨 수 있었고 복지관의 인지도도 높아졌습니다. 복지관에서 단순히 서비스만 받던 어르신들은, 옥상 텃밭 프로그램에서 배울 것을 나누며 소통하고 사회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누구보다 행복해하셨습니다. 제가 편협한 생각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시고 힘써주신 고정은 교수님, 각 지역의 실무자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새 사업에 도전하게 해주신 삼성복지재단에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 우일심

중증 노인성 질환 환자를 간병하는 가족의 간병 스트레스로 간병 살인이나 우울증 등 다양한 사회 문제가 일어난다는 기사를 접하고 “비타민” 프로그램을 진행한 지 어느새 3년이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삼성복지재단 지원을 받아 진행했던 프로그램은 2년간의 선행 사업에서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강점으로 평가된 부분은 심층 진행했습니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간병으로 지치고 동정에 예민해 타인과의 교류에 거부감을 보이던 분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프로그램 참여 유도조차 어려웠지만, 참여자들은 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분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서로 진심으로 공감하고 가까워졌습니다. 나이와 처한 상황의 차이를 떠나 친구가 된 참여자들은 프로그램 종결이 가까워질수록 아쉬워하면서 당신들이 주도적으로 내년 모임을 계획할 만큼 프로그램에 대해 강한 애정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점차 밝아지는 분위기를 보고, 저 역시 프로그램에 대한 강한 애정을 느끼며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히 실무자로서 같은 조원 선생님들과 모임을 갖고 다른 기관에 방문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교수님의 슈퍼비전을 통해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프로그램의 방향까지 볼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만이 아닌 다른 관련 분야도 공부해 능력을 발전시키는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슈퍼비전을 인생 지침으로 삼고 늘 되새기고자 합니다. 참여자 분들과 우리 ‘칠선생’ 선생님들, 고정은 교수님과 삼성복지재단에 감사를 전합니다.

자문 교수 소감

고정은 경희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저는 2016년도 삼성복지재단 ‘작은나눔 큰사랑’ 지원 사업에 선정된 프로그램 중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6명의 선생님들로 구성된 팀과 함께하였습니다. 2015년도 하반기 지원 사업 심사 과정에서부터 현장 심사 교수로 참여하였기에, 선정된 모든 프로그램이 치열한 경쟁 속에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우수한 프로그램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현장 심사 후에 삼성복지재단으로부터 자문 교수 자리를 제안받고 한동안 고심했습니다. 자문 교수로서 프로그램은 물론 담당 실무자, 사회복지 현장에 미칠 영향력을 생각하면 가볍게 수락할 수 없는 중요한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문 교수가 이끌고 현장 선생님들이 따라오는 top-down 방식이 아닌, 함께 배우고 만들고 도전하며 연대감을 가지고 팀을 운영해보자는 생각에 자문 교수 자리를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사회복지, 특히 노인복지 현장에 대한 실천적·학문적 관심이 높았던 저로서는 현장의 사회복지사들과 비전을 세우고,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생각해보고, 거시적·미시적 계획 등을 함께 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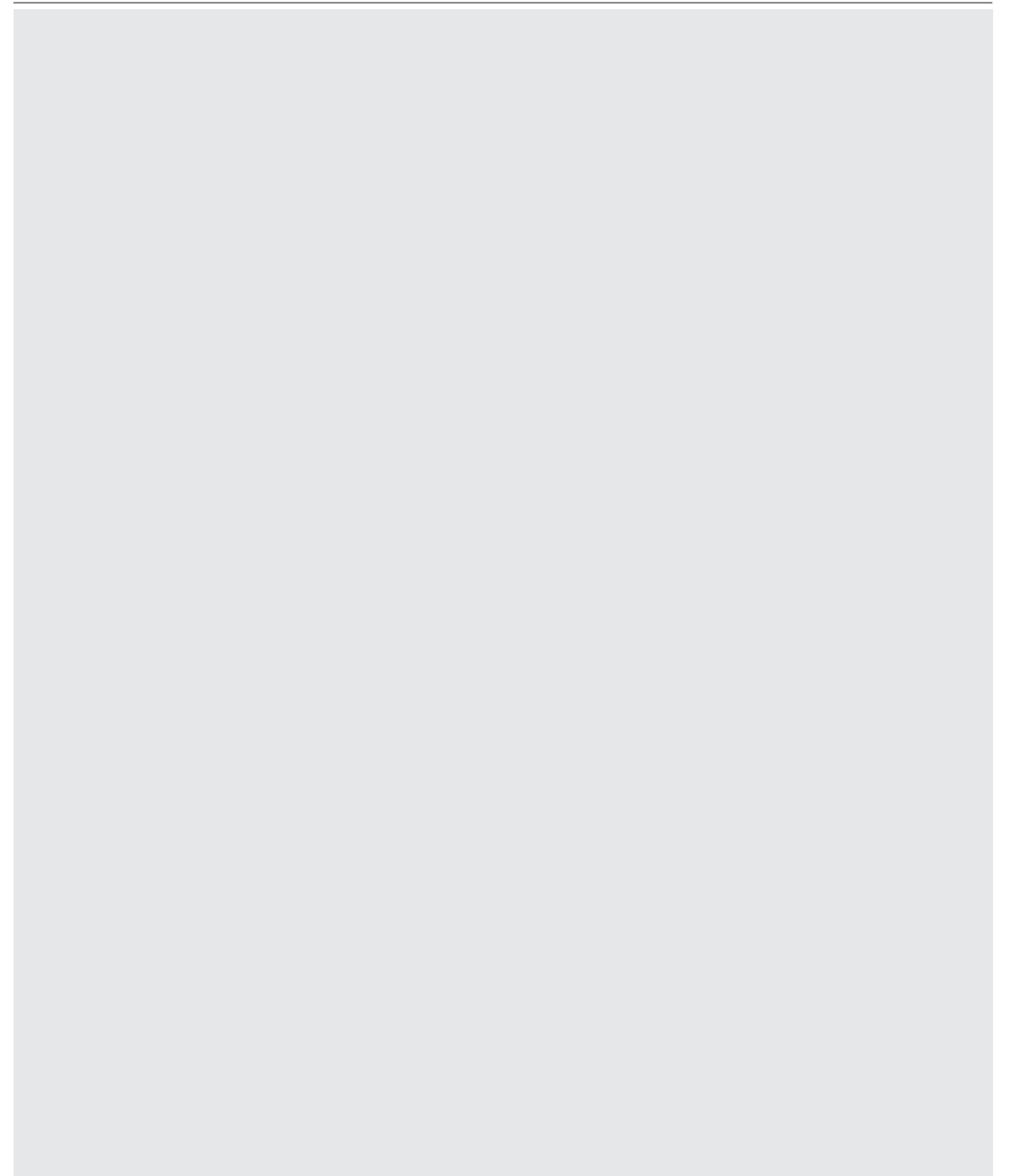
삼성복지재단 지원 사업의 특징 중 하나는 프로그램의 성공적 수행과 그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연구자문 교수 제도를 운영한다는 점입니다. 그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올해 저희 팀은 월별 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선생님들은 모임을 통해 프로그램 진행 중에 겪는 현실적인 고민에 대해 질문하고, 저 또한 그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함께 논의한 문제는 어느새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간이 누적되어 감에 따라 팀 모임은 보물 같은 창구가 되었습니다. 이 창구에서 현장에서의 고민을 나누는 순간 부담감은 이미 반으로 줄고, 해결책은 배가 되는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문 교수로서 제가 초점을 맞췄던 또 한 가지 영역은 실무자 역량 강화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프로그램의 담당 선생님들은 질 높은 고등 교육을 이수하고, 복지에 대한 열정 아래 수년간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한 현장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관의 수많은 행사와 과도한 행정 업무에 온 열정을 쏟다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 소진된 자신의 모습과 마주하게 됩니다. 기록하지 않은 복지 현장에서 매일 치열하게 일하는 선생님들에게 전문성을 강조하는 제언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중요성 때문에 저는 팀 모임 때마다 역량 강화 부분을 크게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복지 현장의 발전 속도와 성공 여부는 바로 선생님들의 어깨에 달려 있기에, 선생님들의 발전은 곧 우리나라 복지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대로 선생님들의 퇴보는 우리나라 복지의 퇴보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 팀에서는 모두가 각자 비전을 지닌 분야를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들려주며 서로를 응원하였습니다. 향후 공부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계획하였으며, 작은 실천으로 학회 학술 대회에도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자문 교수 시작 전 꿈꿔온, 함께 배우고 만드는 우리의 공동체는 어느새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같은 실현에 함께해준 6명의 선생님들의 귀한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보며 제 소감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많은 정보를 공유해주며 팀 내 맏언니 역할을 담당해준 서울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 우일심 선생님, 복지관 내 인사 이동으로 선정 사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노력해준

안산 본오종합사회복지관 이슬 선생님, 팀 모임의 의미를 잘 이해하며 연속 사업을 멋지게 수행해준 서울노인복지센터 김찬호 선생님, 담당 사회복지사라는 직함 이외에도 대학원생으로, 갓 결혼한 신부로 다양한 역할을 거뜬히 수행한 부산 신평사랑채노인복지관 김민경 선생님, 현장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추진력이 훌륭한 부산 개금종합사회복지관 김세영 선생님, 그리고 팀 내 간사로 진정한 리더 역할을 수행해준 열정의 아이콘, 대구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 윤숙현 선생님. 모두가 자문 교수의 쓴소리에 담긴 진정한 뜻을 이해해주고 기꺼이 따라준 선생님들입니다. 이제 프로그램 자문 교수로서의 공식적인 제 업무는 끝나지만, 앞으로도 선생님들의 미래를 응원하며 우리나라 복지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제2장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실제적·창의적·융합적 작품 활동을 통한 청소년 기능 습득(역량·경쟁력 강화) 및 지역 사회 환경 개선 프로그램

“손재주 개념 학생단”



그루터기지역아동센터 김민주

I. 프로그램 실시 배경

오늘날 청소년들의 여가 시간 활용은 TV 시청, 온라인 게임, 오락 활동에 편중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여러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잠재적 위험을 내포할 뿐 아니라 주관적 행복 수준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 청소년의 사이버 중독, 스마트폰 과몰입 경향은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현실 세계에 대한 무관심, 생활 전반에 대한 무기력함으로 이어져 청소년 교육 및 복지 현장의 큰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청소년에게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여가, 취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청소년이 자기 자신과 주변에서 다양한 재원들을 탐색 발견하고, 이를 창조적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실생활에 활용 가능한 물품을 만들 수 있게 역량을 강화해줄 프로그램, 나아가 청소년이 자신의 활동으로 타인과 소통하고 유익을 제공함으로써 개개인의 관심이 무엇인지 깨닫고 자아상을 재조명·재정립할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II. 프로그램 개요

1. 목적

그루터기지역아동센터는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 청소년들에게 이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앞서 기술한 문제점을 완화하고자 청소년들의 작품 제작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특별히 센터 청소년들이 IT 기술과 목공 기술을 습득하고 이를 융합하여, 주변에 있는 요소들로 일상 생활에 유용하게 쓸 작품을 저렴하게 제작할 수 있는 능력과 시야를 갖추도록 하며, 이러한 산출물을 지역 사회에 시연, 공유함으로써 청소년의 사회 참여적 효능감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2. 목표 및 하위 목표

목표 1. 센터 청소년들이 아두이노를 활용한 프로그래밍, 회로 구성, 센서 및 액츄에이터 조작 지식과 목공 기술을 습득한다.

하위 목표 1. 센터 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아두이노 조작 기술과 안드로이드 앱 개발 기술을 교육한다.

하위 목표 2. 센터 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목공 공구의 활용법을 교육하고 목재를 이용하여 실습을 진행한다.

목표 2. 두 기술의 융합 방안을 탐색하여 청소년 스스로 구체적 산출물을 기획, 설계한다.

하위 목표 1. 센터 내부의 불편함을 개선할 작품을 기획, 설계한다.

하위 목표 2. 지역 사회의 수요에 부응하는 작품을 기획, 설계한다.

목표 3. 청소년이 환경 미화 및 방치된 대형 목재 폐기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원을 재습득한다.

하위 목표 1. 월 2회 정기적으로 환경 미화 활동에 참여해 지역 사회 개선에 동참한다.

하위 목표 2. 대형 목재 폐기물을 수거 및 재활용해 목재 구입 비용을 절감한다.

목표 4. 청소년이 제작한 물품을 지역 사회에 비치하고 나누는 활동을 통해 사회 참여적 효능감을 향상한다.

하위 목표 1. 센터 내부의 수요에 부응하는 물품을 제작, 비치한다.

하위 목표 2. 센터 외부의 수요에 부응하는 물품을 제작, 비치하고 공유한다.

3. 프로그램 대상

대상자 구분	사이버 여가 활용 외에 특별한 취미 활동이 없는 청소년(초·중·고생) 18명
주된 참여자	제작 물품 사용자(지역 주민 등)
선정 기준	· 센터 이용 청소년 중 참가를 희망하는 청소년 선착순 모집 · 여가 활용 유형 분석을 통한 사이버 여가 편중 청소년 우선 선정 · 기초 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세대 우선 선정 · 프로그램 진행에 적합한 중·고등학생 우선 선정

III. 프로그램 진행 및 평가

1. 세부 프로그램 진행 내용

프로그램	일정	횟수	세부 내용	수행 방법
Brand_New 컴퓨터 교실	1~12월	50회	· 아두이노, 각종 센서 및 액추에이터, 프로그램 코딩 지식 습득 · 회로 구성 및 코딩 실습 · 안드로이드 앱 개발 톨 교육	· 시청각 자료 활용 · 아두이노, 코딩 전문가에게서 전문 지식 습득 · 개인별 키트로 개별 실습
괄목상대 목공 교실	1~12월	50회	· 수동·전동 공구 활용 방법 습득 · 수동·전동 공구 직접 사용을 통한 작업 노하우 습득 및 주의 사항 숙달	· 현장 강의 및 실습식 수업 · 순차적 실습을 통한 반복 숙달
온고지신 융합 연구소	3~12월	10회	· 개선이 필요한 불편 사항 수집 등 물품 제작 수요 조사 · 물품 제작을 위한 기획 및 설계 회의	· 지역 사회의 수요를 반영한 물품 제작 기획 · 학생들의 아이디어 회의를 통한 과제 해결 도모 · 2개 교실에서 습득한 목공 기술과 정보 전자 기술의 융합 방안 탐구
토당 방위대 전기 토퍼즈	1~12월	25회	환경 미화 및 재활용 자재(대형 목재 폐기물) 수집 활동	· 간단한 청소 도구, 봉투를 지참하여 주변 환경 미화(25회) · 파쇄 및 재단 도구를 지참하여 폐가구 등 방치된 대형 목재 폐기물들을 정리, 운반(10회)
손재주 개념 학생단	3~12월	10회	· 구체적 물품 제작 활동 · 지역 사회 연계 등 제작된 물품 비치 활동	·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 기획한 프로젝트용 재료 및 도구 지원 · 실내, 실외 등에서 제작 활동

2. 과정 평가

프로그램	수행 시기	목표량	산출량	평가 결과
Brand_New 컴퓨터 교실	1~12월	50회	50회	· 기 계획한 강의 일정을 모두 실시 · 학생들의 참여도는 높았으나, 소프트웨어 코딩 과정에서 소극적인 참여자들이 다소 어려움을 호소함.
괄목상대 목공 교실	1~12월	50회	50회	· 기 계획한 강의 일정을 모두 실시함. ·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음.
온고지신 융합 연구소	3~12월	10회	10회	· 청소년들의 회의 진행 능력에 다소 한계가 있어 프로그램 담당자의 지속적 협조가 필요했음. · 문제 발굴에 있어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함. · 제작 기획, 문제 해결 과정에 있어서는 배운 기술 및 지식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개선하고 개선점을 탐색함.

프로그램	수행 시기	목표량	산출량	평가 결과
토당 방위대 전기 토퍼즈	1~12월	25회	25회	· 격주로 인근 시장에서 환경 미화 활동 - 활동이 지속되면서 시장 상인, 행인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 격려 등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얻음. - 초기에 부정적이고 소극적이던 참가자들도 지역 사회의 반응에 힘입어 능동적, 적극적으로 변화함.
손재주 개념 학생단	3~12월	10회	12회	· 센터 내부 수요에 부응하는 제품 제작 - 스마트 주차 방지 시스템 "탄데다대요" - 화장실 이용 현황 알리미 "사람있어요" - 공간 박스 다수 제작 및 이를 연결한 조립식 책장 제작 - 후배에게 책꽂이 만들어 주기 · 지역 사회 수요에 부응하는 제품 제작 - 인근 어린이집 수납장 제작 - 주변 도로 미화를 위한 화분 제작 - 인근 아파트 단지에 비치된 벤치에 환경 보호 알리미 기능을 부가한 스마트 벤치 제작 - 인근 시장 도로 중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는 장소에 공용 쓰레기통 설치

3. 효과 평가

1) 양적 평가

성과 목표 1.	평가 지표	측정 도구	평가 방법
아두이노 기능 습득	사전·사후 기능 숙련도 평가	기능 숙련도 평가 문제지 (자체 제작)	· 사전·사후 검사 분석 · 과제 수행 관찰 분석
평가 결과			

· 프로그램 참여 전에는 관련 지식이 전혀 없었으나, 프로그램 참여 후 평균 65.4점으로 향상됨.
- 학생들은 아두이노를 활용하여 LED 점등·소등 기능 구현, 전류량 제어를 통한 LED 밝기 제어, 저항(resistor)의 적절한 활용, 이들을 활용한 센서, 액추에이터를 제어할 수 있게 됨. 이는 강의 시간에 다룬 부품들의 약 60%(12개) 가량을 스스로 활용 가능함을 의미함.
- 아두이노 프로젝트를 진행한 학생 10명 중 8명이 강사 도움 없이 회로 연결을 수행함.

성과 목표 2.	평가 지표	측정 도구	평가 방법
목공 기술 습득	사전·사후 기능 숙련도 평가	기능 숙련도 평가 문제지 (자체 제작)	사전·사후 검사 분석
평가 결과			

· 프로그램 실시 이전에는 관련 지식이 전혀 없었으나, 프로그램 실시 후 평균 50.2점으로 향상됨.
- 이는 목공 공구들의 명칭 및 조작 방법의 기초를 숙지하고 있음을 의미함.
- 목공 교실에 참여한 10명의 학생 중 6명은 강사의 도움 없이 목재의 재단과 단순 박스의 제작이 가능함.

성과 목표 3.	평가 지표	측정 도구	평가 방법
습득한 기술을 융합하여 작품 설계	설계 완료 횟수	· 회의록 · 아이디어 노트 작성	작품 설계 건수 계수
평가 결과			

- 10회 계획된 회의 과정을 통해 10건의 회의록을 작성
- 아이디어 노트의 경우 분실 및 불성실한 작성 등으로 인해 적절한 자료 수집이 곤란했음.
- 7건의 프로젝트 기획과 설계가 완료되어, 원활한 회의 진행 및 결과 도출이 가능하였음.

성과 목표 4.	평가 지표	측정 도구	평가 방법
지역 사회 환경 미화	폐기물 처리 건수	활동 일지	활동 횟수 계수
평가 결과			

- 기 계획한 25회의 환경 미화 활동을 전개
- 18명의 학생이 매 활동마다 평균 180L의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수거 처리

성과 목표 5-1.	평가 지표	측정 도구	평가 방법
지역 사회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물 설치	시설물 설치 건수	활동 일지	활동 횟수 계수
평가 결과			

- 12회의 제작 및 나눔 활동을 통해 4건의 지역 사회 환경 개선 시설물 설치
- 지역 주민들이 해당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음.

성과 목표 5-2.	평가 지표	측정 도구	평가 방법
지역 사회의 환경 문제와 청소년 문제에 대한 관심 환기	캠페인 진행 횟수	활동 일지	활동 횟수 계수
평가 결과			

- 25회 환경 미화 활동마다 구호 제창의 방식의 캠페인을 진행
- 기 계획했던 피케팅, 자료 전시 활동은 진행하지 않음.

2) 질적 평가

연구 질문 1.	평가 지표	측정 도구	평가 방법
청소년의 창의적 · 융합적 사고력 성장 여부	주관적 의견	· 작품 검토 · 프로그램 과정 기록	인터뷰 및 관찰
평가 결과			

- 청소년들의 창의적 활동은 주로 소프트웨어, 특히 스마트폰 어플 개발에서 두드러짐.
- 검색어를 한 번만 입력해도 여러 검색 엔진의 검색 결과를 편리하게 볼 수 있는 어플(가칭 "원 펀치 포 강냉이") 개발 후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영단어 검색 어플을 개발, 단어를 한 번만 입력하고 영한 · 영영 검색 결과를 종합한 영단어 검색 어플을 완성함.
- 스마트폰을 흔들면 특정 문장이 음성 출력되는 어플(가칭 "Stop shaking me!") 제작 후 자체적으로 5~10개 단어를 입력하는 입력란과 이를 랜덤으로 출력하는 기능까지 추가한 학생이 있었고, 이를 다른 학생들과 공유함.
- 스마트폰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한 무선 조종 자동차 프로젝트를 인터넷에서 검색해 자체적으로 프로젝트를 기획, 진행함.
- 무선 조종 자동차 제작 후 지속적인 버전업 아이디어를 개진함(속도 제어 프로그램을 이용한 움직임 개선, 초음파 센서를 이용한 자율 주행-장애물 회피 기능 구현, 카메라 모듈을 추가한 스파이 봇 등의 아이디어)

연구 질문 2-1.	평가 지표	측정 도구	평가 방법
청소년의 지역 사회에 대한 관심 형성 여부	내러티브 접근	사전 · 사후 인터뷰	면접 평가 분석
평가 결과			

- 개별 관찰 및 면담을 통한 인터뷰 결과, 참여 학생 18명 모두 "쓰레기를 치우는 일이 그다지 유쾌하지 않았는데, 친구들과 같이 활동하는 것이 좋고 어른들이 기특하다 말해줘서 기분이 좋다. 특별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좋다"고 응답함.
- "평소 쓰레기가 쌓여 있는 모습을 보더라도 별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은 보기 싫게 쌓여 있던 쓰레기들이 언제 사라지는지 관심이 간다. 이른 아침에 이것을 치우는 사람들의 노력이 있고, 이를 감사하게 느낀다"라는 응답도 있었음.

연구 질문 2-2.	평가 지표	측정 도구	평가 방법
긍정적 자아상 성장 여부	내러티브 접근	사전 · 사후 인터뷰	면접 평가 분석
평가 결과			

- JAVA 연구 동아리 회원들의 경우, 기존에는 컴퓨터 사용 시간에 주로 온라인 게임만 했지만, 지금은 생활 코딩 페이지(프로그래밍 언어 학습 사이트)에서 강좌를 수강하는 등 교육적 목적의 사용 시간이 크게 증가했다고 함.
- 게임할 때보다 강좌 하나를 배우고 나면 무척 보람 있었다고 응답함.
- 환경 미화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의 긍정적인 반응을 경험한 청소년은 더욱 적극적으로 환경 미화에 참여했으며, 자신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좋았다고 응답함. "막상 해 보니까 그렇게 불쾌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깨끗이 잘 치웠다고 이야기할 때 기분이 좋았어요"라고 응답함.

연구 질문 3.	평가 지표	측정 도구	평가 방법
프로그램의 지역 사회 환경 개선 기여 여부	내러티브 접근	지역 주민 반응 관찰	관찰 분석
평가 결과			

- 환경 미화 활동 중 "학생들이 기특하네, 어디 학교 학생들이니? 선생님과 함께 나왔니?" 등의 질문을 매 활동마다 받았고, 그 중에는 학생들에게 간식을 사 주신 주민도 있었음.

IV. 사업 성과

1. DIY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제작 역량 강화와 지속적인 기획 및 자체 제작 활동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들은 온라인 게임 등 소모적인 여가 활용 외에는 특별한 취미가 없었으며 생산적 여가 활용을 희망하던 학생들이었다. 이들은 본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 생활에 활용 가능한 물품들을 제작할 역량을 갖추어, 이러한 가능성을 인식한 후에는 주변의 다양한 불편 사항에 대해 민감해지고 이를 개선할 해결책을 꾸준히 고민하는 태도를 갖게 되었다. 더 나아가 주변에 버려지는 물건에서 효용성을 발견하여 재활용할 방안을 고민하게 되었다. 이러한 활동에는 높은 비용이 들지 않아, 향후에도 청소년이 주도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지역 사회 폐기물 문제에 대한 해결 의식 고취

이번 사업에서는 청소년들이 지역 사회 폐기물 수거 활동에 참여해 지역 사회의 긍정적 반응을 경험함으로써, 지역 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긍정적 자아상을 강화할 수 있었다. 스스로 제작한 물품들이 지역 사회 주민들에게 활용되는 것을 경험한 학생들은, 지역 사회의 불편 사항과 개선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는 태도를 갖게 되었다.

V. 향후 계획

2016년도 사업에서는 목공 공구 등 활동을 위한 물적 기반을 확보하고, 대상자에 대한 프로그램 홍보와 초기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로 아동 성장 측면에서는 자체 프로젝트의 기획과 진행이 가능한 지점까지 성장하는 성과를 얻었다. 또한 환경 미화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지역 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에 참여함으로써, 지역 사회 참여 측면에서도 개개인의 효능감을 고취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기반 위에 향후 작품 제작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손재주 개념 학생단” 자체적으로 학습, 연구를 지속하고, 추후 선발할 2, 3기 인원들에 대한 자체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자생적인 학습 조직으로의 발전을 꾀하고자 한다. 외부적으로는 1차 사업에서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던 물품 제작 및 비치를 통한 지역 사회 참여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여 사업의 외연을 더욱 넓히고자 한다.

사례 8

경계선 지적 기능 청소년의 사회 기능 향상 및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주민 참여형 취미 활동을 기반으로 한 지역 사회 연계 통합 사업

“한울타리 II”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양은정

I. 프로그램 실시 배경

한 학급당 3명, 전 인구의 약 12%로 추정되는 경계선 지적 기능 청소년은 일반 학교 적응과 학습이 어려운 고위험군이지만 사회에서 철저히 방치되어 왔다. 정신 지체 장애 인구 2%, 학습 장애 인구 4%에 비하면 경계선 지적 기능 청소년의 수는 월등히 많지만 국가적 차원의 대책은 미흡했다. 이들은 늦되는 아이, 답답한 아이, 둔한 아이, 공부 못하는 아이, 눈치 없는 아이 등으로 취급받기 일쑤였으며, 일반 학교에 다니지만 학업 성취는 물론 또래 관계, 생활 태도, 진로 준비 등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경계선 지적 기능 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이해가 부족할 경우, 자녀를 통제하는 강압적이며 차별적인 양육 태도로 자녀 성장을 저해하고, 부모 자식 관계를 악화시킨다.

이렇듯 경계선 지적 기능 청소년들이 개인, 가족, 학교 및 사회에서 겪는 어려움에서 시작한 “한울타리” 프로그램은 올해로 2년차 사업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와 있다. 1차 연도 사업 성과를 기반으로 올해 “한울타리” 사업에서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졸업 후 자립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고, 취미 활동 프로그램의 심화 과정으로 진로 계획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들은 그간 가정, 학교, 또래 관계 등 주위 환경에서 경험한 반복된 실패와 이에 따른 부적응으로 자립 의지가 결여되거나 취약한 경우가 많았다. 실패 경험 속에서 강화된 부정적 특성(쉽게 좌절하는 경향과 우울감, 공격적 성향, 충동 성향 등)이 취약한 환경과 만나 스트레스가 증폭되면 통제력을 잃고 한 가지 일을 오래 지속하지 못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한울타리” 2차 연도에는 참여자들의 자립 역량 강화를 목표로 진로와 관련한 목표를 스스로 세우고, 이를 꾸준히 성실하게 준비하여 도전하게 돕고자 한다. 이에 따라 성공과 실패라는 결과를 넘어 과정에서 만족과 성취 경험을 얻고, 이를 통해 자신감과 의지를 얻어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삶의 주인이자 사회 구성원으로 설 수 있도록 준비하는 활동을 지난 1년간 진행하였다.

II. 프로그램 개요

1. 목적

1차 연도 사업 성과에 기반하여, 경계선 지적 기능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주민 참여형 취미 활동 및 특기 적성 활동을 준비한다. 자립 준비와 관련한 참여 청소년들의 내적 역량 강화 및 사회적 관계망을 확대하며, 이들에 대한 가족 및 지역 사회의 지지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내 통합을 도모한다.

2. 목표 및 하위 목표

목표 1. 또래 청소년과 함께하는 취미 공동체 활동을 주민의 재능 기부를 통해 운영함으로써 경계선 지적 기능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한다.

하위 목표 1. 경계선 지적 기능 청소년의 욕구를 반영한 3가지 주제의 취미 활동 집단을 조직하여 주 1회(연 20회) 지역 주민, 또래 친구와 함께 진행함으로써 친밀한 관계 형성을 도모한다.

하위 목표 2. 취미 공동체 활동 내용을 반영한 지역 사회 나눔 활동을 연 1회 진행하여 성취 경험을 공유하고 유대감을 증진한다.

하위 목표 3. 연 1회 취미 공동체 활동 참여자가 직접 기획하는 1박 2일 여행을 진행하여 집단 결속력을 높인다.

목표 2. 주민 참여형 취미 공동체 활동에서 연장된 심화 활동으로, 진로 및 직업 계획과 관련한 특기 적성 활동을 진행하여 경계선 지적 기능 청소년의 자립과 관련한 내적 역량을 강화한다.

하위 목표 1. 1차 연도의 취미 공동체 활동 중 공인 민간 자격 취득이 가능한 집단을 중심으로 이론 교육과 실습 교육을 병행하는 특기 적성 활동을 주 2회(연 40회) 진행함으로써 직업 계획에 대한 인식을 증진한다.

하위 목표 2. 직업 체험 활동을 연 1회 진행하여 독립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긍정적 자아상을 형성한다.

목표 3. 가족 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구성원 간의 지지적 관계를 형성한다.

하위 목표 1. 연 2회 가족 문화 활동을 통해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감을 증진한다.

하위 목표 2. 연 4회 보호자 간담회 및 교육을 통해 경계선 지적 기능 자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한다.

하위 목표 3. 연 8회 일상 생활과 관련한 경계선 지적 기능 청소년 집단 교육을 진행한다.

목표 4. 지역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경계선 지적 기능 청소년에 대한 지역 사회의 이해를 도모하고 지지망을 확대한다.

하위 목표 1. 학생(또래 청소년) 및 교사, 지역 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지역 교육을 진행하여 경계선 지적 기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한다.

하위 목표 2. 월 1회 주민 등 관련 참여자와 함께하는 사례 회의를 진행하여 경계선 지적 기능 청소년과 함께하는 활동에 대한 고민과 의견을 나누고 동료 슈퍼비전을 한다.

하위 목표 3. 연 1회 지역 캠페인을 통해 경계선 지적 기능에 대한 관심을 유도한다.

3. 프로그램 대상

대상자 범위	개념의 범위	14~18세 사이의 경계선 지적 기능이 의심되는 청소년
	기관 이용자	· 1차 연도 "한울타리" 참여자 중 고등학교 진학과 함께 취미 공동체 활동 심화 과정인 진로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정된 기존 참여자 · 특수반에 있거나 경계선 지적 기능 판정을 받은 14~18세 사이의 청소년
대상자 구분	주된 참여자	경계선 지적 기능 청소년 16명
	주변 참여자	· 경계선 지적 기능 청소년의 가족 15명 (주된 참여자 1명당 가족 1명 이상 참여) · 경계선 지적 기능 청소년과 함께하는 취미 활동에 참여한 또래 청소년 21명 · 경계선 지적 기능 청소년과 또래 청소년이 함께하는 취미 활동에 재능 기부로 참여한 지역 주민 13명 · 경계선 지적 기능 청소년 진로 준비 자격증 취득을 위해 연계된 전문가 및 자원봉사자 22명 · 경계선 지적 기능 이해 교육 대상자(교육 요청 학교 재학생 및 일반 교사) 586명 · 기타 지역 주민 73명
대상자 선정 방법	홍보 전략	· 기존의 본 기관 이용자 중 경계선 지적 기능 청소년과 그 가족에 표적 홍보 · 관내 특수 학급 운영 학교 및 지역 사회 교육 전문가 배치 중학교를 대상으로 1 : 1 전화 안내 및 홍보 자료 발송, 필요시(요청 시) 방문 홍보 · 학교, 지역 기관 실무자 대상 사업 설명회 개최 · 연초 발행되는 소식지를 통해 1차 연도 사업 성과 및 다음 연도 계획 홍보 · 프로그램 홍보물 관내 게시
	접수 상담	· 학교 실무자 및 지역 기관 실무자를 통한 의뢰서 접수 · 전화 신청 후, 직접 기관을 내방하여 초기 상담 · 참여 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을 통한 참여 의지 확인
	선정 기준	· 종합 심리 검사에서 경계선 지적 기능 판정을 받은 청소년 · 지능 지수 70~85 사이의 청소년 · 재학 학교의 특수 교사, 지역 사회 교육 전문가 등 실무자의 추천을 받은 청소년(지적 장애 3급 일부 포함)

4. 논리 모델에 근거한 사업 분석

투입	활동	분야	횟수/인원	산출량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 - 슈퍼바이저(부장, 과장) 2명 - 담당 사회복지사 1명 - 프로그램 TFT 사회복지사 5명 - 취미 활동 주민 참여자 13명 - 외부 전문 강사 10명 - 실습생 및 자원봉사자 23명 · 협력 기관 - 11개 학교 - 동대문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 인테리어기술학원 - 도배학원 - 제과업체 - 삼육보건대학교 사회복지과 - 놀이공원 -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 동대문구청신건강증진센터 - 노원구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 - 강북아이윌센터 - 예림예술학교 - 아동자립지원단 - 장안종합사회복지관 - 동부교육지원청 · 시설 및 장비 - 기관 내 공간 및 기자재 - 지역 내 실습장 및 교육 공간 	주민 참여형 취미 활동 프로그램	공예	22회/202명	97회/74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계선 지적 기능 청소년의 올바른 사회적 관계망 구축 및 양적 확대 · 지속적인 상호 작용 형성에 대한 질적 관계 향상
		요리	22회/176명		
		밴드	28회/238명		
		운동	25회/108명		
	진로 계획 프로그램	성장 여행	1회/17명	244회/43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공인 자격증 준비를 통해 새로운 목표에 대한 도전 의식 도모, 자신감 향상 · 직업 체험을 통해 직업 이해 향상, 현실적인 진로 구축
		실습	32회/160명		
		이론	206회/240명		
	가족 관계 증진 프로그램	직업 체험	6회/35명	23회/21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간의 유대 강화 · 보호자 및 경계선 지능 자녀 상호 간 이해 도모, 긍정적 인식 확대
		청소년 교육	16회/116명		
		보호자 교육	3회/22명		
		가족 여행	2회/57명		
	지역 사회 인식 개선 프로그램	보호자 간담회	2회/19명	16회/62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학교 실무자의 경계선 지적 기능 청소년 특성 이해 및 적절한 지도법 모색 · 일반 학생의 부정적 인식 개선 및 상호 작용 방법 습득
학교 교육		3회/493명			
캠페인		2회/73명			
		사례 회의	11회/59명		

III. 프로그램 진행 및 평가

1. 세부 프로그램 진행 내용

프로그램	일정	횟수/인원	세부 내용	수행 방법	
주민 참여형 취미 활동 프로그램	공예	5~12월	22회/1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관 내 하늘교실에서 공예 체험 · 주민 참여자 7명, 주변 참여자 7명 (또래 6명, 주민 1명) 참여 · 내용 - 정기 활동(19회) : 석고 방향제, 봉제 인형, 천연 화장품, 가족 공예 등 토탈 공예 체험 - 나눔 활동(3회) : 독거 어르신 연말 선물 마련 바자회, 마을 축제 참여 및 공예품 판매, 선물 준비 및 방문 전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연도에 진행한 천연 공예를 포함한 토탈 공예 체험 - 상반기 : 석고 방향제, 가족 목걸이, 봉제 인형 등 다양한 공예품 제작 - 하반기 : 기존 체험 분야 중 중 가장 자신 있는 공예품 제작, 지역 주민과 나눔. · 나눔 활동 - 독거 어르신 연말 선물 마련 - 바자회와 마을 축제에서 공예품 판매 - 편지, 구입한 선물과 함께 직접 만든 로션 및 비누 꽃 전달
	요리	5~12월	22회/1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관 내 자활 근로 센터에서 요리 체험 · 주민 참여자 4명, 주변 참여자 8명 (또래 6명, 주민 2명) 참여 · 정기 활동(18회) - 밑반찬, 국 요리 조리법 습득 - 식사 예절 학습 · 나눔 활동(4회) - 6월부터 매달 마지막 주에 직접 만든 도시락 배달 및 식사 - 홀몸 어르신 칠팔손 잔치 간식 제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 활동 - 손쉽게 만드는 건강한 식사법과 간단한 밑반찬 및 국, 찌개 조리법을 지역 주민에게 배움. - 상반기 :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요리 - 하반기 : 집 반찬 위주 · 나눔 활동 - 6월부터 한 달 동안 만들었던 요리 중 가장 자신 있는 요리를 참여자들이 직접 선정, 도시락을 만들고 포장해 독거 어르신께 배달, 함께 식사 - 11월에는 홀몸 어르신 칠팔손 잔치에 직접 준비한 음식을 만들어 전달하고 축하 공연을 함.
	밴드	5~12월	28회/1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관 내 중강당 외 4곳에서 밴드 체험 · 주민 참여자 7명, 주변 참여자 8명 (또래 3명, 주민 5명) 참여 · 정기 활동(26회) - 각 4개 파트 악기 레슨 - 공연을 위한 합주 연습 · 나눔 활동(2회) - 제기동 마을 축제 공연 - 12월 프로그램 연합 발표회 밴드 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 활동 - 고려대 밴드 동아리 '노래마당' 봉사자 1명 당 참여자 2명이 짝지어 악기 세팅과 연주법을 학습함. - 주민 참여자가 희망 악기 선택, 4개 세션 구성 - 10월부터 12월 공연 준비 - 밴드 전체가 함께한 모임, 각 세션별 외부 문화 활동으로 참여자와 지역 주민 간 관계 형성 · 나눔 활동 - 제기동 마을 축제 참여 - 지인과 주민 초청 공연 참여

프로그램	일정	횟수/인원	세부 내용	수행 방법	
주민 참여형 취미 활동 프로그램	운동	5~12월	25회/ 17명	· 복지관 내 대강당에서 체육 활동 · 주된 참여자 6명, 주변 참여자 11명 (또래 6명, 주민 5명) 참여 · 정기 활동(22회) · 배드민턴 기술 교육 · 팀별 토너먼트 경기 진행 · 나눔 활동(3회) · 타 프로그램에 참여한 초등학생에게 배드민턴 기술 전수	· 정기 활동 - 고려대 배드민턴 동아리 'KUBC'와 참여자 7명이 매주 함께 배드민턴 연습 - 주민 참여자 1명 당 참여자 1~2명을 연계해 긴밀한 관계 형성 - 격주 팀별 토너먼트 배드민턴 대회를 진행 - 배드민턴 기술 습득으로 자신감 향상 및 체력 증진 · 나눔 활동 - 매달 마지막 주, 관내 타 프로그램에 참여한 초등학생 6명에게 그간 배운 배드민턴 기술 전수
	성장 여행	5월	1회/ 17명	· 캠핑장과 놀이공원에서 1박 2일 여행 · 주된 참여자 15명, 주변 참여자 2명(또래), 보조 인력 3명(사회복지 현장 실습생) 참여 - 참여자 중 팀장을 정해 여행 일정 계획, 준비 등 역할 분담 - 장기자랑을 위한 팀별 연습(3~4회) - 연계 기관 : 놀이공원(자유이용권 후원)	· 참여 청소년으로 팀을 구성하고 팀장을 선발, 팀장 리드 하에 여행 계획부터 진행까지 도맡아 1박 2일 여행 프로그램 진행 · 팀장들이 각 팀 레크리에이션을 직접 준비 · 성장 여행 전 각 팀별로 장기자랑을 3~4회 연습함. - 사회복지 현장 실습생 3명이 보조 인력으로 동행, 각 팀별 안전 유지와 적극적인 참여 독려
진로 계획 프로그램	실습 교육	5~11월	32회/ 5명	· 도배 자격증과 타일 기능사 자격 준비 · 주된 참여자 5명 참여 · 내용 - 국가 공인 자격증 취득을 위해 지역 학원과 연계, 실기 시험 준비 - 도배 타일 기능사 학원에서 도배반에 배정된 참여자와도 연계하여 교육 - 전문 도배 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지역 내 어르신 가정 2곳에 도배 실습 - 실습 교육 참여자 5명 전원 도배 기능사 실기 시험 응시 · 연계 기관 : 인테리어기술학원, 도배학원	· 도배 기능사 자격증 준비 - 실기 시험 대비를 위해 방과 후 고등반 개설, 도배 교육 - 전문 도배 공구 9가지 구입, 도배 기술을 초배, 정배, 장판 순서대로 습득 - 시험 전 이틀간 모의 시험 2회 실시 - 한국산업인력공단 주최 도배 기능사 국가 공인 자격증 시험에 5명 응시 · 타일 기능사 자격증 준비 - 5~6월에 인테리어기술학원에서 참여자 5명이 3회기 교육 - 학원 폐업으로 인해 타일 관련 자격증 교육 훈련 기관을 모색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중단

프로그램	일정	횟수/인원	세부 내용	수행 방법	
진로 계획 프로그램	이론 교육	5~12월	개별 상이	· 복지관 내 상담실 외 3곳, 동대문가족상담코칭센터에서 진로 교육 · 주된 참여자 7명, 자원봉사자 11명, 인지치료사 1명 참여 · 제빵 기능사 자격증 필기 시험 준비 - 개별 평균 25회 - 대학생 멘토링 봉사자와 연계, 시험 준비 - 필기 시험(12/13) 응시 · 인지 학습 치료 - 개별 평균 23회 시행 - 학습 능력 향상 및 자기 주도 학습력 증진을 위해 복지관 부설 센터와 연계 진행 · 연계 기관 : 삼육보건대학교, 동대문가족상담코칭센터	· 제빵 기능사 자격증 준비 - 1차 연도 취미 프로그램의 연장선상에서 제빵 기능사 국가 공인 자격증 준비 - 삼육보건대 사회복지학과 대학생 봉사자와 연계, 1 : 1 멘토링 학습 - 서울북부기술교육원(노원구)에서 시행된 필기 시험에 응시 · 인지 학습 치료 - 학습 능력이 부족하고 목표 달성 의지가 낮은 참여자를 위해 동대문가족상담코칭센터와 연계 치료
	직업 체험	9~11월	6회/ 7명	· 복지관 인근 어르신 가정 2곳과 제과업체 실습 교육장 회기점에서 직업 체험 · 주된 참여자 7명 참여 · 도배 기능사 실습 체험 - 자격증 준비 과정 중 습득한 기술을 현장 활용 - 도배가 필요한 지역 내 어르신 가정에 봉사를 겸한 체험 활동 진행 · 도배 업체 운영자가 현장 총괄 지도(총 2회) · 제과 기능사 실습 체험 - 제과업체와 연계하여 현장 체험 진행(월 1회) - 제과업체 채용 연계 실습 교육 (총 4회) · 연계 기관 : 도배학원, 제과업체	· 도배 기능사 실습 체험 - 국가 공인 자격증 시험이 11월에 배정되고, 학원 사정으로 프로그램이 중단되면서 시험 응시가 지연되어, 자격증 취득 참여자에 국한하던 직업 체험을 시험 전 응시 예정자의 직업 체험 형식으로 변경 - 지역 내 도배가 필요한 어르신 가구 2곳을 방문, 배운 도배 기술 실습 · 제과 기능사 실습 체험 - 채용형 실습 교육을 진행하는 제과업체와 연계, 현장 체험 경험 제공 - 실제 현장에서 제빵사 업무를 체험하며 자격증 및 시험 준비 동기를 부여하고, 실제 교육생이 받는 교육도 경험함.
가족 관계 증진 프로그램	집단 교육 청소년	7~12월	16회/ 16명	· 복지관 내 하늘교실 외 1곳, 동대문구진로직업체험센터 외곽에서 집단 교육 · 주된 참여자 16명(중학생 8명, 고등학생 8명) 참여 · 내용 - 진로 교육(고등학생) - 사회성 교육(중학생) -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중고생 공동) · 연계 기관 : 동대문구 진로직업체험센터 외곽, 노원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나우, 강북아이월센터	· 고등학생 대상 진로 기초 교육 - 동대문구진로직업체험센터 외곽에서 진행 - 직업의 이해 및 나의 진로 계획 수립 · 중학생 대상 사회성 향상 교육 - 노원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나우에서 진행 - 건강한 대인 관계 맺기 기술 습득 ·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교육 - 강북아이월센터에서 진행 - 중고생의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교육

프로그램	일정	횟수/인원	세부 내용	수행 방법		
가족 관계 증진 프로그램	진단 교육	보호자	6. 8, 10월	3회/16명	· 복지관 외 2곳에서 보호자 교육 시행 · 주된 참여자 16명(보호자) 참여 · 내용 - 경계선 지적 기능 자녀 이해 이해 및 양육 방법 교육 - 자녀의 진로 계획 및 지도법 교육(고등학생 참여자의 보호자만) - 인터넷·스마트폰의 적절한 사용 지도법 교육 · 연계 기관 : 동대문구 진로직업체험센터 와락, 노원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나무, 강북아이월센터	· 경계선 지적 기능 자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단절된 가족 관계를 지지적 관계로 변화시키고자 교육 진행 · 동대문구진로직업센터 와락과 연계, 기 진행한 고등학생 참여자의 진로 교육의 학부모 피드백 및 진로 계획 교육 진행 ·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에 빠지기 쉬운 경계선 지적 기능 자녀에 대한 지도 방법 교육 진행
	가족 캠프	9. 10월	2회/30명	· 잠실 야구장, 포천에서 가족 캠프 시행 · 주된 참여자 15명, 보호자 및 가족 15명 참여 · 내용 - 간담회에서 도출된 욕구를 바탕으로 가족이 함께한 외부 문화 활동(야구 관람, 서울 근교 자연 체험) 진행	· 바쁜 일정이나 열악한 경제 상황으로 가지 못했던 가족 여행 시행 · 행복한 추억과 소통 기회를 만들어 가족의 유대 관계를 견고히 함.	
	보호자 간담회	6. 12월	2회/15명	· 복지관 내 세미나실에서 보호자 간담회 실시 · 주된 참여자 보호자 15명 참여 · 내용 - 사업 운영 평가 및 욕구 수렴, 활동 지지 - 자조 모임을 통한 고민 공유와 해결 방법 논의	· 보호자 간담회에서 참여자 가정 내 변화 및 참여자 문제와 욕구를 심층 파악하고자 시행 · 보호자가 각자 느낀 고민과 문제를 공유해 감정을 환기하고 상호 지지하는 자조 모임 성격으로 운영	
지역 인식 개선 프로그램	지역 교육	청소년	9. 11월	2회/461명	· 송인중학교, 전농중학교에서 인식 개선 프로그램 시행 · 일반 학생 461명 참여 · 내용 - 지역 사회 내 일반 학급 청소년을 대상으로 경계선 지적 기능 청소년 이해 교육 및 역할극 진행 - 전교생 대상 방송 교육(송인중학교) - 또래 상담가 활동 학생 집중 교육(전농중학교)	· 송인중학교 - 전교생 대상 이해 교육 - 교내 방송을 통한 중학생 눈높이 교육 - 최근 이슈를 반영한 차별 예방 교육(PPT, 동영상 활용) · 전농중학교 - 또래 상담가 대상 사례 중심 교육 - 12명의 학생들이 짝과 함께 선택한 사례를 바탕으로 대본을 쓰고 역할극 진행
		실무자	10월	1회/32명	· 송인중학교에서 실무자 교육 시행 · 일반 교사 32명 참여 · 내용 - 경계선 지적 기능 학생 특성에 따른 지도법 중점 교육	경계선 지적 기능 학생의 개념이나 이론 내용은 축소하고, 해당 청소년 특성에 맞는 지도법과 교육 방식에 대한 자문으로 내용 재구성

프로그램	일정	횟수	세부 내용	수행 방법	
지역 인식 개선 프로그램	캠페인	11. 12월	2회/73명	· 정릉천 축제 부스, 복지관 중강당에서 캠페인 시행 · 지역 주민 73명 참여 · 내용 - 취미 활동 프로그램에서 제작한 물품 전시 및 판매 - 경계선 지적 기능에 대한 정보를 담은 배너 전시	· 마을 주민 축제 참여 - 취미 활동 프로그램에서 만든 방향제, 디퓨저 전시·판매 - 김밥 도시락 요리·판매 · 프로그램 연합 공연 참여 - 디퓨저 및 비누 꽃 판매 - 소책자를 제작해 경계선 지적 기능 청소년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 도모
	사례 회의	5~11월	11회/24명	· 복지관 내 세미나실, 동대문중학교 외 1곳에서 사례 회의 진행 · 취미 활동 주민 참여자 21명, 학교 실무자 5명 참여 · 내용 - 진로 계획 프로그램 제빵 기능사 멘토(6회) : 자원봉사 기초 교육부터 멘티별 사례 회의, 진행 일정 공유 및 계획 논의 - 취미 활동 프로그램 주민 참여자(2회) : 상반기를 마무리하며 참여자별 활동 내용 공유. 하반기 계획 논의 - 학교 담임 교사 및 지역 사회 교육 전문가(3회) : 프로그램 진행 상황 및 참여 현황 공유, 참여자의 학교 생활 모니터링	· 자원봉사 교육, 제빵사 전문가를 통한 시험 준비 방법 교육, 정기적인 참여자별 사례 회의 진행 - 상반기에 1 : 1로 연결된 참여자의 활동 참여 정도 및 태도 변화 여부, 그 외의 논의점에 대한 회의 진행 - 사례 관리 대상자 재학 중인 학교는 함께 통합 사례 회의 진행, 학교 내 참여자들의 학교 생활과 가정 생활에 대한 정보 공유
	연계 자원 관리	1~12월	375회/670명	· 내용 -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한 학부모, 주민·봉사자, 학교 및 유관 기관, "한울타리" TF(타 팀 직원)와 실시간 소통	· 박정민 자문 교수 - 사업 진행 방향 및 평가 방식 피드백 · 복지관 인근 복지관 및 대안학교와 지속적 네트워크 형성 -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청소년 사업을 진행 중인 유관 기관과 함께 발전 방향 및 내년 업무 분담에 대해 논의 · "한울타리" TF 조직 - 기관 내 타 팀(지역조직팀, 사례관리팀) 팀원과 프로그램 TF를 조직, 지역 사회 내의 인적, 물적 자원을 풍부하게 활용

2. 과정 평가

프로그램	수행 시기	목표량	산출량	평가 결과
준비 단계	모집 홍보	5회	6회	· 1차 연도 참여자 중 2차 연도 재참여 희망자가 많아, 신규 참여자 모집 홍보는 연계 학교를 중심으로만 진행 · 계획보다 프로그램 의뢰 건수가 많았고, 선발한 참여자 인원도 증가 · 경계선 지적 기능 청소년이라는 참여자 특성상, 보호자나 당사자 동의가 없으면 초기 상담 자체가 어려웠음.
	신청 및 접수	20명	21명	
	초기 상담	20명	18명	
	참여자 선발	15명	17명	

프로그램		수행 시기	목표량	산출량	평가 결과		
진행 단계	주민 참여형 취미 활동 프로그램	취미·특기 활동	4~12월	400명	63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연도 취미 활동 프로그램 중 참여자 만족도가 높고, 초기 상담에서 참여자의 높은 활동 욕구가 나타난 4개 분야(토탈 공예, 일상 요리, 밴드, 배드민턴) 진행 - 모두 주민 참여자의 재능 기부로 진행 - 최소 월 1회 또래 청소년이 함께 활동하는 통합 집단으로 운영 - 집단 역동 및 관계 증진, 참여자의 자치력, 주제성 강화를 위해 동아리별로 평균 2회 이상의 특별 활동 및 나눔 활동 진행 	
		나눔 활동		40명	89명		
		성장 여행		30명	17명		
	진로 계획 프로그램	실습 교육	4~12월	150명	15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배 기능사 국가 공인 자격증(실기) 준비 - 방과 후 주 1회(3시간) 진행 - 출석률 100% 달성 등 참여자 열의는 강했으나 자격증 취득 과정과 학교 생활 병행이 어려웠음. - 홀몸 노인 가정 주거 환경 개선 활동 참여 · 제빵 기능사 국가 공인 자격증(필기) 준비 - 대학생 봉사자의 1 : 1 멘토링(주 1회)으로 기초 이론 공부, 기출 문제 분석 등 진행 - 부족한 기초 학습 능력 및 집중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인지 치료가 1 : 1 인지 학습 치료를 병행 - 응시생 중 4명이 목표 점수 도달 - 제과업체와 연계해 제빵 활동 체험 	
		이론 교육		150명	267명		
		직업 체험		10명	10명		
	가족 관계 증진 프로그램	집단 교육	4~12월	청소년	120명	11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교육 - 참여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주제로 중등반(8명) 7회, 고등반(8명) 9회 교육 - 참여자 대다수에게서 스마트폰 과다 사용 문제가 발견되어 공통 교육 4회 진행 · 보호자 교육 - 경계선 지적 기능 자녀 이해 및 양육·지도 방법 교육 - 유사한 상황에 있는 부모들이 교류를 통한 상호 지지 체계를 마련함. - 진로 및 스마트폰 사용 등 부모 지도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학부모 교육 시행 · 가족 여행 -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부모의 사정에 따라 1박 2일이 아닌 당일 여행으로 2회를 계획하여 진행함. · 보호자 간담회 - 상·하반기 각 1회 진행 - 프로그램 초기와 후반 프로그램에 대한 보호자의 소감 및 참여자 변화를 공유함.
				실무자	30명	22명	
		가족 여행		60명	57명		
		보호자 간담회		30명	19명		
지역 사회 인식 개선 프로그램	지역 교육	4~12월	청소년	200명	46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와 연계, 재학생(방송 및 학급 단위 교육) 및 교사 교육 진행 · 정기적인 사례 회의 실시 - 대상 : 각 프로그램 취미 활동 참여 주민 - 경계선 지적 기능에 대한 이해 도모, 활동에 대한 수퍼비전 진행 	
			실무자	20명	32명		

프로그램		수행 시기	목표량	산출량	평가 결과	
진행 단계	지역 사회 인식 개선 프로그램	4~12월	캠페인	1회	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캠페인 - 참여자들이 직접 만든 음식과 공예품을 판매하고 밴드 공연을 하면서 자신들을 알림 - 주민들과 재능 공유 · 유관 기관 실무자 및 주민 대상 보고회 - 사업 과정 및 성과, 발전 방향 및 과제를 지역 사회와 공식적으로 공유 - 다음 연도 사업 운영의 발판 마련
			사례 회의	80명	59명	
종결 단계	평가	4~12월	연계 자원 관리	240명	67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화한 척도를 활용한 사전·사후 평가 - 대상 : 주민 참여자(경계선 지능 청소년), 주변 참여자(주민, 또래 청소년, 가족) - 사업을 통한 참여자 변화 정도 확인 · 질적 변화 측정 - 포토펬시와 소시오그램을 활용한 심층 면접
			양적 평가	60명	60명	
			질적 평가	30명	50명	
	만족도 조사		30명	34명		

3. 효과 평가

성과 목표 1.	성과 지표	자료 및 수집 방법	
		양적 평가	질적 평가
경계선 지적 기능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기술 검사 척도의 향상 정도 · 개별 인터뷰 · 관찰 평가 자료 분석 	사회성 기술 검사 척도 (주된 참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인터뷰 (주된 참여자) · 담당자 관찰 평가

평가 결과	
양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계선 지적 기능 청소년의 사회적 기술 검사 척도 변화 분석 결과, 사회적 기술 향상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t=-2.987, p<.01$)에서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남. · 참여 청소년의 사회적 기술 검사 척도는 프로그램 실시 전 평균 24.75점(표준 편차 5.848점), 실시 후 평균 29.31점(표준 편차 4.686점)으로 4.56점 향상됨.
질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시오그램을 활용한 개별 인터뷰로 참여자의 사회적 관계망 분석 · 사전 조사(프로그램 참여 전) - 1차 연도에 참여했던 재참여자 : 가족, 학교 외에 작년 "한울타리" 취미 활동에 함께 참여했던 주 참여자, 또래 청소년, 복지관 실무자 이름을 친밀도에 따라 가깝고 멀게 적음. - 2차 연도 신규 참여자 : 가족, 학교 친구 1~2명 정도의 이름만 작성함. - 두 집단 모두 자신과 가까운 존재로 사람이 아닌 사물(인형, 게임기, 휴대폰)을 적음. 이는 참여자의 대인 관계가 많지 않고 관계도 얕음을 보여줌. · 사후 조사(프로그램 종료 후) - 1차 연도에 참여했던 재참여자 : 프로그램 참여자와의 관계를 표현하는 양이 대폭 많이졌고 친밀감의 이유도 현실적이었음. - 신규 참여자 : 학교 친구, 프로그램을 함께한 지역 주민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사례가 늘어남. - A(고1) : 프로그램 전 인터뷰(4월)에서는 "반 애들이랑 같이 있어도 늘 나를 따돌리고 괴롭혀서 혼자 있는 것만 같은 기분이었어요"라며 어려움을 토로함. 프로그램 종료 후 인터뷰(12월)에서는 "학교에서도, 복지관에서도 항상 같이 놀고 웃고 떠들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재밌어요"라고 긍정적 변화를 보임. · 매주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관찰 평가 및 개별 인터뷰(1시간 내외) 진행. - 수동적·방어적이던 참여자의 대인 관계가 호의적·긍정적으로 변했으며, 친밀감을 표현하기 시작함. - B(중3) : 8월 프로그램 과정 기록지에는 "매년 저를 때리고 도망가거나 와서 욕하는 아이들이 꼭 있어요. 저는 그 아이들을 쫓아가느라 다리가 다칠 정도로 뛰어다녔어요. 제일 화가 나는 건 그 애들이 저를 왜 못 살게 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라고 괴로움을 토로함. 그러나 프로그램 종료 후(12월) 진행한

평가 결과	
질적 평가	<p>개별 인터뷰에서는 "저도 제가 변한 게 느껴져요. 예전에는 애들이랑 얘기하는 걸 피했는데 지금은 복지관에서 친해진 형들이랑 같이 웃고 떠드는 게 너무 재밌어요"라며 활발해진 모습을 보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을 함께하는 또래 친구는 물론 주민 참여자, 나눔 활동의 대상이 된 지역 주민과의 관계를 언급하는 횡수가 늘어남. 이는 상호 교감을 바탕으로 한 친밀감 증가로 볼 수 있음. 또한 친밀감을 느낀 이유도 현실적인 내용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알 수 있음. <p>- B(중3) : 4월 프로그램 과정 기록지에는 "다리 아프고 재미없어서 안 오고 싶어요"라고 의욕 없는 모습을 보였으나, 12월 프로그램 과정 기록지에는 "오늘 제 기분이 폭발했어요! 밴드 선생님한테 난생 처음으로 생일 케이크를 받으니까 표현 못할 정도로 흥분돼요"라며 적극적으로 기쁨을 표현함.</p>

성과 목표 2.	성과 지표	자료 및 수집 방법	
		양적 평가	질적 평가
진로 및 직업 계획과 관련한 특기 적성 활동을 진행, 경계선 지적 기능 청소년의 자립 준비와 관련한 내적 역량을 강화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내적 임파워먼트 척도의 향상 정도 · 자격증 시험 응시 횟수 및 목표 달성 정도 · 개별 인터뷰 · 관찰 평가 자료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내적 임파워먼트 척도(주된 참여자) · 목표 달성 인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인터뷰 (주된 참여자, 보호자) · 담당자 관찰 평가

평가 결과	
양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계선 지적 기능 청소년의 개인 내적 임파워먼트 척도 변화를 프로그램 참여 전 · 후로 분석한 결과, 개인 내적 임파워먼트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t=-3.377, p<.01$)에서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남. · 참여 청소년들의 개인 내적 임파워먼트 척도는 프로그램 실시 전, 평균 58.50점(표준 편차 15.187점)이었고, 프로그램 실시 후에는 평균 67.87점(표준 편차 11.129점)으로 나타나 9.37점이 향상됨. · 국가 공인 도배 기능사 실기 시험은 5명 대상자 중 5명 전원이 정규 교육 과정(32회)을 모두 이수한 후 시험에 응시함. 각 대상자가 정한 단계별 목표에 부합한 참여자는 5명 중 3명으로 절반 이상이 목표를 달성함. · 국가 공인 제빵 기능사 필기 시험은 1 : 1 제빵 멘토링(7개월) 이론 교육을 받은 7명 중 6명이 필기 시험에 응시함. 응시자 6명 중 3명은 목표보다 월등한 점수를 받아 목표를 달성함.
질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 카드, 포토보이스를 이용한 질적 평가 및 개별 인터뷰, 자격증 준비 과정을 함께했던 멘토와의 SNS 소통 진행 - 진로 계획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새로운 목표에 대한 도전 정신과 자신감을 얻음. - C(고1) : 변호사, 치과 의사, 경찰관, 조리사가 되고 싶다고 밝혔으나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 계획도 없었음. 프로그램 전(4월) 개별 인터뷰에서 "그냥 잘하는 거 아무것도 없이 생각 없이 사는 제가 싫어요"라며 자괴감을 표현함. 제빵 기능사 필기 시험을 치르고 프로그램 종료 후 진행한 개별 인터뷰(12월)에서는 "시험에서 떨어졌지만 목표 점수가 나온 게 일단 좋고 내년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 같아요"라며 목표 의식과 도전 의식을 보임.

성과 목표 3.	성과 지표	자료 및 수집 방법	
		양적 평가	질적 평가
가족 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구성원 간의 지지적 관계를 형성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양육 태도 척도 · 양육 스트레스 척도 · 가족 건강성 척도 (각 척도의 변화 분석) · 개별 인터뷰 · 관찰 평가 자료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양육 태도 척도 (주된 참여자) · 양육 스트레스 척도 (보호자) · 가족 건강성 척도(보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인터뷰 (주된 참여자, 보호자) · 담당자 관찰 평가

평가 결과	
양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계선 지적 기능 청소년의 부모 양육 태도 척도 변화 분석 결과 - 사전 검사 평균은 41.0점(표준 편차 5.966점), 프로그램 실시 후 평균은 45.75점(표준 편차 6.718점)으로 4.75점이 향상되었으나 통계적인 유의도는 나타나지 않음. ·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계선 지적 기능 청소년 보호자의 가족 건강성 척도 비교 변화 분석 결과 - 가족 건강성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t=-2.384, p<.01$)에서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남. - 프로그램 실시 전 참여 청소년의 가족 건강성 척도 평균은 102.0점(표준 편차 23.237점), 실시 후 평균은 117.25점(표준 편차 17.052점)으로 15.25점이 향상됨. ·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계선 지적 기능 청소년 보호자의 양육 스트레스 척도 비교 분석 결과 - 프로그램 실시 전 평균은 76.63점(표준 편차 12.66점), 프로그램 실시 후 평균 87.75점(표준 편차 8.413점)으로 11.12점이 높아져 스트레스가 높아진 것을 확인함. - 고등학생 경계선 지능 자녀를 둔 보호자에게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올해 프로그램에서 진로와 직업을 주제로 구체적 목표를 설정했고 이 과정에서 보호자들의 참여가 늘면서, 자녀 진로와 취업에 대한 현실적 인식이 부족했던 보호자들이 장차 겪을 어려움을 직면하고 이를 걱정한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질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토보이스를 이용한 사전 · 사후 평가 진행 - 자신의 현 상태를 나타내는 사진을 고르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참여자의 상태를 확인함. - 프로그램 사전 · 사후 결과 비교를 사진으로 분석한 결과, 가정에서 소외되던 참여자가 가족의 관심과 지지를 받는 관계로 발전했음을 확인함. - B(중3) : 프로그램 전(4월)에는 "엄마는 동생들만 보고 아빠는 잔소리만 해서 집에서 저는 사랑을 원하는 작은 강아지 같은 사람이었어요." 프로그램 후(12월) "엄마가 요즘은 칭찬도 많이 해주고 제 말을 들어줘서 너무 편해졌어요." · 참여자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평가도 병행함. - D(고1)의 보호자 : 4월 초기 상담 기록지 중에는 "만날 거지말하고 놀러 다녀서 못 믿어요. 거지말하면 혼내주세요"라고 불신을 보임. 11월 중순 전화 상담 기록지에서는 "그래도 복지관에서 열심히 하려는 게 보이니까 안심이 돼요. 이제는 아이를 좀 믿어보려고요"라며 신뢰를 표함.

성과 목표 4.	성과 지표	자료 및 수집 방법	
		양적 평가	질적 평가
경계선 지적 기능 청소년에 대한 지역 사회의 이해를 도모하고 지지망을 확대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지지 척도 · 사회성 척도 (각 척도 향상 정도 분석) · 개별 인터뷰 · 관찰 평가 자료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지지 척도 (주된 참여자) · 사회성 척도 (또래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인터뷰 (주된 참여자) · FGI 인터뷰 (또래, 주민 참여자) · 담당자 관찰 평가

평가 결과	
양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계선 지적 기능 청소년들의 사회적 지지 척도 변화 분석 -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t=-2.940, p<.01$)에서 참여 청소년들은 이전보다 주변의 지지 체계를 인식하고 지지받고 있다고 인식한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됨. - 프로그램 실시 전 참여 청소년들의 사회적 지지 척도 평균은 81.12점(표준 편차 25.984점), 실시 후 평균은 96.50점(표준 편차 20.225점)으로 15.38점 향상됨. · 프로그램에 참여한 또래 청소년의 사회성 척도 변화 분석 -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t=-2.987, p<.01$)에서 주변을 배려하고 돕는 사회성 향상이 나타남. - 프로그램 실시 전, 사회성 검사 척도 평균은 53.75점(표준 편차 3.615점), 실시 후 평균은 55.62점(표준 편차 3.662점)으로 2.07점 향상됨.
질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주 취미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민 참여자의 활동 일지 분석 - 경계선 지적 기능 청소년과 함께하는 활동에 대한 인식과 참여 태도에 변화가 있었고, 참여 청소년과의 지지적인 관계가 형성된 모습을 볼 수 있었음.

평가 결과	
질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예 동아리 주민 참여자 : 5월 활동 일지에서는 "아이들이 어수선하고 어려우면 쉽게 포기하려고 함. 의존하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했으면 함"이라고 했으나, 12월에는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얘기하고 다독이고 이끌어준다면 놀라운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은 티 없이 맑은 아이들이라 즐겁게 수업할 수 있었음"이라고 밝힘. - 밴드 동아리 주민 참여자 : 5월 활동 일지에서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온 만큼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겠다"며 시혜자의 시각을 드러냈으나, 11월에는 "어느새 밴드 공연 연습이 봉사가 아닌 놀러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아이들과도 동네 형, 동생 관계가 된 것 같이 편하다"며 지지적 시각을 나타냄. · 매주 취미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또래 참여자들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 분석 - 경계선 지적 기능 청소년(주된 참여자)에 대한 관심이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음. - 공예 동아리 또래 참여자 : "매주 같이 활동하고 보니, 나쁜 심성을 가진 친구는 한 명도 없고 도와주는 것도 잘하고 남에게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들이란 걸 알게 되었어요"라며 긍정적 평가를 함.

IV. 사업 성과

1. 사회적 관계망의 양적 확대 및 질적 개선

본 사업에 참여한 경계선 지적 기능 청소년은 사람과 정을 나누는 것이 서툴러 소외되고 놀림을 받아왔다. 이들의 사회적 관계망은 초기, 학교의 또래 청소년(대개 같은 경계선 지적 기능 청소년)과 가족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높은 친밀도를 보이는 상대와 상호 교류 수가 매우 적었다. 특히 또래 관계에서 수동적·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며 타인에게 다가가기 힘들어 했다. 하지만 취미라는 공통 관심사를 매개로 매주 서로 도우면서, 또한 나눔 활동을 매개로 응집력이 강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친밀감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차 연도 사업에 재참여한 경계선 지적 기능 청소년 3명이 반장을 맡으면서 신규 합류한 주된 참여자와 주변 참여자의 단결을 도모하고, 비상 연락망을 만들어 활발히 연락하고 참여를 독려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들은 각 팀의 팀장을 맡아 캠프 일정을 직접 계획하고 팀원 활동을 격려하며 장기 자랑 준비를 이끌었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자치력과 주체성이 강화되었으며 내재된 리더십을 끌어낼 수 있었다.

2. 새로운 도전에 대한 자신감 향상과 현실적 진로 계획 구축

1차 연도와 비교하여 2차 연도 "한울타리"의 가장 큰 변화는 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진로 계획 프로그램이 구체화되었다는 점이다. 프로그램 초기에는 진로나 직업에 대해 20분 이상 이야기하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로 준비되지 않은 모습이었고, 진로·직업에 대해서도 매우 막연하거나 비현실적인 꿈을 말하곤 하였다. 이를 개선하고자 1차 연도에 진행한 취미 활동에 기반해 도배 기능사와 제빵 기능사 자격증 준비 과정을 진행하였다. 참여자들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와 필기 시험을 준비하면서 직업을 가지려면 전문 기술을 익혀야 한다는 점, 그 과정에서 성실함과 꾸준한 노력이 수반된다는 점을 깨달았다. 처음 배우는 전문 기술과 이론 앞에 겁먹고 도중에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참여자는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노력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감을 획득하고 직업과 진로

현실에 대한 구체적 인식을 형성했다는 점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이는 자격증 취득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의미 있는 경험이 되었다. 단순히 취미나 재미를 넘어 자신의 재능과 가능성을 타진하여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3. 지역 사회 인식 개선과 가정 내 지지적 관계 형성

1차 연도에 이어 2차 연도 "한울타리"에서도 경계선 지적 기능 청소년들과 함께 살아가는 주변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에 긍정적인 변화를 끌어내고자 했다. 경계선 지적 기능 청소년들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들이 살고 있는 환경과 그 주변 사람들의 변화이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경계선 지적 기능 친구들에 대해 편견으로 마음을 열지 않았던 중학교 2학년생 또래 참여자는, 함께하는 횟수가 더해질수록 이들이 평범한 학교 친구들과 다르지 않고, 착하고 잘하는 것이 많은 친구들이라며 인식을 달리하게 되었다. 취미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른 주민 참여자들 역시 처음에는 경계선 지적 기능 청소년을 낯설고 다른 존재로 인식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함께 취미 활동을 하면서 이들이 사랑받고 싶어 하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잘할 수 있다고 여기는 등 인식 개선이 이루어졌다.

또한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경계선 지적 기능 자녀를 이해하고 가정 내에서 이들을 지도하는 교육 훈련을 진행하면서 지지적 관계 형성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하였다. 경계선 지적 기능 자녀의 잦은 거짓말로 관계가 점점 멀어졌다는 한 어머니는, 아이가 취미 생활과 자격증 준비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격려하면서 모녀 관계가 호전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보호자가 경계선 지적 기능 자녀의 특성을 인정하고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맞춰가면서 가정 내의 변화를 이끌게 된 것은 더없이 긍정적인 변화이다.

V. 향후 계획

"한울타리" 프로그램은 경계선 지적 기능 청소년이 지역 사회라는 울타리 안에 속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크고 단단하게 형성하는 것에 목표가 있다. 따라서 1차 연도에는 경계선 지적 기능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 사회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형성·개선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2차 연도에는 참여 청소년들의 진로와 직업에 대한 개입을 추가적으로 실시해, 이들이 독립된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서 설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자 했다.

3차 연도에는 2차 연도의 진로 계획을 바탕으로, 참여자 개인의 역량에 맞는 직업 모색과 실천 계획을 개인 맞춤형 계획으로 사전에 구체화해보고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프로그램에서 개발한 역량을 바탕으로 졸업 후 지역 사회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마을 사업장을 발굴, 도제식 직업 체험을 통해 실무를 익히는 준비 과정을 계획 중이다. 또한 경계선 지적 기능 청소년을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포용력 있는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계선 지적 기능 청소년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 내 환경 변화를 도모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사각지대에 있던 경계선 지적 기능 청소년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12월 현재, 관할 교육청 및 유관 복지관과 이를 논의 중이다.

건강한 놀이·문화 공간 중심의 지역 사회 돌봄 공동체 구축을 통한 학령 전환기 청소년의 비전 찾기(꿈 그리기) 프로젝트

마을에 기반을 둔 “청소년 Dream Secret 놀이터”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정혜지

I. 프로그램 실시 배경

본 복지관이 위치한 성북구에는 청소년 관련 시설이 아동 시설에 비해 현저히 부족해, 상대적으로 부모의 보살핌을 덜 받는 저소득층 청소년의 이탈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 이에 부모의 맞벌이, 생계형 방임 등으로 야간 돌봄이 어려운 학령 전환기 청소년(중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방과 후 갈 곳이 마땅치 않아 비행 및 범죄, 학교 부적응 위험에 노출된 취약 계층 청소년들을 위해 본 복지관 내 “청소년 드림 시크릿 놀이터”를 개소, 쉽게 방문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건전한 놀이·문화·비전 찾기·돌봄(식식, 학습) 프로그램을 실시해 청소년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프로그램 주체를 청소년과 지역 주민으로 하여 청소년 욕구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지도가 가능한 드림 가이드 자원 활동가, 돌봄 공동체 단체를 모집·양성하여 마을과 동네를 기반으로 청소년을 세우는 ‘성북 Dream 돌봄 공동체’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II. 프로그램 개요

1. 목적

돌봐줄 사람이 없어 학습 부진, 학교 부적응, 비행에 노출되기 쉬운 학령 전환기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건전한 놀이 및 문화 공간 “청소년 드림 시크릿 놀이터”를 제공한다. 이 공간에서 지역 공동체의 돌봄을 통해 청소년의 꿈·비전 찾기를 실시하여 이들의 이탈을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한다.

2. 목표

목표 1.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령 전환기 저소득층 청소년의 자아 정체성 향상

목표 2. 드림 가이드와 함께하는 비전 찾기를 통한 진로 성숙도 향상

목표 3. 잠재된 위험에 놓인 청소년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

목표 4. 마을과 동네에 기반을 둔 ‘성북 Dream 공동체’ 구성으로 청소년 맞춤형 지원 체계 활성화

3. 프로그램 대상

대상 구분	산출 근거
주된 참여자	· 돌봄이 필요한 성북구 내 저소득 취약 계층 중 학령 전환기(중학교 1, 2학년) 청소년 · 본 복지관 인근 지역인 성북구 월곡1·2동, 종암동, 장위1동 거주자 위주 · 중학교 1, 2학년 청소년 중 “청소년 드림 시크릿 놀이터” 이용을 원하는 청소년
주변 참여자	꿈·비전 찾기 지원 지역 공동체(개인 자원 활동가, 드림 가이드 멘토 등) 활동을 원하는 지역 주민

III. 프로그램 진행 및 평가

1. 세부 프로그램 진행 내용

프로그램	일정	횟수	세부 내용	수행 방법
사업 홍보 및 참여자 선정	사업 홍보	상시	1회/12곳 종암중, 송곡중, 장위중, 월곡중, 드림스타트센터, 틈새돌봄 등 유관 기관 홍보	· 유관 기관 대면 홍보 · 공문 발송
	참여 대상자 선정	1~3월	1회/15명 야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15명 선정	· 지역 기관 의뢰 · 청소년 자체 발굴
	초기 상담 및 부모 상담	1~3월	1회/26명 참여자 선정을 위한 보호자 상담 진행	가정 방문, 기관 방문, 유선 상담
욕구 조사 및 비전 동아리 조직	진단 검사를 통한 진로 유형 욕구 조사	4월	1회 · 진로 성숙도, 직업 적성 검사 및 해석 상담 실시 · 동아리별 진로 유형 분석 실시 · 희망 동아리 조사	· 성북구진로직업체험센터와 연계하여 검사 실시 및 해석 상담 실시 · 비전 동아리별 진로 유형 분석 · 욕구 조사 설문지를 통한 희망 동아리 사전 조사
	진로 유형에 따른 비전 동아리 조직	4월	3회 · 동아리 조직 - PC 동아리 7명, 음악 동아리 5명, 디자인 동아리 3명	· PC, 음악 동아리 조직 및 모집 · 청소년 욕구에 따라 디자인 동아리를 추가 모집

프로그램		일정	횟수	세부 내용	수행 방법
드림 가이드와 함께하는 비전 동아리 교육 및 체험 활동	비전 동아리 교육 체험 계획 수립	4월	1회	드림 가이드와 함께하는 비전 동아리 교육, 체험 계획	비전 동아리 담당 드림 가이드, 청소년, 사회복지사가 함께 진로 유형, 청소년 욕구 반영해 선정
	비전 동아리 교육 체험 활동	매주 화	주 1회	· 동아리별 교육 계획에 따라 드림 가이드와 주 1회 교육·체험 활동 · 월 1회 특별 활동 - 조향사, 패션 디자이너, 푸드 아트 테라피스트, 마을 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직업군의 진로 특강 - 관련 직업 현장 방문	· 청소년 자치 회의를 통하여 진로 특강 욕구 조사 후 전문가 교육 실시 · 마을 내 사회적 기업 방문, 관련자 인터뷰 · 관련 직업 현장 방문 · 각 활동 후 다른 동아리원과 함께 소감 공유
드림 가이드와 함께하는 비전 동아리 자치 활동	비전 동아리 자치 활동	매주 목	주 1회	· 드림 가이드와 함께하는 활동 외에 청소년 자치 활동 진행 - 학습 내용 복습 및 토론 - 욕구 조사 진행	· 청소년들끼리 자치 활동을 진행 · 정서 드림 가이드 배치로 안전한 환경 조성
	비전 동아리 청소년 자치 평가회	4~12월	월 1회	· 청소년 주도 평가회 진행 - 전체 운영 상황 점검 - 익월 운영 계획 수립	· 청소년 회의를 통해 놀이터 운영 방향을 직접 결정함. - 진로·놀이·돌봄·기타 영역으로 나눠 실천함.
드림 가이드 진로·학습 멘토 조직 및 운영	드림 가이드 모집	1~3월	1회	· 비전 동아리 진로 드림 가이드 8명, 학습 드림 가이드 20명, 정서 드림 가이드 6명(총 34명) · 목표 인원 9명 외 25명 추가 모집 및 관리	· 인근 대학교를 대상으로 홍보 · 비전 동아리 주제별 관련 학과 대학생(단체) 모집 - PC 동아리 : 송실대 글로벌 미디어 학부 - 음악 동아리 : 고려대 사범대 밴드 - 디자인 동아리 : 동덕여대 패션디자인학과
	드림 가이드 교육	8, 11월	2회	· 오리엔테이션(4월) · 1차 보수 교육(8월) - 청소년과 관계하기 · 2차 보수 교육(11월) - Peer Supervision	· 1, 2차 집합 보수 교육 실시 - 드림 가이드 욕구에 기반한 교육 진행 - 오리엔테이션 내 보수 교육 희망 주제 조사 - 사전 논의하고 싶은 질문 조사 - 드림 가이드가 서로 공감·조언·관계하도록 구성
드림 오픈 놀이터	놀이 공간 조성	상시	-	· 인테리어 및 물품 구입 - 사전 욕구 조사 - 청소년 자치 회의에서 물품 선정 · 청소년 중심 공간 구성 - PC 영역, 놀이 영역, 학습 영역으로 구분	· 청소년 스스로 '청소년만을 위한 공간'에 필요한 물품을 회의를 통해 선정, 구입, 배치 · 1~4월 집중 놀이 공간 조성, 오픈 놀이터 Book Day 등을 통해 필요 물품 상시 구입
	기관 내 시설 개방	매주 토	주 1회	· 매주 토요일 13~16시 '오픈 놀이터' 공간 개방 - 놀이, 학습, 자치, 회의, 모임 공간으로 활용 - 코디네이터 입실 하에 진행	· 인근 중학교 유인물 홍보 - 수행 평가 공간, 놀이 공간, 동아리 연습 공간으로 활용 · 청소년 기관 공문 홍보 · 지역 축제시 홍보 부스 운영 - 청소년과 드림 가이드가 함께 이용 안내 및 홍보

프로그램		일정	횟수	세부 내용	수행 방법
드림 오픈 놀이터	잠재 위험군 발굴	상시	5회 (5명)	· 평일 드림 시크릿 놀이터 상시 이용 허용 - 놀이터 등록 청소년과 야간 돌봄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총 5명)이 동행 · 오픈 놀이터 내 돌봄을 받지 못하는 잠재 위험군 상시 스크리닝	상시 이용 가능한 오픈 놀이터 이용 청소년이 야간 돌봄 부재 청소년과 동행, 자율 적응 기간(1~2주) 후 등록
돌봄 프로그램	석식 지도	매일	주 5회	· 매주 월~금요일 석식 지도 (공휴일 제외) · 디딤돌 연계, 월 2회 떡볶이 제공 · 돌봄 공동체 연계, 월 1회 특식 제공	· 단체 급식, 간식 제공 · 성북구청 아동 급식 서비스 연계 · 지역 자원 연계 - 디딤돌(떡볶이) - 돌봄 공동체(특식)
	드림 가이드와 함께하는 학습	매주 수·금	주 2회	· 주 2회(매주 수·금) 학습 드림 가이드와 함께하는 학습 활동 · 학습 드림 가이드와 함께하는 관계 강화 및 특별 활동(매칭 커플별 자율 특별 학습)	· 요일별 희망 과목 선택, 학교·학년·수준별 그룹 학습 멘토링 매칭 · 매칭한 커플별 학습 계획서 제출, 교재 선정, 학습 및 특별 활동 진행
	자기 주도 학습	매주 월	주 1회	· 매주 월요일 자치 활동 진행 · 주 1회 자기 주도 학습 · 월 1회 자치 회의	· 드림 가이드 수업 후 과제 부여, 자율 학습 실시 - 단순 문제 풀이 외 토론, 독서, 퀴즈 프로그램 감상 등 · 월 1회 청소년 자치 회의 진행
사례 관리	개별 사례 관리	상시	-	· 월 1회 상담 · 서비스 연계	· 드림 가이드·코디네이터·Wer 필요 단계별 상담 실시
성북 dream 돌봄 공동체 조직	개인 및 단체 활동가 모집 및 선정	4월	2회	· 삼성전자 나눔 봉사단(대학생) - 진로 특강 및 체험 부스 운영(6~12월, 월 1회) · 녹색환경실천단(지역 단체) - 특식 지원(8~12월, 월 1회)	지역 내 유관 기관, 후원자 대상으로 돌봄 공동체 모집 홍보
	개인 및 단체 활동가 양성 교육	11, 12월	2회	· 1차 교육(11월) - 청소년 사례, Peer Supervision · 2차 교육(12월) - 연합 스트레스 관리 교육	돌봄 공동체 & 드림 가이드 연합 집합 교육
	성북 dream 돌봄 네트워크 간담회	4~12월	월 1회	· 돌봄 공동체 간담회 - 4~12월(월 1회씩 총 7회) · 마을 유관 기관 영역 간담회 - 교육청·교사·지역 사회 교육 전문가·유관 기관 연합 - 10, 12월(총 2회)	· 등록 돌봄 공동체 대상 간담회 (월 1회) · 지역 청소년 유관 기관 실무자 대면 간담회

2. 과정 평가

프로그램		수행 시기	목표량	산출량	평가 결과
사업 홍보 및 참여자 선정	사업 홍보	상시	12곳	12곳	· 유관 기관, 인근 학교, 지역 아동 센터, 청소년 기관 공문 발송 · 본 기관 및 유관 기관 온라인 홍보문 게시, 안내문 발송 · 인근 중학교 전체 학급에 안내문 비치, 홍보 · 등록 청소년이 오픈 놀이터 특별 활동을 기획하고 홍보문 제작, 비치 · 고등학교, 대학교 진학 및 관련 학과 안내, 체험 등을 돌봄 공동체와 연계, 오픈 놀이터 특강 실시로 흥미 유발
	참여 대상자 선정	1~3월	15명	15명	
	초기 상담 및 부모 상담	1~3월	30명	30명	
육구 조사 및 비전 동아리 조직	진단 검사를 통한 진로 유형 육구 조사	4월	15명	14명	· 진로 성숙도 검사와 직업 적성 검사 실시 - 청소년이 원하는 비전 동아리를 스스로 찾음 - PC, 음악 동아리 외에 청소년이 직접 관심 영역 동아리를 구성하도록 함. - 청소년 육구 및 검사 결과에 따라 디자인 동아리 추가 조직
	진로 유형에 따른 비전 동아리 조직	4월	15명	15명	
드림 가이드와 함께하는 비전 동아리 교육 및 체험 활동	비전 동아리 교육 체험 계획 수립	4월	9명	34명	· 진로 드림 가이드와 비전 동아리원이 함께 진로 성숙도 및 직업 적성 검사 분석, 교육 체험 계획 수립 · 비전 동아리별 특별 진로 체험을 스스로 계획, 직업 현장 방문 진행 · 성북구진로직업체험센터, 에듀닥터 등과 연계, 진로 특강 실시로 전문성 확보 · 청소년 육구 중심의 활동 설계, 청소년 주체성 향상
	비전 동아리 교육 및 체험 활동	매주 화	396명	434명	
드림 가이드와 함께하는 비전 동아리 자치 활동	비전 동아리 자치 활동	매주 목	396명	290명	· “청소년 드림 시크릿 놀이터” 사전 준비 · 구성 · 운영에 청소년이 직접 참여, 자치하게 함. · 활동 초반에는 청소년들이 자치 평가를 어려워하였으나, 월 1회 회의를 반복 실시하며 의견 제시 및 참여도 증가
	비전 동아리 청소년 자치 평가회	4~12월	90명	131명	
드림 가이드 진로·학습 멘토 조직 및 운영	드림 가이드 모집	1~3월	9명	34명	· 대학교가 많은 지역 자원 활용 - 인근 대학교 PC, 음악, 디자인 유관 학과 동아리를 진로 드림 가이드로 연계 - 목표 외에 다수의 드림 가이드 모집, 충직한 멘토링 실시 · 예정된 드림 가이드 O, T 및 보수 교육(2회) 외 돌봄 공동체 연합 보수 교육(2회) 등 총 4회 교육 실시(회차별 14명, 19명, 10명, 7명 참여) · 드림 가이드는 진로 · 학습 · 놀이 영역 내 청소년의 상이한 모습을 공유, 청소년 이해도를 높임.
	드림 가이드 교육	4, 8, 11, 12월	18명	50명	
드림 오픈 놀이터	놀이 공간 조성	상시	3명	10명	· 4월 이전 등록 청소년 10명이 놀이 공간 조성에 '놀이터 가구미'로 참여, 월 1회 자치 회의를 통해 공간 조성에 지속적 참여 · 매주 토요일 오픈 놀이터 운영 시 주당 10명 참여가 목표였으나 오픈 자연(2월~4월), 짧은 홍보 기간으로 이용 저조, 10월 이후 주당 평균 참여자 10명 이상 유지 · 청소년이 스스로 잠재 위험 청소년과 동행, 잠재 위험군 5명 발굴 및 등록 · 청소년 자치 회의를 통해 청소년 주도적 공간 조성 - 공간 배치도 제작 - 필요 물품 조사 · 구입
	기관 내 시설 개방	매주 토	440명	270명	
	잠재 위험군 발굴	상시	4명	5명	

프로그램	수행 시기	목표량	산출량	평가 결과	
돌봄 프로그램	석식 지도	매일	1,971명	2,575명	· 지자체 아동식, 디딤돌, 지역 후원자 연계를 통해 영양식, 간식 제공 - 식사를 함께하며 가족 같은 돌봄 분위기 조성 · 드림 가이드와 함께 주 2회 학습 활동 - 4월 이후 실시되어 목표보다는 실적 저조 - 수준별, 학교별, 그룹별 매칭을 통한 학습 멘토링 성공 · 자기 주도 학습 실시(주 1회) - 청소년과 드림 가이드가 W'er와 상담 후 함께 매칭 커플별 특별 학습 활동 계획안 작성, 특별 활동 실시, 보고서 제출 - 개별 학습 활동 계획과 특별 학습 활동 계획 수립, 시행
	드림 가이드와 함께하는 학습	매주 수·금	945명	559명	
	자기 주도 학습	매주 월	468명	207명	
사례 관리	개별 사례 관리	상시	150명	145명	· 청소년별 등록 시점 이후 월 1회 상담 · 서비스 연계 8건, 가족 프로그램 연계 6회
성북 dream 돌봄 공동체 조직	개인 및 단체 활동가 모집 및 선정	4월	10명	19명	· 기존 관계망, 지역 단체, 유관 기관 실무자, 대학생 봉사단 대상으로 “청소년 드림 시크릿 놀이터” 성북 dream 돌봄 공동체 조직 · 삼성전자 나눔 봉사단 네트워크 간담회 실시 (7~12월, 월 1회, 총 39명 참여) · 유관 기관 실무자 영역 네트워크 간담회 실시 (총 2회, 27명 참여)
	개인 및 단체 활동가 양성 교육	11, 12월	20명	10명	
	성북 dream 돌봄 네트워크 간담회	4~12월	100명	66명	

3. 효과 평가

성과 목표 1.	성과 지표	측정 도구	평가 방법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전환기 저소득층 청소년의 자아 정체성 향상	자아 정체감 향상 정도	· 자아 정체감 척도 · 면접 · 운영 일지	· 사전·사후 척도 검사 · 1:1 사전·사후 인터뷰 · 담당자 및 드림 가이드 운영 일지 분석
평가 결과			
양적 평가	· 자아 정체성 척도 사전 · 사후 조사 - 대상 : “청소년 드림 시크릿 놀이터”에 등록 이용한 청소년 15명 중 조사 불응자 1명을 제외한 14명의 자아 정체성 척도 사전 · 사후 변화 정도를 관찰 - 결과 : 사전 조사 시 평균 155.78점에서 사후 조사 시 평균 159.5점으로 3.71점 향상(232점 만점)		
질적 평가	· 질문 : “청소년 드림 시크릿 놀이터를 이용하고 달라졌다고 느끼는 점이 있나요?” - 참여자 대부분이 크게 변화된 점은 없다고 답했으나, “청소년 드림 시크릿 놀이터”를 이용하기 전에는 하지 않았던 일들(공부, 음악)을 하게 되었다며 자기 수용력이 향상된 모습을 보임. “솔직히 공부 억지로 시켜서 싫어요. 그래도 예전에는 아예 안 했는데 여기서는 하게 된 게 좀 다르죠” “별로 달라진 건 없는데, 옛날에는 핸드폰만 했는데 지금은 여기서 놀기도 하죠. 게임도 할 수 있고” 등의 답변을 함. · 운영 일지 · 드림 가이드 관찰 · 개별 면접 결과, 성격이 다른 청소년 간의 인간 관계 경험이 증가했음을 확인함. 이는 청소년이 놀이터 구성원 역할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대인 역할 자각이 증가했기 때문임.		

평가 결과	
질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림 가이드 관찰 일지 : “예전에는 청소 한 번 하기도 되게 힘들었는데, 이제는 애들이 얘기하지 않아도 밥 차려 먹고, 청소 시간도 정해서 나눠서 해요.” - 개별 면접 : “그래도 친구들이랑 같이 있을 때 행복한데 여기 오면 애들이 있으니까...”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지 않는 게 달라진 거죠” “또래니까 서로 견제하는 게 어렵긴 해요” 등의 반응 보임. - 청소년이 자치 회의 및 놀이터 구성에 반복적으로 참여하면서 자기 주장이 증가하였고, 스스로 회의를 진행하거나 의견을 정리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화함.

성과 목표 2.	성과 지표	측정 도구	평가 방법
드림 가이드와 함께하는 비전 찾기를 통한 진로 성숙도 향상	진로 성숙도 향상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 성숙도 척도 - 면접 - 운영 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사후 척도 검사 - 1 : 1 사전·사후 인터뷰 - 담당자 및 드림 가이드 운영 일지 분석

평가 결과	
양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 성숙도 하위 변인 중 '진로 탐색 진로 행동' 척도 사전·사후 조사 - 대상 : “청소년 드림 시크릿 놀이터”에 등록된 청소년 이용자 15명 중 조사 불응자 1명을 제외한 14명 - 결과 : 진로 탐색과 결정에 대한 준비 정도를 알아보는 '진로 탐색 진로 행동' 사전·사후 변화를 관찰한 결과, 사전 조사 시 평균 55.86점이었으나 사후 조사 시 평균 60.68점으로 평균 4.81점 향상(100점 만점 기준) - 진로 성숙도 하위 변인 중 '개인별 비전 동아리 유관 진로 탐색 진로 행동' 척도 사전·사후 조사 - 대상 : “청소년 드림 시크릿 놀이터”에 등록된 청소년 이용자 15명 중 조사 불응자 1명을 제외한 14명 - 결과 : 비전 동아리별 유관 하위 변인을 각 1개씩 설정하고 개인별 해당 항목의 사전·사후 변화 파악 (PC 동아리 : 수리 논리력 항목, 음악 동아리 : 음악 능력 항목, 디자인 동아리 : 창의력 항목) - 사전 조사 평균 60.21점에서 사후 조사 평균 66.64점으로 평균 6.43점 향상(100점 만점 기준)

질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문 1 : 진로·학습 문제로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진로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청소년 드림 시크릿 놀이터” 이용 전에는 대부분 학교 진로 수업을 제외하면 진로 고민을 나눠 본 경험이 없었음. 이유로는 “진로 상담 시기가 정해져 있어 정말 필요할 때는 도움이 되지 못했거나, 딱히 물어보지 않았기에 얘기할 필요가 없었다”고 함. - 드림 가이드 일지 중 “많은 선생님들과 함께해서 좋았고, 가끔 힘들었는데 선생님들과 함께여서 기분 좋았고,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어서 좋았어요”와 같은 반응으로 미뤄보아, 드림 가이드와 청소년 사이의 친밀한 관계 형성을 확인할 수 있었음. 또 비전 동아리 활동 중 드림 가이드와 동아리원이 진로에 대해 상시 대화를 나누는 것도 파악할 수 있었음. - 질문 2 : 자유로운 비전 동아리를 만들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주제와 내용으로 만들고 싶으신가요? 비전 동아리를 하며 느낀 점이 있나요? - 개별 면접에서 참여자 대부분이 “비전 동아리에서 관심 영역을 학습하여 만족감이 높았다”고 보고함. 예컨대 “기타를 배우고 싶었는데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아요. 내년에도 비전 동아리를 한다면 이대로 계속하고 싶어요” 라고 답변하기도 함. - 또한 “손으로 만들고 DIY하고 이런 것도 해보고 싶어요”라며 향후 만들고 싶은 비전 동아리를 자연스럽게 언급, 신규 동아리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음. 이는 진로 탐색 기회 증진으로 이어짐.
-------	---

성과 목표 3.	성과 지표	측정 도구	평가 방법
드림 시크릿 놀이터를 운영하여 잠재된 위험에 놓인 청소년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	건전한 놀이 및 문화 공간으로서 역할 수행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 - 운영 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사후 평가(주 참여자) - 개별 인터뷰 (주 참여자 및 관련 참여자) - 담당자 및 드림 가이드 운영 일지 분석

평가 결과	
질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문 : 학교에서 하교 후 취침 시간까지 주로 어떻게 지내나요? - 예전에는 PC방에 가거나 친구들과거리 거리를 배회하고, 집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소일하는 경우가 많았음. 그러나 “청소년 드림 시크릿 놀이터” 이용일에는 공간 내에서 학습, 비전 동아리 활동 등을 시행함. 이로써 주말 PC방 이용 빈도도 감소함. - 활동 초반 청소년들은 “청소년 드림 시크릿 놀이터”에 낯선 청소년들이나 친구가 오는 것을 싫어하였으나, 활동이 진행되면서 친구들과 함께 숙제하거나 노는 공간으로 놀이터를 활용함. 이 과정에서 잠재 위험군 5명을 발굴해 놀이터에 등록함. 또한 놀이터 내 관계 형성은 학교와 일상 영역에서의 관계 확장으로 이어짐. - 돌봄 공동체, 드림 가이드와 함께 비전 동아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주 1회 오픈 놀이터만 이용한 청소년보다 적극적으로 놀이터의 향후 방향성을 고민하고, 놀이터를 직접 가꾸려는 주제 의식을 가짐. 이 과정에서 스스로 소속감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놀이터를 운영하면서, 놀이터의 미래와 자신의 미래 모습에 대해 생각함.

성과 목표 4.	성과 지표	측정 도구	평가 방법
마을과 동네에 기반을 둔 성북 Dream 돌봄 공동체 구성으로 청소년 맞춤형 지원 체계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 청소년 일탈 예방 기능 정도 - 긍정 혹은 부정적인 행동 변화 정도 	면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사후 척도 검사 - 1 : 1 사전·사후 인터뷰 - 유관 기관 간담회

평가 결과	
질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문 : 학교에서 하교 후 취침 시간까지 주로 어떻게 지내나요? - 지역 내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한 안전한 돌봄 공간으로 일탈 예방 도모 - 본 프로그램 운영 전에는 하교 시간인 약 16시~20시 사이 보호자와 함께 있지 못했던 청소년들이, “청소년 드림 시크릿 놀이터” 를 이용하면서 이 시간대 혼자 있는 경우가 줄었음(인터뷰로 확인). 한 학부모는 “5남매 중에 맏이라서 집에 오면 동생들이 줄줄이 있으니까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복지관 다니고 나서는 많이 편해진 것도 보이고 어디에 있는지 안심이 돼요”라며 안도감을 표함. - 저소득층 청소년은 가정에서 컴퓨터를 자유롭게 쓰기 어려워 PC방을 전전하거나 그마저도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잦음. 그러나 본 놀이터를 이용하면서부터 안전한 공간에서 건전한 놀이를 즐기며 일탈을 예방하게 됨. 한 청소년은 “다른 애들은 여기서 컴퓨터를 못해도 집에서 하면 되고, 휴대폰도 할 수 있겠쎬. 근데 저는 여기가 아니면 안돼요”라며 놀이터에 대한 애착을 보임. - 유관 기관, 마을 후원자, 지역 자원 연계를 통한 돌봄 공동체 구성으로 청소년 지원 체계 활성화 - 일부 청소년의 경우, 프로그램 운영 이전에는 편의점 음식이나 라면으로 저녁을 대신했음. 놀이터를 이용하면서부터 주 3회 이상 자자체 연계로 제공받은 영양식을 저녁으로 먹게 됨. 또한 디딤돌, 지역 후원 단체 연계로 건강한 간식 섭취를 할 수 있었음. - 지역 내 교육 복지 협의회를 통해 유관 기관 영역의 돌봄 공동체가 구성됨.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 드림 시크릿 놀이터”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청소년을 교육 복지 영역에서 함께 돌보고 관찰함(15명 중 9명 교육 복지 우선 지원 사업 대상으로 확인, 학교와 공동 모니터링). - 마을 축제 참여로 놀이터 자립과 돌봄 공동체 기여 경험 획득 - 저소득층 청소년들과 돌봄 공동체가 함께 마을 축제에 참여, “청소년 드림 시크릿 놀이터” 체험 부스 운영 - 비전 동아리 밴드 공연(아동 청소년 문화 축제, 어린이날, 쿠팡 버스, 생명복지나눔의 거리 3회, 돌봄 박람회 등 총 6회) 경험을 통해 청소년들이 스스로 마을 내에서 자생적 구조를 갖추. - “청소년 드림 시크릿 놀이터” 이용자가 단순한 수혜자에 머무는 대신, 돌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마을 돌봄에 동참하는 계기가 됨.

IV. 사업 성과

1. 마을 청소년을 위한 자유롭고 안전한 '놀이터' 조성 및 잠재 위험군 발굴

“청소년 드림 시크릿 놀이터” 사전 조사를 위해 마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30건의 사전 욕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소년 전원은 청소년 전용 시설을 이용해 본 경험이 전혀 없었다. 그 이유로 대다수가 “몰라서” “그다지 가고 싶지 않아서” “별로 하고 싶은 게 없어서”라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과거 지역 아동 센터나 복지관 등을 이용해 본 경우에도 “일시적 학습 지원”을 위한 이용에 그쳤다. “청소년 드림 시크릿 놀이터”는 이렇듯 갈 곳 없는 청소년들에게 자유로운 놀이 공간이 되었다. 특히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청소년, 가정 환경 탓에 부모가 돌봐주지 못해 밤늦게까지 공원과 PC방을 전전하는 저소득층 청소년의 놀이 욕구를 해소할 장이 되었다. 또한 활동 초반 친구들과 함께 놀이터에 방문하는 것을 꺼려하던 청소년들도 시간이 흐르면서 친구들과 함께 놀이터에 방문해 각각의 목적에 맞게 자유롭게 본 공간을 이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5명의 잠재 위험군을 발굴해, 본 놀이터에 등록하게 함으로써 안전한 체계 내에서 보호하였다. 또한 놀이터 안에서 관계를 맺은 청소년들이 학교와 일상 생활 영역에서도 서로 관계를 유지하며 사회적 관계망을 확장하는 순환 구조가 생겨났다.

2. 청소년의 자치력 향상 및 마을(지역) 참여 증가

본 “청소년 드림 시크릿 놀이터”는 청소년이 스스로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청소년만의 공간으로 기획되었다. 이에 초기 세팅 과정부터 청소년의 욕구를 수렴하고, 등록 청소년들이 ‘놀이터 가꾸미’로 활동하면서 공간 배치부터 운영 규칙, 매월 운영 계획, 홍보를 직접 진행하는 자치 운영을 지향하였다. 활동 초기에는 자치 회의에 대해 낮은 의욕을 보이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던 청소년들은, 프로그램이 진행될수록 자기 주장이 뚜렷해지고 놀이터와 본인의 미래를 조망코자 하는 모습으로 바뀌어갔다. 청소년들의 자치력 및 자기 주도성의 향상은 놀이터 내에서뿐만 아니라 마을 축제에서도 자발적으로 반복 표출되는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 이는 마을에서 보살핌을 받던 청소년들이 마을과 함께 서는 존재로 활동하게 되는 순환 구조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3. 마을 돌봄 공동체 내의 신뢰할 만한 성인과의 교류, 그리고 성장

“청소년 드림 시크릿 놀이터”는 청소년이 자치하고 마을이 감싸는 ‘마을을 기반으로 한 공간’이다. 놀이터에서는 진로·정서·학습 영역의 드림 가이드, 후원자 및 지역 단체로 구성된 돌봄 공동체, 유관 기관 실무자로 구성된 돌봄 공동체를 겹겹이 구성하여 마을이 함께 청소년을 돌보는 구조를 확립하였다. 이 안에서 서로 다른 영역의 드림 가이드와 돌봄 공동체가 연합 교육 및 간담회를 통해 소통하며 청소년을 심층 이해하고, 상호 지지를 가능하게 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청소년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성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유대감을 느꼈고, 스스로의 미래를 조망할 성장 기회를 얻었다. 본 사업에서는 청소년과 드림 가이드의 관계 강화 활동을 수차례 진행하였는데, 이는 드림 가이드와 돌봄 공동체, 그리고 청소년 간의 정서적 지지를 기반으로 한 비전 동아리 및 학습 활동으로 구현되었다. 청소년은 드림 가이드와 함께 각 영역과 관련된 관계 강화 활동을 계획 실행하며 유대감을 키웠으며, 주요 활동의 동기를 부여받았다.

V. 향후 계획

2016년 “청소년 드림 시크릿 놀이터”의 성과는 마을 내에 자유로운 청소년 놀이 문화 공간을 조성했다는 점, 그리고 놀이터 구성원인 청소년과 마을의 구조가 탄탄히 확립되었다는 점이다. 향후에는 청소년의 자치력을 강점으로 한 비전 동아리를 강화하며, 돌봄 공동체가 이를 겹겹이 지원하는 운영 형태를 유지하고자 한다. 올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참여 청소년의 자아 정체감 및 진로 성숙도가 향상되고, 비전 동아리의 향후 계획을 직접 상상하고 조망하는 변화가 있기는 했으나, 이는 또래 평균에 머무는 수준이다. 앞으로는 놀이터를 매개로 청소년 성장 교육의 질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 비전 동아리가 지역에 설 기회를 넓혀 가며 더 많은 마을의 청소년이 놀이터를 알고, 필요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1차 연도에 실시한 욕구 조사 중 “내가 우리 마을에 우리(청소년)만을 위한 공간을 만든다면 어떤 공간을 만들고 싶은가요?”라는 질문의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이 바라는 공간을 청소년이 스스로 꾸준히 조성해 나가는 것을 지원하고자 한다. 이는 잠재 위험군을 발굴해 보호하는 동시에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 문화를 확장하고, 청소년을 마을의 주인으로 인식하여 함께하는 마을 성장에 기여하게 할 예정이다.

장애인 당사자가 만들어가는 공공 안내 장애인 픽토그램 개발·보급 사업

“part 1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관광 안내 픽토그램 개발”



서귀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준협

I. 프로그램 실시 배경

인간은 언어에 기반한 표기 정보보다 직관적인 그림 정보에 더 효과적으로 반응한다. 그래서 의미를 상징화한 픽토그램(그래픽 심볼)은 국가, 언어, 인종, 종교, 관습, 문화 등의 차이를 초월해 누구에게나 쉽고 빠르게 의미를 전할 수 있다. 특히 언어 표현이나 신체적 어려움이 있는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뇌병변 장애, 지체 장애 등의 장애인에게는 픽토그램이 효율적인 정보 전달 매체가 된다.

그러나 그동안 기업과 디자이너 등이 픽토그램을 경쟁적으로 개발한 탓에 같은 의미에 대해 다양한 형태가 만들어지면서 사용자의 혼란을 야기시켜 왔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2001년부터 공공 안내 그림 표지 표준화 3개년 사업을 실시하여 총 300종의 국가 표준(KS)과 14종의 국제 표준(ISO)을 채택했고, 2008년 11월 픽토그램에 대한 국가 표준(KS) 사용 설명회에서 총 335종을 제정, 국제 표준(ISO) 32종을 채택했다.

하지만 이 중 장애인에게 실효성 있는 픽토그램은 10% 정도에 불과하다. 유럽의 경우 장애인만을 위한 픽토그램이 약 100여 개인 것과 비교해 본다면 턱없이 적은 숫자이다. 이에 픽토그램을 활용하여 제주 지역에 관광 오는 장애인에게 의사 소통의 장을 열어주고, 또 관광지 시설 안내 등 다양한 영역에서 픽토그램을 개발하여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면서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II. 프로그램 개요

1. 목적

언어적 소통이 힘든 장애인들이 제주 관광 시 정보 습득 및 의사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장애인 당사자가 맞춤형 픽토그램을 직접 개발하고, 복지 관광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을 제작하여 장애인의 여가 문화 향유권을 보장한다.

2. 목표 및 하위 목표

목표 1. 연구회 참여 장애인들이 역량 강화 및 자기 주장 능력을 강화시킨다.

하위 목표 1. 청각·뇌병변·지체 장애인 당사자 5명을 섭외하여 연구회를 조직한다.

하위 목표 2. 1회 O.T 및 교육을 통해 동료 의식을 형성하고 연구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하위 목표 3. 동료 상담을 1박 2일 실시하여 사회 활동(여행)에 대한 어려움을 공유한다.

하위 목표 4. 브레인스토밍을 4회 실시하여 픽토그램 기초 자료를 확보한다.

목표 2. 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용이성이 높은 픽토그램을 개발한다.

하위 목표 1. 시각 디자이너 3명을 확보하여 픽토그램 30개를 설계한다.

하위 목표 2. 1차 시범 테스트를 통해 용이성 70%를 확보한다.

목표 3. 복지 관광 픽토그램 상품을 개발·보급하여 장애인 관광 편의성을 제공한다.

하위 목표 1. 픽토그램을 복지 관광에 접목할 상품 3개를 개발한다.

하위 목표 2.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픽토그램 상품을 관광 업체 및 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에 보급한다.

3. 프로그램 대상

대상자 범위	개념적 범위	언어적 소통 및 정보 습득이 힘든 뇌병변·청각·지체 장애인
	기관 이용자	지역 사회 내 자립 생활을 실천하는 지체·뇌병변·청각 장애인
대상자 구분	주된 참여자	· 1~3급 중증 장애인 5명(픽토그램 기초 연구회 참여자) · 청각 언어 장애 1인, 뇌병변 장애 2인, 지체 장애 2인
	주변 참여자	· 제주도에 관광 오는 장애인 약 50만 명(추정치) · 제주 지역 내 뇌병변·청각·지체 장애인 1만 1,983명 · 외국인 제주 관광객 332만 8,000명

III. 프로그램 진행 및 평가

1. 세부 프로그램 진행 내용

프로그램	세부 내용	수행 방법	
픽토그램 기초 연구회	홍보 모집	언어 소통이 힘든 지체·뇌병변·청각 장애인 모집	· 유형별 장애인 단체 협조 공문 · 센터 활동가에게 홍보
	오리엔테이션 및 픽토그램 교육	· 픽토그램 기초 연구회 목적, 일정 안내 · 장애인 편의 시설 및 접근성 관련 교육	· 오리엔테이션 진행 · 사전 교육 진행

프로그램	세부 내용	수행 방법	
픽토그램 기초 연구회	집단 동료 상담	· 사회 경험에서 어려웠던 부분 공유 · 동료 상담을 통해 인권 감수성 높임 · 픽토그램 제작 아이디어 미션 부여	· 1박 2일 집단 동료 상담 · 자기 주장 훈련 강화
	브레인스토밍	· 논의 주제 - 장애인 사회 활동의 어려움 - 여행 시 어려움 및 차별적 요소 - 장애인 픽토그램 아이디어 내기	·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활용하여 진행 · 수화 통역사 섭외, 의사 소통 문제 없이 진행함.
디자인 싱크탱크 조직	픽토그램 디자인 설계 회의	· 디자이너 모집 · 본 사업 취지 설명, 장애인 이해 교육 실시 · 디자이너 설계 회의 진행 · 픽토그램 디자인 과제 부여	· 픽토그램 디자인 피드백 · 각 디자이너 기본 디자인 공유 · 그래픽 심볼(픽토그램) 제작 가이드 설명
	픽토그램 시범 테스트	· 1차 픽토그램 사용성 테스트 진행 · 2차 픽토그램 사용성 테스트 진행	· 1차 테스트는 1종당 2개 이상의 픽토그램 중 하나를 택하는 것으로 테스트 진행 · 2차 테스트는 1종의 픽토그램에 '이해 됨, 안 됨'을 체크하여 테스트 진행
픽토그램 상품 개발 제작	픽토그램 상품 개발	· 중요 시설 안내 픽토그램 스티커 제작 · 개발 픽토그램에 대한 사용 설명서 제작	
픽토그램 상품 보급	상품 확산 전략 기획 회의	픽토그램 확산 전략 회의	· 네트워크망을 활용하여 보급 전략 수립 · 상품별 활용 보급 전략 수립 · 공공, 민간 기관 등으로 보급 전략 수립
	픽토그램 상품 보급 및 사용성 평가	사용 빈도 측정	· 홈페이지 픽토그램 다운로드 수 측정 · 향후 주기적인 모니터링 계획

2. 과정 평가

프로그램	목표량	산출량	평가 결과
픽토그램 기초 연구회	홍보 모집	5명	5명 · 계획 : 청각 장애 1명, 지체 장애 2명, 뇌병변 장애 2명 · 결과 : 청각 장애인의 적극적 참여 의사 표명으로 청각 장애 2명, 지체 장애 2명, 뇌병변 장애 1명 모집
	오리엔테이션 및 픽토그램 교육	1회/5명	1회/5명 · 픽토그램에 대한 높은 관심에 따라 픽토그램 이해 교육의 인지도를 높임. · 장애 유형이 각기 다르고 첫만남의 어색함이 있었지만 장애라는 공감대 하에 동료 의식을 갖게 됨.
	집단 동료 상담	1회/5명	1회/5명 · 개인이 아닌 사회적 문제에서 발생하는 장애 개념과 차별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인식을 전환할 계기를 마련함. · 1박 2일간의 집단 상담을 통해, 각 장애 유형별로 다양한 차별 경험을 공유하며 동료의 식을 한층 더 강화함.
	브레인스토밍	4회/20명	4회/20명 · 각 주제별로 자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함. · 주제 20종을 도출해 픽토그램 기초 자료로 활용

프로그램	목표량	산출량	평가 결과
디자인 싱크탱크 조직	픽토그램 디자인 설계 회의	5회/15명	6회/17명 · 3명의 디자이너가 총 39종, 85개 픽토그램 개발 · 국제표준연구소 픽토그램 전문가가 "2~3종은 원천(B/F) 설계 기준으로 수정하여 국제 표준 제안서에 넣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줌.
	픽토그램 시범 테스트	5회 /100명	9회 /320명 · 테스트 대상 : 장애인 복지관, 유형별 장애인 단체 이용자, 지역 축제 참여자, 청소년 자원봉사자 등으로 1~2차에 나누어 진행 · 1차 사용성 테스트 결과, 픽토그램을 35종으로 간추림. · 2차 사용성 테스트 결과, 픽토그램 34종을 최종 확정
픽토그램 상품 개발 제작	-	-	· 장애인 픽토그램 사용 매뉴얼 3,000부 제작 · 중요 픽토그램 8종당 스티커 각 2,000부 제작
픽토그램 상품 보급	상품 확산 전략 기획 회의	2회	3회 · 각 픽토그램별 활용 가치가 큰 기관으로 묶어 픽토그램의 효율적인 활용 전략 모색 · 항공사 도움 픽토그램 사용 설명과 장애 인식 교육을 병행하여 장애인 고객에 대한 항공사의 서비스 질 향상 유도
	픽토그램 상품 보급 및 사용성 평가	-	750기관 · 장애인 관련 기관, 한국관광공사, 제주공항, 전국 장애인 콜택시 운영 본부 등 750여 기관에 매뉴얼 및 스티커를 우편 발송함. · 상품 제작이 계획보다 늦어짐에 따라 평가는 내년 주기적으로 이용률을 파악하여 평가할 계획임.

3. 효과 평가

성과 목표 1.	성과 지표	측정 도구	평가 방법
연구회 참여 장애인의 역량 및 자기 주장 능력을 강화한다.	· 픽토그램 & 편의 시설 인지도 · 자기 주장 능력	· 픽토그램 & 편의 시설 자체 질문지 · 자존감 척도	· 인터뷰 · 사전·사후 설문 조사

평가 결과

- 픽토그램 및 편의 시설 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간단한 질문으로 인터뷰를 진행함. 평소 장애인 인권에 관심을 두는 참가자들이 많아 장애인 편의 시설에 대한 기초 지식은 있었으며, 픽토그램도 단어 자체만 생소했지 일상 생활에서 조금만 관심 두면 볼 수 있어 픽토그램에 대한 정보도 알고 있었음.
- 자아 존중감 척도는 사회적 자아 존중감 중심으로 15개 문항에서 설문을 진행함. 15점 만점에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 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사전·사후 설문을 진행하였음.
- 사전·사후 설문 결과를 비교하면 사전 검사 평균 점수는 7.6점, 사후 검사 평균 점수는 12점으로 약 5점 정도 자아 존중감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 추가 인터뷰에서는 집단 동료 상담을 통해 장애에 대한 인식 전환, 존재 가치에 대한 소중함, 자신과 장애를 분리해 생각하지 않고 인간 자체로 존중받을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함.

성과 목표 2.	성과 지표	측정 도구	평가 방법
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용이성 높은 픽토그램을 개발한다.	픽토그램 장애인 적용 최종 용이성	1, 2차 장애인 픽토그램 사용성 테스트	· 지역 장애인 설문 · 지역 주민 설문

평가 결과

- 픽토그램 사용성 테스트로 39종 85개 픽토그램을 제시한 후 양자택일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대상자는 비장애인 그룹(초·중·고생 및 지역 주민)과 장애인 그룹(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특별자치도관광약자접근성안내센터,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제주도농아복지관, 서귀포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등)으로 나눠 테스트 진행
- 1차 사용성 테스트 결과 39종 · 85개였던 픽토그램을 35종 · 35개로 확정하고, 2차 사용성 테스트 결과 픽토그램 34종으로 최종 확정함.
- 국제표준연구소 픽토그램 전문가 의견
- 내년 픽토그램(그래픽 심볼) 국제 표준 제안서 공모를 할 예정이며, 39종의 픽토그램 중 2~3종은 원천(B/F) 설계 기준으로 수정하여 제안서 서식에 맞게 신청했으면 좋겠다고 평가함.
- 그러나 일부 픽토그램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접근권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까지 픽토그램을 만들면 자칫 잘못된 사항이나 불법(잔디 블록 등)에 대한 면죄부를 줄 수도 있다고 주의 사항을 제시함.

성과 목표 3.	성과 지표	측정 도구	평가 방법
복지 관광 픽토그램 상품을 개발 · 보급하여 장애인 관광 편의성을 제공한다.	픽토그램 사용 빈도	홈페이지 다운로드 횟수	홈페이지 자료실 열람 및 다운로드 횟수 측정

평가 결과

최종 픽토그램 상품 제작이 계획보다 늦어짐에 따라, 파급 효과 및 사용 평가는 내년 사용 빈도 및 이용 만족 여부를 파악하여 진행할 계획임.

IV. 사업 성과

1. 장애인 픽토그램 디자인의 4대 핵심 원칙 제시

1) 통일성의 원칙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장애인 마크는 다양한데 흔히 하단의 I, II 번 2가지를 주로 많이 사용한다. 그 중 우리나라의 공식 장애인 마크는 하단 왼쪽의 I 번 국제 표준 마크다. 과거 II 번 마크를 국가 표준으로 사용하다가 다시 I 번 마크인 국제 표준으로 돌아간 사례가 있으며, 현재는 다양한 장애인 마크를 혼용하고 있다. 물론 능동적이며 역동적으로 표현된 III 번의 마크가 좋아 보이긴 하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픽토그램이라면 국제 표준으로 지정된 마크를 통일하여 활용해야 한다.



I. 국제 표준/국가 표준 II. 과거 국가 표준 III. 뉴욕시 장애인 마크

2) 개별성의 원칙

픽토그램(그래픽 심벌)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 제공 그림 문자이다. 그러나 활동 제약으로 보다 세부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한 장애인에게는 변화되는 욕구의 흐름에 맞춰 다양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수화 통역이 가능한 곳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청각 장애인만 인지할 수 있는 수화 통역 픽토그램을 개발해 사용하면 다른 이에게는 생소할 수 있다. 장애인을 위한 세부적 픽토그램이 비록 어떤 이에게는 생소하겠지만, 세부적인 안내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는 절실하기에 점진적 확산을 통해 점차 암묵적인 사회적 합의가 성사되기를 바란다.

3) 과용의 최소화 원칙

흔히 장애인 편의 시설은 장애인만 사용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비장애인과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오해는 인식과 정보의 부재 탓도 있겠지만 장애인 편의 시설에 부착하는 장애인 마크 또한 큰 몫을 하였다. 예컨대 저상 버스나 장애인 화장실은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하는 편의 시설이지만, 부착된 장애인 마크 탓에 특정인을 위한 시설처럼 보인다. 이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마크를 사용하되,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픽토그램은 그 고유한 특징을 잘 살려 표현할 필요가 있다.

4) 잘못된 사항이나 불법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

픽토그램의 역할은 위험, 안전, 이용 등의 행위나 목적을 시각적으로 쉽게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단순 안내 목적에만 치중해 디자인한다면 장애인이 접근 불가하거나 힘든 곳의 이용에 대한 픽토그램을 세부적으로 디자인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장애인 편의 증진 보장법이나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의거해 당연히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해야 하지만, 이러한 픽토그램 설치의 자칫 잘못된 사항이나 불법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있다. 장애인 픽토그램을 제작할 때는 장애인 권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여 디자인해야 한다.

V. 향후 계획

개발 초기에는 장애인 픽토그램을 관광 분야에만 보급할 예정이었으나, 픽토그램을 어느 정도 완성한 시점에서 검토해보니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본 사업을 통해 개발한 픽토그램은 서귀포시장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홈페이지(<http://jeju-scil.or.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사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본 기관명의 기재를 권장하고 있다. 최근 각 지역에서 발간한 안내 지도에 다양한 픽토그램이 등장하지만, 지역마다 같은 의미의 픽토그램을 다른 것으로 사용한 탓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번 장애인 픽토그램 제작을 통해 공통된 픽토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선구적 역할을 수행하고, 또한 장애인들이 픽토그램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꼭 필요한 장애인 픽토그램을 개발·연구할 계획이다.

시각 장애 청소년의 수학 교육 기반 확보를 위한 촉각 수학 교재 개발 및 교육 지원 프로젝트

“수학 자신감 up! 상상 수up!”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설리번학습지원센터 이인에

I. 프로그램 실시 배경

전국의 시각 장애 특수 학교 14곳에서 이루어지는 수학 교육은 수학 점자 교재를 활용한 내용 중심의 설명식 강의가 주를 이룬다. 현재 시각 장애 청소년 대부분은 점선 그림 또는 그림 설명이나 그림이 생략된 수학 점자 교재로 수학을 공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수학 시간에 그림과 수학 점자를 이중으로 학습해야 하고, 수학 점자 교재의 학습량이 방대해 중간에 놓친 부분을 재학습하는 것이 어려워 수학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특수 교사는 시각 장애 청소년의 수학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점선 자료나 촉각 교구를 추가로 고안하지만,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수학 난이도가 높아지는 탓에 교육용 촉각 교구를 고안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다. 그 결과 시각 장애 청소년 대부분은 초등 고학년에서 중학생으로 올라가면서 수학을 어렵게 느끼고 포기하여 이 무렵 기본적으로 배워야 하는 수학 기초를 쌓지 못하게 된다.

이에 본 기관은 수학 학습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각 장애 청소년의 수학 기초 학습을 향상시킬 촉각 수학 교재를 개발하고, 이에 적합한 수학 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 특히 3D 촉각 이미지를 독자적으로 고안하고, 수학 전문가의 자문 및 감수를 통해 교재 전문성을 강화하며, 매뉴얼 및 교육 지침을 마련하여 시각 장애 청소년, 특수 교사, 부모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촉각 수학 교재 및 수학 교육 지원 기반을 확보하고자 한다.



II. 프로그램 개요

1. 목적

시각 장애 청소년의 수학 교육 지원 기반을 확보하고자 3D 촉각 수학 교재 및 매뉴얼을 독자적으로 개발한다. 시각 장애 청소년·특수 교사·부모가 함께 이를 활용한 수학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시각 장애 청소년의 수학 기초 학습 능력을 증진하고, 상상(연상)을 통한 수학 학습의 자신감을 향상시킨다.

2. 목표 및 하위 목표

목표 1. 촉각 수학 교재 및 매뉴얼을 제작하여 100% 보급한다.

하위 목표 1. 촉각 수학 교재를 개발하고 매뉴얼을 제작한다.

하위 목표 2. 수학 전문가 자문 회의를 실시하여 수학 교재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하위 목표 3. 전국 시각 장애 특수 학교(맹학교) 14곳에 중점 배포한다.

목표 2. 시각 장애 청소년의 수학 기초 학습 능력을 20% 향상시킨다.

하위 목표 1. 시각 장애 청소년 수학 교실을 운영하여 수학 기초 학습에 필요한 개념 이해를 돕는다.

하위 목표 2. 촉각 수학 교재를 활용함으로써 수학 학습에 대한 자신감 및 흥미를 높인다.

목표 3. 특수 교사·부모가 시각 장애 청소년의 학습 조력자 역할을 수행한다.

하위 목표 1. 맹학교에 재직 중인 수학 교사가 촉각 수학 교재를 활용한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된다.

하위 목표 2. 부모가 가정 내에서 시각 장애 자녀의 수학 학습을 조력할 수 있다.

3. 프로그램 대상

대상자 범위	개념적 범위	전국 시각 장애 특수 학교 중학교에 재학 중인 시각 장애 청소년
대상자 구분	주된 참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작 : 70권 - 기획 담당 1명, 제작 진행 4명 · 보급 : 22개 기관 70권 - 전국 시각 장애 특수 학교(이하 맹학교) 14곳 - 수도권 특수 지원 거점 센터 3곳 - 시각 장애 유관 기관 5곳 · 교육 참여 : 5회/5명 - 중학교 2학년 재학 중인 시각 장애 청소년
	주변 참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문 및 협력 - 사업 수행 자문 교수 1명 - 수학 교육과 자문 교수 2명 - 특수 학교 교사 7명 - 효명리더스클럽 : 시각 장애 장학생 10명 - 희망나눔교실 : 시각 장애 대학생 자원봉사자 5명 - 수학 점역사 및 교정사 4명 - 협력 업체 3명 - 제작 참여 자원봉사자 50명 - 보급 담당자 4명
대상자 선정 방법	선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재 보급 대상 - 전국 시각 장애 특수 학교 14곳에 재학 중인 시각 장애 청소년 및 특수 교사 - 수도권 특수 지원 거점 센터 3곳 : 일반 학교에 재학 중인 시각 장애 청소년 및 특수 교사 - 시각 장애 유관 기관 교육 사업 담당자 · 교육 대상 - 대상 : 서울 소재 맹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교 1~3학년 시각 장애 청소년 - 분반 기준 : 대상자 진단 평가 실시 및 대상자의 개별 욕구에 따라 참여 가능 - 선정 제외 : 중증 지적 장애를 수반하여 학습 의미가 희박한 시각 장애 청소년
	홍보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소재 맹학교에 공문 발송 · 국립중앙도서관 ISBN 등록 및 납본 · SNS를 통한 자료 홍보 : 실로암복지관 홈페이지, 트위터, 페이스북 · 실로암복지관 프로그램 참가자를 대상으로 개별 홍보 · 실로암전시관(S갤러리) 내에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 · 지역 방송 취재를 통해 관련 내용 인터뷰
	접수 · 상담	내방, 전화 및 이메일 접수 후 담당자와 1 : 1 상담을 통해 프로그램 참여 여부 결정
	애로 시 대처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내 시각 장애 특수 학교를 통한 자문 요청 · 협력업체 추가 선정, 샘플 제작 상시 요청 · 유관 기관 자문 및 재능 기부 자원봉사자 발굴 - 서울 소재 맹학교 교사 자문, 시각 장애 장학생 감수 활동은 재능 기부로 진행됨.

Ⅲ. 프로그램 진행 및 평가

1. 세부 프로그램 진행 내용

프로그램	일정	횟수/인원	세부 내용	수행 방법	
측각 수학 교재 개발 (준비)	교재 기획	2~4월	상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자료 분석 · 자료 조사 및 수집 · 기획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측각 교구 및 수학 관련 자료 분석, 학교 교육에서 활용 중인 점자 교재 등 기존 자료 파악 · 수학 전문 인터넷 사이트 중 학년별로 수학 개념 정리나 교구 구성이 좋았던 사이트 리서치 · 대상 학년 및 학습 주제 선정 기획 회의
	기획 자문	2~3월	4회/8명	수학 전문가 기획 자문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균관대 수학 교수 2명과 시각 장애 청소년 3D 수학 교재 및 교육에 대한 연구 주제로 기획 자문 회의 1회차 실시 · 서울맹학교 재직 중인 비시각 장애 수학 교사 2명의 자문으로 시각 장애 학생 지도 상황에 대해 청취 · 한빛맹학교 재직 중인 시각 장애인 수학 교사 3명과 자문 회의, 실제 당사자 입장에 대해 공유 · 일반 학교 재직 교사 1명과 인터뷰하여 시각 장애 저시력 학생들의 수학 교육 현황 살핌.
			2회/4명	수학 점역 · 교정사 자문 및 교재 구성 내용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명진학교(맹학교) 시각 장애인 수학 교사(점자 위원) 자문, 수학 점자 고시와 실제 수학 점자 교재 내용 자문 · 시각 장애인 교정사 자문 회의 실시, 수학 점자와 측각 이미지 표현에 대한 의견 공유
			6회/15명	시각 장애 대학생 자문을 통해 수학 학습 경험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로암복지관에서 지원하는 시각 장애 장학생 효명리더스클럽 간담회를 통해 저시력 · 전맹 학생 10명의 수학 학습 경험 공유 · 본 기관의 희망 나눔 시각 장애 대학생 자원봉사자와 5회에 걸쳐 인터뷰를 실시
			1회/2명	부모 의견 수렴	맹학교 재학 중인 시각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와 인터뷰
	주제 선정	2~3월	1회/1건	주제 선정 회의 및 종합	전문 강사 초빙
	시장 조사	3~5월	3회/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학 워크숍 참석 · 시장 방문 조사, 재료 구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학 전문가 교류의 장으로 수학 스타트업 워크숍 참석 · 재료 상가 방문, 특수 가공 전반 탐색 및 재료 구입

프로그램	일정	횟수/인원	세부 내용	수행 방법		
촉각 수학 교재 개발 (제작)	내지 구성	2~5월	3회/ 3건	· 원고 작성 및 편집 · 3D 프린팅 · 점역 및 교정	· 성균관대 수학 교수와 협의, 중학 함수에 해당하는 개념 및 문제를 선별·구성해 원고 작성 · 편집 디자인 시안 준비 · 수학 기호 이미지를 3D 페이퍼로 출력해 입체 종이로 내지 삽입 · 내지 점역 및 교정·검수 후 내지 완성	
	샘플 제작	4~5월	5회/ 15건	· 3D 샘플 제작 · 표면 처리(후가공) · 제작 검수(사용성 테스트)	· 3D 설계 및 출력으로 시제품 샘플 제작 · 촉각 교재에 수록할 수학 기호, 그래프 이미지를 점형 샘플로 제작하고 수작업 가공 · 3D 프린팅 표면을 그라인딩해 손 끝에 느껴지는 이물감을 매끄럽게 처리 · 시각 장애인 교정사가 3D 샘플을 직접 만져보며 촉각 인식에 대한 의견 및 정보 취합	
	제작 자문 및 전문 감수	5~10월	8회/ 20명	수학 전문가 제작 자문 및 전문 감수 실시	· 성균관대 수학 교육과 교수 2명과 제작 및 감수 자문 회의 2회 실시, 제작 과정과 최종 제작에 대한 전문 감수 실시 · 서울맹학교를 2회 방문해 비시각 장애인 수학 교사 2명, 시각 장애인 수학 교사 1명과 자문 회의 · 한빛맹학교를 3회 방문해 시각 장애인 수학 교사 3명과 자문 회의 · 일반 학교 재직 중인 특수 교사에게서 촉각 교구 제작 자문 및 감수 받음.	
			5회/ 5명	수학 점역사와 교정사의 제작 자문, 교정 검수	· 수학 점역사가 본문 내용을 수학 점역하고 내용 중에 오류가 있는지 점검 및 검수 · 시각 장애 교정사가 점자 및 촉각 이미지를 교정, 정확한 자료 제작하는 데 조력	
			5회/ 40명	시각 장애 대학생 제작 감수를 통한 교재 전문성 강화	시각 장애 장학생 효명리더스클럽 회원 10명이 5회에 걸쳐 제작 진행 감수 실시	
	인쇄 및 출판	10~11월	1회/ 70권	· 인쇄 업체 협의 · 디자인 교정 · 실사 출력 및 샘플 · 금형 및 제본	· 실사 샘플 제작 협의 2회 실시 · 인쇄·제본하여 촉각 교재 출판 완료	
	2차 장식 및 수작업	6~11월 (상시)	10회/ 50명	VMS 자원봉사자 모집, 촉각 수작업 참여	자원봉사자가 3D 프린팅 후 표면 가공 및 추가 장식 부착 수작업에 참여	
	촉각 수학 교재 보급	매뉴얼 제작	11월	2회/ 10건	활용 가이드 및 학습 지도안 지원	· 활용 가이드를 제공해 시각 장애 청소년, 특수 교사, 부모가 함께 활용하도록 함. · 워크북 및 학습 지도안을 첨부한 학생 지도 매뉴얼 제작
		사업 홍보	3. 12월	2회/ 6건	· 프로그램 홍보 · 언론 보도 자료 배포	· 현수막 및 사업 안내 자료 제작 · 지역 방송에 촉각 사업에 대한 인터뷰 진행 시 촉각 수학 교재 소개
		교재 보급	11~12월	22곳/ 70권	· 보급 대상 22곳 선정 · 70권 보급 · 설문지 회수 20곳	· 전국 시각 장애 특수 학교 14곳, 수도권 특수 교육 지원 센터 3곳, 시각 장애 유관 기관 5곳을 보급 대상으로 선정, 촉각 수학 교재 및 매뉴얼을 우편 발송 · 설문지를 회수하여 이용자 피드백 수렴

프로그램	일정	횟수/인원	세부 내용	수행 방법	
수학 교육 실시	대상자 모집 및 선정	10월	1회/ 5명	· 대상자 섭외 · 협조 공문 발송 · 사전 평가	· 서울맹학교에 공문 발송, '자유 학기제 수학 교실' 운영에 대한 참여 교사의 협조 요청 · 서울맹학교 수학 교사 1명, 성균관대 수학 교수 1명 섭외, 팀 티칭 수업 운영 · 실무자가 수업 참관, 프로그램 기록
	강사 모집 및 선정	9~10월	1회/ 2명	· 팀 티칭 수업 진행 · 개발 실무자 참관 · 프로그램 기록 및 수업 평가	· 수학 전문가 및 실무자가 협의, 학생의 학습 수준을 고려한 수업 지도안 작성 · 서울맹학교 2학년 포커스 집단 5명을 대상으로 '자유 학기제 수학 교실'을 5회기 운영 · 1차시: 사전 탐색 및 교수 시범 실험 수업 · 2~5차시: 실제 촉각 교재로 수업 진행 · 수업 참여 학생들에게 그동안 교육에 사용한 촉각 교재를 보급하고, 기념 사진 촬영 후 수학 교실 종료
	수학 교실 운영	10~11월	5회/ 5건	· 수업 지도안 작성 · 수학 교실 운영 · 1학년 5명, 5차시 · 사후 평가 · 교재 보급 및 기념 촬영	· 수업에 참여한 시각 장애 청소년 인터뷰를 통해 수업 소감 및 촉각 교재에 대한 개인적인 느낌 공유 · 평가 의견 취합 및 향후 계획 수립
평가회	만족도 조사	11~12월	20회/ 20명	· 만족도 조사 · 피드백 수렴	· 수업에 참여한 시각 장애 청소년 인터뷰를 통해 수업 소감 및 촉각 교재에 대한 개인적인 느낌 공유 · 평가 의견 취합 및 향후 계획 수립

2. 과정 평가

프로그램	수행 시기	목표량	산출량	평가 결과
촉각 수학 교재 개발 (준비)	교재 기획	2~4월	상시	· 시각 장애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수학 개념 정리 교재가 없다고 판단하고, 수학 학습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초등 고학년부터 중학생을 위한 교재를 목표로 기획 시안을 설정함. · 교사 인터뷰에서 언급된 내용과 중첩된 부분을 수집,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유의미한 내용 및 자료를 추출하였음. · 기획 회의를 통해 중1~고1 시각 장애 청소년들이 공통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주제를 15~20개 선정하고, 수학 개념 주요 내용을 정리해 단계적이고 순차적으로 주제를 선정함.
	기획 자문	2~3월	2회/ 4명	· 4회/ 8명

프로그램	수행 시기	목표량	산출량	평가 결과
측각 수학 교재 개발 (준비)	기획 자문 2~3월	2회/ 4명	2회/ 4명	· 강원명진학교에 재직인 시각 장애인 수학 교사 자문 - '수학 점자' 고시에 대한 교육 현장 의견 · 시각 장애인 교정사 회의 시행 - 장애인이 느끼는 수학 기호 이미지와 수학 점자의 연관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함. 간단한 측각 표현으로 특별한 측각 교재를 지원할 수 있음을 확인함.
			6회/ 15명	· 시각 장애인 장학생 10명에 대한 수학 문항 인터뷰 실시 - 저시력 및 전맹 시각 장애인 당사자로서 청소년기에 가장 어려웠던 수학 주제, 수학 개념, 측각 교재 사용 경험, 대안 등의 구체적이고 유의미한 조언 수집 · 시각 장애인 대학생 전맹 학생 5명과 개별 인터뷰 실시 - 청소년기에 느꼈던 수학에 대한 구체적인 제언 취합 - 실제로 수학이 어렵다고 느끼는 시기나 영역 별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데 유의미한 성과를 얻음.
			1회/ 2명	· 시각 장애 자녀를 둔 부모 인터뷰 진행 - 시각 장애 자녀의 가정 학습에 대한 이해 - 측각 교재를 사용한 학습 지도안 고안에 필요한 의견 수렴
주제 선정	2~3월	1회/ 1건	1회/ 1건	· 주제 선정 기획 회의 - 수학 전문가와 산학 협력 관계를 확대, 시각 장애 학생을 위한 교재 개발 및 교육에 대한 발전적 교류 시행 -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중학 함수'를 주제로 선정, 사업 준비
시장 조사	3~5월	3회/ 6명	3회/ 6명	· 수학 전문가와의 협력을 위한 워크숍 참석 - 3D 전문가, 현직 수학 교육자, 공학자 등의 다양한 전문가와 협업 기회를 갖고, 산학 협력을 통한 사업 운영 도모 · 재료 시장에서 재료를 직접 확인 - 새로운 아이템을 구상할 발상의 전환점을 마련 - 새로운 시제품(프로토타입)을 추가 제작
측각 수학 교재 개발 (제작)	내지 구성 2~5월	3회/ 3건	3회/ 3건	· 중학 함수를 주제로 함수 개념 및 문제를 단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원고 재구성. 저시력 학생도 활용할 수 있도록 목·점자 혼용 자료로 편집한 독자적인 측각 교재 제작 시간 마련 · 수학 기호 이미지를 3D 페이퍼로 출력 후 내지에 삽입, 3D 기술을 활용한 측각 수학 교재의 독자성 확보 · 목·점자 혼용 교재로 제작해 시각 장애 학생뿐만 아니라 저시력 학생, 특수 교사, 부모가 함께 사용 가능한 측각 교재 제작 · 시각 장애 교정사의 교정·감수, 수학 점역사의 점역·검수, 수학 전문가의 수학 내용 감수 등 교재 전반의 구체적인 점검을 통해 측각 교재 완성도를 높임.
			5회/ 15건	· 3D 샘플 제작, 그래프나 수학 기호 등 측각 이미지로 제작하기 전에 점자 이미지를 다양한 옵션으로 출력해 가장 좋은 데이터 선정 · 3D 샘플을 시제품으로 출력해 최대한 원형에 부합하도록 표현해 정확한 교정·감수 준비 · 표면 후가공 처리를 통해 시각 장애 교정사가 주요 그림 및 측감 정보를 오독하지 않고 정확히 인식하도록 시제품 검증 강화 · 3D 디자인 및 3D 프린팅 과정에서 교정 및 검수를 거쳐 최상의 측감 데이터를 선정함.
			2회/ 5건	

프로그램	수행 시기	목표량	산출량	평가 결과	
측각 수학 교재 개발 (제작)	제작 자문 및 전문 감수 5~10월	2회/ 4명	8회/ 20명	· 수학 교수 제작 자문 회의 2회 실시 - 제작 진행 중 샘플 평가 및 추후 제작 방향 논의 - 교재 전문성을 더욱 보강함. - 제작 최종 단계에서 원고를 가공한 측각 교재 내용을 최종 감수, 3D 이미지 구성 및 보완 사항을 논의해 전문성 강화 - 추후 수학 교실 운영을 위한 수업 가이드 마련 · 서울맹학교 비시각 장애 수학 교사 자문 - 샘플 및 최종 감수 2회 실시, 3D 측각 이미지의 정확도와 정보 인식에 대한 의견을 수렴, 수업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언함. · 한빛맹학교 시각 장애인 수학 교사 자문 - 3D 측각 수학 교재에 함께 활용할 측각 교구 개발에 포커스를 맞추고 교사 의견을 제작에 반영함. · 특수 지원 센터 특수 교사 제작 감수 1회 실시	
		5회/ 5명	5회/ 5명	· 수학 점역사의 내용 점역 및 검수, 교정사의 측각 이미지 및 점역 전반 교정 및 감수로 검증을 마쳐 교재 완성도 향상 - 점역 및 교정을 통해 수학 기호 모양을 평가하고, 간격, 점자 표기, 재질 등의 다양한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을 명확하게 수정·보완함.	
		5회/ 40명	5회/ 40명	· 시각 장애 장학생 효명리더스클럽 회원의 정기적인 제작 감수 - 탄력적인 제작과 적극적인 상호 교류가 이루어졌음. - 학생들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거나 질문에 적극 응답하면서, 교재를 후배들이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기뻐함.	
	인쇄 및 출판	10~11월	1회/ 70권	1회/ 70권	· 실사 이미지를 2회 제작, 실물을 사전 점검해 시행착오를 줄임. · 오류가 발생했던 초기 자료에 비해 훨씬 좋은 결과물로 완성됨. · 단가 측면에서 부속품의 질을 향상시키지 못한 아쉬움이 남음. · 보급 후 소재에 대해 "누르기 힘들다, 가끔 버튼이 올라오지 않는다" 등의 부정적인 피드백 접수. 추후 제작 시 우선 반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차 장식 및 수작업	6~11월	5회/ 30명	10회/ 50명	· 자원봉사자가 장식 및 수작업에 참여해 제작 시간 단축에 기여 - 측각 제작 과정을 통해 시각 장애인 측각 자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 유도.	
측각 수학 교재 보급	매뉴얼 제작	11월	2회/ 10건	2회/ 10건	· 활용 가이드를 지원, 시각 장애 청소년·특수 교사·부모가 함께 측각 수학 교재를 이해하고, 측각 교구를 사용할 수 있게 매뉴얼 지원 체계 마련 - 특수 교사: 수업 지도안을 통해 학생 지도 시 참고 및 응용 - 시각 장애 청소년: 반복 학습을 통한 자가 학습 - 부모: 가정에서 자녀의 학습에 조력
	사업 홍보	3, 12월	2회/ 5건	2회/ 6건	· 본 기관의 게시판에 사업 안내지 부착, 관련 행사 시 현수막을 부착해 사업 취지 및 내용 홍보 - 시각 장애인 대상 측각 교재 지원에 대한 관심 고조와 함께 평소 몰랐던 측각 교재에 대한 인식 변화 유발 · 지역 방송에 측각 교재 사업에 대한 인터뷰 중 측각 수학 교재 소개
	교재 배포	11~12월	14곳/ 100권	22곳/ 70권	· 측각 수학 교재 및 매뉴얼 보급 - 전국 시각 장애 특수 학교 14곳, 수도권 특수 교육 지원 센터 3곳, 시각 장애 유관 기관 5곳 · 설문지 배포 후 수거, 특수 교사 및 시각 장애 청소년들의 피드백 수렴

프로그램	수행 시기	목표량	산출량	평가 결과	
수학 교육 실시	대상자 모집 및 선정	10월	2회/ 10명	1회/ 5명	· 서울맹학교 수학 교사와 자유 학기 현장 수업에 대해 사전 논의 - 촉각 수학 교재의 사전 탐색, 수업 진행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 기존 수업 참관, 시각 장애 청소년들의 평소 학습 태도 관찰 · 수업 종료 후 사전 평가 설문 실시, 시각 장애 청소년의 수학 학습 수준을 파악해 학습 지도안 구성
	강사 모집 및 선정	9~10월	2회/ 5건	1회/ 2명	· 맹학교에 협조 공문 보내 '자유 학기제 수학 교실' 운영 협조 요청, 비시각 장애 교사가 실제 시간표대로 수학 수업을 진행함. · 수학 교수 및 실무자가 수업 조력자 및 관찰자로 팀 티칭에 참여, 촉각 수학 수업 진행을 도움.
	수학 교실 운영	10~11월	5회/ 10건	5회/ 5건	· 대상 학생들의 사전 조사를 통해 시각 장애 학생들의 학습 수준을 고려, 개념 위주· 기초 학습 중심의 학습 지도안 구성 · 수학 전문가· 수학 교사· 실무자가 협업으로 수학 탐색을 위한 '자유 학기제 수학 교실' 운영, 참여 학생들이 자신감을 얻음. · 학생들의 수학 기초 학업 성취도가 향상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 확인 · 수업에 참여한 시각 장애 학생들에게 촉각 교재 보급, 수업 이후에도 촉각 교재를 지속적으로 활용하도록 독려함.
평가회	만족도 조사	11~12월	50회/ 50명	20회/ 20명	· 수업에 참여한 시각 장애 청소년과 수업 소감 공유 - 시각 장애 학생들이 보는 촉각 교재에 대한 관점을 이해 · 수학 교육 진행 전 사전 설문으로 수학에 대한 개인적인 기호나 취향 조사 · 촉각 수학 교재를 활용한 수업 완료 후, 수업 및 교재 만족도 조사에서 단기간에 긍정적인 학습 변화가 생겼음을 확인함.

3. 효과 평가

성과 목표 1.	성과 지표	측정 도구	평가 방법
촉각 수학 교재 및 수학 매뉴얼 제작, 100% 보급	촉각 수학 교재 보급률	· 촉각 수학 교재 보급 결과 · 만족도 조사 설문지	보급 후 만족도 조사 실시

평가 결과	
양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촉각 수학 교재 70권 제작, 전국 시각 장애 특수 학교 14곳, 특수 교육 지원 센터 3곳, 시각 장애 유관 기관 5곳 등 총 22곳에 100% 보급 완료, 목표했던 보급률 달성함. - 시각 장애 특수 학교(맹학교) 시각 장애 전맹 학생 44건(62.8%), 특수 교육 지원 센터 시각 장애 저시력 학생 9건(12.8%), 시각 장애 유관 기관 시각 장애 학생 17건(18.9%) 등 총 70권 보급 - 22곳의 보급처에 촉각 수학 교재와 활용 매뉴얼을 첨부, 설문지를 함께 발송 · 만족도 조사에 응답한 20곳(90%)에서 설문 회수(12/20 기준), 촉각 수학 교재 및 촉각 교구 사용성 테스트에 응한 응답자에게서 유의미한 의견 수집 - 함수 개념 이해에 대한 질문 7문항("이전 교재와 비교하여 그래프에서 정보를 쉽게 찾고 읽을 수 있다" "교구를 통해 좌표의 사분면을 이해할 수 있다" "순서쌍을 찾을 수 있다" "x절편과 y절편을 찾을 수 있다" "일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그래프를 그리고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에 대해 16명(80%)이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로, 4명(20%)이 "보통이다"로 응답해 대체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옴. - 촉각 교재 및 교구 사용에 관한 질문 2문항("교구 점의 사이즈, 사용하는데 드는 힘이 적절하다" "교재의 내용을 복습하기에 적절하다")에서 14명(70%)이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로, 6명(30%)이 "보통이다"로 응답하여 대체로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음. - 이전의 수학 수업과 비교하여 좋았던 점에 대한 기타 의견으로 "누르기가 어렵다, 아이디어가 좋다, 흥미를 유도할 수 있다, 딱딱 음성이 관심을 자극할 수 있고 도움이 된다, 그래프를 확장하는 것은 힘들지만 과제를 수행하는 데 성과가 있다" 등의 답변을 취함함. 이로써 촉각 수학 교재가 긍정적으로 활용되는 부분과,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실제 활용상의 유의미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음.

평가 결과	
질적 평가	<p>질문 1. 특수 교사 및 시각 장애 청소년이 처음 활용해 본 촉각 수학 교재에 대한 소감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맹학교 수학 교사 인터뷰 결과 - 수학 수업에 촉각 수학 교재를 활용하기 이전과 비교해 이해하기 쉽고, 아이디어가 좋으며, 쉽게 공부할 수 있었다는 의견 등 만족감이 컸다는 의견이 다수였음. - 교구 활용 시 불편한 점, 소재 선정, 익숙하지 않은 점 등 부족한 면에 대한 의견도 함께 수렴 - 향후 촉각 교재 개발 시 지속적으로 사업을 보완할 아이디어를 수집 - 교사 인터뷰 1 : "전체적으로 선이 얇고 들어간 것보다 도드라진 것이 만지기 쉽고 찾기 좋습니다. 그림에 대한 자세한 해석이 도움이 되지만, 곡선을 표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 교사 인터뷰 2 : "이 정도 촉각 이미지가 있는 수학 교과서라면 매우 만족스럽겠습니다. 함수 그래프가 특히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 교사 인터뷰 3 : "반복 학습이 가능하고 이해하기 쉬워서 쉽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학에 대한 발상이 좋습니다." - 교사 인터뷰 4 : "점자 좌표 평면과 관련하여 점의 표현이나 그래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휴대나 활용 측면에서도 매우 좋습니다." <p>질문 2. 특수 교사가 촉각 교재를 활용하여 시각 장애 청소년들을 지도해 본 이후에 변화가 있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맹학교 수학 교사의 실제 지도 경험을 통해 촉각 교재 개발 및 수학 교육 지도안 등의 활용 매뉴얼 DB를 구축하는 데 유의미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음. - 교사 의견 1 : "그래프 학습할 때 예전보다 많이 편리해질 것 같습니다. 간단한 식 계산을 할 때도 이 도구를 이용하여 필산을 하는 용도로 활용 가능하였습니다. 교사와 점을 함께 만지면서 자릿수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 교사 의견 2 : "교구 활용 시 어떤 점이 뽀뽀하게 느껴지는 감이 있습니다. 손으로 반복적으로 눌러야 다시 튀어나옵니다. 좌표축의 점을 찍을 수가 없는 것이 조금 불편합니다. 기술적으로 보완이 가능하다면 점 간격을 더 줄이고, 점의 수를 늘리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 교사 의견 3 : "촉각 교재는 함수 개념 사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프가 유익합니다. 학생들의 흥미도와 집중도가 올라갔습니다. 촉각 교구의 버튼이 더 작아져서 점필로 점을 찍을 수 있게 해도 되겠습니다." · 특수 교사가 촉각 수학 교재를 활용하면 사전 개념으로 반복 학습이 가능하고, 추상적인 수학을 촉각 이미지로 기억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 의사 소통에 변화가 있었으며, 촉각 교재가 다양하게 수업에 활용됨으로써 수학 학습 전반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음. · 시각 장애 청소년들에게 수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켜 수학 기초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점자 수학 교재와 비교하여 학습 자료로 의미가 있음.

성과 목표 2.	성과 지표	측정 도구	평가 방법
촉각 수학 교재 및 수학 매뉴얼 제작, 100% 보급	촉각 수학 교재 보급률	· 촉각 수학 교재 보급 결과 · 만족도 조사 설문지	보급 후 만족도 조사 실시

평가 결과	
양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촉각 수학 교재를 활용한 시각 장애 학생 5명의 사전·사후 평가를 통해 시각 장애 청소년들의 수학 기초학습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함. -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각 장애 청소년의 수학 함수 기초 학습 이해에 대한 변화를 사전·사후 비교 분석한 결과, 참여 시각 장애 청소년의 함수 개념 이해의 향상 정도($t=-4.654, 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남. - 프로그램 실시 전 시각 장애 청소년의 함수 개념 기초 학습 이해 척도 평균은 27.2/45점(표준 편차 1.923점)이었으나, 프로그램 실시 후 평균은 37.6점/45점(표준 편차 4.645점)으로 평균 10.4점(27%)이 향상됨.

평가 결과	
질적 평가	<p>질문 1. 시각 장애 청소년이 촉각 교재로 수학을 학습한 뒤 수학 기초 학습 능력에 변화가 있었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에 점자 수학 교재로 공부하던 시각 장애 청소년들이 자유 학기제 수학 교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2차 수업만으로도 실제 많은 부분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경험했고, 기초 학습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사전·사후 평가에서 확인함. - 1차 예비 수업에서는 전체 교육 참가자가 본 수업에 대비해 촉각 수학 교재를 탐색할 수 있도록 활용법을 제시해 촉각 수학 교재를 적극적으로 흥미롭게 탐색하였음. - 2~4차 본 수업에서는 시각 장애 청소년들의 수업 참여가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변화하였음. 촉각 수학 교재를 활용한 횟수를 늘어날수록 교사와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음. - 5차 수업에서는 모든 교육 참가자가 커리큘럼에서 진행된 학습량을 모두 완수하였고, 학생이 직접 제안하는 활동을 통해 적극적인 수학 활동이 이루어졌음. - 시각 장애 청소년과 함께 문제 풀이식 수학이 아니라 참여하고 활동하는 촉각 수학 교실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평소에 놓칠 수 있는 수학 개념을 잡아주고, 수학 기초 학습의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진 긍정적인 변화 과정이었음. <p>질문 2. 시각 장애 청소년의 촉각 교재를 활용한 수업 전후의 학습 태도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학 교육 참가자 5명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결과 취합 - 촉각 수학 교재 및 촉각 교구를 활용한 수업이 개인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며, 수학 시간에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수업 참여에 대한 집중력과 교사와의 의사 소통이 향상되었음. 특히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촉각 교재 및 교구를 활용한 운동력 향상 및 수학적 의사 소통에 긍정적인 변화를 보임. - 다만 사물을 손끝으로 경험하면서 질감이나 개인적인 느낌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교재이므로, 촉감에 대한 호불호가 뚜렷한 것도 추후 보편적인 DB 구축에 중요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마지막 수업에서 시각 장애 청소년들에게 네이밍 공모를 통해 촉각 교구에 대한 이름을 공모하였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그간의 발전을 확연히 느낄 수 있었음. 수업 이후에도 학생들이 본 촉각 교재를 활용하여 자가 학습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됨. <p>질문 3. 시각 장애 청소년들의 변화에 대한 특수 교사가 느끼는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 교사가 시각 장애 참여 학생들의 변화에 대해 심층 탐색·분석한 결과, 시각 장애 청소년 전원이 수학에 대한 학습 참여도나 수학 기초 학습 능력이 향상되었으며, 기회를 거듭할수록 촉각 수학 교재 및 촉각 교구에 대한 이해도와 사용 만족도가 더욱 높아져 수학 수업 태도 및 학업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 수학 교사 수업 일지 내용 - 김○○ : 스스로 새로운 학습 교구를 접한 뒤,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익숙해지기 위한 반복 동작을 지속하였으며 머릿속에 조금씩 교구의 반경을 그려 넣는 듯한 확장 행동을 발견할 수 있었음. 교구의 버튼을 누르는 데 힘이 많이 들어가서 어렵다고 이야기함. - 정○○ : 원래 적극적인 학생이나 오답을 말할 때도 많지만, 4차시 수업에서는 제법 정확한 답을 말하고 자신이 제안하는 등 질문에 대한 답변의 정확도가 높아졌음. · 이로써 촉각 수학 교재를 활용한 수학 교육에 참가한 시각 장애 청소년들은 수학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경험하는 학습으로 이해할 수 있었으며, '수학 자신감 UP'이라는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음.
	<p>성과 목표 3.</p> <p>특수 교사·부모가 촉각 수학 교재를 통해 시각 장애 청소년의 학습 조력자 역할을 수행함.</p>
	<p>성과 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뉴얼 활용 만족도 평가 · 교재 만족도 평가 <p>측정 도구</p> <p>만족도 조사 설문지</p> <p>평가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뷰 및 관찰 (주변 참여자) · 만족도 조사 실시
평가 결과	
양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시각 장애 특수 학교 14곳 외 시각 장애 유관 기관에 촉각 수학 교재 배포 후 2주 내에 20곳의 설문을 조사한 결과, 실제 1~3회 이상 교재를 활용한 특수 교사의 추가 의견을 90% 이상 수렴하였고, 특수 교사의 수업 일지 및 설문 내용을 통해 특수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 교육에 참여한 시각 장애 청소년 5명의 부모가 방과 후 가정에서 학습 조력자 역할을 주체적으로 지원하고, 주 1회 이상의 근황 및 피드백을 수렴함.
질적 평가	<p>질문 1. 특수 교사가 촉각 수학 교재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맹학교 특수 교사가 촉각 수학 교재를 활용하여 시각 장애 청소년을 지도한 결과, 학생들의 수학 의사 소통에 긍정적인 변화로 수학 교사들의 학습 지도에 대한 자신감도 향상되는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음. · 기존 수업에서는 수학 개념이나 내용을 교사가 여러 번 설명하고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나, 촉각 수학 교재를 활용한 수학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발표함으로써 의사 소통이 잘 이루어짐. 정규 수업에서 놓친 개념을 사전처럼 활용할 수 있어 방과 후 수학 학습 지도에도 매우 유용하다고 평가함. · 비시각 장애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수업 전개 과정대로 시각 장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고, 자유 학기제 수학 교실을 운영했던 수학 교사는 학생들이 이전보다 훨씬 익숙하게 촉각 교재를 활용하며, 다용도로 활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함. · 수학 교사는 수학 개념이 약한 학생들에게 이 교재를 추천하여 반복적으로 지도하고 있음. 처음 활용했을 때보다 만족도가 더 높아졌으며, 수학 교육 환경이 앞으로 더욱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출하였음. · 공통적으로 촉각 수학 교재를 활용한 특수 교사 대부분이 구두 설명에 의존할 때보다 전달할 내용을 구체적이고 직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 시각 장애 청소년 지도에 도움이 되었다고 함. 교재를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다는 부분에서 학생들의 변화와 함께 교사 스스로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하는 유의미한 성과가 나타남. <p>질문 2. 자녀의 수학 학습을 조력할 수 있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 학기제 수학 교육에 참여한 학생 5명의 부모가 가정 내에서 주2회 이상 학습 교재를 활용하여 자녀 학습을 조력한 결과, 이전에는 가정에서 자녀의 학습 진도나 진행 과정을 쉽게 점검할 수 없었지만, 촉각 교재를 통해 자녀의 수학 학습 과정을 점검 및 관리함으로써 자녀의 학습 조력자 역할을 긍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음. - 학부모 인터뷰 1 : "우리 아이가 함수에 대해서 설명해줬고, 수학을 접할 때 일상적으로 느껴졌던 거부감이 이전보다 많이 없어졌습니다." - 학부모 인터뷰 2 : "우리 아이가 수학 시간에 배운 기물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줘서 수학에 대해 어렵다고만 느꼈지, 제가 가정에서 함께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니 참 든든합니다." - 학부모 인터뷰 3 : "가정에서 부모들은 자녀의 수학 학습을 훨씬 쉽고 가깝게 도울 수 있게 되고, 우리 아이는 자발적으로 학습할 수 있어서 만족합니다." · 부모 스스로 수학을 못한다고 어려워하거나 부담스러워했으나 촉각 수학 교재를 활용함으로써 수학 개념에 대해 이해가 쉬워졌고, 가정에서 복습과 예습이 용이하다는 의견을 통해 본 사업을 통해 시각 장애 학생들의 주변 환경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함.

성과 목표 3.	성과 지표	측정 도구	평가 방법
특수 교사·부모가 촉각 수학 교재를 통해 시각 장애 청소년의 학습 조력자 역할을 수행함.	· 매뉴얼 활용 만족도 평가 · 교재 만족도 평가	만족도 조사 설문지	· 인터뷰 및 관찰 (주변 참여자) · 만족도 조사 실시
평가 결과			
양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시각 장애 특수 학교 14곳 외 시각 장애 유관 기관에 촉각 수학 교재 배포 후 2주 내에 20곳의 설문을 조사한 결과, 실제 1~3회 이상 교재를 활용한 특수 교사의 추가 의견을 90% 이상 수렴하였고, 특수 교사의 수업 일지 및 설문 내용을 통해 특수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 교육에 참여한 시각 장애 청소년 5명의 부모가 방과 후 가정에서 학습 조력자 역할을 주체적으로 지원하고, 주 1회 이상의 근황 및 피드백을 수렴함. 		
질적 평가	<p>질문 1. 특수 교사가 촉각 수학 교재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맹학교 특수 교사가 촉각 수학 교재를 활용하여 시각 장애 청소년을 지도한 결과, 학생들의 수학 의사 소통에 긍정적인 변화로 수학 교사들의 학습 지도에 대한 자신감도 향상되는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음. · 기존 수업에서는 수학 개념이나 내용을 교사가 여러 번 설명하고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나, 촉각 수학 교재를 활용한 수학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발표함으로써 의사 소통이 잘 이루어짐. 정규 수업에서 놓친 개념을 사전처럼 활용할 수 있어 방과 후 수학 학습 지도에도 매우 유용하다고 평가함. · 비시각 장애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수업 전개 과정대로 시각 장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고, 자유 학기제 수학 교실을 운영했던 수학 교사는 학생들이 이전보다 훨씬 익숙하게 촉각 교재를 활용하며, 다용도로 활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함. · 수학 교사는 수학 개념이 약한 학생들에게 이 교재를 추천하여 반복적으로 지도하고 있음. 처음 활용했을 때보다 만족도가 더 높아졌으며, 수학 교육 환경이 앞으로 더욱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출하였음. · 공통적으로 촉각 수학 교재를 활용한 특수 교사 대부분이 구두 설명에 의존할 때보다 전달할 내용을 구체적이고 직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 시각 장애 청소년 지도에 도움이 되었다고 함. 교재를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다는 부분에서 학생들의 변화와 함께 교사 스스로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하는 유의미한 성과가 나타남. <p>질문 2. 자녀의 수학 학습을 조력할 수 있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 학기제 수학 교육에 참여한 학생 5명의 부모가 가정 내에서 주2회 이상 학습 교재를 활용하여 자녀 학습을 조력한 결과, 이전에는 가정에서 자녀의 학습 진도나 진행 과정을 쉽게 점검할 수 없었지만, 촉각 교재를 통해 자녀의 수학 학습 과정을 점검 및 관리함으로써 자녀의 학습 조력자 역할을 긍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음. - 학부모 인터뷰 1 : "우리 아이가 함수에 대해서 설명해줬고, 수학을 접할 때 일상적으로 느껴졌던 거부감이 이전보다 많이 없어졌습니다." - 학부모 인터뷰 2 : "우리 아이가 수학 시간에 배운 기물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줘서 수학에 대해 어렵다고만 느꼈지, 제가 가정에서 함께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니 참 든든합니다." - 학부모 인터뷰 3 : "가정에서 부모들은 자녀의 수학 학습을 훨씬 쉽고 가깝게 도울 수 있게 되고, 우리 아이는 자발적으로 학습할 수 있어서 만족합니다." · 부모 스스로 수학을 못한다고 어려워하거나 부담스러워했으나 촉각 수학 교재를 활용함으로써 수학 개념에 대해 이해가 쉬워졌고, 가정에서 복습과 예습이 용이하다는 의견을 통해 본 사업을 통해 시각 장애 학생들의 주변 환경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함. 		

IV. 사업 성과

1. 상상을 자극하는 촉각 수학 교재 및 촉각 교구 개발

본 사업은 시각 장애 청소년의 수학 학습에 도움이 되는 촉각 수학 교재를 개발하고, 지속적인 수학 교재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이번 사업에서는 청소년 수학 교과를 주제별로 단계화하여 '촉각 수학 교재 : 함수편'을 편찬하였고, 촉각 수학 교재와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촉각 교구 및 활용 매뉴얼을 마련하였다. 자료 기획 과정에서 수학 전문가의 자문 및 감수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각 장애 수학 교사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교육 현장에 유의미한 교재를 개발할 수 있었다. 특히 본 교재는 연상 학습을 지원하는, 만져서 이해할 수 있는 촉각 교재로써 문자(일반 글자)와 점자를 혼용했기 때문에 시각 장애 청소년뿐만 아니라 특수 교사나 부모도 함께 교수 자료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로써 시각 장애 청소년들은 한소네(정보 단말기)와 점자 수학 교재를 동시에 학습해야 하는 이중고를 최소화하고, 특수 교사는 매 수업마다 적합한 교구를 새롭게 고안하거나 준비해야 하는 고충을 최소화하며, 가정에서는 평소에 어려웠던 수학 학습을 부모가 조력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시각 장애 청소년들이 촉각 수학 교재를 활용하면 특수 교사나 부모의 도움 없이도 자가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각 장애 청소년의 수학 기초 학습을 다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고, 연상(상상) 학습을 통해 수학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촉각 수학 교재 및 촉각 교구

2. 촉각 수학 교재를 활용한 연상 교육 효과 확보

촉각 수학 교재 및 촉각 교구를 활용한 수학 교육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서울 소재 맹학교 2곳에 수업 협조를 요청하였고, 그 중 서울맹학교와 협력하여 자유 학기제 '촉각 수학 교실'을 운영하였다. 그 결과, 촉각 교재를 활용하지 않은 이전 수업과 이후 수업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 수업 주제는 '촉각 수학 교재 : 함수편'을 활용하여 1학기에 진행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것이었다. 사전 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수준을 확인한 결과, 함수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학생이 절반 이상이었다. 촉각 수학 교재를 활용하여 촉각을 통해 연상 학습을 하면, 수업 내용이 어려워 놓치거나 그냥 넘어가는 내용도 머릿속에 개념을 그려 넣을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수학 기초 학습 능력을 증진하고 수학 학습에 대한 자신감이 붙으면 어려운 수학도 재미있게 느낄 수 있다. 수업 과정에서 학생들이 수학 교사와 적극적으로 의사 소통하는 모습을 확인하였고, 촉각 교구로 실습하는 전 과정에서 집중력 있게 학습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수업에 참여한 시각 장애

청소년들의 수학적 의사 소통이 원활하게 변화하고 발전되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전국 시각 장애 특수 학교(맹학교) 등 총 22곳에 촉각 수학 교재를 보급한 후, 설문 및 인터뷰를 통해 맹학교 수학 교육 현장에서 느꼈던 것과 공통적인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촉각 수학 교재를 활용한 연상 학습 및 수학 학습 능력의 향상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학습 지도안을 마련하여 효과적인 교수법 제안

수학 전문가(수학 교육과 교수 및 맹학교 수학 교사)와 실무자가 협력해 학습 지도안을 정리하고 촉각 수학 교재를 활용한 교수법을 고안하여, 특수 교사와 부모가 시각 장애 청소년들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였다. 학습 지도안은 촉각 수학 교재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가이드를 제공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교사가 자신의 수업 방식이나 커리큘럼에 따라 응용 및 변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마련하여 공유하였다. 또한 본 사업 과정을 통해 체계화한 3D 입체 파일은 추후 오픈 소스로 보급할 수 있도록 3D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단계가 되었기에 의미가 있다.

V. 향후 계획

촉각 수학 교재의 기술적 보안을 통해 제작 매뉴얼을 정립함으로써 제작 DB를 구축하고 편리한 파일 보급 시스템을 구축하려 한다. 더불어 촉각 수학 교재 개발에 있어 본 기관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본 기관을 통해 촉각 수학 교재를 보급할 수 있는 통합 보급 시스템을 정비하여 촉각 교재를 대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다. 향후 산학 협력을 통해 촉각 수학 교재를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향후 전국 시각 장애 특수 학교 14곳 외에도 다수의 특수 학교에 단계적으로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산학 협력을 통해 촉각 수학 교재 전문성을 확고히 하고, 촉각 수학 교재의 실질적인 효과를 홍보하여 전문 교재로 도약할 수 있는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제작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진할 것이다.

한국·베트남 다문화 가정 부부 갈등 예방 및 해소를 위한 베트남어·베트남 문화·부부 코칭 교육 프로그램

“우리 남편의 베트남 학교”



한베문화교류센터 이상현

I. 프로그램 실시 배경

결혼 이민 여성들은 ‘여성이자 외국인 이주자’라는 이중적 약자의 지위에 있다. 대부분의 결혼 이민 여성은 문화적 편견으로 인한 차별을 받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다문화 가정 부부의 문화적 차이가 있어도 부부가 함께 해소하기보다 이주 여성이 일방적으로 한국 문화에 동화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시댁 식구들과 남편은 새롭게 이룬 가정에 대해 적응하려고 노력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며, 결혼 이민 여성의 문화적 특징과 배경에 대한 인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배우자의 고유한 생활 습관을 이해하거나 배려하지 못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 부부들은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뿐 아니라 언어 장벽으로 인한 문제도 안고 있다. 다른 부부들보다 문화적 차이로 갈등은 많이 발생하지만, 이를 대화로 해결할 방법마저 없는 것이다.

한베문화교류센터는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했던 기존의 동화 교육과 달리, 한국·베트남 다문화 가정 남편 및 예비 남편을 대상으로 한 언어·문화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남편 대상 부부 코칭 강의도 실시하여 참가자들이 부부 갈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소·예방하는 방법을 학습할 기회를 마련하였다. 언어, 문화, 부부 갈등 예방 및 해소를 위한 부부 코칭 교육을 통해 결혼 이민 여성이 짊어진 일방적이고 과도한 부담을 덜고, “우리 남편의 베트남 학교”를 계기로 이들 다문화 부부가 서로를 더 이해하고 배려할 발판을 갖추고자 한다.

II. 프로그램 개요

1. 목적

베트남인 이주 여성과 결혼하였거나 결혼을 앞둔 남편 및 예비 남편들을 대상으로 10주간 주 1회 베트남어, 베트남 문화, 부부 코칭 강의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한국·베트남 다문화 가정 남편이 아내와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예방할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다문화 가족 남편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시범적으로 시행해, 차후 다른 기관에서 남편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이해 교육을 기획할 때 참고할 선행 사례를 남기고자 한다.

2. 목표

과정 목표	성과 목표
1. 대상 20명 모집	1. 베트남어로 감정 표현하기 2. 베트남 문화 이해도 향상 3. 아내의 소통 능력 향상
2. 2회기 교육	
3. 회기 당 10회 교육	
4. 출석률 70% 이상	
5. 베트남어 교육 7시간	
6. 베트남 문화 교육 7시간	
7. 의사 소통 교육 이수 7시간	

3. 프로그램 대상

대상 구분	산출 근거	인원 수
주된 참여자	· 베트남 출신 이주 여성과 결혼하여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남편 · 베트남 출신 이주 여성과 혼인 신고를 마치고 신부의 입국을 기다리는 예비 남편	20명
주변 참여자	베트남 출신 이주 여성과 혼인 신고 절차를 진행 중인 예비 남편	

III. 프로그램 진행 및 평가

1. 세부 프로그램 진행 내용

프로그램	세부 내용	일정	횟수/시간	수행 방법
참가자 모집	1기 모집	1~3월	-	· 구로구 인근 8개 다문화 지원 센터에 사업 홍보 요청 · 구로구 인근 4개 종합 복지관에 홍보 요청 · 기관 홈페이지, 뉴스레터, SNS, 지역 신문에 홍보문 기재 · 온라인 다문화 가정 남편 커뮤니티에 홍보
	2기 모집	7~9월	-	· 이주 여성이 남편에게 참가를 권유할 수 있도록 홍보문을 베트남어로도 제작하여 함께 홍보 · 건강가정진흥원 및 서울 거점 센터인 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홍보 요청 - 연합뉴스에 모집 홍보 기사 보도 - SNS에 형성된 베트남 이주 여성 커뮤니티 홍보 요청

프로그램	세부 내용	일정	횟수/시간	수행 방법
개강식	1기 개강식	3월	1회/3시간	· 개강식 축사 · 부부 코칭 오리엔테이션 진행
	2기 개강식	9월	1회/1시간	개강식 축사
베트남어 교육	1기 베트남어 정규 수업	4~5월	7회/7시간	·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베트남어 학습 · 일상 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베트남어 표현 학습
	1기 베트남어 캠프	4월	1회/3시간	과외식 베트남어 그룹 보충 수업 진행
	2기 베트남어 정규 수업	9~11월	8회/15시간	· 베트남어 기초 문법 · 베트남어 기본 생활 표현
	2기 베트남어 영상 편지 촬영	11월	1회/3시간	8주간 배운 베트남어 활용, 9주차에 아내 혹은 장인 장모에게 보내는 베트남어 영상 편지 촬영
베트남 문화 교육	1기 정규 수업	4~5월	7회/7시간	· 베트남의 전반적인 문화 강의 - 국토, 기후, 언어, 민족, 역사적 배경 등
	2기 정규 수업	10,11월	2회/2시간	한국 · 베트남 부부가 일상 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문화 갈등 사례 강의
부부 코칭 교육	1기 정규 수업	4~5월	7회/7시간	· 부부간 갈등 예방, 해소를 위한 강의 - 부부 갈등이 심한 부부는 개별 상담 진행
	2기 정규 수업	9~10월	4회/8시간	1기 정규 수업과 내용 동일
수료식	1기 수료식	6월	1회/3시간	· 수료증(한국어) 수여 · 밴드 초청 공연 부부 동반 관람
	2기 수료식	11월	1회/2시간	· 수료증(한국어 · 베트남어) 수여 · 영상 편지 상영 및 꽃다발 증정

2. 과정 평가

프로그램	목표량	산출량	평가 결과
프로그램 참여	출석률	1기	· 신청 인원 12명, 10주간 회당 평균 5.5명 참여 · 출장 등으로 수업을 빠지게 되면 그 다음 수업을 따라가기가 어렵다는 피드백을 받음.
		2기	· 신청 인원 26명, 10주간 평균 17.8명 참여(68%), 중도 참여자를 고려하면 출석률 70% 달성(251회 출석 일수 중 176회 출석) · 참여자 수가 많아지면서 정보 공유 커뮤니티가 생기고,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해 꾸준히 참석하는 참가자도 생김.

프로그램	목표량	산출량	평가 결과
프로그램 참여	모집 인원	1기	· 모집 초반에는 한국에서 아내와 함께 거주 중인 기혼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결혼 예정 및 혼인 신고 후 입국 대기 중인 예비 남편의 수요가 있음을 반영하여 대상자 확대 모집 · 모집 과정 중에 참가 대상을 변경한 탓에 많은 잠재적 참가 희망자를 모집하지 못함.
		2기	· 모집 초반부터 기혼 남편 및 예비 남편을 대상으로 홍보 · 모집 기간 동안 참가 신청자 22명, 모집 기간 동안 중도 참가자 4명 · 베트남인 커뮤니티에 베트남어로 홍보한 결과 아내의 권유로 참여하게 된 경우가 생김. · 다누리 포털을 통해 홍보한 결과 더 많은 지역의 다문화 지원 센터에 홍보할 수 있었음. 베트남어 번역문을 배포하여 센터에 리플렛 비치 요청한 결과, 다문화 지원 센터에서 한국어를 수강 중인 이주 여성이 남편에게 소개하여 온 경우도 있었음.
베트남어 문화 교육	영상 편지 제작 참여	2기	· 노력하는 남편, 사위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1~4분기량의 영상 편지를 남편들이 베트남어로 촬영하여 수료식 날 상영 · 수료식 당일 참석한 아내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결과 "감동적이었다" "그간 한글로만 소통해온 남편이 베트남어로 촬영한 모습을 보니 새롭고, 나를 위해 노력해주는 것 같아 고맙다" 등의 피드백을 받음. · 처가와 소통을 목적으로 베트남어 공부를 시작한 남편들의 수요를 반영, 아내뿐만 아니라 처가에 보내는 영상 편지도 촬영해 참가자 호응을 받음.
		1기	· 프로그램 중간 조사에서 나타난 참가자들의 베트남어 교육 수요 욕구를 반영, 3시간 과정의 '베트남어 캠프'를 추가 진행 · 언어 학습 커리큘럼의 연속성 때문에 무득이한 사유로 불참한 참가자는 이후 수업을 따라갈 수 없는 한계 발생. 주된 참여 동기였던 베트남어 학습이라는 목적 달성이 어려워지자 계속 불참.
베트남어 교육	베트남어 교육	2기	· 1기 피드백 및 2기 신청서 참가 목적 및 교육 수요 조사 결과를 반영해 베트남어 강의를 대폭 늘리고 문화 강의 축소 - 베트남어 교육 15시간 + 베트남어 영상 편지 녹화를 위한 발음 교정 특강 3시간으로 구성 · 1기에서 드러난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참가자 커뮤니티(카카오톡 단체 채팅방)를 운영, 1~2회 불참해도 집에서 언어 학습을 해올 수 있도록 교안을 매주 제공하고 학습 자문 서비스 제공 · 2기 프로그램 보완 후 출장, 경조사로 인한 1~2회 단기 불참자의 재 참여율이 눈에 띄게 향상됨. · 중도 참여한 남편들도 피드백 자료로 베트남어 수업 진도를 따라올 수 있었고, 남은 진행 기간 동안 성실하게 참여하여 수업을 이수함.

프로그램		목표량	산출량	평가 결과	
베트남어 문화 교육	베트남 문화 교육	1기	7시간	7시간	· 설문 조사 결과, 대체로 "매우 만족" 혹은 "만족"으로 평가받음. · 심화 피드백 결과, 한국과 베트남의 문화 차이로 일상 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갈등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좋았으나, 베트남의 국토, 기후, 역사, 민족 등의 강의 콘텐츠는 다른 콘텐츠로 대체되기를 희망한다는 피드백을 받음.
	베트남 문화 교육	2기	7시간	2시간	· 1기 때 좋은 피드백을 받은 '한국과 베트남의 문화 차이로 인해 일상 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갈등'과 '베트남 내 여성 지위와 이에 대한 바람직한 남편의 자세'라는 새로운 강의 주제로 강의를 구성하고 국토, 기후, 역사, 민족 등에 관한 강의 내용은 베트남어 교육과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재편 · 설문 조사 결과, "매우 만족" 혹은 "만족"으로 평가받음. · 남편들의 문화 수업 참여도가 눈에 띄게 상승함.
부부 코칭 교육	부부 코칭 교육	1기	7시간	7시간	· 수요 조사에서는 부부 코칭 수업에 대한 남편들의 교육 욕구가 낮았으나, 수업 후에는 큰 호응을 받음. - 참가자 중 1명은 심화 면담을 통해 부부 갈등을 해소함. - 수업이 1회 1시간이어서 아쉽다는 피드백을 받음.
	부부 코칭 교육	2기	7시간	8시간	· 1기와 마찬가지로 수요 조사에서는 남편들이 낮은 교육 욕구를 보였으나 수업 후 큰 호응을 보임. · 1기 교육에서 취합한 피드백을 반영, 첫 4주간 1회 2시간으로 재편성. · '부부 코칭' 강의에 부부 동반으로 참석하는 부부가 다수 보임. 이에 통역사를 고용하여 아내들도 수업을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조정함. · 최종 강의 평가에서 3개 수업 중 "매우 만족"의 비율이 가장 높았음.

3. 효과 평가

성과 목표 1.	성과 지표
베트남어로 감정 표현하기	베트남어 영상 편지 촬영 참여 인원 50% 이상 (베트남어 영상 편지는 수료식 작품)
평가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26명의 참가자 중 16명(61%)이 최종적으로 '베트남어 영상 편지' 촬영 참여 · 15명의 참가자가 '베트남어 영상 편지' 촬영을 마쳤고, 1명의 참가자는 아내에게 보내는 수기 편지로 대체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국내에서는 남편들의 베트남어 학습 성과를 측정할 구체적인 지표가 없어, 센터에서 준비한 프로그램인 '베트남어로 아내에게 영상 편지 녹화하기'에 최종 참여한 인원을 지표로 설정함. · 1기 종료 후 담당자 변경 및 참여율 저조로 프로그램을 개편하면서 1기 프로그램은 성과를 측정하지 못함. '베트남어 영상 편지 촬영'은 당초 기획했던 프로그램 '부부 워크숍'을 대체하여 2기에만 진행하였음. · 2기에서 실시한 '베트남어 영상 편지 촬영'의 대상은 당초 아내로 기획했지만 '남편이 베트남어를 배워 부모와 소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아내들의 의견과 '장인·장모님 및 처가 식구들을 만날 때 간단한 소통이라도 하고자 수업에 참여했다'는 남편 참가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아내 혹은 장인·장모님께 보내는 베트남어 영상 편지'로 변경하였음. - 수료식 때 영상 편지를 선물 받은 아내들은 크게 호응했으며 촬영에 참여한 남편들도 호응했음. 	

성과 목표 2.	성과 지표
베트남 문화 이해도 향상	· 베트남 문화 수업 이수율 50% 이상 · 베트남 언어 수업 이수율 50% 이상

평가 결과

- 문화 수업
 - 1기: 참여 인원 12명 중 6명(50%)이 문화 수업 이수
 - 2기: 참여 인원 24명(문화 수업 이후 중도 참가자 제외) 중 15명(62.5%)이 문화 수업 이수
- 언어 수업
 - 1기: 참여 인원 12명 중 4명(33.3%)이 언어 수업 이수
 - 2기: 참여 인원 26명 중 17명(65.3%)이 언어 수업 이수

비고

- 1, 2기 프로그램 구성이 다르므로, 문화 수업 이수 인정 기준을 각각 다른 방식으로 설정
 - 1기의 경우 문화 수업 7회 중 4회 이상을 이수한 인원을 '문화 수업 이수'로 인정
 - 2기의 경우 1회 진행한 문화 수업 수강 및 베트남어 수업 4회 이상 참여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인원을 문화 수업 이수로 인정
 - 단, 문화 수업을 진행한 5주차(10/22) 이후 참여한 중도 참가자는 총 인원에서 제외
- 1, 2기 언어 수업 이수 인정 기준도 각각 다른 방식으로 설정
 - 1기: 언어 수업 8회(특강 포함) 중 5회 이상을 이수한 인원을 언어 수업 이수로 인정
 - 2기: 언어 수업 18시간(특강 포함) 중 12시간 이상을 이수한 인원을 언어 수업 이수로 인정
 - 중도 참가자는 최대 수강 가능한 시간 대비 수강 시간의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이수로 인정

성과 목표 3.	성과 지표
아내와의 소통 능력 향상	부부 코칭 수업 이수율 50% 이상

평가 결과

- 1기: 참여 인원 12명 중 6명(50%)이 문화 수업 이수
- 2기: 참여 인원 22명(중도 참가로 인한 불참자 제외) 중 18명(81.8%)이 부부 코칭 수업 이수

비고

- 1, 2기 프로그램 구성이 다르므로, 부부 코칭 수업 이수 인정 기준을 각각 다른 방식으로 설정함.
 - 1기: 부부 코칭 수업 7회 중 4회 이상을 이수한 인원을 부부 코칭 수업 이수로 인정
 - 2기: 부부 코칭 수업 4회 중 3회 이상을 이수한 인원을 부부 코칭 수업 이수로 인정
 - 2주차 이후 참가한 중도 참여자는 대상자에서 제외, 1주차 이후 참가자는 3회 수업 전부 참여 시 수업 이수로 인정

IV. 사업 성과 및 제언

1. 한국인 남편에 대한 베트남인 아내의 신뢰도 향상

프로그램이 끝난 후 수료식에 동행한 베트남인 이주 여성 아내들의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아내들은 “나와 가족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남편의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다” “남편이 나와 베트남에 대해 더 잘 알게 된 것 같아 감사하다” “남편이 더 열심히 해서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다” 등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남편이 베트남어를 공부하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남편의 베트남어 학습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응원하는 아내도 있었다. 이처럼, 베트남어와 문화를 배우며 아내와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이주 여성 아내뿐만 아니라 그 주변인에게도 긍정적인 남편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었다.

2. 남편에게 지속적인 베트남어 학습 동기 부여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상당수의 남편들은 센터에 와서 3주 과정의 특강을 수료했다. 비록 바쁜 연말 일정 때문에 특강에는 참여하지 못한 남편들도 있었지만, “우리 남편의 베트남 학교”에서 베트남어 기초 과정을 수료한 다수의 남편들은 사설 학원, 인터넷 강의 등을 통해서라도 계속 베트남어를 배우려는 학습 의지를 보였다. 그중에는 베트남인 아내와 처가와와 친밀도 향상을 위해 베트남 노래 배우기에 도전하려는 참가자도 많았다. 이렇듯, 남편들이 베트남어와 베트남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됨에 따라, 아내와 공유할 수 있는 콘텐츠가 생긴 점은 향후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3. 수업과 커뮤니티를 통해 베트남인 아내에 대한 오해와 갈등 해결

베트남인 이주 여성과 결혼한 남편들, 특히 신혼인 남편들과 신부의 입국을 기다리는 남편들은 아내에 대한 오해를 다소 가지고 있었다. 아내가 음식을 아끼지 않고 다 버리는 모습, 사촌의 집들이에까지 현금을 요구하는 모습 등이 그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오해 요소를 문화 수업이나 베트남 원어민 강사와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풀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다수의 참가자들이 평소 이해하지 못했거나 때로는 반감을 느꼈던 아내의 행동을 문화적 차이로 바라보게 되면서 아내에 대한 오해를 풀고, 아내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경우가 많았다. 이렇듯 남편들이 일상 생활에서 겪는 오해와 갈등을 문화의 차이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승화시킴에 따라, 많은 갈등과 오해를 해소하거나 예방하여 보다 원만한 부부 관계를 지속해나갈 수 있는 성과가 기대된다.

V. 향후 계획

2016년 “우리 남편의 베트남 학교”를 진행하면서 실무자로서 프로그램 진행에 가장 큰 애로사항을 느꼈던 점은,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한국 문화 교육이 수업 자료, 강사진, 수업 체계가 확고히 잡혀 있고 성과 도출 기준도 명확한 점에 비해, 이주 여성과 결혼한 남편들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수업은 수업 자료, 강사진, 수업 체계, 성과 도출 기준 등이 전무하다시피 한 점이었다. 한베문화교류센터는 베트남에 대해 전문성을 지닌 NGO로서, 한국·베트남 다문화 가정 남편들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교육이 손쉽게 가능한 체계를 갖추기 위해 정비 시간을 가지려 한다. 먼저 2016년 사업을 진행하며 얻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남편을 위한 수업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고, 남편들의 학습 성과를 도출할 척도로 활용할 자료를 만들고자 노력할 것이다. 2016년 사업은 한베문화교류센터 한국 법인이 위치한 서울 구로동 인근의 남편들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추후 사업을 재정비한 후에는 지역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한·베 다문화 가정 남편들이 교육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실무자 소감

그루터기지역아동센터 김민주

“하고 싶은 거요? 집에 빨리 보내주세요. 게임하게요.” 공부하기 싫다고 투정을 부리는 아이들에게, 다른 무엇을 하고 싶느냐고 물어보면 꼭 한 번은 나오는 대답이었습니다. “손재주 개념 학생단”은 이 대답에 1년간 도전했고, 여러 돌발 상황에도 이를 하나하나 극복하고 수확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학생들이 동아리를 만들어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면서 “시간과 노력을 들인 만큼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 코딩의 매력”이라고 말합니다. 센터 주변에 떨어진 담배꽂초를 줍는 일조차 귀찮아하고 부끄러워하던 학생들이, 이제 시장 길목에 버려진 떡볶이 봉투에 옷을 버려가면서도 봉투 가득 쓰레기 줍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버려진 가구를 톱과 망치로 잘라 마련한 재료가 처음에는 허접해보여 어디 쓸까 싶다가도, 점점 모양을 내다보면 가게 진열대에 놓아도 손색이 없는 모습으로 변한다며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보다 앞으로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변화할지가 중요하다”고 말하게 된 아이들. 제가 느끼는 보람만큼 학생들 또한 그동안 쌓은 실력으로 후배들에게 조언하며 “손재주 개념 학생단” 2기를 맞이할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도움과 격려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 특별히 이러한 기회를 주신 삼성복지재단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양은정

어느덧 12월이 되어 “한울타리” 아이들과 열심히 달려온 2016년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쉽지만 합니다. 프로그램 초기에는 말과 행동이 느리고 제멋대로 행동하려는 아이들이 이해되지 않고 지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느리지만 조금씩 변화하는 것을 보고, 빠른 변화와 높은 기대치에 초점을 두고 아이들을 대한 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느낌을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민들과 또래 아이들도 느꼈다는 것에서 기쁨을 느꼈습니다. 더디지만 고군분투하며 조금씩 변화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들의 예쁘고 사랑스러운 모습은 오래 갈수록 더 빛을 발한다는 것을, 이들은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아이들이라는 것을 더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올해 4월 중간에 사업 담당자가 되어 각기 다른 현장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과, 맹점을 짚어주시는 박정민 교수님의 진심 어린 슈퍼비전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감동이었고 다시는 경험할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더 크게 도약하는 사회복지사가 되겠습니다.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정혜지

‘놀이터’라는 공간을 매개로 놀이와 돌봄, 진로, 학습을 진행한 프로젝트는 독특하면서도 복잡다단한 도전이었습니다. 지역에서 만난 갈 곳 없는 중학생 청소년들을 보며 “이 프로그램을 해야 한다”고 다짐했지만, 정작 사업 초기엔 “이게 맞나?”라는 고민에 직면했습니다. 몇 달 간의 준비 기간에 느낀 고민을 해소해준 것은 놀랍게도 우리가 돕고자 했던 청소년들과 기꺼이 돌봄 공동체가 되어준 우리 마을이었습니다. 놀이터가 필요한 친구의 손을 잡고 찾아오는 청소년들의 모습, 놀이터의 구석구석을 채우고 마을에 당당히 서는 아이들의 모습은 제게 “청소년이 좋다!”는 깨달음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지난 1년은 마을이 손을 내밀면 함께 꿈을 키우고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는 청소년의 잠재력을 느낀 시간이자, 함께한 저도 한 뼉 성장했던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 바람이 있다면 마을 전체가 청소년의 놀이터가 되고, 우리 복지관이 그런 마을을 만드는 작은 불씨가 되는 일입니다. 벽찬 꿈의 첫 시작을 열도록 기회를 만들어주신 삼성복지재단과, 마음을 나누며 함께해주신 박정민 자문 교수님 및 자문팀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귀포시장애인지립생활센터 이준협

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는 말을 듣고 다른 모든 사회복지사들이 그렇듯 저 역시 걱정 반 설렘 반의 마음이었습니다. 특히 다른 기관의 프로그램과는 성향이나 진행 방법이 다르기에 두려움은 더욱 컸습니다. 하지만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두려움은 조금씩 자신감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우리가 만든 픽토그램(그래픽 심볼)은 다시 걱정 반, 설렘 반의 마음으로 많은 이들에게 다가섭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삼성복지재단과 묵묵히 믿고 기다려주신 박정민 교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실무자 팀별 모임 때 휠체어 접근이 좋은 장소를 잡느라 고생한 서미연 팀장님을 비롯한 실무자들에게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당사자로서의 역할과 소임을 다하는 사회복지사로 정진하겠습니다.

실로암시각장애인지복지회 설리번학습지원센터 이인애

사업에 대해 세심하게 자문해주신 자문 교수님, 수학 전문가와 함께 시각 장애 청소년을 위한 수학 교재를 개발한 경험은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수학 교재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교과서 속 수학 개념을 촉각 수학 교재로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소극적이던 학생이, 촉각 수학 교재를 활용한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에는 자신감이 엿보였습니다. 시각 장애 청소년들의 그 작은 변화가 제게는 감동이었습니다. 촉각 수학 교재를 개발하지 않았다면 이 수업도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시작은 부족하고 어려웠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이번 사업을 계기로 손에 잡히는 촉각 수학이 시각 장애 청소년의 학습 열기를 높일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시각 장애 청소년들이 촉각 이미지를 통해 머릿속에 그려 넣은 연상 학습은 고차원적 상상으로 이어져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할 방법이 됩니다. 지금은 비록 시작 단계지만, 촉각 교재를 잘 활용한다면 수학이라는 추상적인 학문도 조금씩 정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촉각 수학 교재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시각 장애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수학을 공부할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려 합니다.

한베문화교류센터 이상현

6개월의 짧은 인턴 기간이었지만,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할 기회를 얻어 행복한 2016년 하반기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남편의 베트남 학교”는, 한국·베트남 다문화 가정을 꾸린 남편으로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과 싸워야 했던 제게 참으로 의미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7월에 처음 프로그램을 인수인계했을 때 당초 20명 가량의 참가자 수를 기대하고 기획된 프로그램의 평균 참가자가 5명뿐이라는 말을 듣고, 어디서부터 개선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료식 날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 쓴 영상 편지를 베트남어로 더듬더듬 말하는 것을 보며, 그리고 그 영상 편지를 받고 행복해하는 아내들의 모습을 보며 그간의 노고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쁜 일상에 쉴 틈 없는 주말에도 매주 토요일마다 먼 길 오셔서 아내를 위해, 행복한 가정을 위해 열정적으로 공부하신 모든 참가자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또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조언과 도움을 주신 박정민 교수님과 삼성복지재단에도 감사를 전합니다.

자문 교수 소감

박정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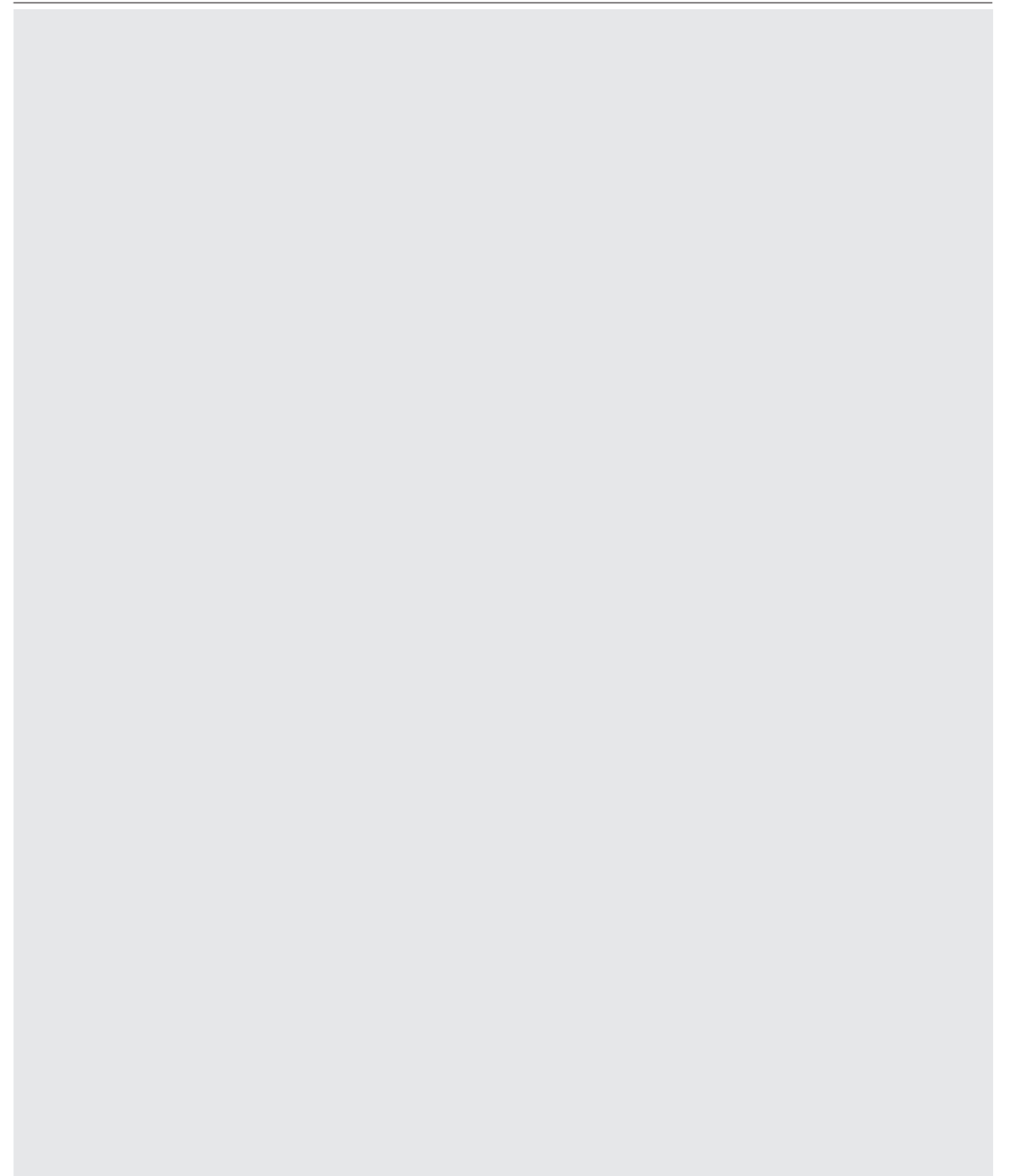
삼성복지재단의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지원 사업인 '작은나눔 큰사랑'에 참여하게 된 것은 저에게 있어 행운이었습니다. 교재와 강의실의 제한된 틀을 벗어나 사회복지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접하고, 더 나은 사회복지 사업 평가와 지원 방식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얻었으며, 무엇보다 뛰어난 프로그램 실행 능력을 지녔으면서 마음도 따뜻한 여러 좋은 분들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한편으로는 기관과 실무자의 입장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의 일환이고 그에 따라 성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마치 영향력 있는 사람처럼 누군가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때로 그의 미래를 바꾸기도 합니다. 프로그램 덕분에 같이 놀고 웃고 떠들 수 있는 친구가 생겨서 좋았다는 경계선 지적 기능 청소년, 자신이 직접 만든 물건에 너무나 뿌듯해한 학생, 처음 받은 배우자의 영상 편지에 감동의 눈물을 흘린 다문화 가정의 아내, 어려운 수학을 쉽게 배울 수 있게 해주어서 감사하다는 시각 장애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이야기와 모습이 떠오릅니다. 아마도 이들 프로그램은 참여자들 삶의 일부가 되어 기억으로, 행동으로 일상 속에 오랫동안 남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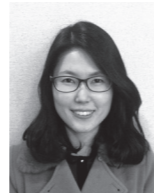
제안서와 보고서, 평가 결과서에는 시간과 인원을 나타내는 숫자로 메마르게 기술되지만, 이 숫자의 뒤에는 늘 사람이 있습니다. 통계는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위한 실무자들의 노력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의 참여자를 더하고, 내실 있는 한 시간의 교육을 행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프로그램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외부 기관과 연계하고, 기대에 맞는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프로그램의 매 실행 과정에 투여한 시간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실천 현장의 핵심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주체는 현장의 실무자 분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습니다. 이들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은 삼성복지재단의 지원 방식입니다.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 논리성과 정교함을 발휘한 것은 물론, 전통적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영역과 기준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참신성과 창의성에 높은 가치를 둔 점, 선정 이후 예산 활용의 제약을 최대한 없애 실무자와 기관이 목표 달성에 집중하게 하면서 사업 운용에 대한 책임성을 오히려 높이는 순기능을 유도한 점, 그리고 이를 통해 실무자와 사회복지 기관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작은나눔 큰사랑' 사업의 자문단으로 활동한 것은 제게 '작은기여 큰혜택'이었습니다. 올해 한 팀으로 함께했던 서미연, 양은정, 정혜지, 이준협, 이인애, 이송, 한유완, 이상현, 오무한, 김민주 선생님, 그리고 삼성복지재단 담당 팀장님과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3장



농촌 지역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강점 인식과 멘토링 기법을 활용한 내적 역량 강화 및 사회적 관계망 확대를 통한 올바른 양 문화 정체성 확립 프로그램



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 박정

“다(多) 문화 브릿지(bridge)”

I. 프로그램 실시 배경

다문화 가족 아동은 학교 생활에서 정체성 혼란, 낮은 학업 성취도, 집단 따돌림으로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다(류윤석, 2010). 2009년 광주광역시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 중 학습 부진(41%), 친구 관계(22%)가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 중 차별 경험이 있는 아동(28%)은 가장 큰 차별 이유가 ‘엄마가 외국인이라서’(18%)라고 밝혔다. 국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족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성별, 가족 형태, 다문화 적응, 친구 지지, 교사 지지 등이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계란, 2011).

최근 시행 중인 다문화 가족 및 아동 지원 정책은 대부분 초기 입국자 위주여서, 정착한지 오래된 다문화 가족의 불만이 늘고 있다. 따라서 입국 시기별로 차등화된 문제 발견 및 지원 대책이 요구되며, 특히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쉬운 농촌 지역 다문화 가족 아동의 복지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역 내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의 서비스 다양성 및 접근성에는 한계가 있기에 지역별 맞춤형 서비스 개발 및 제공, 접근성 향상 노력, 체계적인 방문 교육 서비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본 복지관에서 2010년 달성군 내 다문화 가정 결혼 이주 여성 100명의 개별 면접 조사를 살펴본 결과, 필요 복지 서비스는 한국어 학습(52%), 자녀 학습 지도(20%), 문화·취미 활동(10%), 일자리 연계(10%), 개인 고민 상담(6%), 기타(2%)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달성군 다문화 현황 및 복지 욕구를 고려했을 때, 언어 소통 및 가족 관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회적 편견과 자녀 문제를 해결할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함을 파악하였다.

II. 프로그램 개요

1. 목적

농촌 지역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강점 인식과 멘토링 기법을 활용한 내적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또한 사회적 관계망을 확대하여 올바른 양(兩) 문화 정체성을 확립함으로써, 다문화 가족이 지역 사회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목표

과정 목표		성과 목표
목표 1.	다문화 가족 멘토링의 이해를 돕고자 연 1회 가족 멘토링단 집합 교육을 실시한다.	농촌 지역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 가족의 가족 멘토링단 결연을 통해 사회적 지지 체계 구축 및 관계망을 확대한다.
목표 2.	연 1회 다문화 가족 및 한국 가족(총 12가정)이 다문화 가족 멘토링 동기 강화를 위한 결연식 및 관계 맺기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목표 3.	월 1회 다문화 가족 멘토링단의 테마별 집단 활동을 통해 공동 미션을 수행한다.	
목표 4.	월 1회 영역 확장 및 관계 강화를 위해 개별적 만남을 통한 가족 멘토링 활동을 실시한다.	
목표 5.	월 1회 나라별 놀이 및 요리 문화에 대한 다문화 가족 엄마의 직접 강의를 통해, 학령기 자녀들에게 모국 문화를 알린다.	농촌 지역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 가족의 테마별 문화 이해 프로그램을 통해 양 문화 정체성을 형성한다.
목표 6.	연 1회 다문화 가족 엄마의 직접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양 문화에 대한 학령기 자녀의 관점을 반영하여 직접 나라별 신문 형식의 피드백 결과물을 도출한다.	
목표 7.	연 4회 다문화 가족 나라별 구성을 통해 콘텐츠를 준비한다.	농촌 지역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 가족의 임파워먼트적 접근의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에 기여한다.
목표 8.	연 4회 다문화 가족 나라별 준비된 콘텐츠를 통해 나눔 활동을 실시한다.	

3. 프로그램 대상

대상자 범위	개념적 범위	농촌 지역 학령기(초등학교1~3학년) 자녀를 둔 다문화 가족
대상자 구분	주된 참여자	농촌 지역 학령기(초등학교 1~3학년) 자녀를 둔 다문화 가족 6팀
	주변 참여자	다문화 가족 멘토링단으로 활동할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한국 가족 6팀
대상자 선정 방법	홍보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 협약을 통한 사업 홍보 및 참가자 모집 요청 달성군 관할 지역 내 초등학교(현풍, 농공, 북동초등학교 등) 직접 방문을 통한 사업 설명, 참가자 모집 요청 복지관에 등록된 기존 다문화 가정 중 자격 요건에 맞는 경우 참가 안내 다문화 가족 멘토링단으로 활동할 한국 가족 봉사단 모집을 위한 홍보 전단지 제작, 지역 내 배포를 통한 모집 홍보

대상자 선정 방법	접수 · 상담	· 사업 홍보를 통한 접수 상담 진행, 관심 대상 상담 후 접수 · 면접을 통해 참여 동기 및 의지 확인 후 결과 통보
	선정 기준	· 주된 참여자 - 농촌 지역 학령기(초등학교 1~3학년) 자녀를 둔 다문화 가족 6팀 · 주변 참여자 - 다문화 가족 멘토링단 6팀 - 주 1회 활동 및 1년간 장기 참여가 가능한 자 - 20~40대 가정 주부 중 희망자 - 초등학교생 자녀가 있는 경우
	애로 시 대처 방안	· 네트워크 및 개별 다문화 가정 관계망 활용 · 참가자 모집 기한 연장

4. 논리 모델에 근거한 사업 분석

투입(Input)	활동(Activity)	산출(Output)	성과(Outcome)
· 인력 - 대상자(멘티):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 가족 6세대 - 자원봉사자(멘토): 학령기 자녀를 둔 한국 가족 6세대 - 담당 사회복지사 - 전문 상담사 - 힐링 퍼포먼스 강사 - 사회복지학과 교수 - 교육 복지사 - 핸드 페인팅 강사 - 생활 소품 공예 강사 - 복지관 관장, 부장 · 지역 사회 연계 기관 -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 - 달성군자원봉사센터 - 희망나눔지역아동센터 - 북동초등학교 - 화원초등학교 - 논공초등학교 - 논공성당 - 화원성당 - 성산성당 - 대곡성당 - 현풍성당	· 사업 홍보 -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 - 복지관 인근 지역 3개 초등학교 - 지역 언론사	12회	·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를 통한 대상자 모집 완료 - 멘토 · 멘티 총 12세대 선정
	· 다문화 가족 멘토링단 집합 교육 - 한국 가족 봉사단을 대상으로 한 기본 멘토링 교육 - 다문화 관련 이론 교육	2회	· 멘토링 봉사단 기본 소양 교육을 통해 봉사단으로서의 마음가짐과 사명감 고취 · 다문화 가족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 · 독려를 위한 사전 교육
	· 다문화 가족 멘토링 결연식 및 관계 맺기 - 다문화 가족 및 한국 가족 총 12팀으로 구성 - 멘토링 결연식 및 관계 맺기를 위한 놀이 식으로 진행	1회	· 결연식 및 관계 맺기와 관련한 공식 활동을 통해 상호 책임감 부여 · 사업 시작과 더불어 참여자 · 봉사자 역할을 각자 정립하는 시간으로 적극 활용
	· 다문화 가족 멘토링 테마별 집단 활동 - 공동체성을 강조한 테마별 집단 활동으로 친밀감 강화 - 스토리 사진첩 제작	9회	· 다문화 가족 멘토링 집단 활동 중 팀끼리 상호 교류가 이뤄짐. · 담당 사회복지사는 팀별 모니터링 시간으로 적극 활용
	· 다문화 가족 멘토링 개별 활동 - 다문화 가족과 한국 가족 봉사단의 직접 만남을 통한 멘토링 개별 활동 실시 - 활동 사례집 발간	9회	· 팀별로 개별성 및 다양성을 존중하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 · 활동 일지를 기록하면서 서로 깊이 있게 관찰하여 의미 있는 상호 작용을 끌어냄.
	· 다문화 가족 엄마의 직접 강의를 통한 문화 알림 - 나라별 놀이 및 요리 문화에 대해 다문화 가정 엄마가 강의를 맡아, 학령기 자녀들에게 모국 문화 소개	4회	다문화 가족 엄마가 경험에서 우러난 모국 문화를 소개함으로써, 전문 강사의 강의보다 쉽고 친숙하게 나라별 문화를 이해하게 됨.

투입(Input)	활동(Activity)	산출(Output)	성과(Outcome)
· 활동 공간 - 복지관 소강당 - 복지관 지하 식당 - 복지관 강당 - 기타 지역 사회	· 학령기 자녀가 직접 만드는 양 문화 신문 - 다문화 가족 엄마의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양 문화에 대한 학령기 자녀의 관점을 반영하여 직접 나라별 신문을 만들어 봄.	2회	· 강의를 보고 듣는 걸로 끝나는 수동적인 문화 이해 대신, 다문화 자녀 입장에서 엄마가 경험한 정보 공유 및 체험담을 신문으로 만듦. · 신문 형식을 빌려, 자녀가 느끼는 감정과 관점을 바탕으로 양 문화를 이해하는 긍정적 결과물을 도출함.
	· 다문화 가정 나라별 콘텐츠 구성 - 다문화 가족 나라별 구성을 통한 콘텐츠 준비	4회	다문화 가족이 감정을 지닌 영역을 자기 안에서 발견함으로써 자신감과 사회 적응력을 얻음.
	· 콘텐츠를 활용한 나눔 활동 - 다문화 가족 나라별로 준비한 콘텐츠로 나눔 활동 실시	4회	다문화 가족이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 사회의 유용한 인적 자원으로 기능하게 됨.

Ⅲ. 프로그램 진행 및 평가

1. 세부 프로그램 진행 내용

프로그램	일정	횟수	세부 내용	수행 방법
사업 홍보 및 대상자 모집	1~2월	6건	· 대상 - 주된 참여자 : 농촌 지역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 가족 6팀 - 주변 참여자 : 다문화 가족 멘토링단으로 활동할 초등학교생 자녀를 둔 한국 가족 6팀 (단, 1세대 중학교 자녀 포함) · 내용 - 주 1회 활동 및 1년 동안 장기적 참여가 가능한 자 - 초등학교생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 주부 중 희망자	· 홍보 - 지역 내 5개 초등학교에 공문 발송, 직접 방문, 홈페이지 게재 - 지역 내 8개 성당 가족 봉사단 협조 공문 발송, 사회복지위원장 중심 전화와 방문을 통한 홍보 - 달성군자원봉사센터 및 대구광역시 달성교육지원청 협조 공문 발송을 통한 멘토 · 멘티 추천, 사업 홍보 -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을 통해 지역 내 학교 학생들에게 가정 통신문 발송 시스템 마련 - 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 소식지 및 홈페이지, 달성군청 소식지 3월호에 멘토 · 멘티 모집 홍보 - 지역 내 3곳에 현수막 게시 · 접수 및 상담 - 관심 대상 우선 면담 - 면담을 통해 참여 동기와 의지 확인 후 최종 결정

프로그램	일정	횟수	세부 내용	수행 방법
다문화 가족 멘토링단 집합 교육	3월	2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 한국 가족 6세대(멘토) 방법 : 1일 2회기 연속 수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기 : 멘토링의 이해, 다문화 가정에게 멘토란?, 협동화 그리기, 질의 응답 나누기 - 2회기 : 멘토링 단계(역할 모델, 동기 부여 등), 경청화 그리기, 프로그램 단계(신뢰 형성, 몰입하기, 이별 준비), 질의 응답 나누기 · 위촉장 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멘토링 집합 교육 - 봉사자의 마음가짐과 사명감 고취 · 협동화 및 경청화 - 멘토링 가족단별 가족 성향, 가족 구성원간의 역동 등을 자연스럽게 파악하고 스스로 돌아볼 계기 마련 · 위촉장 전달 - 봉사자로서의 책임감 및 동기 부여 계기 강화 · 사전 인터뷰 조사 - 프로그램 참가 동기, 참여 태도, 변화 기대 정도 등을 파악
다문화 가족 멘토링 결연식 및 관계 맺기	4월	1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 다문화 가족 6세대(멘티) 및 한국 가족 6세대(멘토)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연식 증서 제작 및 결연을 위한 팀별 '조명'과 참여 의지를 담은 조별 미션 제안 - 멘토 및 멘티 소개, 결연, 서약서 작성 - 아트 힐링 퍼포먼스 기법 활용 - 마음 열기, 친해지기, 하나 되기, 가족 되기, 결말 메시지(가족의 정의 부여, 동기 유발) 등의 단계를 거쳐 서로 이해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연식 - 멘토 · 멘티가 참여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사업 참여 활성화 동참 · 아트 힐링 퍼포먼스 - 서로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 마련 · 결연 증서 전달 - 결연 당사자가 책임감을 느끼고 참여 동기를 강화할 계기 마련
다문화 가족 멘토링 테마별 집단 활동	4~11월	9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 다문화 가족 6세대(멘티) 및 한국 가족 6세대(멘토)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기 : 멘토별 사전 팀 티셔츠 문구 확인, 팀별 티셔츠 작업으로 협동력 증진 - 2회기 : '가정의 달' 맞이 어버이에게 전하는 손 편지를 작성해 텀블러 만들기 - 3회기 : 핸드 페인팅으로 친환경 가족 화분을 만들어 선인장 심기. '선인장'에 대한 의미 부여를 가족 화분과 연결하기 - 4회기 : 생명 사랑 환경 축제 "맹꽁이아 놀자"에 참가, 환경 보전 동참, 생명 사랑 키움. - 5회기 : '우리 가족 소통 꾸러미 만들기'를 통해 멘토링 프로그램 취지와 소통에 대한 의미 부여 - 6회기 : 추석맞이 송편 나누기 - 7회기 : 우리 가족만의 향기 가득한 석고 방향제 만들기 - 8회기 : 서로의 얼굴을 기억하며 '추억의 스토리 포토랙' 만들기 - 9회기 : '스토리 사진첩'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기 : 팀별 티셔츠를 만들어 팀 화합을 도모하고 협동력을 키움. - 팀 티셔츠에 어떤 글귀를 넣을지 의견을 모아 완성함. 글귀에는 멘토링 기간 동안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가치를 반영함. - 6개 결연팀 티셔츠 글귀 : 햇살 담은 우리, 처음과 같이 항상, 함께 걷는 길, 무지개 다리를 건너서, 희망찬 두 가족, 함께하면 행복 두 배 · 2회기 : 직접 쓴 손 편지를 텀블러에 넣어 부모님께 드리며 감사드립니다. - 멘토링 집단 활동을 통해 다른 팀과 상호 교류, 친밀감 강화 · 8회기 :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활용하여 즉석에서 생동감 있는 모습을 담아냄. · 9회기 : 1년간 멘토 · 멘티 간의 활동 사진을 중심으로 회기별 사진 선별, 사진에 대한 활동 소감 등으로 추억의 앨범을 직접 꾸미고 서로 교환 - 집단 활동을 바탕으로 관계 강화와 양 문화 정체성 확립을 위한 테마별 과업을 체계적으로 수행
다문화 가족 멘토링 개별 활동	4~11월	9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 다문화 가족 6세대(멘티), 한국 가족 6세대(멘토)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연식 및 관계 맺기 활동을 기점으로 매월 1회 이상 소통, 일지 기록, 활동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주어진 테마에 의거, 개별 활동 진행 - 담당자는 매월 말일 활동 일지 확인 후 개별 슈퍼비전 제공 - 멘토 역량에 따라 '다름'을 인정하고 멘토 역량에 맞춰 표현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함.

프로그램	일정	횟수	세부 내용	수행 방법
다문화 가족 엄마의 직접 강의를 통한 문화 알림	4~11월	4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 다문화 가족 6세대(멘티), 한국 가족 6세대(멘토)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논의를 거쳐 국적별 발표자 선정 및 자료 수합 - '가정의 달' 맞이 나라별 어버이날 나누기, 여름철 놀이 문화 나눔(중국), 베트남 노래(동요) 문화 나눔, 중국 노래(동요) 문화 나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가정의 달'을 맞이해 나라별 어버이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다양한 경험 공유 - 다문화 가족 엄마가 직접 발표 후 피드백을 나누며 나라별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 - 다문화 가족 엄마의 직접 강의를 통한 테마별 모국 문화의 이해도를 높일 계기 마련
학령기 자녀가 직접 만드는 양 문화 신문	4~11월	2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 다문화 가족 6세대(멘티) 및 한국 가족 6세대(멘토)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께한 1년의 시간을 4면 신문에 가장 효과적으로 담기 위해 어떤 목차로 구성할지 논의함. - 자녀(초등학생 등)의 경우 말로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어, 그동안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느꼈던 점을 그림으로 표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2회기 동안 '다문화 브릿지 양 문화 신문 만들기' 내용 구상 - 신문 같은 모양으로 서식을 디자인하고, 원고 분량을 조정함. - 멘토 · 멘티의 경험담과 소감 중심으로 신문 내용을 구성하기로 함. - 담당자 원고와 이미지 수합 후, 전문 업체를 거쳐 최종본 완성
다문화 가정 나라별 콘텐츠 구성	4, 5, 9, 10월	4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 다문화 가족 6세대(멘티)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눔 활동을 위한 콘텐츠 결정 - 사전에 유선 상으로 의견을 나눈 내용을 적극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가정 엄마가 자국 음식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먹거리 나눔으로 멘티의 재능과 리더십을 발견, 강화하는 계기 마련 - 자국 음식 문화를 홍보하는 효과 - 지역 어르신에게 새로운 음식 문화 경험 기회 제공과 정서적 지지 효과
콘텐츠를 활용한 나눔 활동	5, 6, 10, 11월	4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 다문화 가족 6세대(멘티) 및 한국 가족 6세대(멘토)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가정별 국가 콘텐츠에 의거해 베트남 음식(월남쌈, 쌀국수) 및 중국 음식(만두, 잡채) 만들기 - 멘티 중 베트남 출신 엄마가 요리 방법 안내 - 지역 내 저소득 어르신에게 음식 전달 - 피드백 나누기 	

2. 과정 평가

프로그램	수행 시기	목표량	실적	평가 결과
사업 홍보 및 대상자 모집	1~2월	12세대	12세대	· 대상자 선정 시 목표에 부합하는 참여자 모집 - 멘토 및 멘티단 교류와 상호 작용 향상을 위한 구체적 기준 마련(학령기 자녀를 둔 멘토 및 멘티 가족 봉사단, 비슷한 연령대 모집) - 구체적 기준에 부합하는 적극적인 참여자 선발로 효과성 향상에 기여
다문화 가족 멘토링단 집합 교육	3월	2건/12세대	2건/12세대	· 계획 대비 순차적 진행으로 전체 맥락 속에서 효율적 접근 - 단계별 다문화 가족 멘토링단 집합 교육 실시 - 기본 소양 교육을 통해 멘토링 봉사단으로서의 마음가짐과 사명감을 고취시킴.
다문화 가족 멘토링 결연식 및 관계 맺기	4월	1건/12세대	1건/12세대	결연 및 관계 맺기와 관한 공식적 활동을 통해 서로 책임감을 부여하고, 멘티와 멘토 간의 역할에 대해 정립하는 시간으로 적극 활용함.
다문화 가족 멘토링 테마별 집단 활동	4~11월	9건/108세대	9건/103세대	멘토와 멘티단의 자발적 참여로 인한 높은 주체성 및 적극성 확인
다문화 가족 멘토링 개별 활동	4~11월	9건/108세대	9건/108세대	· 멘토 및 멘티단 상호 작용 속에서 서로에 대한 문화, 정서적 공감 등 이해도 향상 - 멘티가 멘토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나누며 깊이 공감하는 과정에서 서로 성장함. · 멘토 가족 봉사단 개별 활동 일지 작성 - 총 6세대 가족 봉사단 중 일부는 활동 내용에 대한 정리 미흡 - 일부 멘토 가족 봉사단의 경우 제출 기한 연기 - 컴퓨터 사용이 어려워 직접 수기로 간략히 작성 제출한 경우 발생
다문화 가족 엄마의 직접 강의를 통한 문화 알리	4~11월	4건/48세대	4건/45세대	· 중국인, 베트남인 등 다문화 가족 엄마가 직접 나라별(오국) 문화에 대한 생생한 경험담을 들려줌. - 해당 국가에 대한 문화 이해도가 높아짐. - 적극적인 경청과 참여 이끌어냄.
학령기 자녀가 직접 만드는 양 문화 신문	4~11월	8건/96세대	2건/21세대	다문화 가족 엄마의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양 문화에 대한 학령기 자녀의 관점을 반영하여 나라별 신문 형식의 피드백 결과물을 자녀가 직접 만들어냄.
다문화 가정 나라별 콘텐츠 구성	4, 5, 9, 10월	4건/24세대	4건/12세대	· 멘티단의 강점 강화 및 자긍심 고취를 통한 공식 나눔 활동 - 다문화 가족이 스스로 강점을 찾아내면서 자신감을 얻고, 사회 내 적응력 향상에도 긍정적 기여를 함.
콘텐츠를 활용한 나눔 활동	5, 6, 10, 11월	4건/48세대	4건/46세대	

3. 효과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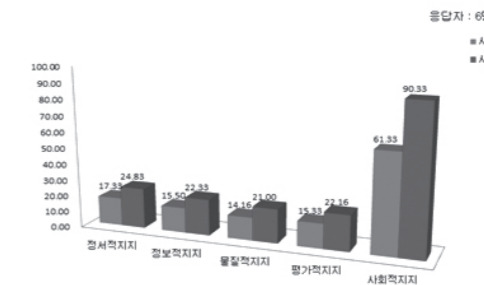
성과 목표 1.	성과 지표	자료 수집 방법
농촌 지역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 가족의 멘토링단 결연을 통해 사회적 지지 체계 구축 및 관계망을 확대한다.	사회적 지지 체계 및 관계망 확대 정도(20% 이상 향상)	사회적 지지 척도
평가 결과		

· 사회적 지지 척도 분석 결과 : 집단의 하위 영역별 사회적 지지 검사
- 박지원(1985)에서의 Cronbach's α 값이 .9393임. 본 조사에서는 Cronbach's α 값이 .9717로 나타남. 각 문항 내용들은 조사 대상자가 비공식적 지지 체계인 가족, 친척, 친구 및 이웃에게서 받는 사회적 지지의 여러 측면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평가됨.
- 다문화 브릿지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의 사회적 지지 정도가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사후 검사 T-검정을 실시함. 하위 영역인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 종합적인 사회적 지지 점수 결과의 평균과 표준 편차는 [표 1]에 제시함.

[표 1] 집단의 하위 영역별 사회적 지지 검사 평균과 표준 편차

구분	N	평균	표준 편차	평균의 표준 오차
정서적 지지	사전	17.3333	4.36654	1.78263
	사후	24.8333	5.30723	2.16667
정보적 지지	사전	15.5000	3.44964	1.40831
	사후	22.3333	2.80476	1.14504
물질적 지지	사전	14.1667	3.92003	1.60035
	사후	21.0000	5.01996	2.04939
평가적 지지	사전	15.3333	3.32666	1.35810
	사후	22.1667	2.78687	1.13774
사회적 지지 (합계)	사전	61.3333	12.86338	5.25145
	사후	90.3333	14.44530	5.87727

[그림 1] 집단의 하위 영역별 사회적 지지 사전·사후 검사 점수의 평균



[표 2] 집단의 사회적 지지 검사 대응 표본 검정

		대응 차				T	자유도	P	
		평균	표준 편차	평균의 표준 오차	차이의 95% 신뢰 구간				
					하한				상한
정서적 지지	사전·사후	-7.50000	4.92950	2.01246	-12.67320	-2.32680	-3.727	5	.014
정보적 지지	사전·사후	-6.83333	3.60093	1.47007	-10.61227	-3.05439	-4.648	5	.006
물질적 지지	사전·사후	-6.83333	3.43026	1.40040	-10.43317	-3.23350	-4.880	5	.005
평가적 지지	사전·사후	-6.83333	5.26941	2.15123	-12.36324	-1.30343	-3.176	5	.025
사회적 지지 (합계)	사전·사후	-29.00000	13.60882	5.55578	-43.28158	-14.71842	-5.220	5	.003

평가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의 사회적 지지 검사 대응 표본 검정(표2)에서 나타난 '집단의 사회적 지지 검사' 하위 영역별 사전·사후 비교 T값, 유의 확률을 통한 집단 프로그램의 유의미한 차이 - 사회적 지지도 중 첫 번째 하위 영역인 정서적 지지의 사전·사후 비교 결과는 T=-3.727로 나타남. P값이 0.014이므로 P>0.05 수준으로 평균의 차이가 발견됨. 즉 정서적 지지 정도를 보여주는 사랑, 이해, 격려, 신뢰, 관심 등의 역량이 프로그램을 통해 향상된 것으로 보임. - 두 번째 하위 영역인 정보적 지지의 사전·사후 비교 결과는 T=-4.648로 나타남. P값이 0.006이므로 P>0.05 수준으로 평균의 차이가 발견됨. 이는 문제 해결과 관련된 참여자들의 정보 제공 능력 등 정보적 지지 정도가 향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세 번째 하위 영역인 물질적 지지의 사전·사후 비교 검사 결과는 T=-4.880으로 나타남. P값이 0.005이므로 P>0.05 수준으로 평균의 차이가 발견됨. 즉 프로그램을 통해 돈, 물건 등 물질적 지지 정도가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음. - 네 번째 하위 영역인 평가적 지지의 사전·사후 비교 결과는 T=-3.176으로 나타남. P값이 0.025이므로 P>0.05 수준으로 평균의 차이가 발견됨. 평가적 지지 정도(칭찬, 인정 등) 부분에서 참여자들의 사회적 지지 정도가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종합적으로 보면, 다문화 브릿지 집단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적 지지 검사에서 사전·사후 비교 결과는 T=-5.220으로 나타남. P값이 0.003이므로 P>0.05 수준임. 결과적으로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들의 사회적 지지도가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음.

성과 목표 2.	성과 지표	자료 수집 방법
농촌 지역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 가족의 테마별 문화 이해 프로그램을 통해 양 문화 정체성을 형성한다.	양 문화 정체성 형성 정도	자체 제작 설문 조사

평가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제작 설문 조사에서 나타난 양 문화 정체성 형성 정도 - 프로그램 목표 달성 정도 "다문화 가족의 가족 멘토링단 결연을 통한 사회적 지지 체계 구축 및 관계망 확대 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멘티) 6명의 답변은 "매우 그렇다" 6명(100%)으로 긍정적 결과가 나타남. "테마별 문화 이해 프로그램을 통한 양 문화 정체성 형성 도움 정도"를 묻는 질문이나, "프로그램별 내용을 설명하는 용어들의 쉽고 분명한 정도"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매우 그렇다"는 긍정적 응답이 6명(100%)이었음. - 프로그램 내용 이해도 "프로그램별 진행 내용을 잘 이해한 정도"를 묻는 질문에 6명(100%)이 "매우 그렇다"고 응답함. - 프로그램 참가 후의 긍정적 변화 프로그램별 참가 후의 긍정적 변화에 대한 응답 비율은 "양 문화 정체성 확립"이 2명(33.2%)으로 가장 높았으며 "자녀와의 관계 강화" 1명(16.7%), "한국 생활에서의 자신감 향상" 1명(16.7%), "공동체 의식 향상" 1명(16.7%), "사회적 지지 체계 강화" 1명(16.7%) 순으로 같은 비율을 차지했음. · 우수 사례 발굴과 사전·사후 인터뷰 분석을 통한 다문화 브릿지 프로그램 참가자의 긍정적 변화 - 사전 조사에서는 참가자들이 전반적으로 한국 생활 적응의 어려움, 사회적 편견, 양 문화로 인한 정체성 혼란을 느끼고 있었음. 그러나 프로그램 종료 후 진행된 사후 조사에서는 스스로 소중한 존재이며 내적으로 충분히 경쟁력이 있음을 깨달음. 즉 본 프로그램은 멘티가 자신의 강점을 인식하고 내적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함을 알 수 있음. - 멘토 역시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을 벗고 이들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진. 양 문화 정체성 확립을 위해 멘토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라포 형성임을 알 수 있음. 멘토와 멘티는 서로의 문화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상호 수용, 상호 이해의 과정을 원활하게 수행함. · 다문화 브릿지 프로그램 체험 전의 멘토·멘티 인터뷰 요약(사전 조사) - 멘티 : 한국 생활에 보다 빨리 적응하려면 양 문화에 대한 이해와 습득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평소에는 기회가 없고 자신도 없었음. - 멘토 :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이 있었지만 스스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며, 제대로 된 자원봉사 활동을 경험하고 싶었음. · 다문화 브릿지 프로그램 체험 후의 멘토·멘티 인터뷰 요약(사후 조사) - 멘티 :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통해 친구가 될 수 있었고, 스스로 자신감이 생김. - 멘토 : 다문화 가정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양 문화에 대해 한층 더 깊이 이해하고 체험하며 뿌듯함을 많이 느낌.

평가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멘토 사전·사후 조사 응답 사례 - 멘토 1 : 서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수용의 시간 마련 "가족 봉사 활동을 찾던 중 신청했지만 문화적 차이를 잘 극복하고 제대로 된 나눔을 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사전 인터뷰) "서머함보다 서로를 챙겨주며 생각해주는 시간이 늘고 한층 더 성숙해진 아이들의 얼굴에서 환한 웃음이 흘러넘치는 것 같습니다. 힘든 한 해였지만 서로 부딪치면서 아이들이나 저나 책에서 배울 수 없는 멘티들의 따뜻한 마음을 배웠습니다."(사후 인터뷰) - 멘토 2 : 다문화 사회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 재정립 "다문화 시대에 서로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있었고, 제대로 된 자원봉사가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해요."(사전 인터뷰) "이전 삶과 이후의 삶의 인식이 확 바뀌었습니다. 또 한 번 시간이 주어진다면 적극적인 자세와 주어진 목표를 확실히 설정해서 정말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은 낯설었지만 함께할 수 있다는 생각도 소중한 것 같습니다."(사후 인터뷰) - 멘토 3 : 어울림을 통한 공감대 형성, 편견 및 차별의 해소 "단순한 노력 봉사보다 소통할 수 있는 자원봉사 활동을 찾다가 주변 추천으로 다문화 브릿지를 만나게 되었는데, 좀 걱정도 되고 문화적 차이가 거부감이 들까 봐 걱정입니다."(사전 인터뷰)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봉사 활동을 생각하다 우연히 시작했지만 가족 모두 생각을 전환할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멘토와 멘티 관계로 다문화 가족과 만났지만, 그냥 이웃 주민으로 생각하고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아지면 조금이나마 편견과 차별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사후 인터뷰) · 멘티 사전·사후 조사 응답 사례 - 멘티1 : 서로에 대한 문화적 이해도 향상 "그냥 아이와 함께 재미있는 추억도 만들고 한국 친구도 많이 사귀어 일상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싶어요."(사전 인터뷰) "어색한 모습을 뒤로 한 채 같이 게임도 하며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중국 문화, 베트남 문화에 대해 서로 알아가고 같이 게임도 하며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사후 인터뷰) - 멘티 2 : 한국 생활 적응력 향상 및 삶의 활력소 획득 "불안감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한국 생활에 빨리 적응하기 위해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사전 인터뷰) "참여하게 되어 기쁘고 재미있었습니다. 복지관에 와서 기쁘고 재미있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 너무 섭섭합니다. 내년에도 프로그램에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복지관에 다니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모두 정말 감사합니다."(사후 인터뷰) - 멘티 3 : 한국 친구 만들기와 자녀 양육 등 다양한 일상 정보 공유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면서 정보도 없고 문화적 차이로 걱정이 많이 돼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사전 인터뷰) "한국 사람과 만나고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어 더 좋았습니다. 자녀 양육에 많은 정보를 받을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사후 인터뷰)

성과 목표 3.	성과 지표	자료 수집 방법
농촌 지역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 가족에 임파워먼트적으로 접근,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나눔 활동으로 지역 사회에 기여한다.	· 임파워먼트적 접근의 나눔 활동 전개 정도 · 나눔 활동을 통한 지역 사회 기여 정도	자체 제작 설문 조사

평가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를 활용한 나눔 활동으로 지역 사회에 기여한 정도 및 만족도 설문 - "다문화 가족에 임파워먼트적으로 접근,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나눔 활동으로 지역 사회에 기여한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한 멘티 응답은 "매우 그렇다" 6명(100%)으로 긍정적 결과가 나타남. · 멘토·멘티의 사전·사후 인터뷰 사례에 드러난 긍정적 변화 및 프로그램 효과 파악 - "양 문화 정체성 확립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일어난 변화"에 대한 멘티 응답에서, 멘티는 자신에게서 긍정적 변화상을 발견하였고 멘토와 지역 주민에게는 긍정적 인식 변화를 유도하였음을 알 수 있었음. - 멘티 인터뷰 사례 : 자신감 향상 및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계기 마련 "다문화 브릿지 가족들이 함께 우리 중국 만두를 만들 기회가 생겨 참 행복했어요. 직접 빚은 만두를 지역 내 어르신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중국 음식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가슴이 뿌듯했어요. 중국 사람이 만든 만두는 처음 먹어 본다면 매우 기뻐하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오늘 빚은 중국 만두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던 것 같아서 행복했어요."

평가 결과

- 멘토 인터뷰 사례 :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의 시간 마련

"서로의 팀명과 함께 커플 티셔츠를 만들면서 함께하는 소속감이 생겼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선인장 화분을 만들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코르크 보드에 행복이 묻어나는 가족의 이름들을 쓰고, 서로의 음식 문화를 나누면서 정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 지역 주민 인터뷰 사례 : 다문화에 대한 편견 해소 및 새로운 인식 계기 마련

"직접 만든 중국 및 베트남 음식 문화를 맛보고 그들의 문화에 대해 체험하는 시간은 새로운 경험이었고, 그동안 내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적극적으로 양 문화를 사랑하며 실천하는 가족의 모습이 아름답다고까지 느꼈어요. 그 마음을 생각하며 나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고, 스스로 소중한 존재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IV. 사업 성과

1. 학령기 자녀를 둔 농촌 지역 다문화 가족의 사회적 지지 체계 구축 및 관계망 확대

학령기 자녀를 둔 농촌 지역 다문화 가정의 주변 환경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다양한 지지체로서의 역할 및 개별 욕구에 기반한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지원을 하였다. 또한 나라별(중국, 베트남) 문화에 대해 실제 다문화 가정의 엄마가 모국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직접 들려주는 시간을 통해 양(兩) 문화 이해도를 높였으며 보다 적극적인 경청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양 문화 정체성 확립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함께하면서 멘토와 멘티 사이에 강한 라포가 형성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 가족이 서로에게 흠뻑 빠지는 시간을 가졌다. 멘티와 멘토는 결연식 등 공식적 활동을 함께하며 서로 책임감을 부여하고 상호 역할에 대해 정립하기도 하였다. 또한 과거 단순히 서비스 수혜자에 머물렀던 다문화 가정 가족이 '다문화 가족 멘토링단'을 통해 멘토인 한국 가족과 함께 짝을 이뤄 멘티로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나누고 서로 공감하며 사회적 지지 체계를 획득할 수 있었다.

2. 인적·사회적 자원 발굴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

양 문화 정체성 확립을 목표로 한 본 사업은 멘토링 도구로서의 관계 형성과 테마별 집단 활동 및 개별 활동에 초점을 뒀다. 이에 일련의 구조화된 과정들을 수행한 결과 참가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내고, 긍정적인 변화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양 문화 정체성 확립을 위한 단계별 과업 수행으로 상반기에는 다문화 가족 멘토링단 집합 교육, 다문화 가족 멘토링 결연식 및 관계 맺기, 멘토링 테마별 집단 활동 및 개별 활동을 진행하였다. 하반기에는 다문화 가족 엄마가 직접 강의하는 모국 문화 알림, 학령기 자녀가 직접 참여한 양 문화 신문 만들기, 다문화 가정 나라별 콘텐츠 구성, 다문화 가정의 음식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베트남 쌀국수와 중국 만두 나눔을 진행하였다. 본 프로젝트에서 지속적이고 다양한 경험을 갖춘 지역 사회 내 한국 가족 봉사단을 인적 자원화하는 것은 무엇보다 절실한 과제였다. 이에 적극적인 홍보와 자원 발굴 노력을 통해, 양 문화 정체성 확립의 가이드 역할을 도맡아줄 가족 봉사단을 지역 사회에서 찾아냈다. 이들의 참여가 있었기에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이 가능했으며, 지역 사회 내 유용한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었다.

V. 향후 계획

본 프로그램의 표적 대상은 달성군 지역 내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 가정이다. 다문화 가정은 더 이상 우리에게 낯선 이웃이 아니며 농촌 지역에서 외국인 며느리를 보는 것은 이미 흔한 일이 되었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의 특수성으로 인해 2세대들은 학습 부진 및 집단 따돌림 등으로 정서적 충격을 겪는 상황이다.

초등학교 과정에서 인성 교육을 통한 정체성이 확립되는 만큼 다문화 가정의 자녀도 소중한 우리 사회의 일원이며 스스로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학생임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 때문에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 가정의 양 문화 정체성 확립과 관련된 문제는 그 어떤 사회적 문제보다도 중요하면서도 복잡하다. 따라서 농촌 지역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스스로의 강점을 인식케 하고, 멘토링 기법을 활용한 내적 역량을 강화하며, 사회적 관계망 확대로 올바른 양 문화 정체성을 확립하여 지역 사회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돕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다문화 가족 양 문화 정체성 확립에 대한 초석을 다졌으나 멘토의 지속성, 전문성, 접근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 내 다양한 자원(기업의 인프라, 전문 지식과 경험 등)이 필요함을 다시금 확인하였다. 또한 양 문화 정체성 확립과 관련한 멘토링 사업 영역이 확대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멘토의 역량과 에너지 투입 정도에 따라 멘티의 마인드 변화 정도에 차이가 나므로, 멘토에 대한 관심과 지속적 슈퍼비전 제공이 필요하다. 멘토 역시 멘티로 하여금 긍정 에너지만 받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 피드백으로 인해 소진되는 경우가 일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멘토에 대한 지속적 에너지 투입 역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인적 자원 양성 시스템 구축, 재능 기부형 진로 멘토 확보가 시급하다. 다문화 가족의 양 문화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는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 가족이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내실화가 절실하다.

이에 본 복지관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양 문화 정체성 확립과 관련한 세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멘토링의 구조화 및 전문화를 도모하고, 멘토링 활동의 효과성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멘토링 기법을 활용한 내적 역량 강화 및 사회적 관계망 확대는 양 문화 정체성 확립에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본 프로그램은 1년간 총 10명의 클라이언트 집단을 구성하며, 1기(2016년) 다문화 가정의 양 문화 정체성 확립 사업 사례를 바탕으로 2017년 이후 모델링화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양 문화 정체성 확립을 위한 통합적 개입 및 지원 사업으로서 본 사업의 확산을 추진하고, 표준화 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자아 정체성을 찾기 위한 멘토링 체험 프로그램

“나만의 ID”



동삼종합사회복지관 이주형

I. 프로그램 실시 배경

경계선 지능 청소년은 또래 집단에 비해 인지, 행동, 정서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장애인이라고 하기에는 전반적인 기능이 좋지만, 흔히 ‘조금 느린 아이’, ‘속 터지는 아이’, ‘자기 표현이 없는 아이’로 불리며 어느 집단에도 속하지 못하고 또래 관계에서 소외된다. 이들의 학교 생활과 전인적 발달을 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지만, 이들은 법이나 제도상 장애인 지원 기준에 해당되지 않기에 잠재적 기능마저 키우지 못하고 또래 집단에서 배제되기 쉽다.

2010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실시한 전국 아동복지 시설 실태 조사 결과, 시설 아동 1만 5천여 명 가운데 16%가 경계선 지능 진단을 받거나 의심된다고 추정되었다. 아직까지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에 대한 실태 조사가 없기에 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어렵다. 1차 보호 체계인 가족 역시 경계선 지능 특성에 대한 이해나 적절한 개입 방법을 몰라 제대로 양육을 하지 못한다. 보호자는 자녀의 성장 과정에서 버거움을 느끼며 사회적 개입과 도움을 원하지만, 장애 등급조차 없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특성 탓에 또래 청소년에 맞춰진 획일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도움도 받기 어려워 이들 청소년과 학부모는 지쳐가고 있다.

이에 본 프로그램에서는 멘토·멘티, 직업 콘텐츠, 지역 사회 3가지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고자 하였다. 첫째, 멘토·멘티가 매칭을 통한 다양한 체험 활동, 또래 집단과의 원활한 의사 소통, 관계 개선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둘째, 지역 사회의 직업 콘텐츠를 활용한 직업 체험 활동 및 전문가 만남을 통해 진로에 대한 이해 및 관심을 높이고, 멘토링 및 직업 체험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직접 지역 사회 축제 때 체험 부스를 운영하여 배운 내용을 활용하도록 하였다. 셋째, 경계선 지능 청소년이 주로 만나는 특수 학급 교사와 멘토링 자원봉사자가 참여하는 간담회, 사례 회의를 통해 원활한 사업 진행과 참여자 개입 방안을 모색하고,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둘러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II. 프로그램 개요

1. 목적

경계선 지능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멘토링, 집단 프로그램, 직업 체험 활동을 진행하여 진로에 대한 동기 부여 및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특수 학급 교사 및 멘토링 자원봉사자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경계선 지능 청소년이 진로 및 자아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목표

- 목표 1. 멘토링 체험 활동을 통하여 경계선 지능 청소년에게 꿈에 대한 동기를 부여한다.
- 목표 2. 지역 내 직업 콘텐츠를 활용하여 직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진로 성숙도를 향상한다.
- 목표 3. 지역 사회 전문가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3. 프로그램 대상

대상자 범위	개념적 범위	영도구 내 경계선 지능 중학생
	기관 이용자	지역 내 중학교 특수 학급 재학생
대상자 구분	주된 참여자	특수 학급 재학생 중 경계선 지능 판정을 받은 중학생 11명
	주변 참여자	·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특수 학급 재학생 보호자 11가정 · 영도구 내 중학교 특수 학급 교사 2명
대상자 선정 방법	홍보 전략	· 기존 본 기관 이용자 중 경계선 지능 청소년과 가족에 표적 홍보 · 영도구 내 특수 학급 내 업무 협약을 통한 인원 모집 · 정신 건강 증진 센터, 건강 가정 지원 센터를 통한 참여자 추천 · 교육 기관 실무자 대상 사업 설명회 개최 · 기타 사회복지 기관을 통한 참여자 추천 · 기관 내 게시판 홈페이지 게시
	접수 상담	· 학교 실무자를 통한 의뢰서 제출 · 전화 신청 후 직접 기관을 내방하여 초기 상담 · 참여 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을 통한 참여 의지 확인
	선정 기준	· 지능 지수 70~85에 해당하는 청소년 · 재학 학교의 특수 교사, 지역 사회 교육 전문가 등 실무자의 추천을 받은 중학생(지적 장애 3급 일부 포함)

4. 논리 모델에 근거한 사업 분석

투입(Input)	활동(Activity)	산출(Output)	성과(Outcome)
	· 홍보 - 사업 설명회 1회 - 학교 연계 홍보 2회 - SNS 홍보 3회 - 온라인 홍보 1회 - 관내 홍보 2회	9회/8명	· 참여자 모집 및 발굴 · 학교·기관에 대한 사업 이해 도모, 협력 확대

투입(Input)	활동(Activity)	산출(Output)	성과(Outco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 - 슈퍼바이저(부장) 1명 - 담당자 1명 - 사회복지사 5명 - 직업 멘토 1명 - 대학생 멘토 3명 - 전문 강사 2명 - 직업 체험 강사 11명 · 협력 기관 - 영도구청 - 영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쿼카카데미 - 영도중학교 - 신선중학교 · 시설 및 장비 - 영도중학교 공간 및 기자재 - 신선중학교 공간 및 기자재 - 기관 내 공간 및 기자재 - 지역 사회 직업 체험장 	오리엔테이션	· 멘티 : 1회/11명 · 멘토 : 1회/3명	사업 진행 안내
	평가회	· 멘티 : 1회/11명 · 멘토 : 1회/4명	· 사업 마무리 · 만족도 조사 진행
	집단 프로그램	8회/88명	· 참여자 간 친밀감 향상 · 학업 및 교우 관계 스트레스 공유 · 가족·친구 간 의사 소통, 감정 표현 연습
	멘토링 체험 활동	49회/334명	지리적 관계에 기반을 둔 지속적인 상호 작용 도모, 관계 맺기, 성과물 획득에 따른 자기 효능감 강화
	직업인과 만남 및 체험	9회/80명	다양한 직업 분야 체험을 통한 진로 정보 획득 및 문화적 소외감 해소
	지역 사회 체험 부스 운영	· 멘티 : 1회/11명 · 멘토 : 1회/3명	· 경계선 지능에 대한 지역 주민의 올바른 인식 도모 · 참여 학생들의 부스 준비, 운영을 통한 자신감 향상
	멘토 전문성 강화 교육	4회/36명	· 경계선 지능에 대한 지역 주민의 올바른 인식 도모 · 참여 학생들의 부스 준비, 운영을 통한 자신감 향상
	특수 학급 교사 간 간담회 실시	2회/6명	· 사업 논의를 통한 효과적인 진행 방향 모색 · 연계 기관 간 건의 사항 반영
참여자 사례 회의	2회/6명	· 참여 전·후, 참여자의 변화 파악 · 정보 획득	

III. 프로그램 진행 및 평가

1. 세부 프로그램 진행 내용

프로그램	일정	세부 내용	수행 방법
집단 프로그램	5~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월 : 나를 소개합니다 · 6월 : 심리 검사 및 대화법 · 7월 : 감정 파악하기 · 8월 : 감정 읽기 · 9월 : 나의 경청 태도 · 10월 : 비폭력 대화 · 11월 : 마음 표현하기 · 12월 : 서로 칭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도구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 MOU 체결 · 사전 프로그램 논의 후 계획 수립 · 상담가, 담당자가 함께 연 8회 진행

프로그램	일정	세부 내용	수행 방법
멘토링 체험 활동	4~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이토 칼라 - 내용 : 그린, 레드, 보라, 화이트, 노란색 등을 주제로 요리 활동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멘토링 활동 주제 선정 - 멘티의 흥미와 욕구 사정 - 학교 담당자와 장소·시간 논의 - 직업 멘토 및 대학생 멘토 모집(주제 : 요리) · 멘토링 활동 - 직업 멘토 및 대학생 멘토와 함께 체험 활동 진행 · 실행 점검 및 활동 일지 작성 - 멘티 활동 일지 작성 - 담당자 슈퍼비전 제공
	9~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음식 - 내용 : 일본, 필리핀, 이탈리아, 멕시코, 중국 등 다양한 나라의 음식 만들기 	
직업 체험 활동 및 전문가와 만남	5~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월 : 바리스타 체험 · 6월 : 애견관리사 만남 및 훈련 체험 · 7월 : 미술가와 만남 및 에코백 만들기 · 8월 : 연극배우와 만남 · 9월 : 물리치료사와 만남 및 체험 · 10월 : 도예가와 만남 및 체험 · 11월 : 부산 키자니아 방문, 방사선사와 만남 및 체험 · 12월 : 동물원 관람, 사육사와 만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계획 - 직업 체험 학습 계획 수립 - 매월 참여자 사전 욕구 조사 · 실행 - 직업 체험 활동 - 전문가와 만남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 수립 - 장소 선정 및 날짜 조율 · 체험 부스 운영 - 멘토·멘티가 직접 체험 부스 운영 - 체험 활동 관련 멘토링 팀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다른 멘토링 팀은 진행 보조 · 평가 - 체험 부스 평가 및 개선 사항 논의 	
지역 사회 체험 부스 운영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계선 지능에 대한 캠페인 진행 - 참여 : 멘토 3명, 멘티 11명 - 준비 : 부스 꾸미기, 재료 구입, 사전 라운딩 - 진행 : 과일 주스 만들기, 경계선 지능에 대한 퀴즈 풀기, 참여 학생 및 멘토 마무리 	
멘토 전문성 강화 교육	7,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 경계선 지능에 대해(1회) - 분노 조절 및 사회성 향상(1회) - 인지 치료(1회) - 미술 치료(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주제 및 날짜 조율 · 멘토 및 청소년 유관 기관 담당자 모집(9명)
종사자 간담회	3,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담당자 및 연계 학교 담당자 2명 · 내용 - 사업 과정 및 현황 안내 - 기타 건의 사항 등 	참여자 모집 및 사업 진행 과정 중 협력 학교 담당자 중심으로 진행함.
사례 회의	3,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담당자 및 연계 학교 담당자 2명 · 내용 - 사업 초기 참여자 가정 및 학교 생활 파악 - 사업 종료 단계에서 참여자별 변화 관찰 - 복지 서비스 연계 방안 모색 	참여자 모집 및 사업 진행 과정 중 협력 학교 담당자 중심으로 진행함.

2. 과정 평가

프로그램		수행 시기	목표량	산출량	평가 결과	
준비 단계	모집 홍보	1~3월	9건	9건	· 교육 복지사 대상 사업 설명회 - 사업 진행 전 홍보 - 사업 관련 질의 응답 · MOU 체결을 통한 인원 모집 - 협력 학교 2곳 모집 - 사업 계획을 수정해 참여자를 11명으로 진행	
	신청 및 접수		15명	11명		
	초기 상담		15명	11명		
	참여자 선발		15명	11명		
진행 단계	오리엔테이션	4월	1회/11명	1회/11명	· 사업 안내 및 신청서 작성 진행 · 프로그램 서약을 통해 참여 학생들의 참여 의지 고취	
	집단 프로그램	5~12월	9회/ 99명	8회/ 88명	· 영도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MOU 체결로 원활한 진행 도모 · 집단 내 친밀감 향상 및 평소 스트레스에 대한 고민 공유 · 종사자 간담회를 연 8회로 줄이기로 함.	
	멘토링 체험 활동	멘토 멘티	4~12월	27회/ 297명	49회/ 102명	· 특수 학급과 연계, 월 2~3회 오리 체험 활동 진행 · 멘토와 멘티가 1 : 3 또는 1 : 2로 짝지어 교류하고 함께 체험
				27회/ 297명	49회/ 334명	
	직업인과 만남 및 체험 활동	5~12월	9회/ 99회	9회/ 80회	· 지역 사회 · 복지관이 보유한 진로 관련 기관을 연계, 활동 · 보건 의료 및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강의 · 체험 활동 진행	
	지역 사회 체험 부스 운영	멘토 멘티	9월	1회/11명	1회/3명	· 영도다리축제 준비 중 참여 학생들과 업무 분장을 통해 부스 꾸미기 및 진행을 함께 논의 · 참여 학생들이 직접 부스를 운영해 성취감 높임. · 퀴즈를 통해 경계선 지능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이해를 높임.
				1회/11명	1회/11명	
	멘토 전문성 강화 교육	멘토 사회 복지사	7~9월	4건/44명	4건/2명	· 경계선 지능에 대한 교육을 통해 참여 학생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대화하는 법을 배움. · 멘토와 지역 사회복지사의 공동 교육 진행 - 경계선 지능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을 확산할 계기 마련
				-	4건/7명	
	종사자 간담회	3, 11월	2건/20명	2건/6명	· 사업 논의를 통한 효과적인 진행 방향 모색 · 연계 기관 간 건의 사항 반영	
사례 회의	3, 11월	2건/20명	2건/6명	· 참여 전 · 후, 참여자의 변화 파악 · 정보 획득		
종결 단계	평가 및 만족도 조사	12월	11명	11명	· 프로그램 만족도 파악 및 사전 · 사후 변화 정도 파악 · 개별 인터뷰로 참여자별 질적 변화 측정	

3. 효과 평가

1) 양적 평가

성과 목표 1.	성과 지표	측정 도구	평가 방법
멘토링 체험 활동을 통하여 경계선 지능 청소년에게 꿈에 대한 동기를 부여한다.	SAI 강점 검사상의 유의미한 변화	SAI 강점 검사	사전 · 사후 조사

평가 결과

-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계선 지적 기능 청소년의 SAI 검사 척도 변화에 관해 사전 · 사후 비교 분석함.
- 하위 영역 삶의 만족 지수
- 평균 사전 점수 46.00/사후 점수 46.82로, 대응 표본 T-검정 결과 $t = -.535(p > .605, df = 10)$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음.
- 하위 영역 행복도 지수
- 평균 사전 점수 49.91/사후 점수 51.09로, 대응 표본 T-검정 결과 $t = -2.358(p < .05, df = 10)$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음.
- 전반적인 평가 중 삶의 만족도 지수
- 본 사업은 주 참여자 중심으로 진행되었기에 학교, 친구, 주거 환경, 가족, 자기 만족에 대한 변화를 볼 수 없었음.
- 전반적인 평가 중 행복도 지수 변화
- 참여 학생들이 멘토링 활동, 집단 프로그램, 직업인과 만남 및 체험에서 만족하고 긍정적인 자세를 보였으며, 본 프로그램을 즐거운 활동으로 여기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음.

성과 목표 2.	성과 지표	측정 도구	평가 방법
지역 내 직업 콘텐츠 활용을 통하여 직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진로 성숙도를 향상한다.	진로 성숙도 검사 상 사전 · 사후의 유의미한 변화	진로 성숙도 검사	사전 · 사후 조사

평가 결과

-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계선 지적 기능 청소년들의 진로 성숙도(커리어넷) 척도 변화에 관하여 사전 · 사후 비교 분석함.
- 진로 성숙도 지수
- 평균 사전 점수 78.364/사후 점수 78.882로 대응 표본 T-검정 결과 $t = -1.434(p > .182, df = 10)$ 의 수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음.
- 전반적인 분석 결과 월 1회 간헐적인 직업인과 만남 및 체험으로 진로에 대한 관심, 준비를 이끌어내기 어려웠음. 향후 월 1회 진로 체험보다는 개별적으로 학업 · 진로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고 정보를 제공할 구체적 · 연속적 활동이 필요함.

성과 목표 3.	성과 지표	측정 도구	평가 방법
지역 사회 전문가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 멘토 전문성 강화 교육 (4회) · 간담회(2회) · 사례 회의(2회)	· 교육 만족도 조사 · 회의록 · 사례 회의록	측정 도구 분석

평가 결과

- 멘토 전문성 강화 교육
- 경계선 지능 아동 · 청소년에 대한 이론 교육과 더불어 학생과의 대화법, 상황극을 통해 경계선 지능에 대한 기초 지식과 멘토로서의 자세를 재확인함.
- 지역 사회복지 기관 종사자도 함께 참여해 사업 홍보 및 경계선 지능에 대한 관심을 유도함.
- 간담회
- 사업 시작 전 : 연계 학교 간담회를 통해 사업 진행 방향 및 협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논의함.
- 사업 종료 즈음 : 내년도 사업 진행 여부와 학교 행정에 대해 공유함.
- 사례 회의
- 참여자별 학교 내 특이 사항 및 가족 관계에 대해 정보 공유, 필요시 복지관 서비스 연계
- 참여자에 대한 개입 방안을 논의했으나, 보호자에 대한 개입 부분이 미약해 향후 프로그램 진행 시 보호자에 대한 개입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2) 질적 평가

연구 질문 1.	자료원 및 자료 수집 방법
본인이 느끼는 진로에 대한 생각 및 중요성?	· 담당자 관찰 · 참여자 면접
평가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문 1. 직업 멘토 · 대학생 멘토와 교류하면서 진로에 대해 느낀 점은 무엇인가? - 사례 1 : "요리를 좋아하는데 집에서는 부모님이 매일 설거지만 시켜 싫었어요. 하지만 멘토링 활동에서는 제가 직접 요리를 만들 수 있어 좋았고, 조리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싶었는데 자신감이 생겼어요." - 사례 2. "대학생 선생님과 대학교 진학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대학생도 진로에 대한 고민이 깊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내년에 저도 중학교 3학년이라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어 학교 선생님들에게 많은 질문을 해야겠어요." · 질문 2. 직업인과 만남 및 체험을 통해 무엇을 하였고, 배울 수 있었는가? - 사례 1 : "저는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교수님을 만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교수님 두 분 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지금 위치에 있는 게 부러워요." - 사례 2 : "저도 복지관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받았는데 바리스타 선생님 질문에 답하여 선물도 받고 좋았어요." · 담당자 의견 - 멘토링 활동 : 같이 활동 간 대학생 멘토 · 직업 멘토들과 학교 생활 중 어려운 점, 진로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었음. - 직업인과 만남 및 체험 활동 : 참여자들이 다양한 분야에 일하는 직업인을 부러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본인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만 기억하는 것을 볼 수 있었음. 참여자들이 전문 분야에 대해 실질적으로 배울 기회라기보다는 문화 체험 활동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음. 	

연구 질문 2.	자료원 및 자료 수집 방법
멘토링 체험 활동 및 본 프로그램이 본인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었는가?	· 담당자 관찰 · 참여자 면접
평가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문 1. 활동을 하기 전의 나의 모습 - 또래에게 거절당하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쌓다 보니, 또래들 사이에서 스스로를 고립시킴. - 학교에서는 공부 못하고 의욕 없는 아이로 취급받고, 방과 후에는 함께 놀 친구도 없으며, 마땅히 할 일도 찾기 힘들어 가정에 방치된 채 무의미한 여가 시간을 보내거나 지역을 배회함. - 대다수의 학생이 혼자 있는 경험을 많이 하였으며, 방과 후에도 같은 반 친구의 무관심 속에 무기력한 생활을 하였음. · 질문 2. 활동에 대한 나의 느낌 - 다양한 관계를 맺고 난 후 집단 안에서 또래 친구 및 멘토들과 지속적으로 지지적인 상호 작용을 함으로써, 함께 경험하고 성장하는 것에 대한 기쁨을 알게 되었음. - 참여 이후, 함께 활동했던 또래 친구들과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참여자 간 관계를 유지하는 긍정적 변화를 보임. · 질문 3. 활동을 함께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느낌(직업 멘토, 대학생 멘토, 담당자) - 자신을 가르쳐주고 도와준 점, 자신이 잘할 수 있도록 배려해준 점에 대해 고마움을 표현함. -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잘못된 행동에 단호한 가르침을 주는 모습을 보며 자신에게도 버팀목 같은 존재가 있음을 느낌. · 담당자 의견 - 참여 학생들이 방과 후 멘토링 활동에 의욕적으로 참여해 자신감과 성취감을 얻을 콘텐츠를 확보함. - 참여자들 간의 친밀도는 높았지만, 일반 학급 또래 친구들이나 참여자 가족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언급은 없어 이에 대한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IV. 사업 성과 및 제언

1. 사업 성과

1) 멘토링 체험 활동, 직업인과의 만남을 통한 상호 작용 및 다양한 경험 제공

경계선 지능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공부 못하고 의욕 없는 아이로 취급받고, 방과 후에는 친구도 없으며 학원에 갈 수도 없고, 마땅한 활동 거리도 찾지 못해 가정에 방치된 채 무의미한 여가 시간을 보내거나 지역을 배회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 왔다. 하지만 본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의 수준과 기능, 필요에 기반을 둔 체험 활동 콘텐츠를 학교 내에 마련할 수 있었다. 이로써 경계선 지능 청소년들이 또래 친구나 지역의 어른과 함께 어울리고 소통하면서 성공적인 관계 형성 및 상호 작용의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즉 경계선 지능 청소년이 체험 활동에 즐겁고 의욕적으로 주체성을 가지고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강점을 찾고, 이를 발휘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2) 경계선 지능 청소년에 대한 올바른 이해 확대

이 사업의 취지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만을 위한 개입 방안이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통해 이들의 문제를 지역 사회와 함께 고민해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참여자들이 영도다리축제에 참여해 직접 홍보 부스를 운영하면서 경계선 지능에 대한 퀴즈 풀기 식의 홍보 활동을 펼치, 지역 주민의 이해를 돕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본 사업에 참여한 직업 멘토와 대학생 멘토를 대상으로 기초 교육을 실시해, 장애 청소년과는 다른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특수성을 이해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멘토 · 멘티의 상호 공감을 이끌어냈으며, 멘토들이 자신의 활동을 무조건적 봉사로 여기는 대신 멘티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기존 지역 사회 내 복지 기관에서 경계선 지능 교육을 진행하는 곳이 없어 사회복지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데 주목하고 이들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사회복지사들이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이해하고, 그들에 대한 사례 개입 시에나 프로그램 참여 시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3) 일반 학급 교우 및 보호자 관계에 대한 개입 필요성 인식

참여자 대부분은 서비스에 만족했으나 집단 프로그램과 상담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이들은 여전히 가족(특히 형제)이나 학급 친구들과의 관계를 어려워했다. 이를 해결하고자 사업 중반 보호자 간담회와 교육을 추가 진행하려 했으나, 보호자 대다수가 생업에 종사 중이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차후에는 참여자와 보호자가 함께 참여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호자가 경계성 지능 청소년을 양육하며 느끼는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게 보호자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자 한다.

현재 지역 학교 내에 장애 청소년과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학업 개선 및 학교 적응을 위한 시간제 특수 학급이 운영 중이지만, 일반 학급 학생들과 교사들의 이해가 없다면 참여자가 겪는 학교 생활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이다. 차후 시간제 특수 학급의 운영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복지 기관과 교육 기관이 함께 고민하고 개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본 사업을 통해 다시금 인식하였다.

2. 제언

올해 사업 진행을 토대로 살펴본 결과, 참여 학생들은 멘토 및 담당자와의 교류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감을 얻었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이야기할 만큼 적극적으로 변화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아직 지역 사회 내에서는 경계선 지능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낮아 이들의 발굴 및 모집이 매우 힘든 상황이다. 또한 집단 프로그램 진행 시 교우 관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많아, 또래 학생과 지역 사회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향후 프로그램 진행 및 개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경계선 지능과 관련된 사업 진행 시 경계선 지능 학생과 일반 학생이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우선적으로 학교 생활 적응을 돕고, 궁극적으로는 학교 생활의 일반화를 도모해야 한다.

둘째, 현재 경계선 지능 아동·소년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및 인구학적 조사가 전무한 상황이기에, 이에 실태 조사와 더불어 교육 기관과 복지 기관이 같이 고민하고 대응할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V. 향후 계획

향후 자체적으로 경계선 지능 청소년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1차 연도 사업 시 참여 학생들의 참여율이 높았고, 특수 학급 교사와의 교류를 통해 어느 정도 사업 기반을 마련한 상황이다. 이에 참여자들과의 상담이나 특수 학급 교사들과 간담회 결과를 참고해, 또래 집단 및 일반 교사들에게 개입하거나, 혹은 이들과 함께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 사회 안에서 경계선 지능 분야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이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할 예정이다.

사례 15

저소득 밀집 지역 아동·청소년의 자아 존중감 확립을 위한 UCC 스토리텔링 기법 활용 프로그램



생명통합사회복지관 이경민

“마을 인터넷 방송 Little VJ 특공대”

I. 프로그램 실시 배경

대전광역시 동구 관암2동은 주공아파트 2개 단지와 영구 임대 아파트 1개 단지, 주택 단지로 이루어졌으며, 기초 수급 가정이 5가정 중 1가정으로 대전에서 가장 많은 복지 수요자(1,823세대)가 거주하는 지역이다. 취약한 지역 사회 환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청소년 비행, 가출 청소년 부적응 문제들은 빈곤 밀집 지역의 대표적인 문제이며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빈곤 가정이 아니어도 빈곤 밀집 지역에 거주할 경우,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거주하는 것보다 우울 정도가 높고 사회적 유대감과 지역의 사회적 지위 상징성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는 빈곤 지역 내 거주하는 일반 가정과 빈곤 가정 모두 열악한 지역 사회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에 저소득 밀집 지역의 슬럼화 및 빈곤 문제로 인해 학교 생활 부적응과 비판적 성향, 낮은 사회성과 자존감 부족에 시달리는 아동·청소년에게, UCC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자기 표현을 통해 자기 존재와 능력에 대해 자신감을 북돋우고자 한다. 이로써 자기 감정과 분노를 스스로 조절하며, 학교 생활 중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합리적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마을을 배경으로 지역 내 이슈가 되는 사안이나 지역 행사, 주민 이야기에 대한 촬영과 상영회 활동을 통해 저소득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여나가고, 지역 주민과 해당 아동·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소통할 체계를 형성하고자 한다.

II. 프로그램 개요

1. 목적

슬럼화 및 빈곤 문제에 노출된 저소득 밀집 지역 거주 아동·청소년이 영상 제작에 활동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참여자의 가치관 확립과 자아 존중감 향상을 돕고, 지역 사회 구성원이

저소득 밀집 지역 아동·청소년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변화를 가져오고자 한다.

2. 목표 및 하위 목표

목표 1. 영상 촬영 및 편집에 대한 이해 및 결과물을 통해 자아 존중감 확립과 사회성 발달을 도모한다.

하위 목표 1. 네트워크 및 학교 추천을 거쳐 낮은 사회성과 자존감 부족을 보이는 아동 집단과 청소년 집단을 각각 10명씩 구성한다.

하위 목표 2. 마을을 배경으로 UCC 스토리텔링을 주제로 한 영상 촬영 및 편집 교육 10회기를 각각 나누어 실시한다.

하위 목표 3. 영상 제작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수료식을 1회 실시한다.

목표 2. 지역 사회 내 이슈에 대해 논의 후 영상으로 만들고, 이를 이슈화하여 지역 사회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낸다.

하위 목표 1. 영상 촬영 활동을 위한 역할 설정과 활동 내용 점검을 위해 정기 모임을 4회 실시한다.

하위 목표 2. 마을을 중심으로 촬영한 사진 및 영상, 주민 이야기를 담은 영상을 업로드하여 공유할 홈페이지를 1회 제작한다.

하위 목표 3. 마을에 이슈가 되는 사안이나 마을 축제, 주민들의 에피소드 등 마을의 다양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사진 및 영상 촬영을 4회 실시한다.

하위 목표 4. 마을에서 이슈가 되었던 사안이나 주민 이야기를 담은 영상을 중심으로 마을 축제 진행 시 영상을 2회 상영한다.

목표 3. VJ 특공대의 지속 가능한 마을 내 활동을 위한 전문가 협력적 지지 체계를 구성한다.

하위 목표 1. 영상 제작 단계부터 상영까지 영상이 송출되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를 1회 방문한다.

하위 목표 2. 진행 과정에 대한 평가와 차기 연도 진행 사항에 대해 논의할 평가회를 1회 진행한다.

하위 목표 3. 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재원 마련을 위하여 후원자 3명 이상을 개발한다.

3. 프로그램 대상

대상 구분	산출 근거
주된 참여자	· 판암2동에 거주하거나 판암2동에 위치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또는 휴학) 중이며, 학교 생활에 부적응하거나 자아 존중감, 자기 통제력이 낮은 아동·청소년 20명 - 학교 생활 적응력이 낮아 또래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 - 의사 소통에 어려움이 있거나 비판적 사고 성향을 보이는 아동·청소년 - 자존감이 낮아 모든 활동에 소극적인 아동·청소년
주변 참여자	판암2동에 거주 중인 지역 주민(마을 및 주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을 관람할 주민 200명 이상)

Ⅲ. 프로그램 진행 및 평가

1. 세부 프로그램 진행 내용

프로그램	일정	횟수	세부 내용	수행 방법
홍보·모집	3, 4, 7, 8월	10회	· 유관 기관 대상자 추천 공문 발송 · 복지관 이용 주민 안내 및 주민 추천 · 지역 사회 내 홍보를 통한 모집	· 유관 기관(대암초등학교, 동신중학교, 판암, 새움, 한빛지역아동센터)에 대상자 추천 협조 요청 · 복지관 이용 주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 · 주민이 프로그램에 적합한 아동 추천 · 지역 사회 내 아웃리치 홍보 활동을 통한 대상자 모집
영상 제작 아카데미 (아동 그룹)	5~7월	10회	· 마을에 대한 이해 · 영상 촬영에 대한 역할 분담 및 리허설 · 영상 및 사진 촬영 활동 · 마을을 배경으로 한 마을 뉴스 제작 · 영상 편집하기 · 시사회	·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와 연계를 통한 강사 추천 및 촬영 장비, 장소 대관 등 협조 요청 · 아이들이 생각하는 마을 그리기 및 마을의 유래에 대해 토의 · 영상 촬영 장비 조작 방법 교육 · 4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별 역할 설정(감독, 기자, 앵커, 구성 작가, 촬영) 및 리허설 진행 · 그룹별로 마을을 배경으로 한 마을 뉴스 촬영 - 1조 : 우리 동네 아이들이 많이 가는 장소 - 2조 : 우리 동네 맛집 - 3조 : 우리 동네, 아이들이 놀기 좋은 곳인가? - 4조 : 우리 동네 아이들이 많이 가는 학원 · 촬영한 영상 리뷰 후 재촬영 및 구성 논의 · 촬영 영상 편집 · 마을 뉴스 시사회 진행
영상 제작 아카데미 (청소년 그룹)	8월	12회	· 마을에 대한 이해 · 영상 촬영 시 역할 분담 · 청소년 단편 영화 제작 · 영상 편집하기 · 시사회	·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와 연계를 통한 강사 추천, 촬영 장비, 장소 대관 협조 요청 ·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마을에 대해 토의 · 단편 영화 주제·장르 선정 · 그룹 토의 후 시나리오 작성 · 영상 촬영 장비 조작법 교육 · 시나리오를 토대로 영화 촬영 · 촬영본 리뷰 후 집단 구성원 간 피드백 제공 · 촬영 영상 편집 교육 · 단편 영화 시사회
수료식 (아동 그룹)	7월	1회	· 영상 제작 아카데미 과정 평가 · 수료증 전달	· 프로그램 진행 과정 기록 평가 · 참여 활동에 대한 인터뷰 및 소감 나누기 · 영상 제작 아카데미 수료증 전달
수료식 (청소년 그룹)	8월	1회	· 단편 영화 제작 과정에 대한 평가 · 수료증 전달 · 영화 관람	· 단편 영화 제작 과정 기록 평가 · 영화 제작 후기(NG 영상 관람) 및 진행 소감 나누기 · 영상 제작 아카데미 수료증 전달 · 영화 관람

프로그램	일정	횟수	세부 내용	수행 방법
정기 모임 (아동 그룹)	6, 8월	2회	· 그룹별 영상 촬영을 위한 리허설 · 향후 활동에 대한 계획 공유	· 그룹별 영상 촬영 주제 선정 및 시나리오 작성, 영상 촬영 등 마을 뉴스 제작을 위한 리허설 실시 · 마을 행사 촬영 등 향후 활동에 대한 공유 및 지속적 참여 활동을 위한 피드백 제공
정기 모임 (청소년 그룹)	8, 11월	2회	· 영상 제작 아카데미 프로그램 계획 및 진행 과정 논의 · 마을 행사 사진 촬영 역할 분담을 통한 영상 제작 과정 공유	· 영상 제작 아카데미 프로그램 진행 일정 · 내용 · 진행 방법 등에 대해 당사자인 청소년들과 직접 논의해 계획 수립 · '시가 익어가는 마을' 축제 현장 사진 촬영을 중심으로 영상 제작을 위한 역할 분담
인터넷 방송국 제작	4월	1회	마을을 배경으로 한 사진 및 영상을 업로드할 인터넷 카페(홈페이지) 제작	인터넷 카페 제작을 통하여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 대한 사진 및 편집 영상 등 업로드
영상 촬영 활동 (아동 그룹)	6월	2회	· 마을에 대한 이해 활동을 돕기 위해 아이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놀이터를 중심으로 사진 및 영상 촬영 실시 · 마을 축제 '판암골 단오 한마당' 홍보 영상 제작을 위한 영상 준비 및 기획	· 아이들이 생각하는 마을에 대한 시각적 측면 이해와 더불어 마을 뉴스 제작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아이들이 생각하는 놀이터'를 주제로 사진 및 영상 촬영 · 기존 단오 축제 사진을 활용한 마을 축제 '판암골 단오 한마당' 홍보 영상 제작 기획 그룹 토의, 사진 및 진행 순서, 방법 등 논의
영상 촬영 활동 (청소년 그룹)	11, 12월	2회	· '시가 익어가는 마을' 축제 사진을 활용한 영상 제작 · 청소년 밴드 활동 진행 과정에 대한 기록 영상 촬영	· '시가 익어가는 마을' 축제 사진을 활용하여 마을 축제 진행에 대한 영상 기록 · 청소년 밴드 활동 진행 과정에 대한 기록 영상 촬영
영상 상영	6, 10월	4회	· 마을 축제 '판암골 단오 한마당' 때 제작한 단오 홍보 영상 상영 · 아동 그룹에서 제작한 마을 뉴스 4편과 청소년 그룹에서 제작한 단편 영화를 마을 축제 '시가 익어가는 마을' 때 상영 · 인터넷 방송국(인터넷 카페)에 단오 홍보 영상을 비롯한 마을 뉴스 4편과 단편 영화 업로드	· 마을 축제 '판암골 단오 한마당' 때 제작한 홍보 영상을 축제 진행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상영함. · 축제 장소 입구에 LED 전광판 트럭 차량을 활용해 영상 상영 · 마을 축제 '시가 익어가는 마을'에서 아동 그룹이 제작한 마을 뉴스와, 청소년 그룹에서 촬영한 단편 영화를 상영함.
전문가 협력 지지 체계 MOU 협약	7, 9월	2회	·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와 원활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협조 · 서울 KBS 견학출방문	·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와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강사 추천 및 장비 대여, 장소 대관을 위한 업무 협조 실시 · 서울 KBS 견학출방문을 방문해 방송의 역사 및 제작 과정, 송출 과정 등에 대한 이해 도모
평가회	12월	1회	· 2016년 프로그램 참여 및 과정 기록에 대한 평가 · 2017년 활동에 대한 계획 논의	· 2016년 프로그램 참여 및 진행 과정 평가와 참여 소감 나눔 · 2017년 진행에 대한 의견 반영
서포터즈 운영	12월	1회	지역 내 안정적인 자원 마련을 위한 서포터즈 개발	복지관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지역 내 상가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자원 마련을 위한 서포터즈 개발

2. 과정 평가

프로그램	목표량	산출량	평가 결과
홍보 · 모집	1회/20명	1회/31명	· 유관 기관(대암초등학교, 동신중학교, 새움, 판암, 한빛지역아동센터)에 본 사업에 적합한 아동 · 청소년 추천 요청. 각 기관별 자체 일정으로 추천이 다소 지연됨. - 대암초등학교에서 6명, 판암지역아동센터에서 3명을 추천받았음. - 동신중학교 · 새움 · 한빛지역아동센터에서는 내부 일정 문제로 추천이 어려웠음. · 지역 사회 내 아웃리치 홍보 활동 및 복지관 내 아동 이용 프로그램 대상자를 모집함. 복지관 이용 아동 학부모 및 주민이 직접 사업 홍보를 해주기도 하였음. · UCC에 관심이 많은 저학년 아동 신청이 많아 대상자 선별을 위한 1차 스크리닝을 실시했으나, 신청 아동 모두 프로그램 대상 기준에 적합했음. 결국 아동 그룹을 소집단에서 중집단으로 변경해 진행함. · 아동 그룹은 총 23명이 신청,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청소년 그룹은 총 10명이 신청,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음.
영상 제작 아카데미 (아동 그룹)	10회/100명	10회/204명	·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의 업무 협조로 강사를 추천받고, 촬영 장비, 영상 편집 장소 · 시사회 장소 무료 대관을 성사함. · 마을 그리기 및 발표, 토의를 거쳐 아동의 시각으로 마을에 대해 재조명함. · 참여자를 4개 그룹으로 나눠 뉴스 진행 역할 분담. 회담 역할이 일부 겹쳤으나, 리더와 함께 토의해 각자 역할을 정함. · 주제 선정, 시나리오 작성, 촬영 장소 · 인터뷰 섭외, 촬영 등을 아이들이 직접 맡아 결과물에 대한 애착이 커졌음. · 아이들이 직접 역할(감독, 아나운서, 촬영, 기자, 작가)을 나눠 맡으면서 뉴스 제작에 대한 동기 부여가 이뤄졌고, 역할 수행 과정에서 서로 지지하고 격려함. · 직접 촬영한 영상으로 그룹별 영상 편집 교육을 실시함. 스토리 구성 편집은 아이들이 하고, 세부 편집(자막 삽입, 효과)은 강사의 도움을 받아 마을 뉴스 제작 · 시사회에서 아이들이 만든 뉴스를 공유하며 서로 격려함.
영상 제작 아카데미 (청소년 그룹)	10회/100명	12회/84명	· 시나리오 구성 전 단편 영화 장르에 대해 논의 시, 의견 차로 2시간 가까이 토론 후 합의함. 이 과정에서 본인의 의견 전달력과 타인의 의견에 대한 공감 능력 등을 향상함. · 청소년들이 단편 영화 시나리오를 직접 구성함. 행동, 대화, 배경 구성 등을 함께 논의했으며, 말투, 배경, 촬영 구성 방법 등 세부적인 부분은 강사의 협조로 수정함. · 시나리오 작성 단계에서 각 역할에 대한 토의를 함께 진행해, 이를 바탕으로 단편 영화 촬영을 실시함. · 영화 촬영 NG 컷, 스틸 컷, 줌인 · 아웃 컷 등을 위한 반복 촬영에도 즐겁게 임함. · 1차 촬영 영상 리뷰 후 보완 촬영에 대한 의견을 청소년들이 직접 제시해 재촬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함. ·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 편집실에서 강사와 함께 전체 스토리 구성 편집에 대해 함께 구상한 후 영화를 편집함. · 아동 그룹과 마찬가지로 세세한 부분 작업(화면 전환, 효과 등)에서는 강사가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해 편집했으며, 큰 틀은 청소년들이 함께 작업함.
수료식 (아동 그룹)	1회/10명	1회/23명	· 영상 제작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느낀 과정 기록을 중심으로 당사자인 아이들과 함께 평가함. ·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느낀 점을 발표하며 의견을 모음. · 마을 뉴스를 제작하면서 직접 역할을 나눠 참여한 점이 새로웠고 재미있었다고 이야기함. · 저학년과 고학년이 함께 그룹을 만들어 역할을 수행할 때 서로 의견이 달라 어려웠지만, 서로 조정하고 배려하며 이해해주는 모습들이 고마웠다고 이야기함. · 영상 제작 아카데미 프로그램 참여 아동에게 수료증 증정 ·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피드백 물품으로 문화상품권 제공

프로그램	목표량	산출량	평가 결과
수료식 (청소년 그룹)	1회/10명	1회/7명	· 영상 제작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느낀 과정 기록을 중심으로 당사자인 청소년들과 함께 평가함. ·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느낀 점에 대해 각자가 발표하며 의견을 모음. ·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진행된 수료식을 청소년들이 영화 관람으로 제안함. 이에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피드백으로 함께 영화 관람을 실시함. · 단편 영화를 제작한 경험을 바탕으로, 영화를 보면서도 연출 방법 등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음.
정기 모임 (아동 그룹)	2회/20명	2회/39명	· 마을 뉴스 촬영에 앞서 그룹별로 각자 맡은 역할에 대한 리허설을 함. 마을 뉴스 제작 전 주제 선정, 시나리오 작성 연습, 휴대전화를 활용한 촬영 연습 등 역할에 맞는 리허설을 실시함. · 외부 도움 없이 조별 그룹 토의를 통해 마을 뉴스 주제와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역할에 맞게 리허설을 진행하였음. · 2회차에서는 영상 제작 아카데미 종료 후의 진행 사항에 대해 공유함. 청소년 그룹에서는 단편 영화를 만들어 진행하는 것에 일부 아이들이 관심을 표하였음. · 지속적으로 마을 뉴스 제작 및 다양한 촬영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눔.
정기 모임 (청소년 그룹)	2회/20명	2회/15명	· 영상 제작 아카데미 프로그램 진행에 대해 기획 회의를 실시함. 당사자인 청소년들과 함께 프로그램 기획 회의를 통해 단편 영화를 만들기로 함. · 구체적인 장르나 주제는 각자 원하는 부분을 고려해 영상 제작 아카데미 프로그램 진행 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함.
인터넷 방송국 제작	1회	1건	활동에 대한 사진, 제작 영상 등을 공유하기 위한 인터넷 카페를 제작함.
영상 촬영 활동 (아동 그룹)	2회/20명	2회/41명	· 아이들이 마을을 바라보는 시각을 정립하고 영상 촬영에 대한 흥미를 높이기 위해 촬영에 대하여 논의함. · 아이들이 마을에서 가장 쉽게 접하고 볼 수 있는 놀이터를 선정, 영상·사진 촬영을 함. 놀이터에 버려진 쓰레기와 낙서 등을 촬영하며 놀이터의 본래 기능에 대해 함께 이야기함. · 2차 모임에서는 마을 축제 '판암골 단오 한마당' 홍보 영상 제작을 위한 구성을 논의함. 영상 제작 아카데미 프로그램이 계획보다 지연되어 영상 편집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지는 못했으나, 기존 단오 행사 때 촬영한 사진을 함께 배열하고 의논한 구성을 바탕으로 담당 사회복지사가 영상을 제작함.
영상 촬영 활동 (청소년 그룹)	2회/20명	2회/14명	· 마을 축제 '시가 익어가는 마을'에 참여해 마을 뉴스를 제작하는 사안을 논의했으나, 영상 출연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함에 따라 행사 사진 스케치로 변경함. · 그러나 축제 시간이 학교 수업과 겹쳐 참여가 불가능함에 따라 행사 사진을 중심으로 마을 축제 영상 스케치를 제작함. · 2차 활동에서는 복지관에서 청소년 밴드로 활동하는 청소년이 많아, 이에 대한 스토리텔링 영상을 제작함. 셀프 영상 및 밴드 교육에 대한 영상을 제작함.
영상 상영	4회/4명	4회/14명	· 마을 축제 '판암골 단오 한마당' 영상을 축제 동안 LED 광고판 차량을 활용해 상영 · 마을 축제 '시가 익어가는 마을' 때 아이들이 제작한 마을 뉴스 4편과, 청소년들이 제작한 단편 영화를 상영함. · 아이들이 마을을 바라본 시각을 담은 뉴스와 단편 영화를 본 주민들이 참여자들을 대견하게 여기고 칭찬하기도 함.
전문가 협력 지지 체계 MOU 협약	2회/20명	2회/10명	· 원래 기획했던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와의 협약은 무산됐으나, 강사 추천, 촬영 장비 대여, 장소 대관 등에서 해당 센터 협조로 원활한 사업 진행을 할 수 있었음. · 서울 KBS 견학출 방문을 통하여 방송 제작·송출 과정까지 이해와 더불어 활동 참여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이 됨.

프로그램	목표량	산출량	평가 결과
평가회	2회/20명	2회/20명	· 2016년 사업 진행 과정 평가를 실시함. 새로운 경험은 긍정적이었으며, 함께 의견 조율하는 과정은 어려웠으나 재미있었다고 이야기함. · 하반기에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지 못해 아쉬워함.
서포터즈 운영	1회	1회	· 본 사업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해 서포터즈 발굴 홍보 활동을 실시함. · 복지관 자원봉사자들이 배지를 배포하며 '선한 이웃' 참여 협조를 요청함.

3. 효과 평가

성과 목표 1.	성과 지표	자료원 및 자료 수집 방법
영상 촬영 및 편집을 이해하고 결과물을 통해 자아 존중감 확립과 사회성 발달을 도모한다.	· 프로그램 참여도 · 집단 프로그램 만족도 · 자아 존중감의 유의미한 향상 정도	· 출석부 · 만족도 설문 조사 · 자아 존중감 척도(최보가·전귀연)
평가 결과		

- 양적 평가
 - 프로그램에 참여 아동·청소년 모집 결과 목표(1회/10명) 대비 초과 산출(1회/31명)됨.
 - 프로그램 계획 인원은 240명이었으나, 프로그램 최종 결과 344명으로 계획 대비 140% 이상의 참여율을 나타냄. 이는 영상 제작 아카데미 프로그램에서 아동 그룹 인원이 계획 대비 2배 이상 초기에 신청한 결과임. 프로그램 진행 중 개인 사정 및 학교 일정 등으로 불참 인원이 생기기도 함.
 - 참여 당사자인 아동 및 청소년과 함께 계획하고 진행한 프로그램 회기마다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90%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이는 다음 프로그램 참여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함.
- 질적 평가(인터뷰)
 - 프로그램 참여 아동들은 마을 뉴스를 제작하면서 평소 관심 있던 UCC 제작과 더불어 새로운 경험을 한 것에 만족함. 그룹별 마을 뉴스 제작 과정에서 직접 역할(감독, 아나운서, 기자, 작가, 촬영 등)을 나눠 수행하면서 완성된 영상에 높은 자부심을 느끼는 계기가 됨.
 - 마을 뉴스 제작 중 집단 구성원 간의 희망 역할이 일부 중복됐지만, 감독 역할을 수행한 팀 리더들이 중재하여 조정함. 주제 선정부터 촬영, 편집까지 아이들이 협동 학습 모형을 기반으로 함께 학습·지지·격려하면서 자아 효능감과 사회성 향상에 긍정적인 결과를 미침.
 - 청소년 그룹 또한 단편 영화 계획 단계부터 함께 참여하고, 장르·주제 선정 등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고 토의를 실시해 객관성 및 체계성 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냈음. 또한 수용자 입장에서 주체적 입장으로 미디어를 분석하는 모습을 나타냈음.
 - 4그룹 감독 청소년 A 인터뷰 : "저학년 애들이랑 함께 할러니까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특히 저희는 저학년이 더 많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얘기하는 대로 잘 따라와 줘서 잘 끝났어요. 처음에는 말도 잘 안 들었는데 같이 얘기하고 하니 잘 되었던 것 같아요."
 - 단편 영화 제작 청소년 D 인터뷰 : "장르 선정하는데 각자 의견이 달라서 정하는 게 어려웠어요. 근데 애들이랑 오랫동안 얘기하면서 의견 받아들이고 서로 조정해서 각자 하고 싶은 거 조금씩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좋았어요. 특히 영화 만들면서 반복 촬영할 때 힘들기도 했지만 재미있었고, 나중에 영화 보면서 뿌듯함이 느껴졌어요. 엄마한테도 보여줬는데 칭찬해 주셔서 좋았어요."
- 자아 존중감 척도 사전·사후 검사
 - 프로그램 참여 아동·청소년 31명 중에서 전체 과정에 80% 이상 참석한 23명에 대해 자아 존중감 척도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함. 참석률이 낮거나 사전·사후 검사에 불참한 아동·청소년은 제외함.
 - 자아 존중감 척도 점수 범위는 60~132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자아 존중감 척도 사전·사후 검사 결과 사전 평균치인 89.8점에 비해 사후 평균치는 92.5점으로 자아 존중감이 2.7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 참여 아동·청소년 21명 중 16명은 자아 존중감이 향상되었으며 3명은 변화가 없었고 2명은 오히려 자아 존중감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평가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아동·청소년의 자아 존중감 향상 점수는 대부분 3~4점으로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으며 8점, 7점을 기록한 참여자도 각 1명으로 점수 향상 폭이 높아, 본 사업이 아동·청소년의 자존감 향상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음. - 자아 존중감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3명과, 자아 존중감 점수가 하락한 2명은 추후 개별 접근을 통해 변화에 대한 심적 상태나 외부 환경 변화 등을 확인하여 욕구나 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근거해 사례 관리팀과 연계한 사례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성과 목표 2.	성과 지표	자료원 및 자료 수집 방법
지역 사회 내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반영해 제작한 영상을 토대로 지역 사회의 관심을 이끌어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참여도 · 집단 프로그램 만족도 · 영상 상영 관람객 및 홈페이지 조회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석부 · 설문 조사(만족도) · 행사 인원 참여자 수 · 홈페이지 방문자 수

평가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적 평가 - 프로그램 참여 계획 인원은 281명이었으나 프로그램 최종 결과 500명 이상 참여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마을 축제에 계획보다 많은 400명 이상이 참여해 영상을 관람했기 때문임. - 프로그램 종료 시 진행한 만족도 조사에서 90%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음. - 사업 진행 과정 및 영상 공유를 위해 홈페이지에 업로드한 후 조회 수는 평균 67명이며, 청소년들이 제작한 단편 영화 조회 수가 273명으로 높았고, 마을 뉴스 조회 수는 평균 30명이었음. - 청소년들이 제작한 단편 영화는 지역 온라인 신문 '우리마을뉴스'에 기사로 게재되는 등 높은 관심을 얻었음. - 마을 축제 때 상영한 마을 뉴스 및 단편 영화를 통해 참여 아동과 청소년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각 변화가 생겼으며, 아이들이 바라본 마을이 어떤 것인지 새롭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음. · 질적 평가 - 아이들이 마을을 돌며 마을 뉴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마을을 바라보는 시각을 새롭게 인지함. - 놀이터에 버려진 공초, 쓰레기 무단 투기, 불법 주차,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불량 식품 등 지역 사회에서 개선해야 할 다양한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됨. - 마을 축제 때 아이들이 제작한 마을 뉴스를 상영해 마을에서 변화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인지하게 되었으며, 주민들이 아이들을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됨. - 마을 축제 참여자 김대진 인터뷰 : "아이들만 뭐라 할 게 아니라 어른들인 우리도 변화해야 할 시점이네요."

성과 목표 3.	성과 지표	자료원 및 자료 수집 방법
VJ 특공대의 지속 가능한 마을 활동을 위한 전문가 협력적 지지 체계를 구성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 협약 시행 여부 · 3명(기관) 서포터즈단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서 · 후원 가입 신청 및 후원금 입금 여부

평가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적 평가 -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 내 사정으로 공식 협약을 하지는 못했으나, 센터의 적극적인 협조로 영상 촬영 장비 대여, 장소 대관 등 원활한 사업 진행을 할 수 있었음. 향후에도 지속적인 연계를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긍정적인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됨. - 서울 KBS 견학방문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방송 제작부터 송출까지의 과정을 이해하고 동기 부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 지역 사회 내 아동·청소년 활동에 대한 관심 및 지역 사회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한 서포터즈 홍보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지역 사회 교회에서 일시적인 후원으로 예산을 지원받았음. · 질적 평가 - 지역 사회 내 아동·청소년의 활동에 대한 관심 및 지역 사회의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한 서포터즈 개발에서는 계획 대비 결과가 미진했음. 그러나 서포터즈 개발은 단시간에 이루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홍보 활동으로 개발해야 할 사안임. - 마을에서 주민과 소통이라는 주제로 지속적인 활동을 한다면 향후 서포터즈 참여 주민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IV. 사업 성과

1. 아동·청소년의 자아 효능감 및 사회성 향상

아동·청소년의 문제는 가정 교육, 학교 교육, 사회 환경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낮은 자아 존중감이라고 선행 연구에서 밝히고 있다. 본 사업에 참여한 아동은 마을 뉴스 제작으로, 청소년은 단편 영화 제작을 통해 자존감이 향상되었으며, 미디어를 수용자 입장에서 주체적인 입장으로 생각하고 분석하게 되었다. 영상 제작 활동 중에는 협동 학습 모형을 기반으로 아동·청소년이 각각 서로 함께할 수 있도록 소그룹을 만들어 활동함으로써 자기 표현 능력을 높였으며, 협동을 통해 또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2. 지역 사회 소통의 시작점

영상은 글이나 사진, 이미지보다 시각적인 측면이 크며, 보다 손쉽게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강점이 있다. 이에 착안해 본 사업에서는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표현하고 싶은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참여자가 만들고 축제와 인터넷 카페를 통해 공유한 마을 뉴스 영상과 단편 영화는 지역 사회 내에서 소통할 기회가 되었다. 이는 아동·청소년이 영상 제작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알릴 수 있는 역량을 키웠을 뿐 아니라, 지역 사회와 소통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

V. 향후 계획

현대 사회의 대중은 수많은 미디어에 둘러싸여 살고 있으며, 다양한 미디어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살피고 정보를 찾거나 휴식을 취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중 미디어에서는 내가 사는 마을 소식이나 이웃 이야기를 다루지 않으므로, 주민 스스로 앵커나 기자가 되어 마을 소식을 전하고 주민들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마을 미디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마을 미디어는 개인의 욕구를 풀어내는 표현의 장이자, 주민 관계망을 만들고 소통을 이끌어내는 곳이다. 여기에 마을 주민의 의견이 모이면 공론장 역할도 하고 나아가 언론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마을 미디어는 개인의 자기 표현의 장인 동시에 마을의 소통 공간이다. 미디어가 추구하는 가치, 활동 방향, 마을에서의 역할 등에 대해 구성원들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 결과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을 미디어는 다른 미디어와 구분된다.

본 복지관이 위치한 관암2동에서는 지역 주민이 만드는 마을 신문을 비롯해, 주민 관심사와 주제를 이야기하는 팟캐스트 마을 방송을 하고 있다. 마을 신문에서는 주민들이 스스로 기자와 편집자가 되어 마을의 다양한 소식을 지면에 싣고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마을 아카이브 역할도 한다. 마을 신문은 주민들의 소소한 이야기나 마을 행사 등 알림 사항을 전하기도 하고, 자치구의 행정을 감시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본 사업에서는 이러한 팟캐스트나 마을 신문의 순기능처럼, 아동이 만든 마을 뉴스나 청소년이 직접 제작한 단편 영화를 통해 지역 주민 이야기를 전달하고 이슈화하며 소통하고자 했다. 지역 사회 내의 다양한 단체 및 모임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이 지역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기를 바라며, 본 사업에 참여한 아동·청소년의 촬영 영상이 이처럼 주체적인 삶의 태도로 변화하는 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 차후로도 지역 주민이 소통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이슈화할 수 있는 영상 제작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즉 마을 미디어의 플랫폼 공간에서 지역 주민의 소통에 있어 영상의 역할이 점차 커질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사례 16

정신 질환 부모를 둔 저소득 청소년의 회복 탄력성 증진 및 사회적 관계망 기반 가족 역량 강화 프로젝트



이화여자대학교 종합사회복지관 이예린

“다함께 한 : 뽀 사람 Project”

I. 프로그램 실시 배경

지역 내 저소득 가정 중 일상 생활은 가능하지만 정신 질환(우울, 공황장애, 조현병 등)을 앓는 부모를 둔 청소년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다. 주 양육자인 부모 또는 모에게 정신 질환이 있어 자녀 양육에 비일관적인 행동을 보이면 청소년들은 성장기부터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정신 질환 부모를 둔 저소득 청소년들은 부모의 행동과 질환 때문에 우울해지거나 외부 활동이 제한적이어서 사회적 고립, 심리적 위축,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성장하기 쉽다. 학교에서도 학업 수행의 어려움, 대인 관계 위축 등 학교 부적응까지 겪게 된다. 하지만 정신 질환 부모를 둔 청소년에 대한 개입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프로그램은 정신 질환 부모를 둔 청소년의 회복 탄력성에 기반한 심리 사회적 역량을 강화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사회 관계망 활용을 통한 가정 내 청소년과 가족의 역할 이해 및 기능을 회복하여 가족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II. 프로그램 개요

1. 목적

지역 내에서 정신 질환 부모를 둔 저소득 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인 심리 내적 역량 강화를 위한 회복 탄력성 증진을 도모하고, 사회 관계망을 활용하여 가족 구성원과 함께 가정 내 역할 수행 및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건강한 가족 성장을 지원하며, 정신 질환 부모를 둔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 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

2. 목표

목표 1. 정신 질환 부모를 둔 저소득 청소년의 자아 회복 탄력성 증진

목표 2. 정신 질환 부모를 둔 저소득 청소년 가족 역량 강화 도모

목표 3. 정신 질환 부모를 둔 저소득 청소년 가족을 위한 사회 관계망 구축 및 활용

3. 프로그램 대상

대상자 범위	개념적 범위	· 지역 내 저소득 정신 질환 부모를 둔 청소년 총 10명 · 지역 내 저소득 정신 질환 부모를 둔 청소년 가족 총 20명 · 지역 내 사회적 관계망을 위한 전문 인력 총 20명 · 지역 내 사회적 관계망을 위한 자원(멘토, 이웃 외) 총 20명
	기관 이용자	복지관을 이용하는 정신 질환 부모를 둔 청소년 총 10명
대상자 구분	주된 참여자	· 서대문구 및 인근 지역의 정신 질환 부모를 둔 청소년 10명 · 서대문구 및 인근 지역의 정신 질환 부모를 둔 청소년 가족 20명
	주변 참여자	· 정신 질환 부모를 둔 청소년의 학교 담임 교사, 친구 · 정신 질환 부모의 주변 지인, 친구, 직장 동료 등
대상자 선정 방법	홍보 전략	· 서대문구 및 인근 지역 민관 실무 기관 협력단 회의 중 사업 설명회 실시 · 기관 내부 및 유관 기관 홍보물 게재 및 배포 · 지역 축제, 박람회 등 지역 행사에서 사업 설명회 실시
	접수 · 상담	· 사업 설명회 및 각 유관 기관 공문 발송, 직접 신청을 통한 접수 · 민관 실무 협력단 회의를 통한 사례 의뢰, 접수 · 내방 및 전화 접수, 홈페이지 및 전자 메일을 통한 접수
	선정 기준	· 사례 회의를 통한 참여 의지 및 시급성 선별 · 전문 자원 슈퍼비전 및 확대 사례 회의를 통한 사례 접수 · 2015년 본 기관 서비스 참여자 중 서비스가 필요한 사례 접수

Ⅲ. 프로그램 진행 및 평가

1. 세부 프로그램 진행 내용

프로그램	일정	횟수	세부 내용	수행 방법	
하트 to 하트	청소년 intake/ 사정	2월	1월	· 청소년 초기 상담 · 심화 사정 · 참여자 선정 · 사전 평가 실시	· 지인, 본인, 유관 기관 등 접수 · 경제, 가족, 자원 등 심층 면접 · 사례 판정 회의 · 사례 관리 계약 및 계획 수립 · 사전 평가 실시
	나 되돌아보기	3, 4월	2회	· 개별 상담 · 심리 검사	· 과거 돌아보기 · 강점 찾기 및 강화하기 · 상처 다루기(감정 표현하기)
	기저 체크 리스트 작성	4, 5, 7, 10~11월	2회	· 개별 상담 · 기저별 탄력성 질문 리스트 체크	· 탄력성 기저 질문 리스트 정리 - 탄력성 기저 : '청소년의 탄력성' (2008, Brigid Daniel Sally Wassell, 강문희, 손승아, 안경숙, 김승경 옮김, p35~119)에 나타난 탄력성 평가 6개 요소(안전, 교육, 우정, 재능과 흥미, 긍정적 가치, 사회적 유능성 기저) · 질문 리스트에 기반한 개별 상담
	6가지 기저 활용	5~8, 11월	4회	· 개별 상담 · 기저별 개입 전략 실시	· 기저별 상담 내용 정리 · 개입 방안 탐색 및 실행
U&I 어울림	대인 관계 훈련	5~11월	11회	· 마음 표현하기 · 강점 찾기 · 대인 관계 증진 훈련 · 야외 활동 · 나만의 작품 만들기 · 종결 다루기	· 2그룹(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진행 · 감정 카드를 활용한 공감 기술 향상 · 강점 찾기를 통한 미래 그리기 · 기능적 의사 소통 훈련, 역할극 · 정서 환기를 위한 외부 활동 · 빼빼로, DIY 등 작품 만들기 및 친구 선물하기
가족 버팀목	가족 intake/ 가족 구성원 사정	1~3월	1회	· 가족 초기 상담 · 심화 사정 · 가족 규칙, 역할, 관계 탐색 · 사전 평가 실시	· 지인, 본인, 유관 기관 등 접수 · 경제, 가족, 자원 등 심층 면접 · 사례 판정 회의 · 사례 관리 계약 및 계획 수립 · 사전 평가 실시
	정신 질환 관련 교육	5~7, 11월	3회	· 정신 질환 이해 · 정신 질환 관리법 교육 및 훈련	· 정신 보건 관련 교수 자문 · 가정 방문을 통한 정보 안내 및 교육
	가족 교육	5~11월	3회	· 가정 방문 및 내방 · 가족 구성원의 역할 이해 · 가족 공동 규칙 수립	· 가족 규칙 정하기 · 가족 회의 · 가족 마음 이해하기 - 편지, 미술 등

프로그램	일정	횟수	세부 내용	수행 방법	
가족 Doing	가족 대화법 훈련	7~11월	3회	· 대화법 훈련 · 연습 · 양육 코칭 및 적용 · 부모 상담	· 긍정적인 의사 소통법 교육 및 연습 - 감정 표현하기, 칭찬하기 외 · 건강한 부모 되기 - 양육 코칭
	실생활 적용	9~11월	2회	· 부부, 부모 - 자녀 일상 생활 역할 수립 · 가족 추억 만들기 · 가족 미래 준비하기	· 수립된 역할 훈련 및 실천 · 가족 미래 그리기 - 그래프, 초상화 · 가족 추억 만들기 - 놀이기, 문화 활동
	가족 역할 모니터링	9~11월	2회	· 가족 규칙 조정 · 모니터링	· 가족 회의 · 준 사례 관리자 모니터링
솔루션 활동 Click	홍보	3월	1회	사업 안내 및 모집	· 사업 설명회 개최 · 민관 협력단 회의 시 사업 홍보 · 기관 내외부 홍보물 배부 · 지역 내 배너 설치
	자문 기관 및 실무 기관 협약	2~3월	1회	솔루션 위원 구성	· 참여 가정 욕구별 기관 발굴 및 협약
	솔루션 회의 실시	3~11월	3회	· 사회 관계망 활용 · 사례 회의	· 욕구 기반 서비스 발굴 및 연계 ·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조정 · 사례 관리 자문 · 종결 판정 및 평가
가족 행복 네트워크	지지 자원 발굴 및 활동	3~11월	8회	· 지지 체계 활동 - 동행 친구 훈련	· 동행 친구 전문 교육 진행 - 진로, 청소년 이해, 미디어 중독 예방 교육 · 동행 친구 활동 - 마음 · 학습 멘토링 · 지역 정보 공유
	전체 평가회	12월	1회	참여 가정의 지지 체계 평가	· 활동 관련 평가 · 추후 관리

2. 과정 평가

프로그램	목표량	산출량	평가 결과	
하트 to 하트	청소년 intake/사정	10회/10명	11회/11명	· 본인, 이웃, 지역 내 유관 기관의 요청으로 사례 접수함. 지역 내 구축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사례 발굴
	나 되돌아보기	40회/10명	44회/11명	· 청소년의 욕구를 점검하고, 스스로 자신의 강점, 재능, 흥미 등을 파악할 기회 제공. 참여 청소년이 자기 욕구를 생각하고, 욕구 충족 방법, 목표, 평가 등을 함께 고민하며 주도적 역할을 함.
	기저 체크 리스트 작성	40회/10명	44회/11명	· 6가지 기저인 안전, 교육, 우정, 재능과 흥미, 긍정적 가치, 사회적 유능성 기저를 단계별로 체크하고, 보호 요인과 위험 요인을 파악함.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 강화
	6가지 기저 활용	60회/10명	66회/11명	· 안전 기저가 취약한 청소년은 안전망 구축에 많은 시간과 집중 개입이 필요하고, 다른 기저 강화에 한계가 있었음.

프로그램	목표량	산출량	평가 결과	
U&I 어울림	대인 관계 훈련	70회/10명	110회/11명	· 참여자 연령대가 다양해 나이를 기준으로 두 그룹으로 분리함. · 집단 초기 집단 구성원들은 소극적이고 산만했으나 집단 활동을 진행하면서 집단 역동이 활발해지고,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함. · 또래와의 긍정적인 상호 작용을 경험하고, 갈등 상황에 따른 대처 기술을 습득함. · 다양한 활동으로 작품을 만들며 성취감 얻음.
가족 버팀목	가족 intake/가족 구성원 사정	30회/30명	35회/35명	· 가족 intake 중 가족원들은 가족 관계 회복에 대한 욕구가 높았음. 이에 가족과 함께 합의된 욕구를 조정하여 목표를 세움. 그 안에서 가족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함께 고민함.
	정신 질환 관련 교육	90회/30명	90회/30명	· 정신 질환마다 증상 · 관리법이 달라 담당자가 자문을 받고 각 가정에 개별 교육을 진행함.
	가족 교육	90회/30명	90회/30명	·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해 부모 교육을 진행하여 참여 부모가 서로 지지하고, 정보를 공유함.
가족 Doing	가족 대화법 훈련	90회/30명	90회/30명	· 가족 활동을 통해 서로 이해하고, 친밀감을 느껴 응집력을 강화함. · 가족 회의를 통해 가족 규칙, 역할 분장 등을 수립하고, 월 1회 가족 활동을 직접 계획하여 활동을 진행함.
	실생활 적용	60회/30명	90회/30명	· 영화 관람, 외식, 체험 활동에 참여하고, 참여 가족 전체가 파주로 나들이를 다녀옴.
	가족 역할 모니터링	60회/30명	60회/30명	· 정신 질환에 대한 외부 시선을 두려워해 가족 활동에 소극적이던 청소년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며 서로 이해하고, 가족이 함께하는 추억을 만들며 만족도가 높아짐.
솔루션 활동 Click	홍보	20회/20명	60회/30명	· 사업 홍보 진행
	자문 기관 및 실무 기관 협약	20회/20명	30회/30명	- 온 · 오프라인 사업 홍보물 게시 - 지역 행사 부스 설치 및 홍보물 배부 - 민관 협력 회의 사업 설명회 개최 · 지역 내 유관 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 - 지역 내 정신 질환이 있는 소외된 가정 발굴 -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
	솔루션 회의 실시	60회/20명	90회/30명	· 참여 가정의 욕구에 맞는 솔루션 위원 구성 - 월 1회 통합 사례 회의 진행 - 주 사례 기관 선정, 서비스 발굴 및 조정 · 평가 진행 · 참여 가정이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하여 욕구를 충족하고, 자생력을 높이도록 도움.
가족 행복 네트워크	지지 자원 발굴 및 활동	160회/20명	120회/12명	· 비공식적 자원인 동행 친구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음. · 학습, 진로, 마음, 일상 생활 동행 친구 활동을 통해 참여 가정의 기능과 역량 강화를 도움. · 동행 친구의 전문성 증진 교육을 진행함. 참여 가정이 함께 교육에 참여해 교육 주제에 따른 의견을 이야기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함.
	전체 평가회	20회/20명	12회/12명	· 교육 후 설문 조사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 다음 교육 주제에 반영함. 모든 참여자가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생활에 적용하게 됨.

3. 효과 평가

성과 목표 1.	성과 지표	자료원 및 자료 수집 방법
정신 질환 부모를 둔 저소득 청소년의 자아 회복 탄력성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 70% 이상의 청소년 탄력성(6가지)* 평가 사전·사후 검사 시 습득 개수 변화 · 참여자 70% 이상의 자아 존중감** 척도의 사전·사후 검사 시 유의미한 긍정적 변화 정도 · 연구 질문 1-1. 사업이 참여 청소년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가? · 연구 질문 1-2. 참여 청소년은 심리적 어려움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력성 평가 요소 · 사전·사후 검사 · 자아 존중감 척도 · 사전·사후 검사 · 심층 면접 · 사례 관리 기록지 분석

평가 결과

- 양적 평가
 - 참여 청소년의 청소년 탄력성 비교 결과, 모든 참여 청소년은 모든 탄력성 기저 영역(안전, 교육, 우정, 재능과 흥미, 긍정적 가치, 사회적 유능성 기저)에서 1가지 이상의 역량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남.
 - 참여 청소년에게 프로그램 참여 이전·이후의 자아 회복 탄력성을 자아 존중감 척도 검사로 비교한 결과, 전체 평균 사전 92.1점에서 사후 103점으로 향상해 참여 청소년 80%의 자아 존중감이 향상됨.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 청소년은 탄력성 영역별로 강점을 발견하고, 이를 강화하여 각 영역별로 성공 경험을 하면서 자아 존중감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됨. 또한 집단 활동을 통해 또래 관계에서 소속감을 느끼고, 긍정적 상호 작용을 경험하면서 자아 존중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됨.
 - 질적 평가
 - 연구 질문 1-1에 대한 답변: "친구들이랑 빨리 친해지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어요. 서로의 관심사를 알고, 그 공통점을 같이 이야기하니까 친해지는 것 같아요" "사람 관계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되고, 스스로 힘든 부분들을 이겨내 보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즐거웠어요. 앞으로 이런 활동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등을 확인함.
 - 연구 질문 1-2에 대한 답변: "힘들 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힘이 되었어요" "마음이 힘들 때 의논할 수 있고, 일상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 제일 좋았어요" "예전보다 잘 웃기도 하고, 무엇보다 학교 생활이 좀 나아졌어요"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지만 현재에 초점을 두고,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등을 확인함.
 - 이러한 답변으로 미뤄보아 참여 청소년이 사업을 통해 사회복지사, 집단 구성원들에게 정서적 지지와 감정 표현을 통해 정서 환기를 느끼고, 직면한 상황을 스스로 이겨내고자 하는 역량 강화가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 청소년 탄력성: '청소년의 탄력성'(2008), Brifid Daniel Sally Wassell, 강문희, 손승아, 안경숙, 김승경 옮김, p. 35~119, 탄력성 평가 6개 요소
- ** 자아 존중감: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Instrument reproduced with permission of Morris Rosenberg. 실천가와 연구자를 위한 사회복지 척도집 [나눔의집], p. 88

성과 목표 2.	성과 지표	자료원 및 자료 수집 방법
정신 질환 부모를 둔 저소득 청소년 가족 역량 강화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 70% 이상의 참여에 따른 가족 내 역할 수행 방법 습득 개수 변화 · 참여자 70% 이상의 가족 기능* 척도의 사전·사후 검사 시 유의미한 긍정적 변화 정도 · 연구 질문 2. 참여 가족의 심리적 어려움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 연구 질문 3. 가족 갈등이 사업 참여를 통해 어떻게 해결되었는가? · 연구 질문 4. 가족이 가족 내 스스로 역할을 수행하는가? · 연구 질문 5. 가족 역할이나 생활이 변화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역할 수행 방법 습득 · 사전·사후 검사 · 가족 기능 척도 사전·사후 검사 · 심층 면접 · 사례 관리 기록지 분석

평가 결과

- 양적 평가
 - 참여 가족의 80%는 각자 해야 할 역할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수행한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이를 양적 개수로 파악하는 게 어려워 역할 수행 변화에 대한 질적 평가로 변경
 - 참여 가족의 프로그램 참여 이전·이후의 가족 역량 강화를 가족 기능 척도 검사로 비교한 결과, 전체 평균 사전 113.7점에서 사후 140점으로 향상되어 참여 가족의 80%는 가족 기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 가족은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서로 이해하고 격려함. 또한 가족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추억을 만들면서 가족 유대감이 형성되고 친밀해지는 긍정적인 영향을 확인함.
 - 질적 평가
 - 연구 질문 2에 대한 답변: "과거에 미련을 버리고, 현재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마음의 병에 대해 받아들이고, 잘 관리해서 빨리 낫게 노력하려고요" "마음속이 정리가 되고, 강해진 거 같아요" "엄마의 정신 질환을 이해하고, 힘들지 않도록 옆에서 도와주려고 해요" 등을 확인함.
 - 연구 질문 3에 대한 답변: "마음이 편안해지니 싸우지 않게 되는 거 같아요" "상대방에게 화를 덜 내고, 이해하려고 더 노력하게 돼요" "저희들끼리는 할 수 없는데 사업에 참여해 가족 활동을 하게 되어 가족들끼리 더 친밀해졌어요" 등을 확인함.
 - 연구 질문 4, 5에 대한 답변: "딸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숙제를 하고, 준비물을 챙겨요" "약속한 시간에 자려고 하는 게 가장 큰 변화예요" "엄마가 약을 꼭 챙겨 먹고, 가족들 식사를 챙겨줘요" "제가 바쁘더라도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공부를 봐주려고 해요" 등을 확인함.
 - 양적·질적 평가를 취합한 결과, 참여 가정은 정신 질환에 대해 이해하고, 가족이 함께 규칙적인 약물 관리,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위해 노력하게 되었음을 확인함. 또한 가족 회의, 가족 활동 등을 통해 스스로 역할을 수행하고, 가족 역량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남.
- * 가족 기능: 최지호(2000, 한국형 가족 기능 평가 도구 개발. 경희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나눔의집] p.336~341)

성과 목표 3.	성과 지표	자료원 및 자료 수집 방법
정신 질환 부모를 둔 저소득 청소년 가족을 위한 사회 관계망 구축 및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지 체계(기금, 인적 자원, 기회 제공 등)가 개별 가족에게 자원 발굴 및 인적 자원을 연계한 횟수 · 지지 체계(기금, 인적 자원, 기회 제공 등)가 계획 대비 자원 만족 정도(개수) · 개별 가족 활동 후 만족도 조사 시 70% 이상 만족 여부 · 연구 질문 6. 동행 친구가 어떤 도움이 되었는가? · 연구 질문 7. 동행 친구에 대한 만족도는 몇 점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지 체계 활동(FGI)에 의한 지역 자원 발굴 및 연계 계획 및 평가 · 개별 가족 활동 후 만족도 조사 실시 · 심층 면접 · 사례 관리 기록지 분석

평가 결과

- 양적 평가
 - 참여 가정의 자원 연계 횟수는 평균 3.4개, 자원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8.09점으로 나타남. 동행 친구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 중 8점으로 참여 가정의 70%가 8점 이상의 만족도를 보임.
 - 자원 연계 중 경제적 지원(후원 금품)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고, 참여 가정이 경제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복합적인 문제가 해결되며, 직면한 문제를 이길 의지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으로 생각됨.
- 질적 평가
 - 연구 질문 6에 대한 답변: "의지할 누군가가 있고, 터놓을 곳이 있어 속이 시원해요" "정신 질환 증상이 심해질 땐 집에만 있었는데 지금은 힘들어도 주변 사람들을 만나고, 가벼운 산책으로 이겨내려고 합니다" "동행 친구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되었어요" 등을 확인함.
 - 연구 질문 7에 대한 답변: "10점 만점에 10점이예요. 앞으로도 동행 친구랑 계속 만나기로 했어요" 등을 확인함.
- 양적·질적 평가를 취합한 결과, 참여 가정은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생활고로 복합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이에 지역 내 자원을 발굴·연계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자원 활용 능력을 강화하여 참여 가정의 역량을 강화함. 초기 동행 친구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홍보로 동행 친구를 모집하였고, 참여 가정의 특성, 욕구 등에 맞게 동행 친구를 연계함. 동행 친구를 통해 위로와 지지를 얻고, 모델링을 통해 참여 가정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함.

IV. 사업 성과

1. 정신 질환 부모를 둔 청소년에 맞춤 서비스 제공, 건강한 성장 도모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은 생활고, 일관성 없는 양육, 사회적 고립 등으로 학교 생활 부적응, 무기력, 심리적 우울 등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각 가정마다 다른 환경 및 가족 규칙, 다양한 욕구 등에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참여 청소년은 스스로 자신의 강점을 찾고 이를 활용하여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자아 존중감을 향상하고,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청소년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성취감을 경험하고, 대인 관계 기술을 습득하여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을 강화하였다.

2. 정신 질환 부모의 역량 강화

참여 가정의 부모는 사업 초기에 무기력했으며 심리적 어려움을 주로 호소하였다. 그러나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현재 정신 건강을 파악하고, 치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또한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부모 역할이 중요한 것을 깨닫고, 자녀를 잘 키우고 싶다는 의지가 높아져 사업에 적극 참여하였다. 이를 통해 참여 부모는 내적 역량이 강화되고, 자녀 양육에 대한 기능이 강화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나아가 무기력했던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높아지면서 아동·청소년 방임을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V. 향후 계획

본 프로그램은 사례 관리를 기반으로 정신 질환 부모를 둔 청소년의 회복 탄력성을 증진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활용하여 가정 역량을 강화할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종결 이후에도 관리를 통해 참여 가정의 자립을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욕구가 발생할 경우 재사정하여 사례 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2016년에는 청소년의 개별 개입과 집단 활동에 초점을 두어 진행하였으나, 2017년에는 참여 가족의 개별 개입과 집단 활동에 집중하여 참여 가정 간의 상호 작용을 촉진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확장할 계획이다. 또한 참여 가정의 자조 모임을 통해 구성원의 정보와 강점을 공유하고, 상호 작용 과정에서 주체적인 참여를 강화함으로써 참여 가정의 역량 강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사례 17

마을 단위 강점 체계(만화, 영상, 복지, 공연·기획)를 중심으로 한 빈곤 가정 청소년의 직업 연계 인턴십 프로그램

“+UP”



춘의종합사회복지관 이승영

I. 프로그램 실시 배경

빈곤 가정 청소년에게 직업은 자아 실현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편입이라는 의미 외에 이른바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린 과업이다. 이들은 적성이나 흥미보다 당장 돈벌이가 가능한 길을 선택하는데, 빈곤 가정의 공통적인 한계점인 양육자 역할 미비, 사회적 자본 부족으로 진로에 대한 계획조차 꿈꾸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을 위해 각 학교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교육지원청, 복지관,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 빈곤 가정 청소년의 진로와 직업 선택에 대한 지원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에는 강의식 교육이 아닌 체험식 교육이 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욕구와 수요를 잡월드, 키자니아 등의 진로 체험 테마파크의 폭발적인 인기로 알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진로 관련 체험 프로그램은 해당 직업의 실제 현장이 아닌 모형 공간에서 정해진 특정 작업만 반복 실행하고, 프로그램도 1시간 혹은 1일 코스로 단순 체험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해당 직업에 대한 충분한 고찰이 어렵다. 중·고등학생 이상 청소년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직업 탐색과 실습에는 적합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경제 활동의 일부인 인턴십을 통해 직업을 경험해 볼 시간과 기회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청소년기에 아르바이트 등 경제 활동을 원하는 청소년들이 사회 생활을 사전 경험해봄과 동시에 진로에 대한 욕구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II. 프로그램 개요

1. 목적

빈곤 가정 청소년에게 마을이 가진 강점 체계(부천시의 만화, 영상, 복지, 공연·기획)를 바탕으로 진로 지도와 직업 연계 인턴십을 통해 이들의 진로 준비 및 진로 진입을 돕는다.

2. 목표 및 하위 목표

빈곤 가정 청소년이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진로를 찾고,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목적에 맞춰, 성과 목표를 크게 두 가지로 설정하였다. 첫째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의 진로에 도움을 주었는지, 둘째는 마을이 청소년 진로 및 직업 지도에 참여하고 장(場)이 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3. 프로그램 대상

대상 구분	산출 근거
주된 참여자	부천시에 거주하며 만화, 영상, 복지, 공연·기획 분야의 진로에 관심 있는 빈곤 가정 청소년
주변 참여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빈곤 가정 청소년의 가족

4. 논리 모델에 근거한 사업 분석

분야	투입(Input)	활동(activity)	산출(Output)	성과(Outcome)
만화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실무자 · 만화가 · 웹툰 작가 · 원미중학교 · 서부지역아동센터 · 1318해피존우리	· 만화 인턴십 · 만화가 사무실 방문	· 만화 인턴십(10회/50명) · 웹툰 인턴십(10회/90명) · 만화가 사무실 방문(1회/6명) · 만화책 1권 발행	· 진로 정체감 평균 6점 상승 · 스타펠 척도에 의한 진로 도움이 되었고, 수치 정도 평균은 +6.5점이었음. · 16개 기관과 협력 · 17개 기관과 공동 사업 수행
영상	· 부천영상미디어센터 인력 및 장비, 공간 · 부천마을미디어페스티벌 · 서부지역아동센터 · 1318해피존우리	· 영상 인턴십 · 시사회 실시 · 부천마을미디어 페스티벌 참여	· 영상 인턴십(8회/85명) · 영상 스태프 활동(7회/56명) · 시사회 참여(1회/11명) · 영상 결과물 2점 제작 · 부천마을미디어페스티벌 참여(1회/11명) · 영상미디어센터 방문(8회/85명)	
공연 기획	· 세상을 품은 아이들 인력 및 장비, 공간 · C드림센터 현장 제공 · D사운드 현장 제공	· 공연 기획 전문가와의 만남 · 공연 기획 현장 방문 · 공연 기획 인턴십 · 공연 현장 체험 · 미니 앨범 제작	· 공연 기획 전문가와의 만남(3회/6명) · 공연 기획 현장 방문(4회/8명) · 공연 기획 인턴십(6회/12명) · 공연 기획 현장 체험(2회/4명) · 포트폴리오 미니 앨범 1개 제작	

III. 프로그램 진행 및 평가

1. 세부 프로그램 진행 내용

프로그램	일정	횟수	수행 방법		
pre-internship	홍보·접수	1~2월	3회	· 홍보 - 부천시 원미구 일대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11개에 전체 사업 안내를 하고 참여자 추천을 받음. · 접수 - 당사자의 주도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청소년들이 참여 의지와 기대하는 점을 표현할 수 있도록 서술형 신청서를 작성하게 함. - 총 26명이 참가 신청서를 제출함.	
	참여자 면접 심사	2월	1회	· 내부 전문가 1명, 외부 전문가 1명으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해 면접 심사표 문항을 중심으로 아이들의 생각을 묻음. · 웹툰 분야에서는 웹툰 작가가 직접 아이들을 면접하면서 참여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원자들과 관계 형성을 하는 계기를 마련함.	
	오리엔테이션	3월	4회	· 사업 안내와 일정 수립을 위한 분야별 오리엔테이션을 실시 · 참여자들과 긴밀한 소통을 위해 카카오톡 대화방을 만들고, 반장을 뽑아 의견을 수렴하고 각 분야마다 활동 목표치를 설정함. - 만화 : 인쇄 만화 · 웹툰 두 가지 분야로 나눠 인턴십 진행 - 영상 : 본 사업에 3년째 참여하는 청소년은 스태프로 참여해 작품을 제작하고, 처음 참여하는 청소년은 기초 과정을 배우며 결과물을 만들음. - 공연 기획 : 본 사업에 3년째 참여하는 청소년은 공연 기획 중 노래를 부르고 미니 앨범 제작을 하기로 함.	
local internship	만화 영역	웹툰	2월	10회	· 만화 영역 중 웹툰에 대한 욕구가 있어, 기존 참여자나 인쇄 만화를 그려본 아이들을 대상으로 웹툰 과정 인턴십을 실시함. ·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지원으로 웹툰 제작 가능한 컴퓨터 장비가 있는 공간 대어 · 참여자 개인에게 활동비 대신 태블릿을 지급해, 사업 종료 후에도 작가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함. · 참여자 모두 포털사이트 내 신인 웹툰 작가 등단 공간 '나도 만화가' 코너에 작품을 올림.
		인쇄 만화	8월	10회	· 3년차 참여자와 1년차 신규 참여자를 한 그룹으로 묶어 인턴십 실시 · 기술 교육보다 자기 생각을 스토리로 정리하고 그림으로 표현해 내는 과정을 연습하므로, 연차별로 커리큘럼을 달리할 필요가 없었음. · 통합반으로도 각자의 결과물을 만드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음.
	영상 영역	8월	10회	· 부천시민미디어센터에서 감사 인력비와 장비를 지원 협력하였음. · 영상 제작과 인턴십 과정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참여자 11명이 공동 작품으로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고자 하였고, 각자 역할을 나누어 영상물을 완성함. · 완성한 작품은 청소년이 제작한 수준 이상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이후 부천마을미디어페스티벌 청소년 부문 개막작으로 선정됨. 영상 내용은 '난독증'을 가진 남자아이의 이야기로 CJ헬로비전에서 방영 예정이며, 한국난독증협회에서도 영상 활용 여부를 검토 중임. · 3차 연도 참여자들은 스태프 역할을 수행하였고, 각자 포지션을 정하여 감독, 카메라, 편집, 연기 내용을 전달함. 이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메이킹 필름을 완성함.	

프로그램	일정	횟수	수행 방법	
local internship	공연 기획 영역	5월~2017년 1월	8회	· 공연 기획 교육 회사를 방문해 공연 기획 이론 교육과 장비를 살펴보고, 실제 공연장에서 무대, 음향, 조명, 기획 등을 경험 · 일반 공연장 외에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진행되는 행사에 참여하거나 관람하여, 공연 기획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3년차 참여 청소년은 가수에 도전해보고자 하여, 기관과 협의해 미니 앨범 작업을 실시함.
협력 네트워크	만화 영역	2, 8월	20회	· 기존 연계를 만화가 섭외를 유지함. · 웹툰 분야는 원미중학교 협력으로 참여 청소년을 추가 모집했으며, 웹툰 작가도 기존 만화가의 소개를 받음. · 부천시미디어센터를 통해 웹툰 제작 프로그램 구동이 가능한 컴퓨터와 빔 프로젝터를 갖춘 공간을 임대하고, 기기 장비는 무료 사용함. · 만화영상진흥원 입주 만화가의 소개로 참여 청소년들이 제작한 만화집을 저렴하게 인쇄함.
	영상 영역	8월	15회	· 부천시미디어센터와 공동 사업으로, 영상 관련 직업 체험 콘텐츠로 미디어 교육을 진행하기로 함. 타 기관과의 형평성을 위해 영상미디어센터에서의 지원 규모를 최소로 줄이고 예산을 투입함. · 기존 영상 작업에서는 주 강사와 보조 강사의 역할 구분이 있어 최소 인력이 2명이었음. 3년차 참여 아이들이 스태프 역할을 고민하면서 스태프들이 보조 강사를 대신하기로 함.
	공연 기획 영역	5월~2017년 1월	8회	· 부천시형 사회적 기업 '세상을 품은 아이들'과 연계 진행함. 해당 기관은 자체 사업으로 청소년 밴드 2개 팀을 육성 중이며, 정기 공연을 열 수 있는 기기와 장비도 갖춘, 공연 기획 인력도 상주해 아이들의 일정에 맞춘 인턴십 진행이 용이했음. · 다양한 전문 분야로 나뉘는 공연 기획의 모든 내용을 단일 기관에서 포괄 교육하기는 어려워, 인턴십 후반에는 공연 현장을 방문해 진행함.

2. 평가

성과 목표 1.	평가 지표	측정 도구	평가 방법
청소년 진로 교육을 통한 진로 의식 및 진로 정체감 향상	· 참여자들의 사전·사후 진로 정체감 측정 수치 변화율 · 연구 질문 3-1. 인턴 과정으로 직업이 확고해졌다면 그 계기와 변화 요인은 무엇인가?	· 설문 조사 · 진로 정체감 척도 · 참여자 활동 일지	· 설문 조사지 분석 · 진로 정체감 척도 분석 · 참여자 활동 일지 분석
평가 결과			

- 진로 정체감 측정 수치 변화율
- 진로 정체감 평균이 사전 109.1에서 사후 115.1로 6 증가함.
- 연구 질문 3-1
- 설문 조사에서 "인턴 과정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직업관이 얼마나 확고해졌나요"라는 질문에, 10점 만점에 7점의 평균값을 나타냄.
- "자신의 직업관이 확고해진 계기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크게 두 가지임. 첫 번째 계기로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던 직업에 대해 알게 되면서"라고 밝힘. 실제 답변 사례로 "2주 동안 인턴십을 하면서 직업에 대해 알아가면서" "영상 미디어 프로그램을 배워서" "세 번째 참여지만 다른 것을 배웠다" 등의 응답이 나왔음. 두 번째 계기로는 "인턴십 과정에서 직업에 대한 흥미와 재미, 특별한 감정을 경험하면서"라고 밝힘. 실제 답변 사례로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재미있었다" "새로운 경험이어서" "언기를 하면서 흥미를 느껴서" "카메라를 만지고 영상을 편집하는 것이 재밌다" 등의 응답이 나왔음.

성과 목표 2.	평가 지표	측정 도구	평가 방법
지역 사업체 내 인턴십 기회 제공을 통한 청소년의 진로 탐색 단계 진입	· 참여자들의 사후 도움 여부 평가 수치 · 연구 질문 2. 인턴십 과정으로 인해 변화한 나의 모습은 예전과 어떻게 다른가? · 연구 질문 3. 인턴십 과정에 대해 처음 느낌과 과정을 마친 현재 느낌은 어떻게 다른가?	· 설문 조사 및 만족도 조사 · 스태펠 척도 · 참여자 활동 일지	· 설문 조사 분석 · 스태펠 척도 분석 · 활동 일지 분석

평가 결과			
· 참여자들의 사후 도움 여부			
- 설문 조사 시 도포식 평정 척도 및 인턴십 활동이 진로에 관한 고민에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와 그 정도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는 스태펠 척도로 조사함. 음(-)의 값은 도움이 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양(+)의 값은 도움이 되었음을 뜻함. 또한 절대값이 나타내는 것은 도움 정도를 숫자로 표현한 것임.			
- 본 조사 시 결과는 평균값 +7이 나와 인턴십이 도움이 되었음을 확인함. 도움의 정도는 최대 10점에서 7점이었음.			
· 연구 질문 2			
- 인턴십 과정으로 변화한 나의 모습을 묻는 질문에는 "직업과 진로에 대한 생각을 더 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음. 구체적 답변 사례로는 "내가 이 직업을 해야 하는지 다른 직업을 찾아봐야 하는지 생각하게 되었다" "직업에 대해 더욱 더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다" "이 직업은 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등이 있었음. 또한 직업에 대해 구체적인 고민을 하거나, 특정 직업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확산까지 얻은 청소년도 있었음.			
· 연구 질문 3			
- 인턴십 과정에서 참여 전후 느낀 점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하게 되었다"고 응답함. 구체적 답변 사례로는 "아직 이 직업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다" "나의 꿈을 정할 수 있을 것 같다" "좀 더 많은 분야에서 다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느꼈다" 등이 있었음.			
- 또한 많은 참여자가 "뿌듯하다" "보람이 있다"고 표현해, 본 활동을 통해 성취감과 즐거움을 경험한 것으로 판단됨.			
- 반면 "조금 더 하고 싶고 많이 아쉽다"는 의견도 있었음.			

성과 목표 3, 4	평가 지표	측정 도구	평가 방법
· 실질적인 운영과 진행을 지원하는 청소년 스태프 인프라 구성 · 각 분야의 외부 전문 기관에서 스태프로 활동	· 청소년 스태프 운영 회의 진행 여부 · 청소년 스태프의 보조 인력 참여 횟수 · 지역 사회 인프라로서의 기능 수행 평가 수치	· 운영 회의록 · 스태프 참여 일지 · 스태펠 척도	· 운영 회의록 및 참여 일지 분석 · 스태펠 척도 분석
평가 결과			

- 청소년 스태프 운영 회의 진행 여부
- 영상의 경우 총 7회의 스태프 활동을 운영하였고, 사전·사후 모임까지 9회의 운영 관련 논의를 하였음.
- 청소년 스태프의 보조 인력 참여 횟수
- 7명의 스태프가 총 56회 참여
- 지역 사회 인프라로서의 기능 수행 평가 수치
- 기능 수행에 관한 평가 수치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으며, 사후 질적 인터뷰를 통해 변화를 볼 수 있었음.
- 스태프 참여 아이들은 자신의 성장을 느꼈으며, 자기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경험을 긍정적으로 해석했음. 구체적 답변 사례로 "언기를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알려주면서, 저 또한 다른 애의 언기를 보면서 잘못된 부분이 저한테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제 자신도 돌아보게 되는 계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카메라 끼우는 법이랑 찍는 법이랑 알려줬을 때 좀 뿌듯했어요" "스태프로 참여해가지고 이제 익숙함도 어느 정도 있고, 새로운 애들도 가르쳐주고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고 하니깐 제가 좀 이제 스태프답다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등의 응답을 함.

성과 목표 5.	평가 지표	측정 도구	평가 방법
청소년 진로 교육 및 인턴십 관련 지역 사회 인프라 협력	· 공동 사업 진행 여부 · 협력 체결 기관 수	· 참여자 활동 일지 · 참여자 활동 사진 · 협력 기관 목록	협력 기관의 수 계수
평가 결과			
부천시민미디어센터, 부천교육지원청, 세상을 품은 아이들, 부천만화영상진흥원, 원미·춘의 네트워크 11개 기관과 사업 일정을 공유, 조정 작업을 실시함.			

IV. 사업 성과

본 사업에서는 빈곤 가정 청소년들이 빈곤한 물리적, 경제적 환경에서 성장하더라도 부모의 가난을 물려받지 않도록 참여 청소년의 진로 탐색 과정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청소년들은 신청서 제출, 면접 심사, 오리엔테이션, 적성 검사 등 프로그램 초기 부분에 여러 가지 단계와 시간이 소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업 시작 때마다 단기간에 참여자를 모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청소년들에게 진로 영역 탐색이 필요한 욕구였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3년간 60여 명이 본 사업에 참여해, 만화 분야에서는 9명이 웹툰 만화로 등단하였고 3권의 만화책을 발행하였다. 영상 분야에서는 청소년들의 작품이 부천시민영화제, 전국청소년미디어영상제, 부천시민미디어페스티벌 상영작 및 개막작으로 선정되었으며, 3차 연도 참여자의 작품은 지역 방송국에서 방영을 기다리고 있다. 공연 기획 분야에서는 포트폴리오로 미니 앨범을 제작하였다. 또한 참여자 중 관련 학과로 대학에 진학한 청소년이 4명, 관련 직업으로 진로를 결정한 청소년은 15명이었다.

또한 지역 사회가 가진 강점을 청소년 진로 탐색에 투입하고자 총 16개 기관과 협력해 인턴십을 진행하였고, 17개 기관과 공동 사업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가 청소년의 진로 탐색 과정에 힘을 보태고, 함께 고민하는 계기를 조성하였다.

V. 향후 계획

삼성복지재단의 지원을 받아 3년 동안 본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제 지원은 종료되지만 아이들의 성장은 멈출 수 없기에, 지역 사회 내 기관 및 자원처를 탐색하고 위어 지역 사회 전체가 아이들의 진로 진도의 장이 되는 그 날까지 아래와 같은 작업을 지속해 갈 것이다.

첫째, 지역 사회에 위치한 작업장들을 직접 방문하고 직업인을 만나 직업 체험을 하여,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을 전달한다. 둘째, 지역 사회 내 강점 체계 인프라를 활용한 인턴십(실습 과정)에 청소년이 참여하여 해당 직업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해 볼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지역 사회 내 기업과 기관, 주민들이 청소년 진로와 직업에 대한 교육의 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원을 발굴하고 네트워크를 촘촘히 다져, 지역 사회를 청소년의 삶의 터전이자,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역량을 펼칠 기회의 제공처로 만들고자 한다.

20대 정신 장애인들의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Sam College”



태화샘솟는집 박상준

I. 프로그램 실시 배경

최근 미디어와 인터넷을 통해 정신 장애에 대해 알려지면서, 중고생 때 해당 질환이 발병하여 대학교로 진학하지 못하고 병원과 가정에만 머물던 환자들이 사회로 나와 이용할 수 있는 기관과 서비스를 찾고 있다. 본 기관에 등록된 만성 정신 질환 이용자 150명 중 20대 정신 장애인(만 29세까지)은 17명으로, 신규 등록 회원들 중 20대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본 기관을 이용 중인 20대 정신 장애인 회원들은 다양한 욕구가 있으나, 기관에서 진행 중인 기타 프로그램들과 취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으며 학업·여가 활동 등에 대한 다양한 개인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다.

II. 프로그램 개요

1. 목적

태화샘솟는집을 이용하는 20대 정신 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경험해보지 못한 대학 생활을 간접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교육, 취업, 다양한 대인 관계 기회를 접함으로써 20대에 정립해야 할 정체감과 소속감을 얻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목표 및 하위 목표

“Sam College” 프로그램을 통해 20대 정신 장애인이 장애 때문에 접할 수 없었던 대학 생활을 간접적으로 경험함으로써 교육과 취업 기회를 제공받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대인 관계 능력을

향상한다. 또한 샘대 입학식, 전체 MT, 동아리 활동, 농활, 축제 등의 활동을 통해 환자가 아닌 20대 대학생으로서의 정체감을 수립하고, 정신 장애인이라는 자기 낙인감을 해소해나감으로써 참여자들이 떳떳이 지역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며 진정한 의미의 사회 통합과 사회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목표 1. 샘대 강좌 수강을 통해 20대 대학생으로서의 정체감을 부여한다.

- 하위 목표 1-1. 샘대 강의 출석률 70% 이상
- 하위 목표 1-2. 참여자 강의 3개 이상 수강
- 하위 목표 1-3. 샘대 강의 평가 점수 80점 이상
- 하위 목표 1-4. 자아 존중감 변화율 측정

목표 2. 샘대 학교 생활을 통해 대인 관계 능력 및 소속감을 향상한다.

- 하위 목표 2-1. 사회적 지지 척도 점수 변화율 측정
- 하위 목표 2-2. 자아 정체감 척도 점수 변화율 측정

목표 3. 직장 체험 활동을 통해 실제 참여자의 취업 경험 및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 하위 목표 3-1. 참여자 취업 경험 1회 이상
- 하위 목표 3-2. 자기 효능감 척도 점수 변화율 측정
- 하위 목표 3-3. 샘대 학생을 위한 취업장 1곳 이상 개발

목표 4. 정신 건강 교육을 통한 증상·약물 이해도 증가 및 가족 부담을 감소한다.

- 하위 목표 4-1. 정신 건강 이해도 변화율 및 프로그램 만족도
- 하위 목표 4-2. 가족 부담 척도 점수 변화율 측정

3. 프로그램 대상

대상 구분	산출 근거	인원 수
주된 참여자	태화샘솟는집 20대 정신 장애인 중 참여 희망 회원	23명
주변 참여자	· 샘제(샘대 축제) 참여 대상자 - 태화샘솟는집 이용 회원 및 직원, 고용주, 자원봉사자	88명

III. 프로그램 진행 및 평가

1. 세부 프로그램 진행 내용

프로그램	일정	횟수	세부 내용	수행 방법
홍보·접수	1, 8월	6회	기관을 이용하는 20대 정신 장애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소개	· 기관 내부 홍보지 부착 · 기관 전체 회의 시 "Sam College" 공지 및 참여 유도
샘대 운영 위원회 개최 및 활동 계획 수립	2, 8월	4회	"Sam College" 참여 회원들과 운영 방법에 관한 회의 진행	· 기관 내부 소식지를 통해 모임 일정 공지 · "Sam College" 참여 인원들과 함께 모여 강의 과목 및 시간표 선정 · "Sam College" 참여 시 지켜야 할 규칙 공지
샘대 입학식	3월	1회	"Sam College" 1학기 참여 회원 입학식	· "Sam College" 참여 회원, 강사, 태화샘솟는집 직원, 이용 회원 모두 참여해 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입학 축하함.
'열공 샘대' 샘대 학기 운영	3~6월	60회기	· 1학기 강의 진행 - 전공 강좌: 제과 제빵 - 교양 강좌: 일본어, 영어, 탁구 - 특별 강좌: 성교육, 정신 건강 강좌, 취업 준비 교육, 예절 교육 - 중간 및 기말 평가	· 전공 강좌: 8회기 · 교양 강좌: 31회기 · 특별 강좌: 13회기 · 중간 및 기말 평가: 각 과목별 2회기, 총 8회기 · 수강 신청 과정을 거쳐 각 참여자별 3과목 수강
	8~12월	72회기	· 2학기 강의 진행 - 전공 강좌: 컴퓨터 자격증반, 바리스타 - 교양 강좌: 캘리그래피, 영어, 탁구 - 특별 강좌: 성교육, 정신 건강 강좌, 취업 준비 교육 - 중간 및 기말 평가	· 전공 강좌: 22회기 · 교양 강좌: 38회기 · 특별 강좌: 2회기 · 중간 및 기말 평가: 각 과목별 2회기, 총 10회기 · 수강 신청 과정을 거쳐 각 참여자별 3과목 수강
수료식	12월	1회	"Sam College" 참여 회원 수료식	· "Sam College" 참여 회원, 강사, 태화샘솟는집 직원, 이용 회원 모두 참여해 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수료를 축하함. · 졸업 가운 및 학사모를 대여해 졸업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졸업장, 성적표, 졸업 앨범을 제작하여 지원함.
평가모임	7, 12월	4회	· 참여 회원 평가 모임 · 참여 강사 평가 모임	· 각 학기 종료 일정에 따라 평가 모임 진행 · 특히 12월 평가 모임은 참여 회원들을 대상으로 참여 의의 및 느낀 점을 나누고, 2017년 진행 방향을 논의함. · 참여 강사들과 평가 모임 - 강의 시 개선할 점과 만족스러웠던 점에 대해 공유 - 2017년 "Sam College" 진행 방향 논의

프로그램	일정	횟수	세부 내용	수행 방법	
샘밀리가 났다	오전·오후 회의	1~12월	2,600회	매일 오전·오후 회의에 참여, 업무 수행(주 5회)	참여 회원들이 태화샘솟는집 각 부서에 속해 부서 회의 참여 후 업무 수행
	동아리 활동	3~6월 (1학기)	61회기	· 악기 교육 - 일렉 기타, 베이스 기타, 키보드, 드럼 강의 진행 · 밴드 공연 - 국립정신건강증진센터 공연	· "Sam College" 참여 회원들이 수강 신청 기간 중 4가지 악기 중 한 가지를 선택, 한 학기동안 배움. · 한 학기 동안 악기를 배운 결과를 중간·기말 고사에 평가하고, 각 학기별 1회 이상 공연해 보람을 느낄 기회 제공
		8~12월 (2학기)	52회기	· 태화샘솟는집 행복한 저녁 밴드부 공연	
	MT	4, 10월	3회	· 1학기 MT - 광화문에서 1박 2일로 진행(8명 참여) · 2학기 MT - 제주도에서 2박 3일로 진행(6명 참여) · 2학기 소풍 - 놀이공원 당일 여행(7명 참여)	· "Sam College" 회원을 대상으로 학기별 1회 이상 MT 및 여행을 계획하고 진행함. 특히 참여 회원의 욕구에 맞춰 장소 및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진행하여 만족도가 높았음.
	새내기 이꿈이 + 따름이	연중	20회	· 1, 2학기 과정 중 편입한 회원을 대상으로 기존 활동 회원들이 강의 시간, 강의실 위치 등 안내	· 각 학기 1회씩 편입 과정을 진행, 신규 참여 회원의 강의 수강 및 일정 공유를 돕고자 기존 참여 회원들이 '이꿈이'가 되어 챙겨주도록 지원함.
	운동회	4, 5월	2회	· 4월: 1학기 체력 검정 · 5월: 동대문에서 체육 대회	· 1학기 체력 검정 - 건강 상태 점검 계기 마련 · 5월 체육 대회 - 참여 회원들이 함께 즐기는 시간을 마련함.
샘솟는 열정	샘제 ("Sam College" 축제)	12월	1회	축제에 고용주, 자원봉사자, 후원자 등을 초대해 사업 공유	· 고용주, 자원봉사자, 후원자 등과 함께 식사하며 밴드부 공연, "Sam College" 연간 사업 보고를 함.
Step by Step (SBS)	직장 체험	연중	11회	참여 회원들의 욕구에 맞추어 취업의 기회를 제공	· 1, 2학기 참여자 23명 중 11명이 취업을 경험하는 기회를 가짐.
	직장 체험 사업체 개발	연중	20곳/23개 포지션	다양한 사업체, 업무를 개발하여 취업 욕구가 있는 참여자들이 취업 기회를 경험하도록 지원함.	· 패밀리 레스토랑, 카페, 마트 등 사업체 20곳, 23개 포지션을 신규 개발, 취업 기회 제공
정·약·용 Study	정신 건강 강좌	4, 6, 11월	3회	· 참여 회원 대상 정신 건강 강좌 진행 · 가족 대상 정신 건강 강좌 진행	· 참여 회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약물 복용, 증상, 진단명, 지원 방법'에 대해 교육함. · 소규모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그동안 갖고 있던 고민을 해소하는 시간이 되었음.
	소식지 발송	1~12월	12회	매월 1회 샘대 월간 소식지 발송	매월 소식지를 발송해 사업 진행 과정 및 소식을 대해서 공유하는 기회가 되었음.

2. 과정 평가

1) 열공 샘대

프로그램	목표량	산출량	평가 결과
홍보·모집	연 1회	연 6회	· 각 학기별 3회 이상 홍보해 목표했던 12명의 참여 회원을 모두 모집 · 학기 중 취업 및 건강상 사유로 종결한 참여자가 발생, 편입 과정을 홍보하고 추가 인원을 모집해 매 학기 회원 12명 이상이 참여함. · 150인 시설인 태화샘솟는집 이용 인원을 대상으로 학기별 3회씩 "Sam College"를 홍보하고 각 부서별로 참여할 수 있게 안내함.
샘대 운영위원회 개최 및 활동 계획 수립	연 4회/10명	연 4회	· 각 학기별 2회기의 준비 모임을 통해 수강 과목 안내 및 수강 신청 과정, 학기 진행 과정, 지킬 규칙에 대해 안내함. · 취업, 외래 진료 등으로 참여가 어려운 회원을 제외하고 모두 참여해 의견을 나눔.
샘대 입학식	연 1회/10명	연 1회	취업으로 참여하지 못한 2명을 제외한 10명의 회원이 참여하였으며, 강사, 직원 및 회원들이 함께 축하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짐.
샘대 학기 운영 '열공 샘대'	연 166회/10명	연 114회	· 1학기 8과목(3~6월), 2학기 9과목(8~12월)으로 총 212회기 강의 진행 · 참여 회원 1인당 밴드 악기 1과목을 포함해 총 4과목 수강 신청을 하여 강의에 참여했으며, 연 인원 772명이 강의에 참여하였음.

2) 샘밀리가 났다

프로그램	목표량	산출량	평가 결과
오전·오후 회의	주 5회/10명	주 5회	· 참여 회원들은 각 부서에 소속되어 오전·오후 부서 회의를 진행하고 각자 자원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 수행 과정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법에 대해 배움. · 1, 2학기 참여 인원 23명이 모두 오전·오후 회의에 참여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음.
동아리 활동	연 20회/10명	연 113회	· 12명의 참여자가 4가지 악기 강의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참여하였으며, 총 16주간의 강의 계획을 가지고 진행함. · 기관 및 강사 사정으로 16회기 전체가 진행되지는 않았으나 1학기 61회기 연 인원 116명, 2학기 52회기 연 인원 111명이 참여하였음.
MT	연 1회/10명	연 3회	· 참여 회원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총 3회의 MT 및 소풍을 진행하였음. - 4월 : 광화문 1박 2일 MT, 8명 참여 - 10월 : 제주도 2박 3일 MT, 6명 참여 - 11월 : 당일 소풍, 7명 참여
새내기 이꿈이 + 따름이	연 6회/5명	연 6회	· 1학기 편입 과정을 통해 3명의 신규 참여자가 5월부터 강의에 참여해 함께 활동하였으며, 2학기 편입 과정을 통해 2명의 신규 참여자가 11월부터 강의에 참여해 함께 활동함. · 새로 편입해 들어온 참여자들을 위해 기존 활동 회원들이 강의 시간, 강의실 등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담당하였음.
운동회	연 1회/10명	연 1회	4월 체력 검정, 5월 체육 대회를 진행하였으며, 태화샘솟는집 전체 체육 대회에는 1학기 참여 회원 12명이 모두 참여하였음.

3) 샘솟는 열정

프로그램	목표량	산출량	평가 결과
샘제 ("Sam College" 축제)	기획 회의 1회	기획 회의 3회	각 부서 담당자들이 모여서 '샘제(주제 : 감사합니Day)' 주제 선정 및 진행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준비 모임 3회	준비 모임 3회	11월 2째주부터 주 1회씩 모여 "Sam College" 활동 보고, 밴드부 공연, 소감 발표 등의 프로그램 계획·준비 시간을 가짐.
	홍보 물품 제작 1회	홍보 물품 제작 1회	· '샘제' 행사 홍보용 포스터를 제작해 각 부서 및 엘리베이터에 부착함 · 내부 소식지에 행사 일정을 공지함.
	샘제 진행 1회	샘제 진행 1회	그동안 함께하며 도움을 준 고용주, 자원봉사자, 후원자들을 저녁에 초대해 감사를 표하고 1년간 진행한 "Sam College" 사업에 대해 공유함. 참여 회원 소감 발표와 함께 밴드부 공연을 진행
평가 회의 1회	평가 회의 1회	"Sam College"를 계획하고 준비·참여한 담당자들이 모여 평가하는 시간을 가짐.	

4) Step by Step(S.B.S)

프로그램	목표량	산출량	평가 결과
직장 체험	연 1회/10명	연중	"Sam College" 프로그램에 참여한 23명중 11명이 취업에 참여함.
직장 체험 사업체 개발	연 1회/1곳	연 20회	2016년 한 해 동안 총 20곳의 사업체가 개발되었으며, 23포지션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

5) 정·약·용 Study

프로그램	목표량	산출량	평가 결과
정신 건강 강좌	연 8회/68명	연 3회/20명	· 기존 학기별 학생 교육 2회, 보호자 교육 2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기관 및 진행 강의 일정에 따라 8회기 진행이 어려웠음. · 1학기 2회(참여자, 보호자 각 1회), 2학기 1회(참여자)의 소규모 교육이 되었음. · 이 외에도 추가로 기관 전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2회기의 정신 건강 강좌 교육에 참여하였음.

3. 효과 평가(과정 평가로 측정된 목표를 제외한 척도 기반 평가 결과)

1) 양적 평가

목표 1. 선행 강좌 수강을 통해 20대 대학생으로서의 정체감을 부여한다.

성과 목표 1-1.	성과 지표	자료원	자료 수집 방법
선행 강의 출석률 70% 이상	출석 여부	"Sam College" 참여 회원	출석부

평가 결과

일본어, 제과, 베이스, 영어, 드림, 체육, 일렉 기타, 키보드, 영어, 캘리그라피, 베이스 기타, 바리스타, 컴퓨터 등 1, 2학기 총 17과목의 강의를 진행했으며, 중간 종결한 인원을 제외하고 전체 강의 평균 출석률은 87.1%로 참여자 대부분이 성실하게 강의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었음.

성과 목표 1-2.	성과 지표	자료원	자료 수집 방법
참여자 강의 3개 이상 수강	강의 수강 여부	"Sam College" 참여 회원	출석부

평가 결과

"Sam College" 1, 2학기에 참여한 연 인원 27명(실 인원 23명) 중 1학기 편입자 2명, 2학기 편입자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4과목씩 정하여 수강하였음.

성과 목표 1-3.	성과 지표	자료원	자료 수집 방법
선행 강의 평가 점수 80점 이상	출석 여부	"Sam College" 참여 회원	출석부

평가 결과

취업 및 입원 등으로 강의에 참여하지 못한 인원을 제외하고 각 과목별로 마지막 강의에 참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의 평가를 진행함. 총 6과목을 평가했으며 각 과목별 전체 평가 점수 평균은 90점이었음. 소규모 인원으로서 진행한 밴드 악기 강의 중 키보드, 일렉 기타 및 일본어 강의에 대한 평가 점수가 상대적으로 여러 명이 배우는 강의에 비해 평가 점수가 높아, 소규모 강의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성과 목표 1-4.	성과 지표	자료원	자료 수집 방법
자아 존중감 변화율 측정	자아 존중감 척도	"Sam College" 참여 회원	자아 존중감 척도

평가 결과

- 자아 존중감 척도 : Rogenberg(1965)의 척도를 이훈진 등(1995)이 번안한 것을 사용함. 자기 존중 정도의 자아 승인 정도를 측정함. 척도는 1점부터 4점까지 4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 존중감 정도를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참여 인원 중 1, 2학기에 모두 참여한 5명을 대상으로 자아 존중감 척도를 통해 사전·사후 측정된 결과 사전 평균 3.14점에서, 사후 평균 3.20점으로 약 1.91% 증가함.
- 이에 프로그램 사전·사후 부부 역할 수행 정도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 통계적 검증을 실시함. 본 프로그램의 경우 사례 수가 30사례 미만으로 비모수 검증 방법 중 하나인 Wilcoxon 검증을 시행함.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는 프로그램 사전·사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Z=-0.408$) "Sam College" 참여를 통해 자신의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는 기회가 되었음.

목표 2. 선행 학교 생활을 통해 대인 관계 능력 및 소속감을 향상한다.

성과 목표 2-1.	성과 지표	자료원	자료 수집 방법
사회적 지지 척도 변화율 측정	사회적 지지 척도	"Sam College" 참여 회원	사회적 지지 척도

평가 결과

- 사회적 지지 척도 : 황윤경(1996)이 박지원(1985)의 사회적 지지 척도 중 간접적으로 지각한 사회적 지지 척도를 수정하여 표준화된 질문지를 사용함. 개인이 사회적 지지를 얼마나 제공받는다고 느끼는지에 대해 1점부터 5점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였음.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참여 인원 중 1, 2학기에 모두 참여한 5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 척도를 통해 사전·사후 측정을 한 결과 사전 평균 3.48점에서, 사후 평균 3.58점으로 약 2.87% 증가율로 나타남.
- 이에 프로그램 사전·사후 부부 역할 수행 정도의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 통계적 검증을 실시함. 본 프로그램의 경우 사례 수가 30사례 미만으로 비모수 검증 방법 중 하나인 Wilcoxon 검증을 시행함.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는 프로그램 사전·사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Z=-0.674$),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던 참여자들이 "Sam College" 참여를 통해 강의를 듣거나 여행하며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친구를 사귀는 계기가 만들어지면서, 사회적으로 지지받고 있음을 느낄 계기가 된 것으로 판단됨.

성과 목표 2-2.	성과 지표	자료원	자료 수집 방법
자아 정체감 척도 점수 변화율 측정	자아 정체감 척도	"Sam College" 참여 회원	자아 정체감 척도

평가 결과

- 자아 정체감 척도 : Dignan의 자아 정체감 척도를 서봉연(1975)이 번안한 것을 토대로 박아청(1996)이 개발하고, 박아청(2003)이 수정 보완한 '한국형 자아 정체감 검사' 중 일부 문항을 발제한 질문지를 사용함. 척도는 1점부터 4점까지 4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 정체감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참여 인원 중 1, 2학기에 모두 참여한 5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 척도를 통해 사전·사후 측정된 결과 사전·사후 평균 모두 3.07점으로 변화는 나타나지 않음.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특히 사례 2의 경우 약 20%의 큰 증가율을 보였음.
- 이에 프로그램 사전·사후 부부 역할 수행 정도의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 통계적 검증을 실시함. 본 프로그램의 경우 사례 수가 30사례 미만으로 비모수 검증 방법 중의 하나인 Wilcoxon 검증을 시행함.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는 프로그램 사전·사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Z=-0.135$) 지속적인 "Sam College" 참여를 통해 참여자가 자신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볼 계기가 되었으며, 경험해 보지 못한 '대학생'으로서 과 점퍼를 입고 강의를 들으며, MT를 가는 등의 경험이 자아 정체감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목표 3. 직장 체험 활동을 통해 실제 참여자의 취업 경험 및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성과 목표 3-1.	성과 지표	자료원	자료 수집 방법
자기 효능감 척도 점수 변화율 측정	자기 효능감 척도	"Sam College" 참여 회원	자기 효능감 척도

평가 결과

- 자기 효능감 척도 : 정신 장애인의 정신 건강과 관련된 효능감 측정을 위해 Carpenello, Knight, Markowitz&Pease(2000)이 개발한 정신 건강 효능감 척도를 권자영(2010)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함. 척도는 1점부터 5점까지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효능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함.
- 참여 인원 중 1, 2학기에 모두 참여한 5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 척도를 통해 사전·사후 측정된 결과 사전 평균 3.16점에서, 사후 평균 3.40점으로 약 7.59% 증가율을 보임. 특히 사례 2는 약 32%, 사례 3은 24%의 큰 증가율을 보임.
- 이에 프로그램 사전·사후 부부 역할 수행 정도의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 통계적 검증을 실시함. 본 프로그램의 경우 사례 수가 30사례 미만으로 비모수 검증 방법 중의 하나인 Wilcoxon 검증을 시행함.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는 프로그램 사전·사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Z=-0.813$) "Sam College" 참여 중 과제나 중간·기말 시험을 경험하며 성취감을 얻고 강사 및 담당자, 주변의 참여자들에게 적극적인 지지를 받으며 활동한 것이 자기 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됨.

2) 질적 평가

연구 질문 1.	패러다임	자료 수집 방법	자료원	자료 수집 시기
샘대 참여자에게 샘대 활동은 어떤 의미인가?	내러티브 접근	· 심층 면접 · 포토 보이스	"Sam College" 참여 회원	12월
평가 결과				

· "Sam College" 참여 의미

- 2016학년도 1, 2학기 참여 회원 A: 인생의 터닝 포인트
"아무 의미 없이 샘집에 나오고 있었는데, 샘집에 나오는 이유가 생긴 것 같아요. 그냥 와서 업무만 하다가 있었는데, 이제는 공부도 하고 피아노도 하고 있었어요. 시험을 보니까 목표를 세우고 할 일도 있고, 그리고 나니까 다음 해에 하고 싶은 목표가 생기더라고요."

- 2016학년도 1, 2학기 참여 회원 B: 자아 실현 계기
"영어도 배우고 드림, 제과 제빵을 배웠는데 예전에 배웠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몇 명만 모여서 배우니까 왠지 더 잘 이해가 되는 것 같고, 잘 배웠다는 생각도 들어요. 해본 걸 다시 배워보니까 더 자신감도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안 배워본 컴퓨터 활용 능력도 배워봤거든요. 내년에는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도 따보려고요."

- 2016학년도 2학기 참여 회원 C: 스트레스 해소
"처음엔 별로 안 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괜찮았어요. 특히 드림 칠 때 스트레스가 다 풀려서 너무 좋았어요. 그동안 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드림을 배우기 시작하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풀렸어요. 내년에 샘대 하면 또 하려고요."

연구 질문 2.	패러다임	자료 수집 방법	자료원	자료 수집 시기
샘대 활동을 통해 본인이 달라진 변화는 무엇인가? 변화 이유는 무엇인가?	내러티브 접근	· 심층 면접 · 포토 보이스	"Sam College" 참여 회원	12월
평가 결과				

· "Sam College"를 참여하면서 얻은 변화는?

- 2016학년도 1, 2학기 참여 회원 D: 시야가 확장됨.
"나무보다 철이 훨씬 미래에 완성된 물질이잖아요. 튼튼하고,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이번에 샘대 참여하면서 배우고 놀러 다니고 하면서 개인적으로 도움도 많이 됐고, 스스로에 대해서 책임감도 많이 가지게 됐고, 예전에 고등학교도 다니고 대학교도 다니긴 했는데 샘대만의 색깔이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제주도에서 다른 사람들이랑 치킨 시켜서 나눠 먹으면서 과자 파티도 하고... MT 다운 MT라 너무 재밌었고 기억에도 남아요. 그래서 이번에 일본 워크숍 갔을 때 직업에 '학생'이라고 썼어요. 저 'Sam College' 학생이잖아요."

- 2016학년도 1, 2학기 참여 회원 A: 바이킹 타는 것처럼 재미있었음.
"샘대 하기 전에는 샘집 나오는 게 그냥 그저 그랬거든요. so so? 근데 샘대 하고 나서는 샘집 나오는 것도 재미있어지고 좋았어요. 특히 베이스 기타 배우면서 공연한 거랑, 체력 검정 했던 건 기억에 많이 남아요. 제가 대학생 같았어요."

- 2016학년도 2학기 참여 회원 E: 함께하는 사람이 생김.
"샘대 하기 전에는 혼자였어요. 그냥 이야기만 나누고 했는데 친한 느낌이 드는 사람들은 없었거든요. 근데 같이 공부하고 같이 놀러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하다 보니까 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샘집에서 끝나고 같이 치킨도 먹으러 가고 놀러도 가고 해요. 좋아요 정말."

IV. 사업 성과 및 제언

1. 사업 성과

"Sam College" 프로그램은 참여자 개개인에게 변화의 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대학이라는 틀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고, 무료하던 생활에 활기를 얻었다. 또한 강의 수강, 시험, MT, 졸업 가운을 입고 진행한 수료식 등 경험해보지 못한 대학 생활을 간접 경험하며 자기 자존감을 높일 수 있었다. 특히 '역할 변화'는 참여자들에게 가장 큰 변화를 가져왔다. 20대에 '환자'라는 역할만 가지고 태화샘솟는집을 이용하며 생활하던 참여자들은 "Sam College"에 참여해 수강 신청을 하고, 입학식을 하고, 강의를 듣고, 시험을 보는 과정에서 '학생'이라는 역할을 새롭게 얻었고, 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책임감도 생겼다. 태화샘솟는집 내부에서도 참여자들을 지속적으로 '학생'으로 지칭한 결과, 참여자들은 각자 '학생'으로서 새로운 목표를 잡아 2017년을 계획할 힘을 얻었으며, 좀 더 다양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게 되었다.

2. 제언

1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들에게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긍정적인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데는 대학 과정을 차용해 대학 문화를 간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 점, 프로그램 참여자 간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이 결정적이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본 프로그램은 20대에서 30대 초반 정신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기에 관계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때문에 추후 타 기관에서 본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참여자들의 욕구를 기반으로 한 강의 과목 선정, 참여자들의 관계 형성, 집단 응집력을 높이는 등의 과업을 충실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

V. 향후 계획

향후 기관 자체 예산을 편성해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회원 욕구에 따라 진행했던 2016년 "Sam College" 사업을 수정·보완해 2017년에도 진행하면서 참여자들의 의미 있는 관계를 증가시켜 참여자 자조 모임을 활성화하고, 인근 대학과의 연계 하에 해당 대학 강의실을 직접 찾아가 강의를 수강할 기회도 만들고자 한다.

실무자 소감

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 박정

다문화 가족의 양 문화 정체성 확립을 위한 프로그램을 1년간 함께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멘토 및 멘티 가족 봉사단들과 피드백을 나누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다문화 브릿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이전과 이후 삶의 인식이 확 변했다고 하던 참여자의 말이었습니다. 그분의 말처럼, 이 프로그램에 함께한 모두가 주어진 목표를 향해 한마음이 되어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어우러지는 장을 마련했다는 사실에 뿌듯합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고, 자신도 모르게 가질 수 있었던 편견에서 벗어날 계기를 마련할 수 있어 더욱 좋았습니다. 서로를 챙겨주며 생각해주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한층 더 성숙해진 아이들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흘러넘쳤습니다. 이와 같은 벽찬 기쁨으로 앞으로도 지역 사회 안에서 다문화 가정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삼종합사회복지관 이주형

지난 1년은 매 순간이 새로운 도전이자 의미 있는 변화의 기회였습니다. 먼저 경계선 지능 청소년들을 위해 힘써주신 삼성복지재단과, 지난 1년의 과정을 보다 알차게 꾸릴 수 있도록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임태영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팀 간사였지만 함께 고민을 나누며 마음으로 공감하고 격려해주신 5개 기관 선생님께도 고맙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평소 저희 복지관을 이용하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들이 학습 속도가 더디고 감정 표현이 서툴러 주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해를 사는 모습을 보면서부터였습니다.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경우 꾸준한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주기만 한다면 사회로 진출할 수 있지만, 현실은 보호자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외톨이가 되는 경우를 제 주변이나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솔하게 접했습니다. “나만의 ID”라는 명칭에서 멘토링 체험 활동 및 진로 체험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찾고, 집단 프로그램을 통해 좁게는 특수 학급, 넓게는 일반 학급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목표였습니다. 1년간의 과정만으로 본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이 자신만의 색깔을 온전히 찾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계기로 삼아 경계선 지능 청소년들이 떳떳하게 자립할 때까지, 함께 고민하고 활동하는 지역 사회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명종합사회복지관 이경민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인디언 속담처럼, 저는 항상 주민이 중심이 되어 변화되는 마을을 꿈꾸곤 했습니다. 그 안에서 아이들 또한 마을을 변화시키는 데 함께 주체적 역할로 참여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바라보는 우리 마을은 어떤 마을일까요? 어른이 바라보는 마을이 아닌 순수한 아이들의 눈으로 마을을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화합과 소통을 중심으로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한 공동체 형성에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중심이 되어 소통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이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의 제 생각이었습니다. 아이와 청소년, 주민이 만들어가는 마을 미디어 속에서 주민이 함께 표현하고, 관계망을 만들고 소통을 이끌어내고 싶었습니다. 더 나아가

아이들이 주민의 의견을 모으고, 마을의 공론장 역할도 해보면서 마을 언론 역할을 수행해보기를 바랐습니다. 올 한 해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마을에 대해 새롭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던 시간들은 그 첫 단추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과업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의 과정을 항상 잊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슈퍼비전을 주신 임태영 교수님을 비롯해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지지와 격려로 피어 슈퍼비전을 함께 나눈 박정 과장님, 이승영 선생님, 박상준 선생님, 이주형 선생님, 이예린 선생님들이 있었기에 저 역시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함께할 수 있어 정말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종합사회복지관 이예린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업을 수행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참여자 분들과 함께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극복하면서 모두가 같이 성장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성장하는 참여자 분들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문해주신 임태영 교수님, 각자 맡은 사업을 공유하며 바쁜 와중에도 더 나은 방향을 위해 함께 고민해주신 실무자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기회를 주신 삼성복지재단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춘의종합사회복지관 이승영

청소년 진로에 대한 부분은 학교와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도 이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진로 사업은 어떻게 달라야 할지 스스로 질문해보았습니다. 막상 아이들을 만나보니, 아이들에게는 ‘진로’보다 ‘현재 상황’이 더 문제였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꿈과 미래를 그려볼 수조차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결국 아이들이 처한 여러 문제들을 다른 기관 협조로 해결하고 정리하며 진로를 생각해보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쉽지 않았고, 여기에 실제 사업의 진행보다도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고민할 때, 자문 교수님께서 “복지 기관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든, 참여자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이해, 이들의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교수님의 사려 깊은 조언과 3년간의 삼성복지재단 지원에 힘입어, 아이들의 진로 활동에서 보다 많은 것을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인턴십 참여 경험을 살려 대학에 진학한 아이들도 4명이나 생겼고,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각자 원하는 분야로 진출할 준비 중입니다. 영상 부분에 참여한 한 남학생은 진로를 영상 편집으로 결정하였고, 인턴십에서 배운 편집 프로그램을 활용해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학교 UCC 동아리 리더로 각종 대회에서 수상하고 있습니다. 결실을 맺어가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저 또한 함께 성장해가는 느낌입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아이들의 진로 지원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태화샘솟는집을 개관 때부터 이용해온 중년 회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나는 일이라도 해보고 이것저것 경험도 해보고 병이 생겨서 그나마 괜찮지만, 지금 온 젊은 친구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아무것도 못 해보고 어려서 집이랑 병원에만 있다가 왔잖아.”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태화샘솟는집을 이용하는 20대 젊은 회원 분들이 “Sam College”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대학 문화를 경험해보며 함께할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나고, 배움의 시간을 다시 가져볼 수 있는 기회를 얻어 감사한 2016년을 보냈습니다. 2017년에는 조금 더 힘을 빼고 20대 정신 장애인들이 ‘더욱 대학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공감하며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귀한 시간을 내서 격려해주시고 슈퍼비전을 주신 엄태영 교수님, 간사로 수고해주신 부산 동삼종합사회복지관 이주형 선생님, 그리고 함께 1년 동안 수고한 우리 팀 선생님들께도 모두 고맙고 즐거웠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2016년의 경험이 정신 장애인들의 사회 복귀에 큰 역할을 할 머릿돌이 되도록 더 노력하는 정신 보건 사회복지사가 되겠습니다.

현장 사회복지사 시절 저는 한 번도 삼성복지재단 프로그램 지원을 받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기관에서 삼성복지재단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사들을 보면 마냥 부럽고 샘이 나기까지 했습니다. 외부 교수님들의 슈퍼비전을 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잠시 동안 다른 기관의 동료 사회복지사들과 공식적인 쉽까지 누릴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2016년 프로그램 자문 교수 제안이 왔을 때 오래전의 로망이었던 것처럼 별다른 고민 없이 수락했습니다.

그러나 자문 교수로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는 기대와 설렘은 잠시였고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어떻게 도움을 드릴지, 슈퍼비전 때마다 선생님들의 기운을 북돋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가 담당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서울, 부천, 대전, 대구, 부산 등지에 흩어져 있는 지리적 여건도 어려운 점 중 하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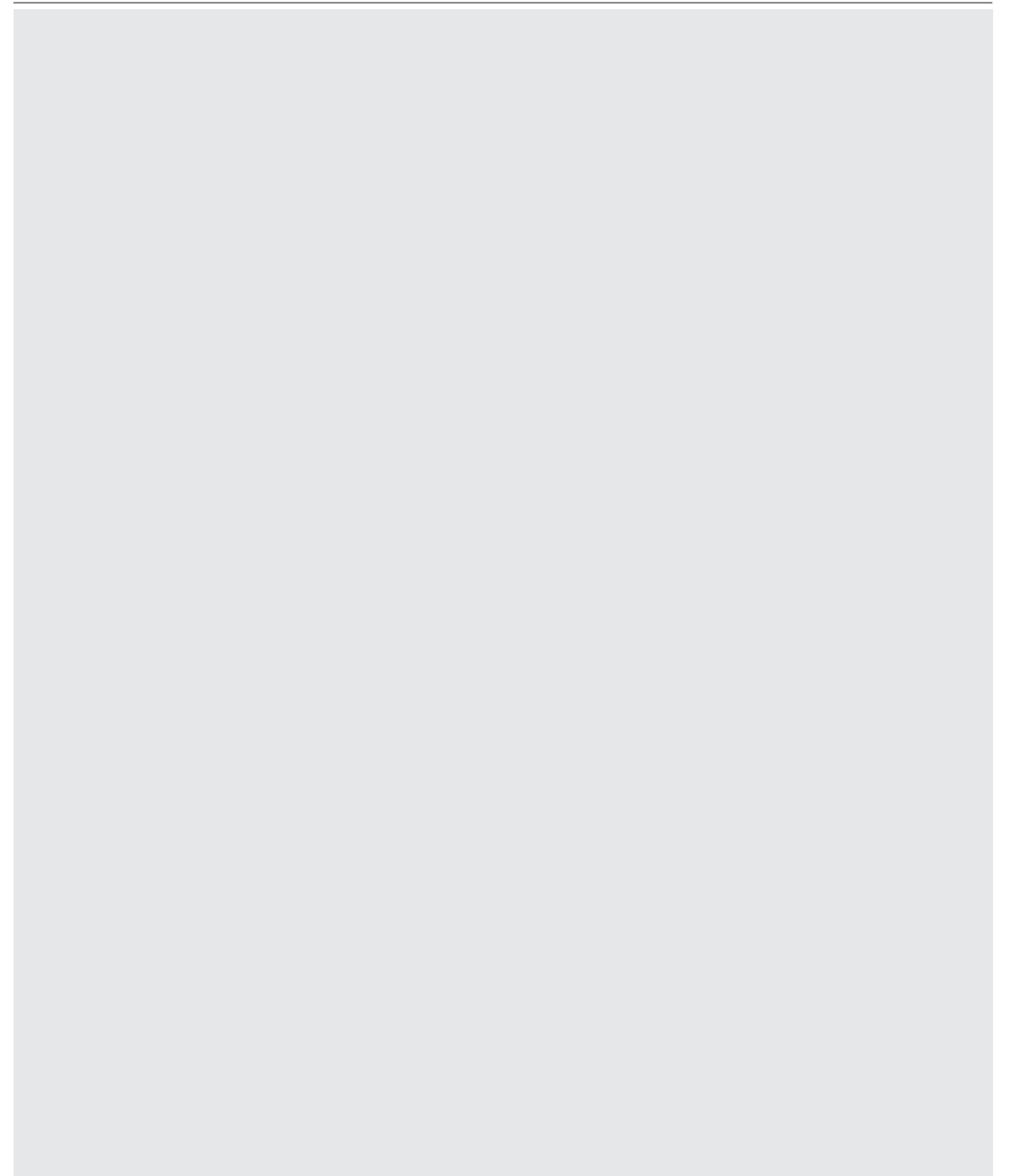
그런 설렘과 부담감을 잔뜩 지닌 채 대구에서 첫 번째 슈퍼비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과 만나자마자 오래 만나온 사이처럼 전혀 어색함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저와 선생님들 사이에는 사회복지사라는 공통점밖에 없었지만, 서로의 어려움을 듣고 프로그램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자 실천 지혜를 공유하며 좋은 선후배이자 동료 관계로 급진전되었습니다. 지리적 제한 탓에 두 달에 한 번 정도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그 외의 시간에 도움과 지지가 필요하다면 온라인상에서 언제라도 만남을 가졌습니다.

삼성복지재단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지원 사업은 어려운 심사 과정을 통과한 우수한 프로그램들이 현장에서 잘 수행될 수 있도록 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면서 슈퍼비전 모임을 체계화하여 왔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돌이켜보면, 자문 교수를 맡은 올해는 차근차근 계획된 프로그램들을 잘 수행하는 서로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와 선생님들이 함께 성장하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각자의 프로그램에서 놓치기 쉽거나 발견하기 어려운 점들을 서로 챙겨주면서 저를 포함한 일곱 명도, 여섯 가지 프로그램도 하나가 됨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보다 많은 슈퍼비전 시간을 가지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저도 바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지만, 그런 저보다도 훨씬 더 바쁜 선생님들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끼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올해가 삼성복지재단의 마지막 ‘작은나눔 큰사랑’ 사업이라는 점이 섭섭합니다.

이 지면을 빌어 한 해 동안 간사로 고생해주신 ‘부산 사나이’ 이주형 선생님, 큰언니 역할을 도맡았던 박정 과장님, 오래전 스승과 제자로 인연을 맺었던 이경민 과장님, ‘교회 오빠’ 박상준 선생님, 3년 연속 재단 지원을 받은 실력자 이승영 선생님, 그리고 막내 이예린 선생님, 모두 함께 해서 영광이었고, 저에게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삼성복지재단 팀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한 재단 관계자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4장



발달 장애인 자녀의 평생 설계 수립을 위한 부모 동료 지원(Parent Peer Support) 프로그램

“Future Planning 미리미리 2”



과천시장애인복지관 김광욱

I. 프로그램 실시 배경

발달 장애인과 부모(보호자)는 함께 나이 들어간다. 따라서 잘 계획된 보호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이상, 부모나 보호자의 노화로 인한 질병, 장애 또는 죽음으로 인한 부재는 발달 장애인에게 큰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닥칠 위기를 상쇄할 대책 중의 하나가 평생 설계 또는 평생 계획(Permanency Planning)이다.

발달 장애인의 노령기 문제가 점차 대두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평생 설계를 주도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은 전국 5개 미만이며, 전문가도 많지 않아 발달 장애인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많은 서비스와 프로그램들이 부모가 아닌 전문가의 주도로 진행되어 왔기에, 부모의 마음으로 장애 자녀의 생애 주기적 발달을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다.

발달 장애 자녀의 가장 훌륭한 교사는 바로 부모이며, 이들과 같은 마음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사람 역시 '발달 장애 자녀를 둔 부모'이다. 이러한 '동료 부모'는 다른 어떤 전문가보다 교육자, 상담자, 정보 제공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본 복지관의 2015년 평생 설계 프로그램 운영 결과, 전문가 특강과 워크숍 진행 과정에서 어떤 전문가의 피드백보다 장애 자녀 부모들에게서 공감을 얻고 상호 지지가 되었던 것은 동료 상담, 또는 동료와의 피드백이었다. 이에 같은 경험을 가지고 평등한 관계에서 긍정적 상호 작용을 끌어낼 수 있으면서, 이미 발달 장애 자녀의 평생 설계를 수립하고 이행 과정에 있는 선배 동료 부모들이 평생 설계 수립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을 지원하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II. 프로그램 개요

1. 목적

발달 장애 자녀의 평생 설계에 관심이 있는 부모(참여 부모, Refer Parent)와 평생 설계 수립 및

이행하고 있는 부모(지원 부모, Support Parent)를 매칭하여, 개별화된 평생 설계 수립 지원과 정서적 지지를 통해 부모 부재 및 사후에도 발달 장애인이 지역 사회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총체적 지지 체계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2. 목표 및 하위 목표

목표 1. 발달 장애인 자녀의 평생 설계 수립 지원을 위한 부모 동료 지원 가이드북을 제작한다.

하위 목표 1. 평생 설계서 작성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가이드북 제작을 위한 전문 자문단 3명을 구성한다.

하위 목표 2. 평생 설계서 작성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가이드북을 제작하고 적극 활용한다.

목표 2. 발달 장애 자녀의 평생 설계 수립을 지원할 수 있는 부모 동료 지원가 8명을 양성한다.

하위 목표 1. 평생 설계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모 동료 지원 양성 교육 8회기를 실시한다.

하위 목표 2. 부모 동료 지원가 역할 수행을 위한 상호 방향 합의를 위해 1박 2일간의 워크숍을 1회 실시한다.

하위 목표 3. 평생 설계 수립 지원을 위한 부모 동료 지원 슈퍼비전을 1인 5회 실시하여 어려운 점을 공유하고 각 활동 방향에 대해 검토한다.

목표 3. 부모 동료 지원가 8명과 참여 부모 16명이 1:1 개별 지원 평생 설계서를 수립하는 과정을 통해 상호 간 변화를 경험한다.

하위 목표 1. 평생 설계 수립 지원을 위해 지원 부모와 참여 부모 1:1 개별 지원을 1인 8회, 총 128회 실시한다.

하위 목표 2. 평생 설계서 이행을 위한 사후 관리 및 모니터링을 개인별 2회, 총 16회 실시한다.

3. 프로그램 대상

대상자 범위	개념적 범위	과천시 내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중·장년기 발달 장애인 부모
	기관 이용자	· 2011~2015년 과천시장애인복지관에 등록된 발달 장애인 부모 · 2015년 삼성복지재단 사회복지 프로그램 참여자
대상자 구분	주된 참여자	· 지원 부모(Support Parent) - 2012~2015년 평생 설계 프로그램에 참여한 바 있으며 평생 설계서 이행을 지속하고 있는 부모 - 발달 장애인 자녀의 평생 설계 수립과 이행을 선행한 경험이 있어, 참여 부모의 평생 설계 수립 과정에서 상담가, 교육자,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모 · 참여 부모(Refer Parent) - 평생 설계 수립에 관심 있는 발달 장애인 부모
	주변 참여자	· 장애 자녀와 비장애 형제 · 주된 참여자가 아닌 참여자의 부모 · 그 외 가족 구성원

대상자 선정 방법	홍보 전략	· 과천신문, 복지관 내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기존 상담에 근거하여 본 사업이 필요한 이용자 부모에게 개별 홍보 · 평생 설계 워크숍에 참여했고 지금도 자조 모임으로 활동하는 부모들이, 관내 지역 사회 내 또래 부모들에게 안내서 배포 및 직접 설명 · 지역 내 공공 기관, 학교, 특수 기관, 통합 어린이집 등에 사업 리플렛 제작 및 배포
	접수 · 상담	· 전화 및 내방을 통해 사업에 관한 상담 실시 · 내방을 통해 프로그램 참여 신청서 작성 후 접수 - 장애 자녀 및 가족 파악, 평생 설계 일정 정하기 · 접수한 부모를 대상으로 사전 오리엔테이션 실시 · 사업 안내서 준비
	선정 기준	· 지원 부모 - 평생 설계 프로그램 과정을 수료하고 이행 중인 부모 -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긍정적 변화를 경험한 부모 · 참여 부모 - 평생 설계에 관심이 있는 부모
	애로시 대처 방안	· 모집 기한 내 이용자 모집이 어려울 경우, 적극적인 홍보로 수시 모집해 진행하고, 실무자 네트워크망 활용 · 추진 과정에서 문제 발생 시 관련 전문가의 지속적 자문 구함.

4. 지향 가치 및 방향

동료 지원을 통한 발달 장애인 자녀의 안전한 미래 준비와 삶의 변화 추구

자녀가 미래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애 주기에 맞추어 준비할 수 있는 열정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같은 마음과 경험으로 살아가는 분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며 자신과 자녀의 삶을 한 차원 높이고, 프로그램 참여 과정을 통해 삶의 변화를 추구하고자 한다.

하위 개념 1	동료(Peer)
	‘Peer’는 동료라는 의미이며 동지라는 뜻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동료 간에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아 마음을 나누는 것이다. 그리고 그 동료도 같은 입장에 있어 같은 상황을 가지고 있으며 일정한 조건을 공유하고 있는 상태 또는 대상이 중요한 요점이며 누구든지 ‘Peer’와 ‘카운슬러’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장애를 가진 입장을 공유하고 있어 동료 상담을 사용하여 동료 간에 자립 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 동료 상담이 있다(아사카 유희, 2001). 마찬가지로, 장애 자녀를 둔 부모도 다른 부모와 같이 같은 신발을 신고 걷는 것과 같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통해 자신의 감정이 정상인 것을 배우고 미래를 위한 희망을 얻고 유사한 경험에 기초하여 공평한 관계에 있어 상호 지원할 수 있다.
하위 개념 2	동료 지원 부모의 ‘HELPING’
	Keat(1976)가 동료 상담을 명시하기 위해 제시하고 있는 ‘도움(helping)’의 개념이 모든 프로그램 과정 안에서 녹아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즉 평생 설계를 수립하는 1 : 1 매칭 과정 안에서 지원 부모(Support Parent)가 아래와 같은 개념을 잊지 않도록 한다. - H(help)는 돕는 것 - E(empathy)는 공감하는 것 - L(learning)는 배우는 것 - P(peers, people and problem)는 동료들, 사람과의 문제 - I(interests or self-image)는 흥미 또는 자기 이미지 - N(needs)는 욕구 - G(giving guidance)는 가이드를 해주는 것

하위 개념 3	안전한 미래를 위한 생애 주기 맞춤형 준비
	안정되고 양질의 삶을 이루기 위한 노력은 삶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논의로 확대되고 있다. OECD는 창설 50주년을 맞이하여 행복 지수를 주거 환경, 소득, 일자리, 공동체 생활, 교육, 환경, 정치 참여, 건강, 삶의 만족도, 치안, 일과 삶의 균형 등 11개로 제시하였고, 2011년 한국 통계청의 ‘국민의 삶의 질 측정’에서는 개인과 사회적 관계, 환경적 차원에서의 지표가 개발되었으며 개인적 차원에는 주관적 웰빙, 소득 · 소비, 고용 · 임금, 복지, 주거, 교육, 건강에서의 접근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 나라의 문화와 환경에 따라 지표의 차이는 있으나 안정적인 삶을 측정하기 위한 개인적 차원의 접근은 소득 재정, 문화 여가, 보건 의료, 주거, 직업 등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WHO(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삶의 질이란 “각 개인이 살고 있는 문화권, 가치 기준 안에서 자신의 목표, 기대, 규범, 관심과 관련된 자신의 상태에 대한 개인적 지각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삶의 질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에 대한 접근은 각자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개별적 특성이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양질의 삶을 위한 활동은 전문가 및 서비스 제공자 중심이 아닌 삶을 주체적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노력이 전제되었을 때 가능하며, 복지 서비스 제공 시에도 당사자를 수혜자가 아닌 주체자로 인식하여 당사자의 권리 향상을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진정한 삶의 질 양상을 위해서는 개인의 환경과 경험을 넘어 다양한 공동체와 관계를 형성하고 삶의 공유를 할 수 있어야 한다(성민사회복지연구소 · 성민복지관, 2013).
하위 개념 4	삶의 변화 추구
	평생 설계를 수립한 경험이 있는 부모(지원 부모)와 참여 부모와의 매칭을 통해 목표 설정을 분명히 해주고, 함께하는 과정 자체를 통해 신뢰 관계를 유지하고 상호 간 개인의 특성과 역량을 개발하고 자기 인식을 통해 삶의 변화를 추구하도록 한다.

Ⅲ. 프로그램 진행 및 평가

1. 세부 프로그램 진행 내용

프로그램	일정	횟수	세부 내용	수행 방법	
평생 설계 가이드북 제작 회의	전문가 섭외	3월	2회	· 가이드북 제작을 위한 자문단 구성 · 3명 자문 위촉	· 평생 설계 영역별 전문가 섭외를 위한 내부 슈퍼비전 · 자문 위촉 승낙서 발송 및 유선 연락 · 평생 설계 영역별 자문 위촉
	전문가 자문 회의	4월	8회	가이드북 제작을 위한 자문	· 가이드북 제작을 위한 자문 회의 일정 조율 · 자문 회의 일정 조율에 어려움 있어 개별 자문으로 진행
평생 설계 가이드북 제작	가이드북 제작	4월	1회	가이드북 50부 제작	· 관내 정보화 교육 담당자에게 표지 디자인 의뢰 · 관장 발간사 의뢰 · 가이드북 수정 · 보완 · 가이드북 제작

프로그램	일정	횟수	세부 내용	수행 방법	
부모 동료 지원 교육	동료 지원 부모 모집	3월	5회	· 동료 지원 부모 모집 홍보 (복지관 홈페이지 및 관내 게시판, 전단지 배포) · 13명 모집	· 복지관 내 게시판, 홈페이지 모집 공고 게시, 홍보물 배포 · 기존 평생 설계 참여자에게 유선 연락 · 동료 지원 활동 희망자 유선 및 내방 접수
	오리엔테이션	4월	1회	· 오리엔테이션 진행 · 13명 참석	· 오리엔테이션 일정 조율 · 동료 지원가 양성 과정의 이해 교육 및 향후 일정 조율 · 프로그램 참가 신청서 작성
	양성 교육	4~5월	14회	· 가이드북을 활용하여 평생 설계 동료 지원 활동 안내 및 실제(첫 만남, 자녀의 꿈 찾기, 돌보는 이를 위한 지침서, 생애 주기별 평생 설계 수립) 교육 · 96명 참석(연 인원)	· A, B 2그룹으로 나누어 그룹 별 각각 7회기, 총 14회기 교육 · 가이드북을 활용한 영역별 이론 교육, 동료 지원 시 접근 방법에 대한 논의 및 합의를 교육 · 재정 영역은 해당 전문 강사를 섭외해 통합 진행 · 참여자 전원 돌보는 이를 위한 지침서 및 평생 설계서 완성
	1박 2일 워크숍	6월	2회	· 동료 지원 부모 양성 과정 평가회 및 심 프로그램 (체험, 관람) 진행 · 장소 - 서울 북촌, 삼청동 · 동료 지원 부모 12명, 자녀 4명 참석(총 16명)	· 양성 교육 과정 중 워크숍 일정 · 장소를 논의하고 욕구 반영 · 현장에서 동료 지원가 양성 과정 수료식 및 평가회 진행 · 돌보는 이를 위한 지침서 및 평생 설계서 제작, 배부
동료 지원 부모 슈퍼비전	슈퍼비전	9~11월	33회	그룹별 최소 2회~최대 5회 진행	첫 만남 시 진행, 평생 설계서 활용 방법, 일지 작성 등 동료 지원 과정 슈퍼비전
평생 설계 개별 동료 지원	참여 부모 모집	6월	5회	· 동료 지원 부모 모집을 위한 홍보 - 복지관 홈페이지 - 관내 게시판 - 리플렛 배포	· 복지관 내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모집 공고 게시, 리플렛 제작 배포 · 동료 지원가가 거주하는 지역 및 이용 기관에 홍보 · 지역 학교 및 공공 기관 홍보 · 평생 설계 참여 희망자 유선 및 내방 접수
	워크북 제작	6월	1회	워크북 60부 제작(평생 설계 필요성 및 수립 과정, 학령기 교육과 직업 교육의 주요 쟁점, 워크북 활용 방법, 돌보는 이를 위한 지침서 및 평생 설계 수립 방법 수록)	· 워크북 제작을 위한 자문 · 자문 내용을 반영, 수정 · 보완 · 관내 정보화 교육 담당자에게 표지 디자인 의뢰 · 관장 발간사 의뢰 · 워크북 제작
	오리엔테이션	9월	1회	· 평생 설계 프로그램 안내 및 평생 설계 특강 · 27명 참석	· 오리엔테이션 일정 조율 · 평생 설계 특강 강사 섭외 · 평생 설계 특강 진행 · 프로그램 참가 신청서 작성 · 개별 동료 지원 일정 조율

프로그램	일정	횟수	세부 내용	수행 방법	
평생 설계 개별 동료 지원	지원 부모와 참여 부모 매칭	9월	1회	· 11그룹 매칭 - 지원 부모 11명 - 참여 부모 26명 · 지원 부모 1명 당 최소 1명~최대 5명의 참여 부모 매칭	· 지원 부모의 거주 지역 및 상황을 고려하여 참여 부모와 매칭 · 지원 부모에게 유선 연락하여 매칭 조율 · 지원 부모 · 참여 부모 매칭 확정
	개별 동료 지원	9~12월	288회	· 11그룹 운영 · 그룹별 최소 7회~최대 20회 동료 지원 · 평가회 25명 참석	· 그룹에 따라 1 : 1, 소그룹으로 동료 지원 · 그룹별 자조 모임 진행 · 돌보는 이를 위한 지침서, 평생 설계 학습과 더불어 과제를 함께 나누고 공감하며 장애 자녀를 이해하고, 평생 설계의 구체적 밑그림을 그린다. · 평가회 일정 조율 및 진행 · 그룹별 활동 소감을 나누며, 상호 지지 및 격려 시간 가짐.
평생 설계 사후 관리	사후 관리	12월	26회	동료 지원가 및 참여 부모 슈퍼비전	돌보는 이를 위한 지침서 및 평생 설계서 수정 · 보완에 대한 슈퍼비전

2. 과정 평가

프로그램	목표량	산출	평가 결과	
평생 설계 가이드북 제작 회의	전문가 섭외	3회/3명	3회/3명	평생 설계 영역별 전문 자문단 구성(호산나대학교 부학장, 행복촌장 미래설계연구소 소장, 마포푸르메직업재활센터 센터장), 위촉
	전문가 자문 회의	9회/9명	8회/8명	· 가이드북 및 워크북 제작을 위해 자문 회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일정 조정이 어려워 영역별 개별 자문을 받음. · 자문은 대부분 이메일, 전화, 방문으로 하였으며, 방문 시 노트북을 준비하여 원고를 함께 수정 · 보완하였음.
평생 설계 가이드북 제작	가이드북 제작	1회	1회	· 동료 지원 가이드를 위한 책자로 영역별 이론과 기록 방법, 점검 내용 등을 수록해 지원에 용이하도록 하였음. · 50부 제작
부모 동료 지원 교육	동료 지원 부모 모집	5회/8명	5회/13명	· 홍보물을 제작해 복지관 홈페이지 게시 및 관내 게시판에 부착 · 2015년 평생 설계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유선 연락해 홍보 · 2015년 평생 설계 참여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청하여 목표 대비 163%(13명) 모집
	오리엔테이션	1회/8명	1회/13명	· 신청자 13명 전원 참석함. · 동료 지원가 양성 교육에 대한 안내를 통해 참여 부모 대부분 이해도가 향상되었으며,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함. · 계획 인원보다 많이 모집되어 양성 교육 일정 조율에 어려움 겪음. - A, B 2그룹으로 나누어 8회기 교육을 팀별 4회(1회 교육 시 2회기) 진행하기로 함.

프로그램	목표량	산출	평가 결과	
부모 동료 지원 교육	양성 교육	8회/51명	14회/9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 교육 13명 신청자 중 12명 수료. · A그룹 목요일, B그룹 화요일 10~14시에 교육 진행했으며, 재정 영역은 외부 전문가 교육으로 통합 진행함. · 이에 팀별 7회기, 총 14회기 교육 진행하였음. · 당초 계획은 양성 교육 후 필기 시험을 통해 동료 지원 자격을 부여하려 했으나, 자격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무의미하니 과제 수행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는 자문을 받고 과제 수행으로 변경 진행함. · 양성 교육 시간마다 이론과 더불어 동료 지원 방법에 대해 논의· 합의함. 평생 설계의 경우 자녀 연령을 고려해, 전 영역을 계획하기보다 현 시점에서 가능한 영역까지만 수립하는 것이 현실적임을 공유하고, 동료 지원 시 적용하기로 함.
	1박 2일 워크숍	1회/8명	1회/1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 대비 200% 참여 · 양성 교육 초반, 워크숍 일정 조율이 어려워 진행 달과 장소만 확정하고, 구체적인 일정은 메시지를 활용해 투표를 진행 · 워크숍 답사·준비 과정에 동료 지원가를 참여시켜 함께 계획하고 누리는 행사로 진행함. · 당일에는 동료 지원가만 참석하는 것으로 계획했으나, 부득이하게 자녀 돌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동참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에 동료 지원가 12명, 자녀 4명이 참여함. · 워크숍은 심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하였으며, 당일 평가회 및 수료증을 전달했음. · 워크숍 결과, 흔한 1박 2일 힐링이 아닌 특별하게 주어진 시간이라며 긍정적 평가를 하였음.
동료 지원 부모 슈퍼비전	슈퍼비전	32회/8명	33회/1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동료 지원 활동에 대한 피드백과 과정이 올바른지 검토함. · 전화, 이메일, 방문으로 슈퍼비전을 지속함.
평생 설계 개별 동료 지원	참여 부모 모집	5회/16명	5회/27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물을 제작하여 복지관 홈페이지, 관내 게시판에 부착하였음. · 리플렛을 제작하여 복지관 안내에 비치, 복지관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 부모 중심으로 발송하였음. · 타 지역 동료 지원 부모에게 리플렛을 전달하여 지역 동료 부모에게 홍보 및 모집을 부탁하였음. · 모집 초반 소수가 접수하였으나, 면대면 홍보와 A재단 연계로 목표 대비 169%(27명) 모집함.
	워크북 제작	1회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크북 60부 제작 · 평생 설계 필요성 및 수립 과정, 학령기 교육과 직업 교육의 주요 쟁점, 워크북 활용 방법, 돌보는 이를 위한 지침서 및 평생 설계 수립 방법 등을 수록함.
	오리엔테이션	1회/16명	1회/27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보다 많은 인원이 참석하였으나, 참여 부모는 자녀 이동 지원 및 돌봄으로 참여율이 낮아 68%만 참석함. 이에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지원 부모에게 발송하여 동료 지원 전 안내를 부탁하였음. · 프로그램 준비 과정·진행은 전반적으로 원활했음. 평생 설계를 처음 하는 분들을 위해 평생 설계 필요성 및 방법 등을 안내하는 특강을 진행해 만족도가 높았으나, 상대적으로 오리엔테이션 시간이 짧아져 멘토와의 만남(인사, 일정 조율 등)과 일지 작성 방법 안내에 어려움을 겪음. 차후에는 진행 시간을 늘리고, 담당자가 좀 더 주도적으로 진행하고자 함.

프로그램	목표량	산출	평가 결과	
평생 설계 개별 동료 지원	지원 부모와 참여 부모 매칭	1회/24명	1회/38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부모 11명, 참여 부모 27명으로, 지원 부모 지역과 평생 설계 경험, 개인적 상황 등을 고려해 1인당 최소 1명~최대 5명 매칭함. · 매칭 과정에서 지원 부모에게 개별 연락하여 동의를 받고 확정함.
	개별 동료 지원	128회/128명	288회/288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룹에 따라 1:1 또는 소그룹으로 동료를 지원함. · 참여 부모 27명 중 1명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포기하여, 26명만 프로그램 참여 · 지원 부모 · 동료 지원가로 목적을 달성함. · 더 많은 부모에게 평생 설계의 중요성을 알리고 차후에도 함께 하고자 다짐함. · 참여 부모 · 자녀를 이해하고 현 시점에서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알게 됨. · 자녀를 바라보는 태도와 인식이 변화됨.
평생 설계 사후 관리	사후 관리	16회/16명	26회/2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부모 평생 설계 및 돌보는 이를 위한 지침서 전화, 이메일, 복지관 내방 시 슈퍼비전 진행

3. 효과 평가

성과 목표 1.	성과 지표	자료원 및 자료 수집 방법
가이드북 제작	가이드북 완성	· 회의록 · 가이드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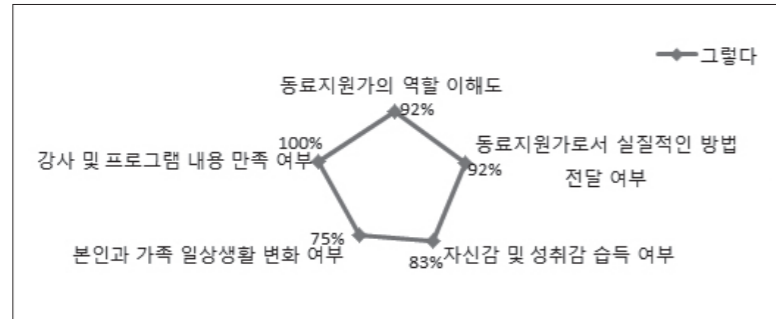
평가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이드북 제작을 위해 평생 설계 자문 위원 3명에게 8차례 자문 받음. · 영역에 따라 해당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았으며 가이드북 작성 초반 전화·이메일 자문을 통해 원고를 수정하고, 이후 만남을 통해 최종적으로 수정·보완하여 가이드북 발간 · 표지 디자인은 복지관 내부 자원 활용

성과 목표 2.	성과 지표	자료원 및 자료 수집 방법
부모 동료 지원가 양성	· 8회기 양성 과정 100% 출석 · 과제 80% 이상 달성	· 출석부, 과제물 · 동료 지원 부모 역량 강화(심층 인터뷰)

평가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동료 지원가 과정 13명 신청자 중 12명 수료. 12명 중 92%(11명)가 돌보는 이를 위한 지침서 및 평생 설계서 과제 완성 · 부모·동료 지원가 과정을 2그룹으로 나누어, 동료 지원 프로그램 및 동료 지원가의 역할, 자녀의 꿈 찾기, 돌보는 이를 위한 지침서 만들기, 재정 설계 작성, 건강·여가·대인 관계·교육·직업·주거·법적 보호 영역 설계 이해 및 참여 부모와의 활동 전략 등 각각 7회기, 총 14회기 진행 · 부모 동료 지원가 과정 종료 후, 서울 북촌·삼청동 일대에서 1박 2일 워크숍 진행 · 부모 동료 지원가 12명, 자녀 4명 등 총 16명이 참여하였음. · 참여 부모 인터뷰 : "누구나 갖는 1박 2일의 힐링이 아닌 특별하게 주어진 우리들만의 시간이었음" "많이 행복하고 여유로운 시간이었음" "모처럼 회포를 풀 수 있는 자리였음" "가끔은 나를 놓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다시 나를 들어 올릴 수 있는 힘을 받게 되는데, 좋은 시간 만들어 주어 감사함" "함께 교육받은 동료들과 1박 2일 너무 좋았음" 등의 반응을 보임.

평가 결과

- 만족도 조사 결과
- 1차 : One numbers 만족도 조사 결과 100점 만점에 96점의 만족도 보임(1차 평가 동료 지원가 과정이 끝난 직후 조사),
- 2차 :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 평균 88점(2차 평가 동료 지원가 과정 종료 한 달 뒤, 1박 2일 워크숍에서 항목별 설문 조사)



- 프로그램 참가에 대한 소감과 변화에 대한 참여 부모 의견
- 체계적인 강의가 좋았음.
- 기존 평생 설계를 다시 점검할 계기가 되었음.
- 동료 지원가 양성 과정을 조별로 나누어 진행한 점이 아주 좋았음.
- 구체적으로 각 영역별 계획을 쉽게 설명해주어 도움이 많이 되었음.
- 과거에 작업했던 내용을 조금 더 세밀하게 알아보고 업그레이드할 수 있어서 유익했음. 좀 더 많은 정보를 알게 되어 좋았고, 토론티 수업 진행 방식이 좋았음.
- 내담자 상담 시 전체적인 설계 작성, 자녀에 대한 지침서 및 평생 설계 재점검, 유언장 작성을 통한 준비, 자립 생활에 대한 개념을 정리할 수 있었음.
- 자녀의 미래뿐 아니라 나의 노후 설계도 정비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며 당면 과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실행에 옮길 기회가 되어 감사함.
- 어렵게만 생각했던 아이의 미래를 생애 주기에 따라 조금씩 준비하고 훈련시킬 수 있는 생각의 전환점이 되어 좋았음.
- 한 해 듣고 나서 다시 들으니 이해가 잘 되었음. 내년에도 다시 들을 수 있길 바람.
- 질적 평가
- 참여 부모 A : 평생 설계 전에는 "이런 땅에서 미래에 어떤 꽃밭을 만들고 또 어떤 꽃들을 피울 수 있을지, 나와 아들의 꽃밭을 상상할 수 없었"으나, 평생 설계 후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났음. 아직 보이지 않지만, 작은 풀들이 돌멩이 사이를 비집고 나와서 어느 날엔가 눈앞에 펼쳐질 꽃밭을 기대하며 희망을 봄"이라고 밝힘.
- 참여 부모 B : 평생 설계 전에는 "혼자 아이 장래를 걱정하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생각만 많고 마음이 복잡했"으나, 평생 설계 후에는 "어전히 어렵지만 어떤 교육이 필요할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알게 됨. 나의 열심도 필요하지만 지역 사회 자원과 인적 자원을 형성하면서 함께 고민하고 감당할 수 있음을 알게 되고, 밀그림이 그려지면서 따뜻한 마음과 여유가 생겼음"이라고 함.
- 참여 부모 E : "내 아이에만 집중하고 있었으며, 고민도 많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컸다" 했으나 평생 설계 후 "그동안 부모 교육에서 목말랐던 정답을 찾은 듯한 느낌이었음. 자녀를 위해 무엇을 중점에 두고 미래를 설계할 지 방향을 잡음. 엄마가 편안해지니 아이도 두려움이 없어지면서 모든 활동이 좋아졌다"며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토로함."

성과 목표 3.	성과 지표	자료원 및 자료 수집 방법
평생 설계 1 : 1 개별 지원	· 평생 설계서 완성 · 만족도 평점 80점 이상	· 평생 설계서 검토 · 만족도 설문 조사

평가 결과

- 개별 동료 지원 멘토 11명, 멘티 26명이 참여함. 동료 지원 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평생 설계 특강, 멘토 · 멘티 매칭, 차후 일정을 조율하였음. 멘토 상황과 멘티의 지역적 상황을 고려하여 최소 1명~최대 5명을 매칭하였으며, 그룹별 최소 7회~최대 20회(총 288회) 평생 설계 프로그램을 진행함. 참여자 전원 돌보는 이를 위한 지침서를 수행하고, 평생 설계서 80%를 수행함.
- 평생 설계 특강 만족도 결과
- One numbers 만족도 조사 결과 100점 만점에 94점의 만족도를 보임.
- 기존 부모들은 평생 설계를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게 되었고, 처음 참여자는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 있었음.
- 자녀와 나의 평생 설계를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음.
- 내 아이의 성인과 노년기, 질적인 삶의 방향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좋았음.
- 평소 막연하게 걱정만 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의 평생 설계에 많은 도움이 되었음.
- 평생 설계의 지침 제시 및 자녀의 전 생애 주기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음.
- 알고는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몰랐던 부분이 많았고, 무엇보다 준비해야 할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음.
- 우리 아이들의 성장 과정과 앞으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훈련에 대해서 들을 수 있어서 좋았음.
- 강사의 강의가 유익하고 공감이 많이 됐으며, 같은 길을 가는 동료들이 있어 위안이 되었음.
- 평생 설계 시 기간별(나이별)로 무엇이 자녀에게 필요한지 알게 되어 유익했음.
- 꼭 필요한 교육이 신변 자립이라는 그 한 말씀으로 만족함.
- 특강을 듣고 다잡았던 마음이 해이해질 즈음 다시 들은 특강으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었음.
- 개별 동료 지원 결과 : 지원 부모
- One numbers 만족도 조사 결과 100점 만점에 95점의 만족도 보임.
- "동료 지원가로 목적 달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부모 전원이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막연했던 평생 설계의 조각 퍼즐을 완성해가며 부모 동료 지원가로서 목적을 달성했다" "10회기 동안 부족했지만 참여 부모들이 적극 참여해 주며 마무리가 잘 되었다"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출발해 부담감이 있었지만 서로의 환경을 이야기하며 돌보는 이를 위한 지침서와 평생 설계 이행 계획서를 완성할 수 있었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서로 위로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힘이 되었다"라고 밝혔음.
- 부모 동료 지원가로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였는지 묻는 질문에는 "자녀의 특성을 알릴 수 있는 지침서와 생애주기별 평생 설계의 중요성을 깨달았음" "자녀의 과거에 대한 추억과 미래에 대한 꿈을 생각할 기회가 되었음" "자녀와 타인과의 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며, 각 영역별 분석을 통해 현재, 미래의 계획을 세워보고 정리할 수 있었음" "내가 도움을 준 것보다 더 많은 도움을 받았고, 공부하는 기회가 되었음. 스스로도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짐"이라고 응답하였음.
- 개별 동료 지원 결과 : 참여 부모
- One numbers 만족도 조사 결과 100점 만점에 96점의 만족도를 보임.
- "금번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의 부재 및 사후에 자녀가 혼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막연하게 생각만 하던 것을 과거, 현재, 미래를 구체적으로 짚어볼 수 있어서 좋았음"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내 아이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으며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음" "돌보는 이를 위한 지침서와 평생 설계를 만들 수 있어 부모 부재나 사후 시에도 아이를 위한 자료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든든했음" "성장기별로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었음" "자녀의 장점을 유지하고 자립 생활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방법을 생각할 계기가 되었음"이라고 응답하였음.
- "평생 설계 프로그램 참여 후 변화 여부"에 대한 참여 부모 응답
- 참여 부모 A : 평생 설계 전에는 "사막 속의 선인장처럼 살았고,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할까 염려해 늘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고 다짐"했으나, 평생 설계 후에는 "소나무처럼 늘 푸른 마음으로 살면서 가족과 주변의 어려운 사람에게 따뜻하고 다정하게 대할 것"이라고 답변함.
- 참여 부모 E : 평생 설계 전에는 "몸도 마음도 지쳐서 우울감 가득한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했으나, 평생 설계 후에는 "수업을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내 아이를 알아가고 이해하게 되면서 또 서로의 아이들을 알아갔던 소중한 시간에 감사하며, 부정을 버리고 긍정과 행복을 선택해가고 있다"고 밝힘.
- 참여 부모 H : 평생 설계 전에는 "내 아이라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학교 선생님이나 주변 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아이를 바라보는 시각도 두루뭉술"했으나, 평생 설계 후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되 뭐가 되고 안 되는지 정확히 보게 되었음. 아이에게 엄마로써 해줘야 할 부분을 선명하게 보고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음"이라고 답함.

IV. 사업 성과

1. 평생 설계 동료 지원가 양성을 통한 부모 역량 강화

당초 계획은 평생 설계 동료 지원 과정에 8명 모집 예정이었으나 목표 대비 163%(13명) 모집되었으며, 최종적으로 12명이 수료하였다. 본 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은 동료 지원가의 역할 및 동료 지원가로서 실질적인 방법, 참여 부모와의 활동 전략, 평생 설계 과정 등을 익히며 자신감과 성취감을 습득하였고 궁극적으로 역량이 강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평생 설계 전문 인적 자원 양성은 향후 사업 진행에 있어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2. 가이드북 및 워크북 제작을 통한 평생 설계 사업의 확산 기반 마련

영역별 전문가 자문을 통해 2015년 실시한 프로그램 결과 및 매뉴얼북을 토대로 부모 동료 지원가 양성 교육 자료인 가이드북과 동료 지원 활동 시 활용할 워크북을 제작하였다. 가이드북은 동료 지원의 의미 및 장점, 양성 프로그램 목적 및 내용, 동료 지원 활동의 실례를 수록했고, 워크북은 평생 설계 필요성 및 수립 과정, 학령기 교육과 직업 교육의 주요 쟁점, 워크북 활용 방법, 돌보는 이를 위한 지침서 및 평생 설계 수립 방법 등을 수록하여 평생 설계를 쉽게 이해하고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평생 설계 필요성 및 관내 인식 확산

평생 설계 과정에 참여한 지원 부모, 참여 부모 모두 그동안 부모 교육에서 목말랐던 그 무엇에 대한 정답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하였다. 희망이 보이는 듯한 그 느낌은, 그만큼 평생 설계가 그 어떤 지원보다 구체적이며 실천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확신으로 부모들에게 다가왔다. 또한 복지관 평생 설계 자조 모임 회원들이 지원 부모로 참여하고, 아동·청소년·성인 이용자 부모들이 본 프로그램에 다수 참여하였다. 이에 연말 영역별 부모 모임 시 소감을 나누면서 미 참여 부모들에게 동기 부여의 기회가 되었다. 실질적으로 사업 초반보다 종료 후 평생 설계에 관심을 갖는 부모들이 많아졌으며 인지도 또한 높아졌음을 확인하였다.

4. 발달 장애 자녀에 대한 주 양육자의 인식과 태도 변화

높은 질의 삶을 위해서는 전문가 및 서비스 제공자 중심이 아닌, 삶을 주체적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복지 서비스 제공 시에도 당사자를 수혜자가 아닌 주체자로 인식하여 당사자의 권리 향상을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 프로그램 참여 후 부모들은 자녀 스스로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고 자녀와 함께 계획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자녀의 장점, 능력, 습관, 좋아하는 것 등을 생각하고 정리하면서, 자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고 그 전과는 다른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고 하였다. 즉 전반적으로 자녀를 위해 무엇을 중점에 두고 미래를 설계해야 할지 방향을 잡았다고 평가하였다.

5. 동료 지원의 효과성 확인

평생 설계 진행 중 전문 영역 특강을 여러 번 진행하였는데, 다른 어떤 전문가의 피드백보다 동료

상담, 동료와의 피드백이 부모들로부터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을 경험하였다. 실질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상호간 교류를 통해 습득하는 방식이 보다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6. 과천시 평생 설계 발판 마련

과천시장애인복지관은 2011년 개관 이래 법률, 성년 후견인 제도, 인권·자립 등 부모 교육을 시작으로 2012년 평생 설계 자조 모임을 조직하여 평생 설계 이행에 필요한 교육, 견학, 모임을 정기적으로 진행하였다. 그러나 장애 자녀를 둔 부모는 물론 직원들에게도 평생 설계에 대한 관심 및 인지도는 매우 낮은 편이었다. 2015년 삼성복지재단 지원을 받으면서 평생 설계 과정이 체계화되고, 2016년에는 아동·청소년·성인 부모들이 다수 참여하면서 평생 설계 필요성을 느끼고 이를 공유하면서 관내 인지도가 높아졌다. 특히 동료 지원가 양성과 가이드북 및 워크북 제작은 우리 지역의 평생 설계 발판을 마련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V. 향후 계획

본 프로그램은 장애 자녀의 부모가 살아생전에 자녀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자녀의 직업, 주거, 재정, 권리 옹호 등을 고려하고, 다양한 대안들을 바탕으로 자녀의 현재와 미래의 삶을 안전하게 보장하고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2015년, 2016년 2년간 삼성복지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였다. 올해는 부모 동료 지원가를 양성하고 또래 부모를 지원하며 과천시 평생 설계 발판을 마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1. 평생 설계 사업을 복지관 본 사업으로 정례화

2016년 평생 설계 사업으로 평생 설계 자조 모임만 운영했던 본관 사업을 확대해 관내 아동·청소년·성인을 대상으로 한 소그룹 평생 설계 교육과 실무자 학습 모임으로 넓혀가고자 한다. 소그룹 교육의 경우 1차는 돌보는 이를 위한 지침서로, 2차는 평생 설계 이행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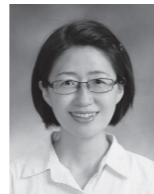
2. 평생 설계 사업의 인근 지역 확산

올해 양성된 평생 설계 동료 지원가의 경우 과천, 안산, 안양, 수원, 군포에 거주하고 있다. 사업 지원 종료로 평생 설계 동료 지원가의 차후 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CBR(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로 전문적 자원인 동료 지원가가 본인들이 거주하는 지역과 이용 기관에서 동료 지원가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담당 실무자 학습 모임을 본 복지관이 중심이 되어 진행하고자 한다.

3. 장애 당사자 평생 설계 과정 참여

본 복지관 내 아동·청소년·성인 프로그램 과정에서 평생 설계 프로그램의 일부를 적용하여, 장애 당사자가 삶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성인 중증 발달 장애인의 지역 사회 내에서의 자립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한 맞춤형 역량 강화 프로젝트



군포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김승재

I. 프로그램 실시 배경

주간 보호 시설을 이용하는 성인 중증 장애인들은 기술 습득에 있어서 기술의 수가 제한되고, 기술 습득을 위한 시간과 훈련 횟수가 비장애인에 비해 훨씬 많이 필요하여, 개인의 능력과 요구에 따라 습득해야 할 기술의 종류 및 우선 순위, 기술 습득 정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성인 중증 장애인은 습득한 기술을 일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화의 기술이 매우 부족하여, 일상 생활과 사회 적응에 필요한 중요한 기술들을 복지관에서 반복 훈련하여도 가정·지역 사회 환경에서 그러한 기술들을 스스로 수행하는 것이 어려워, 보호자들은 “장애인들이 가정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또는 “할 줄 아는 게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증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이들이 지역 사회 내의 자립 생활에 중요한 일상 생활 기술과 사회 적응 기술을 습득하려면 능력별·수준별 개별화 계획에 따른 프로그램을 기획, 각자의 가정 및 지역 사회 환경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성인 중증 장애인들에게 개인차는 있지만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이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각 장애인에게 생활 현장에서의 능력별·수준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II. 프로그램 개요

1. 목적

주간 보호 센터를 이용하는 성인 중증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용자 개인 능력과 환경에 따른 맞춤형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센터와 부모(보호자), 지역 사회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장애인의 의사 표현 능력을 향상시킨다. 이를 바탕으로 가정에서의 일상 생활 기술 수행

능력 향상과 거주지 기반의 지역 사회 시설 이용 능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성인 중증 발달 장애인의 지역 사회 내 자립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2. 목표 및 하위 목표

목표 1. 일상 생활과 지역 사회 적응의 기반이 되는 상황별 의사 표현 능력을 10% 높인다.

하위 목표 1. 상황별 단어와 표현법 훈련을 개별화된 훈련 목표에 따라 총 30회기 실시한다.

목표 2. 부모(보호자)와의 연계를 통해 일상 생활 기술 수행 능력을 10% 높인다.

하위 목표 1. 기관에서 각 영역별 일상 생활 훈련을 8회기 실시한다.

하위 목표 2. 가정에서의 방문 훈련을 3회기 실시한다.

목표 3.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 사회 시설 이용 능력을 10% 높인다.

하위 목표 1. 대중 교통 이용 훈련을 8회기 실시한다.

하위 목표 2. 기관 인근 상점 이용 훈련을 8회기 실시한다.

하위 목표 3. 거주지 인근 상점 이용 훈련을 5회기(5~6월, 9~11월) 실시한다.

목표 4. 부모(보호자)와 거주지 인근 상점관계자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변화를 도모한다.

하위 목표 1. 가정 현장에서 사전 수행 능력을 평가하고 부모와 함께 훈련 목표를 수립한다.

하위 목표 2. 매월(3~6월, 8~11월, 총 8회) 기관에서의 훈련 내용과 방법을 부모에게 전달한다.

하위 목표 3. 수시로(2~12월, 11회 이상) 부모 상담을 실시한다.

하위 목표 4. 거주지 인근 상점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인식 개선 활동을 각 이용자당 3회씩 실시한다.

3. 프로그램 대상

대상자 범위	개념적 범위	정규 교육 과정을 마치고 주간 보호 센터를 이용하는 만 20세 이상 40세 미만의 성인 중증 발달 장애인
대상자 구분	주된 참여자	정규 교육 과정을 마치고 주간 보호 센터를 이용하는 만 20세 이상 40세 미만의 성인 중증 발달 장애인 13명
	주변 참여자	정규 교육 과정을 마치고 주간 보호 센터를 이용하는 만 20세 이상 40세 미만의 성인 중증 발달 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13명
대상자 선정 방법	홍보 전략	· 본 센터 이용자 대상 가정 통신문 및 알림 문자 발송 · 사업 설명회 개최 · 복지관 홈페이지 게시 · 복지관 소식지 게재
	접수·상담	· 가정 통신문을 활용한 접수 및 보호자 내방 접수 · 보호자와의 전화 상담 및 내방 상담 · 사업 설명회 진행 시 접수·상담

대상자 선정 방법	선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 교육 과정을 마친 장애인(재학생이 아닐 것) · 여타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주간 보호 센터를 이용하는 성인 중증 발달 장애인 ·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장애인 · 본 기관을 포함하여 타 기관에서 유사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장애인
	선정 시 우선 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센터 이용자 · 본 센터 이용을 종결하고 타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성인 중증 발달 장애인 · 본 센터에 대기한 상태로 타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성인 중증 발달 장애인

III. 프로그램 진행 및 평가

1. 세부 프로그램 진행 내용

프로그램	일정	횟수	세부 내용	수행 방법
사업 설명회	2~3월	5회	성인 중증 장애인 보호자에게 사업의 취지 설명 및 참가 여부 확인, 협조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간 보호 센터 이용자의 보호자 대상 사업 설명회 1회 · 설명회 불참한 보호자 대상 개별 설명회 4회 · 보호자의 협조가 절실하여 가능한 한 모든 보호자에게 설명회 실시
자원봉사자 모집	2, 8월	2회	대학생 및 성인 남자 자원봉사자 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자 담당 팀에 업무 협조 요청 · 군포시자원봉사센터 및 산사모 게시판 모집 공고 게시
가정 방문 · 평가	3, 11월	2회	· 가정 방문, 부모 상담 · 이용자의 환경 체계 관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방문 : 부모 상담을 통하여 이용자의 기술 능력 평가 및 훈련 목표 수립 · 사후 방문 : 훈련 결과 이용자, 보호자 변화에 대한 조사 · 평가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3~5월	10회	· 관찰 · 표현되지 않은 이용자의 심리적 · 정서적 상태 표현 촉진 · 기존 이용자와 신규 이용자 간, 이용자와 교사와의 친밀감 형성 및 정서적 안정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 미술 치료사 진행(주 1회, 10회기) · 이용자의 능력에 따라 2반으로 나누어 진행(7명, 6명)
상황별 의사 표현 훈련	3~11월	33회	· 상황별 관련 단어 표현 익히기 - 가정, 식당, 상점, 교통 수단 등 다양한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1회 언어 표현 가능 여부에 따라 분반하여 진행 · 언어 표현이 어려운 경우 그림판 활용
일상 생활 훈련	청결 교육	3~7월, 9~11월	9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1회 진행 · 이용자의 개별화 훈련 목표에 따라 진행 · 목욕탕 이용 3회 진행 · 남자 자원봉사자의 모집이 어려워 인근 목욕탕에서 세신 서비스 받음.
	정리 정돈 훈련	3~7월, 9~11월	8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빨래 정리 : 건조대 빨래 널기, 마른 빨래 걷기, 양말 · 수건 개기 · 현관 신발 정리

프로그램	일정	횟수	세부 내용	수행 방법	
일상 생활 훈련	청소 훈련	3~7월, 9~11월	8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걸레질 : 손걸레질 및 걸레 빨기, 대걸레질 · 전기 청소기 사용 · 재활용 쓰레기 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1회 진행 · 이용자의 개별화 훈련 목표에 따라 진행 · 월 2회 과제 알림장(개별 과제)을 통해 가정에서 수행하도록 기회 제공
	식사 준비 훈련	3~7월, 9~11월	8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 차리기 : 수저 놓기, 냉장고 반찬 꺼내기, 집어넣기 · 설거지하기 · 간편식 만들어 먹기 - 계란 프라이, 컵라면, 샌드위치, 전자레인지로 핫도그 데우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1회 진행 · 이용자의 개별화 훈련 목표에 따라 진행 · 월 2회 과제 알림장(개별 과제 내줌)을 통해 가정에서 수행하도록 기회 제공
	가정 방문 훈련	5, 9, 11월	3회	각 이용자의 개별화 훈련 목표에 해당되는 과제를 가정 방문 후 직접 지도	월 2회 과제 중 보호자와 함께 수행하기 어려웠던 과제를 교사가 가정 방문해 직접 지도, 이용자 훈련과 부모 교육 병행
지역 사회 시설 이용 훈련	대중 교통 이용 훈련	3~7월, 9~11월	8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할 개찰구 찾기 · 교통카드 바르게 찍기 · 차량 내 공공 예절 지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교육 진행 후 실제 훈련 · 개찰구 모형을 활용하여 들어가는 곳과 들어가지 못하는 곳 구분하기, 교통카드 올려놓는 곳 찾기, 동반자가 있을 경우 카드 건네기 등 · 이용자 따라 지하철과 버스 환승하여 목적지 다녀오기 훈련 진행
	상점 이용 훈련	3~7월, 9~11월	8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과점, 양말 가게, 약국, 마트 방문 - 간편식 훈련 재료, 추석 선물 등 구입 훈련 - 전통 시장에서 물건 고르고 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교육 진행 후 실제 훈련 - 각 상점에서 물건 고르는 방법, 카드 주고받기, 영수증 요구하고 받기 등 · 언어 표현이 어려운 이용자는 그림판 이용 · 방문할 상점을 이용자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식당 이용 훈련	3~7월, 9~11월	10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 식당 : 한식, 중식 · 뷔페 식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교육 진행 후 실제 훈련 - 메뉴 선택, 주문하기, 주문한 음식 받기, 계산하고 영수증 받기 - 테이블 중앙에 놓인 주유리를 개인 접시에 덜어 먹는 방법 및 뷔페 식당 이용법 · 같은 유형의 식당을 2번 이상 반복 방문,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점차 줄여 나감.
	거주지 상점 이용 훈련	5~6월, 9~11월	5회	각 이용자의 거주지 인근 상점에서 보호자의 심부름 품목 구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2모둠으로 나눠 2회에 걸쳐 진행 · 각 이용자의 집으로 방문하여 인근 상점에서 물건 구입 후 모듬원이 함께 식사 · 산책 후 귀가
	지역 사회 상점과의 네트워크 형성	5, 9, 11월	3회	이용자 거주지 인근 상점 및 지역 사회 상점 관계자의 장애인 인식 개선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지 인근 상점 이용 훈련 시 주간 보호 센터 홍보물 제공 · 이용자의 특성 설명 및 관심 유도
	캠프	8월	1회	1박 2일 숙식을 통해 훈련 중간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자와 1 : 1 매칭 · 다양한 체험 활동 진행 - 해수욕장, 물놀이, 동계올림픽 체험관, 노래방, 캠프파이어, 목장 탐방 등 · 참가 이용자 모두 체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 활동마다 미션 수행 유도

프로그램	일정	횟수	세부 내용	수행 방법
부모 상담	3~11월	12회	· 기관과 가정과의 연계 모색 · 기관과 가정에서의 훈련 일관성 유지	· 과제 알림장 격주 배부 - 복지관에서 진행된 훈련 내용 전달, 주말 과제 수행 여부, 과제 수행 정도 등을 지필 작성 · 제출한 과제 알림장을 토대로 자녀 지도상의 어려운 점 상담
자원봉사자 간담회	4, 8, 9월	3회	· 사업 취지에 대한 이해 도모 · 활동 평가	· 사업 시작에 앞서 모집된 자원봉사자 대상으로 사업 취지 설명 · 나들이, 캠프 등의 외부 활동을 마치고 이용자 및 활동에 대한 평가 회의 진행
성과 발표회	12월	1회	프로젝트 수행 결과를 관내 주간 보호 시설 관계자와 공유	· 사업 소개 · 진행 과정 · 성과를 정리한 자료집 준비 · 발표회 참석이 어려운 각 기관 및 담당자에게 배포
평가회 및 송년회	12월	1회	· 연간 훈련 진행 및 결과에 대한 평가 · 이용자 가족과 함께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는 송년회	· 1부 : 부모 간담회 - 1년간의 진행 사업에 대한 평가 · 논의 · 2부 : 송년회 - 국악 프로그램에서 연습한 곡 공연, 웃음 치료 강사와 레크리에이션 진행, 2016년 활동을 모은 동영상 감상, 다과 나눔을 통해 이용자, 보호자, 담당자 상호 격려

2. 과정 평가

프로그램	목표량	산출량	평가 결과
사업 설명회	1회/ 13명	5회/ 14명	· 처음 1회의 집합 설명회를 진행하였으나 참가자가 절반에 불과하여 개별 설명회를 진행함. · 개별 설명회를 통해 모든 보호자에게 사업 취지(가정과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협조 구함.
가정 방문 · 평가	2회/ 26명	2회/ 26명	· 이용자들의 일상 생활, 사회 적응 능력 등의 평가를 위한 부모 상담을 가정 방문하여 진행함으로써 보호자의 보다 진솔한 이야기를 유도하였음. · 이용자의 훈련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의 물리적 · 사회적 환경에 대한 평가도 가능하였음.
마음의 문을 열어요	10회/ 130명	10회/ 128명	· 신규 이용자의 경우 짧은 기간 동안 파악하기 어려웠던 정서적 · 인지적 특징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음. · 전문 미술 치료사의 10회기에 걸친 분반 활동으로 이용자의 정서적 안정 · 자신감 및 유능감을 향상시켰음.
상황별 의사 표현 훈련	30회/ 390명	32회/ 408명	· 3~11월 매주 1회 이용자들의 일상 생활 훈련과 지역 사회 시설 이용 훈련에 필요한 단어 및 표현법, 요청하기, 자신의 감정 표현하기 등을 훈련하였음. · 언어 표현이 불가능한 이용자는 훈련에 필요한 그림판과 상징물을 만들어 활용함으로써 이용자의 표현을 촉진하였음.

프로그램	목표량	산출량	평가 결과	
일상 생활 훈련	청결 교육	8회/ 104명	8회/ 97명	· 월 1회 이 닦기, 손 씻기, 속옷 갈아입기, 머리 감기, 목욕 하기, 면도하기 등의 훈련을 개별화 훈련 목표에 따라 진행함. · 속옷과 양말을 매일 갈아입었는지 매일 아침 체크하여 강화물을 제공함으로써 청결 유지를 촉진하였음. · 목욕하기 훈련을 위한 자원봉사자가 모집되지 않아 지역 사회 내 사우나 시설을 섭외하여 대중 목욕탕 이용 시 예절 교육 및 입욕 · 세신 서비스 제공으로 훈련 방법을 변경하였음.
	정리 정돈 훈련	8회/ 104명	8회/ 103명	· 월 1회 건조대에 양말 · 수건 널기, 양말 · 수건 개기, 현관 신발 정리하기 등을 개별화 훈련 목표에 따라 진행하였음. · 이용자에 따라 개별화 훈련 시간 및 센터 내 일상 생활(낫장 후 베개 및 이불 정리 등)을 통해 훈련하였음.
	청소 훈련	8회/ 104명	8회/ 100명	· 월 1회 손걸레로 닦기, 대걸레로 닦기, 청소기로 바닥 청소하기, 손걸레 빨기 등을 개별화 훈련 목표에 따라 진행하였음. · 손걸레로 닦기는 식사 준비 훈련의 행주로 식탁 닦기와 연계하여 훈련하였음.
	식사 준비 훈련	8회/ 104명	8회/ 103명	월 1회 식탁에 수저 놓기, 밥그릇 · 국그릇 놓기, 물 컵에 물 따라주기, 냉장고에서 반찬통 꺼내기, 반찬통 뚜껑 열고 닫기 등을 개별화 훈련 목표에 따라 진행하였음. 이용자의 능력에 따라 필요 시 각 용기의 위치를 알려주는 그림판을 활용하였음.
	가정 방문 훈련	3회/ 39명	3회/ 33명	· 격주 배부한 과제 알림장을 통해 보호자가 가정 지도를 어려워한 과제를 선정, 가정 방문하여 보호자가 보는 앞에서 이용자의 훈련 방법을 시범 보였음. · 처음 보호자의 지시로는 수행하지 않던 이용자들이 가정 방문 훈련을 통하여 가정에서도 복지관에서의 훈련 내용을 조금씩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음.
지역 사회 시설 이용 훈련	대중 교통 이용 훈련	8회/ 104명	8회/ 102명	· 실제 훈련에 앞서 개찰구 모형을 제작해 교육에 활용함. 들어가는 곳과 들어가지 못하는 곳 구분하기, 교통카드 올려놓는 곳에 카드 정확히 올리기, 동반자가 있을 경우 카드 건네기 등을 모의 훈련하였음. · 이용자의 능력 및 개별화 훈련 목표에 따라 지하철 역내 표지판으로 탑승 방향 알기, 하차할 역 알아차리기, 환승하여 목적지 찾아가기 등을 훈련하였음.
	상점 이용 훈련	8회/ 104명	8회/ 103명	· 월 1회 다양한 상점을 방문하여 원하는 물건 선택하기, 카드로 계산하기, 영수증과 물건 받기 등을 훈련하였음. · 이용자들이 좋아하는 먹거리(제과점)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선택을 촉진하였고, 가능하면 같은 상점을 반복하여 2회 이용하였음. · 어버이날, 추석 등의 특별한 날을 위한 물건 선택 · 구입의 기회를 제공하였음. · 이용자들이 원하는 상점을 선택하도록 기회를 제공하였음.
	식당 이용 훈련	8회/ 104명	10회/ 127명	· 각 식당에서의 훈련에 앞서 복지관 내에서 주문 가능한 메뉴, 메뉴 주문 방법, 계산 방법 등을 사전 훈련하였음. · 이용자의 흥미 유발을 위해 패스트푸드점에서 시작하여 분식점, 일반 식당, 뷔페 식당으로 확장 훈련하였음. · 일반 식당에서는 한 그릇의 음식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먹는 법(자신의 수저를 가져가지 않고 덜어 먹기)에 대해 훈련함. 또한 반복 훈련을 위하여 같은 유형의 식당을 4회 이용하였음. · 뷔페 식당 이용 훈련을 위해 처음에는 1 : 1 자원봉사자 매칭을 통해 접시에 원하는 메뉴를 담은 방법, 접시를 들고 자리까지 이동하는 방법 등을 훈련했으며 2회 차 방문 시에는 자원봉사자의 수를 줄여 이용자 스스로 수행하는 기회를 제공하였음.

프로그램		목표량	산출량	평가 결과
지역 사회 시설 이용 훈련	거주지 상점 이용 훈련	5회/65명	5회/61명	· 5~6월, 9~11월 이용자 거주지 인근 상점을 이용, 보호자와 상의한 물건을 구입하도록 하였음. 이용자들이 심부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 · 이용자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상점에서 직접 훈련 지도가 이루어짐에 따라 평소 상점 이용 기회를 높일 수 있었음.
	지역 사회 상점과의 네트워크 형성	3회/39명	3회/39명	· 의사 표현이 원활하지 못한 중증 장애인들이 지역 사회 내 상점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거주지 인근 상점과 복지관 인근 상점의 관계자에게 센터 홍보물 배부와 장애인의 특징 설명을 통하여 인식 개선에 노력하였음. · 이용자와 지속·반복적으로 상점을 방문하여 훈련 지도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관계자들의 표정·행동의 변화를 발견할 수 있었음.
캠프		1회/13명	1회/13명	· 8월 1박 2일 캠프 진행 전, 숙박 시설 및 경유지 등에 대한 답사를 2회 진행(5~6월) · 이용자의 성비 불균형으로 자원봉사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모둠으로 이동(특히 화장실)에 함으로써 진행이 원활하였음(자원봉사자 1 : 1 매칭). · 자원봉사자의 사전 교육을 통해 이용자 안전 우선으로 모든 활동 참여가 가능하도록 준비하였으며, 상반기 진행한 일상 생활 훈련, 지역 사회 시설 이용 훈련, 의사 표현 훈련 등의 중간 평가 기회가 되었음.
부모 상담		11회/143명	12회/156명	· 4~11월에 걸쳐 12회 배부한 과제 알림장을 토대로 가정에서의 이용자 훈련 여부, 애로사항, 변화 여부 등에 대한 상담 진행 · 훈련을 통한 복지관에서의 이용자 변화 모습 전달 및 가정에서의 훈련 연계 필요시 협조 요청
자원 봉사자	모집	2회/10명	3회/13명	· 중증 장애인의 개별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2월 초 장기 활동 가능 자원봉사자와 8, 11월 1회성 활동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프로그램을 보조하였음. · 상반기 청결 교육(목욕 훈련)을 위한 남자 성인 자원봉사자는 모집하지 못하였음.
	간담회	3회/30명	4회/36명	· 3월 초 정기 자원봉사자 대상 사업의 취지 설명 및 프로그램 보조 방법 전달함. · 대중 교통 이용 나들이(5, 11월), 캠프 활동을 마치고 이용자 및 활동 진행에 대한 평가 회의를 진행함.
성과 발표회		1회/10명	1회/10부	· 주간 보호 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가정과 연계한 일상 생활 훈련, 지역 사회 시설 이용 훈련 등의 진행 내용과 성과에 대해 정리하고 프로그램에 활용한 평가지, 과제 알림장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내 공공 기관, 주간 보호 센터 등에 배포하였음.
평가회 및 송년회		1회/53명	1회/30명	· 현재 본 센터 이용자 실 인원 11명(중간 종결자 발생)으로 당초 계획했던 송년회 참가 인원보다 적은 인원이 참석하였음. 이용자 1명 당 최소 2명 이상 가족의 참석을 기대하였으나 보호자의 경제 활동, 비장애 자녀의 자녀(손자) 돌봄 등의 이유로 양 부모가 모두 참석한 이용자는 없었음. · 보호자들이 본 사업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용자들이 보이는 변화에 만족하였음. · 부모 앞에서의 공연, 한 해의 활동 동영상을 보며 이용자는 자신감 및 유능감을 높이고, 보호자는 자녀에게 믿음과 사랑을, 담당자에게는 신뢰를 전하는 시간이 되었음.

3. 효과 평가

성과 목표 1.	성과 지표	자료원 및 자료 수집 방법
일상 생활과 지역 사회 적응의 기반이 되는 상황별 의사 표현 능력을 10% 높인다.	· 상황별 의사 표현 훈련 참여율 · 상황별 의사 표현 능력 변화율	· 프로그램 일지·출석부 · K-SIB-R(사회적 상호 작용 및 의사 소통 기술 영역) 사전·사후 평가
평가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별 의사 표현 훈련 참여율 - 평균 참여율 98%(평균 회당 12.7명/정원 13명) - 언어 표현이 가능한 이용자와 언어 표현이 어려운 이용자를 구분하여 훈련을 진행하였음. - 언어 표현이 가능한 이용자의 경우, 각 상황별 언어 이해(안내 문구, 기호 등)와 언어 표현·상호 작용 및 의사 소통(대담, 요구하기) 방법 등에 대해 반복 훈련하여 이용자들의 의사 표현 빈도를 높이도록 지원하였음. - 언어 표현이 어려운 이용자의 경우, 각 상황별 언어 이해(안내 상징, 기호 등)를 돕는 훈련을 반복하였으며 의사 표현을 위해서는 상징물(그림판)과 신체를 활용하도록 훈련 및 지원하였음. · 상황별 의사 표현 능력 변화율 - 평균 의사 표현 능력 변화율 18.2%[K-SIB-R의 '사회적 상호 작용 및 의사 소통 기술 영역(사회적 상호 작용·언어 이해·언어 표현)' 사전·사후 평가시 원 점수 변화율] - 이용자가 모두 성인(만 20~48세)이고 장애가 중하여 이들의 미세한 의사 표현 능력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찾는 것이 어려웠음. 한국판 적응 행동 검사(K-SIB-R) 표준화에 참여한 관계자들의 조언(본 검사의 '사회적 상호 작용 및 의사 소통 기술 영역' 원 점수의 사전·사후 변화 정도의 비교도 유의미함)을 참고하여 평가하였음. - 대부분의 이용자가 10% 이상의 변화를 보였음. 7.7%, 13.7%(2명), 16.6%, 16.7%, 17.2%, 19.0%, 19.6%(2명), 21%, 35.7%. 이 중 35.7%의 변화를 보인 이용자는 40대 정신 장애인이며, 고등학교 당시 발병 후 가정에서 보호하다 주간 보호 센터를 이용하기 시작하여 다양한 자극이 주어짐에 따라 잠재되어 있던 상호 작용 및 의사 표현 능력이 재발현한 듯함. - 이용자들의 변화율이 예상보다 높게 나타난 이유로는 보다 다양한 경험과 표현의 기회를 제공하였던 것, 그리고 언어 표현이 어려운 이용자에게 상징물(그림판) 등의 비언어적 매체를 활용하여 표현하도록 지원하였던 점, 이들에게 표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의사 표현에 대한 자신감을 높였던 것으로 판단됨. - 언어 표현이 가능한 이용자의 경우 훈련을 통하여 사회적 상호 작용과 언어 이해 영역의 변화율이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언어 표현이 어려운 이용자의 경우 사회적 상호 작용 영역의 변화율이 보다 높게 나타났음. 		

성과 목표 2.	성과 지표	자료원 및 자료 수집 방법
부모(보호자)와의 연계를 통해 일상 생활 기술 수행 능력을 10% 높인다.	· 각 영역별 일상 생활 훈련 참여율 · 일상 생활 훈련 성취도 변화율	· 프로그램 일지·출석부 · 센터 자체 평가지 사전·사후 평가
평가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영역별 일상 생활 훈련 참여율 - 평균 참여율 95.8%(평균 회당 12.4명/정원 13명) -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각 영역(청결, 정리 정돈, 청소, 식사 준비)에 흥미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음. 특히 머리 감기, 대중목욕탕 이용하기 훈련에 높은 관심과 흥미를 보였음. · 일상 생활 훈련 성취도 변화율 - 평균 일상 생활 훈련 성취도 변화율 9.79% - 과반수 이상의 이용자가 10% 이상의 성취도 변화율을 보였음(12%, 17.7%, 16.4%, 10.3%, 10.5%, 14.9%). 10% 미만의 변화율을 보인 이용자들은 보호자들이 자녀에 대한 부정적 인식('우리 아이는 워낙 부족하여 할 줄 아는 게 없다')으로 이용자가 익힌 일상 생활 기술을 수행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던 경우(2.6%, 3.6%)와 평소 가사 일을 부모가 시키면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는 이용자(0.7%), 중간에 입소하여 훈련 기간이 짧았던 이용자(9.2%)의 경우였음. - 일상 생활 기술 향상을 위해서 가정과의 연계에 보다 집중하였음. 복지관에서의 청결, 정리 정돈, 청소, 식사 준비 등의 훈련 내용을 과제 알림장에 상세히 기록하여 부모(보호자)에게 격주로 전달하고 주말에 가정에서 수행할 과제를 제공함. 보호자들은 수행 결과를 과제 알림장에 서면 기술하여 보냄으로써 가정에서 이용자의 일상 생활 기술 수행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음. 여건 조성을 위해 부모 상담과 가정 방문 훈련 시 부모 교육(이용자에게 가사에 참여시키는 방법)을 실시하였음. 		

평가 결과
<p>- 평소 가사를 분담하여 수행해 왔던 이용자, 보호자의 생활 특성상 가사 참여가 어려운 이용자 등의 경우에는 일상 생활 훈련 성취도 변화율이 매우 낮게 나왔음. 이용자 대부분이 복지관에서의 일상 생활 기술 훈련에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나, 보호자가 가정에서 이용자에게 가사에 참여할 기회(복지관에서 익힌 기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 비록 서둘지만 이용자가 수행해 보도록 기다려주기)를 제공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일상 생활 기술 수행 능력의 향상 정도가 현저히 다르게 나타났음.</p>

성과 목표 3.	성과 지표	자료원 및 자료 수집 방법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 사회 시설 이용 능력을 10% 높인다.	· 각 영역별 지역 사회 시설 이용 훈련 프로그램 참여율 · 사회 적응 훈련 성취도 변화율	· 프로그램 일지·출석부 · 센터 자체 평가지 사전·사후 평가

평가 결과
<p>· 각 영역별 지역 사회 시설 이용 훈련 프로그램 참여율</p> <p>- 평균 참여율 97.5%(평균 회당 12.7명/13명)</p> <p>- 지역 사회 시설 이용 훈련은 상점 이용, 식당 이용, 거주지 상점 이용 훈련으로 진행하였음.</p> <p>- 상점을 이용하기 전 이용자들이 구입하기 원하는 물품을 선택하게 하고, 선택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상점을 알아보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흥미와 참여율을 높였음(이용자들의 간식 구입을 위한 제과점, 어버이날 선물 구입을 위한 양말 가게, 약국, 청결 훈련과 관련하여 속옷 구입, 추석 선물 구입을 위한 마트 이용 등).</p> <p>- 식당 이용 훈련에서는 이용자들이 원하는 음식 및 식당을 고를 수 있게 하고, 훈련이 필요한 식사 예절을 익힐 수 있는 식당을 염두에 두고 훈련을 실시하여 이용자들의 참여율 및 훈련 효과성을 높였음.</p> <p>- 거주지 상점 이용 훈련 시에는 이용자가 원하는 물품을 구입하기보다, 부모와 연계하여 보호자가 지시한 물건을 구입하게 함.</p> <p>· 사회 적응 훈련 성취도 변화율</p> <p>- 평균 사회 적응 훈련 성취도 변화율 24.6%</p> <p>- 평소 휠체어를 이용하여 보호자의 협조가 없을 경우 지역 사회 시설 이용이 제한되었던 이용자의 경우 다양한 상점 및 식당 이용 훈련을 통하여 매우 높은 성취도의 변화(38.1%)를 보였음.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훈련을 통하여 10% 이상의 향상을 보였음(11.6%, 13.5%, 14.2%, 14.2%, 20.0%, 21.3%).</p> <p>- 평소 지역 사회 시설 이용 경험이 많은 이용자의 경우 변화율이 미미(2.6%)하였으며, 보호자가 자녀에 대해 ‘혼자서는 못할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어 가정에서의 훈련 기회가 제한적인 이용자의 경우, 변화율이 2~3% 정도(2.6%, 3.8%)로 매우 낮았음.</p> <p>- 복지관과 거주지 인근 상점 이용 훈련을 통하여 이용자들이 스스로 물건을 선택하고 계산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며, 평소 자신이 원하던 물건을 직접 구입함으로써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음.</p> <p>· 언어 표현이 어려운 이용자의 경우 사전에 원하는 물건의 그림판을 준비하여 의사 표현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 시설 이용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었음.</p> <p>· 평소 보호자가 상점에서 물건을 사오라는 심부름을 시켜도 하지 않으려던 이용자가 본 훈련에 참여하면서 물건 구입 심부름을 하게 되었다는 점, 보호자가 스스로 할 수 없을 거라는 선입견 때문에 상점 심부름을 시키지 않거나 다른 가족이 시키는 것도 못하게 하였던 이용자가 상점 심부름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은 훈련의 성과라고 할 수 있음.</p>

성과 목표 4.	성과 지표	자료원 및 자료 수집 방법
부모(보호자)와 거주지 인근 상점 관계자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를 도모한다.	장애인(자녀)에 대한 인식·태도 변화 정도	· 부모(보호자) : 심층 면접 · 거주지 인근 상점 관계자 : 관찰 · 각종 기록지(개별 활동 일지, 부모 상담 일지, 훈련 결과 보고서, 과제 알림장 등)

평가 결과

- 1) 자녀에 대한 보호자의 사전 인식·태도
 - 심층 면접
 - 뇌전증이 있는 이용자의 경우 ‘프로그램에 잘 참여할 수 있을까’ 의심함.
 - “지금껏 해도 안 되었는데... 이거 안 하면 안돼요? 선생님이 고생하시겠어요”라며 자녀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를 표현하였음.
 - “손가락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여 옷 입고 씻는 것 잘 못해요. 먹는 것 질제가 잘 안돼요. 아버지와 병원에 가다가 애를 잃어버렸어요” 등 이용자 관리의 어려움과 보호자의 신체적·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였음.
 - “애가 워낙 고집이 세서 잘할지 모르겠어요. 워낙 늦둥이다 보니 늦되는 줄만 알고 조기 교육을 시키지 못해 할 줄 아는 것이 없어요”라고 자녀에 대한 부정적·회의적 태도를 보였음.
 - “특수 학교 다니는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해서 제 아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해요. 어떻게 케어하고 훈련해야 하는지 어려워요. 같이 사는 것을 포기하고 싶어요”라고 호소하였음.
 - “중도 장애로 머리가 정상이 아니어서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똑바로 걸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손으로 글씨를 못 써요”라고 토로하면서도 보호자는 뇌 손상으로 인한 장애가 완치될 수 있다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걷기와 글쓰기에 초점을 맞췄음.
 - 이용자가 일상 생활 기술과 사회 적응 기술을 비교적 기능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보호자들은 ‘시키면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

- 2) 훈련을 하니 뭔가 된다는 것을 언제 어떻게 인식했는가?
 - 과제 알림장
 - 훈련 상반기 : 대부분의 이용자 보호자들은 과제 알림장 비교란에 “시켜도 하지 않아요” “시키지 못했어요” “훈련이 더 필요해요” 등을 적어, 훈련 결과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음.
 - 9월 이후 : “시키면 곧잘 합니다”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합니다” “부족하지만 시키면 하네요” 등 훈련 결과에 대해 조금씩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였음.
 - 심층 면접
 - “어느 순간부터 밥을 먹고 행주질하고 반찬을 모두 집어넣고 설거지도 깨끗이 해놓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한 번은 저녁 늦게 아이가 없어져서 찾으러 다녔는데, 혼자서 큰길을 건너 제과점에 가서 빵을 사 가지고 왔어요. 이제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물건을 사러 가기도 해요.”
 - “평소 시키면 가사 일은 곧잘 도왔어요. 그런데 상점에서 물건 사오라는 것은 안 하더라고요. 주말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나서는 심부름을 시키면 나가서 사 가지고 와요.”
 - “자신이 기본이 좋으면 밥 먹기 전에 식탁도 닦고 수저도 놓고 해요. 하지만 좀 아니다 싶으면 시켜도 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청소기로 청소하면 스스로 대걸레를 들고 뒤를 훑아오며 닦기도 해요.”
 -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가 뭔가 되기는 되는 것 같다고 말을 해요. 아이가 조금씩 변하고 좋아지는 것 같다고 해요. 목욕 후 수건을 빨래 통에 가져다 놓기도 하고 식탁을 행주로 닦기도 하고 빨래 개고 널기도 곧잘 해요.”
 - “상점 이용하기는 집에서 시켜볼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간혹 시키면 오히려 못하게 말렸어요. 그런데 주말 과제를 받고 시켜보니 정말 해내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은 오히려 간단한 것을 일부러 시켜요.”

- 3) 자녀에 대한 보호자의 사후 인식·태도
 - 심층 면접
 - 자녀에게 기회를 주어 시켜보니 이용자도 훈련을 하면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 온 가족이 그 점에 기뻐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이용자에게 일상 생활에서 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 복지관에서의 훈련을 통하여 가정에서 미미하게나마 이용자의 긍정적 변화(집안 심부름하기, 식후 빈 그릇을 싱크대에 가져다 두기, 소소한 대화 가능해짐)를 인식함.
 - 자녀의 부정적인 면(고집, 심한 장애 정도 등)보다 긍정적인 면(혼자 컴퓨터를 조작하고 원하는 것을 수행하는 것 등)을 발견하고 생활 속에서 이용자가 해보도록 기다려주며 연습할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함.
 - 부모 상담을 통해 이용자 훈련 방법에 대해 교육받은 내용을 적용해 보니 정말 이용자가 잘하더라고요 함. 자녀 지도 방법을 지속적으로 알아가면서 적용하여 훈련하려고 함. 지금까지는 될 수 있으면 이용자와 함께 외부 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가족이 함께 자주 외출하려고 함.

평가 결과

4) 시설 이용을 위한 개별화 맞춤 현장 훈련에 대한 이용자와 주변 반응

- 이용자
 - 평소 쉽게 주어지지 않는 경험의 기회를 얻어 처음에는 수행 정도가 미숙하여 담당자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였음. 그러나 훈련 횟수를 거듭함에 따라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서 스스로 하려는 모습을 보였음(장바구니 들기, 구입 물품 찾으러 가기, 계산대에 물건 올려놓기, 카드 또는 현금으로 계산하고 영수증 받기, 물건 담기).
 - 한 이용자는 처음 보호자가 심부름시킨 항목에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없어 불만스러워했으나 이후 그러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음.
- 보호자
 - 자녀가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부족한 경우 : 훈련 참여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부정적
 - 자녀에 대한 이해 정도가 높은 경우 : 이용자 훈련에 적합한 물품 구입을 지시해 훈련 효과를 높일 수 있었음.
 - 자녀와 보호자가 구입할 물품을 상의해 정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자녀가 원하는 것을 구입하게 하는 경우 구입 후 자녀의 선택에 불만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었음.
- 지역 상점 관계자
 - 이용자 거주지 인근의 상점 방문 시 홍보물을 전달하고 활동에 대한 간단한 안내와 이용자에 대한 관심을 당부하였음. 거주지 인근 상점 이용 훈련을 처음 진행할 때는 대부분의 상점 직원과 계산원이 무표정으로 응대하였음.
 - 많은 이용자들이 같은 장소의 상점을 반복 이용함에 따라 상점 직원과 계산원의 응대 및 표정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음 (매 활동 사진 비교).
 - 평소 담당자가 자주 이용하는 문구점에 이용자와 함께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방문하였을 때, 문구점 직원은 표정이 경직되어 이용자에게 다소 불친절한 반응을 보였음. 직원에게 훈련 내용을 안내하자 비로소 얼굴 표정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볼 수 있었음. 많은 곳에서 장애 인식 개선 활동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그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많다는 것을 체감하였음.

IV. 사업 성과 및 제언

1. 사업 성과

1) 성인 중증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위한 역량 강화

일상 생활과 지역 사회 적응에 필요한 상황별 의사 표현 훈련, 각 영역별 일상 생활 훈련 및 가정 방문 훈련, 복지관에서의 지역 사회 시설 이용 훈련(상점·식당) 및 거주지 인근 상점 이용 훈련을 통하여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자립 생활의 기반이 되는 의사 표현, 일상 생활 기술, 지역 사회 시설 이용 기술 등의 역량을 높일 수 있었다. 혼자서 대중 교통 이용이 어려워 거주지 인근의 본 센터를 이용했던 이용자(정신 장애 2급)는 훈련을 통하여 정신 건강 증진 센터의 직업 훈련 과정을 이용하게 되었다. 또한 사전에 부모와 함께 개별화 훈련 목표를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이용자의 수준에 맞는 개별화 훈련을 틈틈이 실시함으로써 각 이용자들의 영역별 기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언어 표현 및 언어 이해가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AAC의 활용으로 선택 및 표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훈련에 대한 흥미를 촉진하여 그들의 사회적 기술 능력 또한 향상시킬 수 있었다.

2) 성인 중증 장애인의 자립 생활 훈련 시 부모 연계의 중요성 확인

사전에 이용자를 평가하고 훈련 목표를 수립하는 데 보호자를 참여시키고, 격주로 과제 알림장을

배부해 진행된 훈련 내용을 전달하였으며 주말에 함께 수행할 과제를 부여함으로써 부모(보호자)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사후 평가 결과, 부모가 적극적으로 이용자의 훈련 과정에 관심을 보이고 참여한 경우 이용자의 각 영역별 성취도 변화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복 훈련을 하여도 변화가 매우 미미한 성인 중증 장애인의 경우, 자립 생활을 위한 훈련에 부모와의 연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3) 지역 사회 내 지역 사회 시설 관계자에 대한 장애 인식 개선

복지관에서 지역 사회 시설 이용 훈련을 실시하기 전에, 항상 해당 시설을 사전 방문하여 활동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가능한 한 이용자들이 복지관 내에서 사전 연습한 것을 실전에서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였다. 사전에 협조를 약속하였다 해도 상황에 따라 불편함을 표현하는 관계자들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시설 관계자들이 처음보다는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좀 더 기다려주는 모습을 보였고, 휠체어 이동 등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달려와 도와주기도 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용자와 함께 다양한 시설들을 방문하고 반복 이용하면서 지역 사회 주민들에게 담당자와 이용자들의 활동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 그 어떤 장애 인식 개선 활동보다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한다.

2. 제언

본 프로그램에서는 중증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사회 내의 자립 생활에 필요한 일상 생활 기술과 사회 적응 기술을 습득하게 하고자, 능력별·수준별 개별화 계획에 따라 훈련을 제공하였다. 자원봉사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각 이용자별로 개별화 훈련 목표가 수립되어 틈틈이 개별화 훈련을 진행함에 있어 각 이용자들에게 1:1로 자원봉사자를 매칭할 수 있다면 이용자의 기술 능력 향상에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V. 향후 계획

1. 언어 표현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개인별 AAC 지원

성인 중증 장애인은 지금까지 스스로 선택하거나 결정할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았다. 말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보호자가 대부분 대신하여 선택하고 결정해왔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하여 그림판을 이용하여 스스로 선택하고 타인에게 요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언어 표현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있어 AAC(보완 대체 의사 소통)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올해 경험을 토대로 언어 표현이 어려운 이용자에게 개인별 AAC를 지원한다면 이용자의 상호 작용 범위가 담당자나 보호자에 국한되지 않고 넓어져 이용자의 활동 영역이 확장될 수 있으며, 그들의 도전적 행동도 감소할 것이다.

2. 성인 중증 장애인의 자기 결정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 진행

이용자 능력에 맞는 AAC의 지원을 통하여 자립 생활에 필수적인 자기 결정 능력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자 한다. 올해에는 일상 생활 기술 능력 및 지역 사회 시설 이용 기술 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러한 기술 능력을 유지하면서 일상 생활 속에서 선택 및 결정의 순간에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그 결과를 책임질 수 있게 훈련을 진행하고자 한다.

3. 성인 중증 장애인 보호자를 위한 맞춤형 부모 교육 지원

이번 프로그램의 사전 · 사후 평가를 위해 보호자와 상담하는 가운데, 평생 돌봄이 필요한 성인 중증 장애인 대부분의 보호자들이 이제 자신을 위해 시간 보내기를 원하고 있으며, 장애 자녀의 미래 설계에 대하여는 ‘부모 사후에 비장애 자녀가 돌보아 줄 것’이라는 혼자만의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대부분의 보호자들이 장년 · 노년기에 진입하여 장애 자녀의 미래 설계에 대한 정보 수집이 어려워져 자신들의 노후 준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의 생애 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장애 청소년 보호자 대상의 자녀 미래 설계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본 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보호자들은 그러한 서비스를 경험하지 못하였기에 이들에게 맞춤형 부모 교육을 통하여 실현 가능한 이용자의 미래 설계를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사례 21

탈 시설 장애인 자립 생활 멘토링 교육 시스템 구축 및 사회 참여 확대 사업

“선배에게 배우는 자립 이야기,
자립 생활 멘토링 프로젝트”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정다운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규식

I. 프로그램 실시 배경

서울시 소재 체험 홈 및 자립 홈 거주자 대부분은 전국 시설에서 자립한 장애인들이다. 그러나 자신의 욕구와 인권을 위해 탈 시설을 원하더라도, 수십 년간 시설에서 생활해온 장애인은 독립 후 급격히 변화된 생활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워 스스로 자립 생활을 결심하기에는 애로점이 많다. 따라서 효과적인 멘토링을 위해서는 선배 탈 시설 장애인들이 직접 방문해 주거 확보 방법, 장애인 인권 문제 등을 지도하는 탈 시설 지원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시설 거주 장애인에 대한 자립 준비 교육 못지않게, 이미 시설을 나와 자립 생활 중인 장애인이나 체험 홈에 거주하며 자립을 준비하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사회 적응을 못해 시설에 재입소하는 일이 없도록 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자립 생활 센터와 거주 시설 내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뿐 아니라, 지역 장애인 복지관 및 유관 단체와의 폭넓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공동 사업 성공의 경험이 필요하다.

본 공동 수행기관인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은 지역 내 마을 공동체 네트워크, 주민 조직과의 관점 공유 및 공동 행사 추진 등을 통해 탈 시설 장애인이 지역 사회 내에서 밀접한 관계 형성을 할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자립 생활 자조 모임 등 원활한 협력 사업 수행을 통해 장애인 단체만이 아닌 복지관, 마을 조직과의 시너지 효과를 상호 체감하고 있으며, 초영역적 협력을 통한 장애인 자립 지원 사업의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한다.

II. 프로그램 개요

1. 목적

탈 시설 장애인 멘토 양성 교육을 통한 멘토 장애인의 주체적 사회 참여 확대 및 시설 거주 장애인 멘티에 대한 멘토링으로써 자립 지원을 도모하며 지속 가능한 탈 시설 장애인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한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2. 목표 및 하위 목표

목표 1. 탈 시설 장애인의 전문 기술 함양 및 주체적 사회 참여 능력을 향상하여 당사자 멘토 양성 과정을 진행한다.

하위 목표 1. 멘토 장애인 오리엔테이션을 2회 진행하여 공감대 형성과 공동 목표를 수립한다.

하위 목표 2. 장애인 멘토 교육 기초 과정을 15명이 총 7회 진행하여 상담 기법을 배운다.

하위 목표 3. 멘토 양성 심화 교육을 탈 시설 장애인 15명이 도구를 활용한 상담 기법, 워크숍을 통해 수료한다.

목표 2. 양성된 멘토들이 멘토링을 진행하여 시설 거주 장애인 및 초기 탈 시설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한다.

하위 목표 1. 초기 탈 시설 장애인들과 멘토링을 월 1회, 총 7회 진행한다.

하위 목표 2. 양성된 멘토, 시설 거주 장애인 멘티 멘토링을 월 1회, 총 7회 진행한다.

목표 3. 네트워크를 지속하여 탈 시설 장애인 중심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자립 지원 사업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하위 목표 1. 자립 생활 협력단 네트워크 모임을 진행하여 탈 시설 장애인 중심 시스템 구축을 연 6회 진행한다.

3. 프로그램 대상

대상자 범위	개념적 범위	탈 시설을 했거나 탈 시설 예비 장애인으로 자립 생활의 욕구가 있고, 자신의 전문 기술을 나눌 수 있는 장애인
대상자 구분	주된 참여자	멘토 : 탈 시설 장애인으로 자립 생활과 주체적 사회 참여에 관심이 많은 장애인(멘토 양성 과정 참여자 15명)
	주변 참여자	멘티 : 현재 시설 거주 또는 탈 시설 초기 단계로 체험 홈에 거주하며 탈 시설, 자립 생활에 관심이 많은 장애인(탈 시설 초기 체험 홈 거주 장애인 5명, 시설 거주 장애인 10명)

III. 프로그램 진행 및 평가

1. 세부 프로그램 진행 내용

프로그램	일정	횟수	세부 내용	수행 평가	
오리엔테이션	2월	1회	· 사업 설명회 · 욕구 조사	· 탈 시설 설계도 작성 · 프로젝트 팀 소개 · 선배에게 배우는 자립 생활 이야기 사업 설명 · 욕구 조사 및 신청서 작성	
기초 과정 멘토 교육	자립 생활 기본 교육	3월	1회	· 탈 시설 역사 · 탈 시설 필요성에 대한 교육	· 사전 개인 내적 임파워먼트 척도 검사 · 교육 및 토론 형식으로 진행 · 공감 형성 프로그램 진행
	탈 시설 정책의 이해	3월	1회	탈 시설 정책의 이해 교육	· 정책에 대한 이해 교육 · 탈 시설 당사자 인터뷰 · 후배 탈 시설 당사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 제공 교육
	발달 장애인의 이해 및 자립	4월	1회	· 발달 장애인의 이해 및 자립 생활 · 발달 장애인을 바라보는 편견	· 발달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는 교육 · 선배 당사자의 장애 유형이 지체, 뇌병변 장애인이 많음에 따른 이해 교육
	상담 방법 (동료 상담)	4월	1회	동료 상담의 이해 및 실천	· 선배 멘토의 중요성 인식하기 · 상담을 통한 이야기 나눔 방법 익히기 교육
심화 교육	상담 기법 (AAC)	4월	1회	보완 대체 의사 소통 프로그램 이해	· AAC 장애 패러다임 변화 · 보완 대체 의사 소통 프로그램의 이해를 통한 지역 사회의 차별 해소 방안
	멘토링 실습 교육	6월	1회	실질적인 멘토 및 멘티 상담 연습	· 이력서 및 멘토 일지 작성법 · 멘토링 진행시 진행 논의 · 멘토의 역할 점검 교육
	심화 워크숍	5월	1회	선배에게 배우는 자립 이야기, 선배 멘토 심화 워크숍	· 2박 3일 심화 워크숍 · 편의 시설 조사, 탈 시설 방향의 문제점 알아보기, 탈 시설 및 편의 시설 피켓 만들기, 소감 나누기 등 · 프로젝트 팀 연대 강화 · 멘토 역할 격려 및 지지
초기 탈 시설 장애인 멘토링	5~12월	20회	· 멘토링 진행 - 멘티 : 초기 탈 시설(자립 생활 주택) 거주 장애인 및 재가 장애인 - 멘토 : 선배 탈 시설 장애인	· 멘토, 멘티 멘토링 월 1회 진행 · 개별 멘티의 욕구에 따른 멘토 개별 진행	
시설 거주 장애인 멘토링	5~11월	117회	시설 거주 장애인 멘토링	· 멘토와 멘티를 중심으로 하루 일정을 기획하여 진행 · 1일 자립 생활 체험, 2박 3일 체험 등 거주 시설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진행	

프로그램	일정	횟수	세부 내용	수행 평가	
자립 생활 협력단 네트워크 회의	협력단 워크숍	1, 7월	2회	· 이음*영장이 step by step · 이음*영장이 상반기 잘 살았나?	· 시그모이드 곡선 활용을 통한 두 기관의 연대 방향성 모색 및 가치와 생각 공유 · 워크숍 방식의 열린 진행 ·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선포 · 앞으로의 방향성 기획 · 두 기관 연대의 강점 · 보완 사항 및 방향성 논의 · 상반기 사업 평가
	공동 기획 회의	1~12월	13회	· 사업 기획 · 프로젝트팀 연대 회의	· 프로젝트 팀 기획 회의를 통한 세부 내용 구축 및 진행 · 프로젝트 사업 점검 및 변화 · 연대 기관 업무 분담 등
사례 회의 및 피드백 회의	9, 12월	2회	멘토 간담회	· 멘토링 평가, 어려운 점 논의 · 멘토링 점검하기	
사업 평가 보고 대회	12월	1회	사업 보고 대회	멘토, 프로젝트 팀, 인권 단체 등 사업 보고 대회	

2. 과정 평가

프로그램	목표량	산출량	평가 결과	
오리엔테이션	1회/15명	1회/18명	· 기관에서는 탈 시설 당사자가 가장 모이기 쉬운 컨소시엄 기관 정기 총회를 이용하여 사업 설명회 및 프로젝트 팀 선포를 진행 · 참여 인원 54명(유관 기관, 마을 단체, 당사자, 활동 보조, 진행 인력 포함) · 탈 시설 설계도 활용을 통한 탈 시설 당사자의 이야기를 쉽게 이끌어 냄. · 욕구 조사 내용 중 거주 시설 장애인에게 멘토 역할을 묻는 문항에 "상담도 해주고 어려운 것도 도와주는 지원자"라고 응답하여 프로젝트 팀과 사업을 이해 및 반영함.	
기초 과정 멘토 교육	자립 생활 기본 교육	1회/15명	1회/26명	· 장애인 시설 현황, 욕구 등 교육을 통해 탈 시설 연계의 필요성 인식이 확산됨. · 사전 공동 기획 회의를 통해 장소를 정했으나 많은 인원이 참석해 추후 공간 확보 진행
	탈 시설 정책의 이해	1회/15명	1회/20명	· 멘티에게 실질적 정보 제공 가능한 교육으로 진행 · 탈 시설 정책을 잘 아는 당사자를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교육 진행
	발달 장애인의 이해 및 자립	1회/15명	1회/14명	시설에서 발달 장애인과 함께 생활했던 부분을 공유하고, 발달 장애인을 기다려주지 못하거나 급하게 소통하려 한 당사자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함.
	상담 방법 (동료 상담)	1회/15명	1회/16명	· 멘토 필요성을 인식하고, 당사자의 탈 시설 시 어려움을 공유하며 역할 중요성을 인식 · 동료에 대한 공감과 탈 시설 당사자의 도움으로 자립 생활이 가능했던 멘토 경험 공유 · 탈 시설 당사자 멘토가 장애인 거주 시설에 방문하여 탈 시설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지지 체계가 있음을 멘티와 함께 인식함.

프로그램	목표량	산출량	평가 결과	
심화 교육	상담 기법 (AAC)	1회/15명	1회/19명	· 당초 스토리텔링, 상담 기법으로 추진하려 하였으나, 욕구 조사 시 다른 교육 희망도가 높아 변경 · 거주 시설 장애인 당사자에게 AAC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AAC에 대한 기본 이해 도모 · 의사 소통 차별 문제는 해결 가능하다는 점을 모든 멘토 선배에게 이해시킴.
	멘토링 실습 교육	1회/15명	1회/19명	멘토 일지 작성 및 이력서 작성 방법 교육으로 멘토 일지의 필요성 인식
	심화 워크숍	2회/30명	3회/51명	· 워크숍 후 소감과 평가 공유로 프로젝트 팀 상호 연대 의식 강화 · 자립 생활 전반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음. 멘토 활동 격려 · 지지로 멘토 인식 강화 · 직접 피켓을 만들고 남이섬 곳곳을 돌며 사진 콘테스트 진행, 관광객의 인식 개선 도모
초기 탈 시설 장애인 멘토링	35회/70명	20회/40명	· 초기 탈 시설(자립 생활 주택) 거주 장애인 및 재가 장애인 멘티와 선배 탈 시설 멘토의 멘토링 진행 · 멘토 활동을 통해 시설 재입소 예방 및 동료 상담 진행 · 멘티 감소는 초기 탈 시설 장애인 당사자의 사회 참여가 확대된 것이기에 문제가 없음. 시설 거주 장애인 멘토링 횟수 증가 진행	
시설 거주 장애인 멘토링	70회/140명	117회/227명	· 거주 시설이 서울 외 지역에 다수 위치해, 2박 3일간의 자립 생활 체험 및 멘토링 진행 · 선배 장애인의 멘토링 진행 내용 및 효과 - 자립 생활 기본 정보 제공, 지역 편의 시설 이용, 자신의 선택권 존중에 기반한 멘토링 - 시설 거주 장애인의 자립 계획에 도움 - 선배 장애인의 사회적 역할을 확장함.	
자립 생활 협력단 네트워크 회의	협력단 워크숍	-	2회/21명	· 양 기관의 장점과 차이를 이해하는 장이 되었으며, 함께 연대하는 목표 설정 · 실질적인 이야기를 통하여 문제를 사전 예방할 수 있었으며, 신뢰에 근거한 사업을 진행 할 계기가 됨. 추후에도 지속적인 모임을 가질 기본 시스템 구축 가능 · 상반기 사업 평가를 통한 하반기 연대의 방향 설정, 두 기관의 연대 목적 성찰
	공동 기획 회의	3회/30명	13회/62명	· 세부 일정에 대한 기획 및 탈 시설 당사자를 포함해 진행함.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이 함께 연대 회의 진행 · 양 기관의 연대와 방향 등 목표 설정 · 지속 가능한 교육 시스템 구축 및 사회 참여 확대라는 공동의 지향점으로 추진
사례 회의 및 피드백 회의	2회/20명	2회/23명	· 멘토링에 대한 피드백 회의를 위해 멘토링 진행 중 모임 개최, 활동 시 어려운 점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워크숍 · 멘토링의 강점과 앞으로 추진해야 할 방향 설정 가능, 어려움에 대한 대처 능력 향상	
사업 평가 보고 대회	1회/10명	-	12월 사업 논의 진행	

3. 효과 평가

성과 목표 1.	성과 지표	자료원 및 자료 수집 방법
멘토 탈 시설 장애인의 전문 기술 함양 및 주체적 사회 참여 능력을 30% 이상 향상한다.	· 개인적 능력, 집단에 대한 인식, 자기 결정 변화도 · 교육에 대한 만족 정도 · 교육 참여도	· 멘토 장애인 · 각 기관 담당자 · 강사 · 개인 내적 임파워먼트 척도

평가 결과

- 멘토 탈 시설 장애인의 전문 기술 함양 및 주체적 사회 참여를 위하여 멘토 양성 과정으로 기초 및 심화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오리엔테이션을 포함 10회기 교육에 참여한 인원은 155명으로 평균 15.5명이 참여함.
- 개인 내적 임파워먼트 척도를 통하여 하위 영역(개인 능력, 집단에 대한 인식, 자기 결정)의 변화도를 파악함.
- 사전 검사에서는 개인 능력 관련 문항에 평균 2.91점, 집단에 대한 인식 관련 문항에 평균 2.92점, 자기 결정에 관한 문항에 평균 2.6점이 나타났음.
- 멘토링 이후 사후 검사에서는 개인 능력 점수는 -0.1점이 된 2.8점이 나타났으나, 집단에 대한 인식 점수는 0.4점이 향상된 3.3점을 나타냈음. 자기 결정에 대한 문항에는 0.2점이 오른 2.8점을 나타냈음.
- 사전·사후 검사에서 개인 내적 임파워먼트 척도를 통해 선배에게 배우는 자립 이야기, 자립 생활 멘토링 프로젝트로 당사자 전문 기술을 향상시키고 사회 참여 능력을 확대함을 확인함.
- 조사 후 '중증 장애인의 개인 능력'이 많은 제약이 있는 문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추후 이 척도보다는 질적인 자신의 변화도를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탈 시설 설계도 내용 일부 사례 : 사업 설명회를 통한 선배 당사자의 중요성 인식
- 참여자 A : 탈 시설은- 꿈이다.
- 참여자 B : 탈 시설은- 필요하다.
- 참여자 C : 탈 시설은- 기대된다. / 시설은- 멀다.
- 참여자 D : 시설은- 멀다. / 해결 방법은- 투쟁이다.
- 욕구 조사 내용 중 거주 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멘토의 역할이 무엇인지 묻는 문항에 "상담도 해주고 어려운 것도 도와주는 지원자"라고 응답하여 프로젝트 팀과 사업을 이해하고 의도가 반영된 것을 알 수 있었음.
- 인터뷰 내용(심화 워크숍 진행 시)
- 참여자 E : "풍족하게 보냈다. 2박3일간 즐겁게 놀았습니다. 탈 시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서 좋았어요. 겨울연가 촬영지라서 좋았어요.
- 참여자 F : "처음으로 탈 시설 나온 사람들하고도 와서 좋고, 놀러온 거 같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잘 들어서 좋았고, 앞으로도 활동을 꾸준히 하게 하면 좋겠다. 잘 어우러져서 시설에 계신 분들에게 멘토를 잘했으면 한다."
- 결과 : 지속 가능한 선배 멘토단의 기술 함양과 지속적인 사회 참여를 도모할 수 있었음. 선배 멘토단으로 안정을 찾아감.

성과 목표 2.	성과 지표	자료원 및 자료 수집 방법
멘티 시설 거주 장애인 및 초기 탈 시설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 고립감을 30% 이상 해소한다.	· 멘티의 정서적 및 사회적 고립과 소외감 변화도 · 자립 생활에 대한 이해 정도 · 멘토링 참여도	· 멘티 장애인 · 멘토 장애인 · 정서적 및 사회적 고립 척도 · 만족도 조사 · 멘토링 출석부

평가 결과

- 멘티 시설 거주 장애인 및 초기 탈 시설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해 멘티의 정서적 및 사회적 고립과 소외감 척도를 활용하려고 하였으나, 멘티의 경우 언어 장애와 발달 장애인이 많아 해당 척도 사용이 어려웠음.
- 초기 탈 시설 멘토링 진행 횟수 : 20회 40명의 연 인원 달성
- 시설 거주 장애인 멘토링 : 2박 3일, 1일 멘토링 등 다방면의 멘토링 진행
- 멘토링 결과와 의의 : 선배 멘토의 자립 생활 기본 정보 제공, 지역 편의 시설 이용, 자신의 선택권 존중에 기반한 멘토링을 진행함. 이로써 후배 탈 시설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확대하고, 선배 장애인의 사회 역할도 확대되었음.

평가 결과

- 멘토로서 모임을 통해 이야기한 부분
- 참여자 G : 선택함에 있어 어려운 점을 서로 도와준 것이 기억에 남는다. 자립을 먼저 한 선배로 조언을 준 것이 뿌듯하다.
- 참여자 C : 선생님에게 자립 생활에 도움을 많이 받았다. 나도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라도 정확히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 참여자 I : 탈 시설해서 나올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받았다. 나도 도움을 받았으니,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 돕고 싶다. 열심히 권리 행사할 때 멋있다고 생각한다.
- 탈 시설 초기 선배의 멘토 일지
- 멘토링에 참여한 멘티들은 지역 사회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한 좋은 점과 어려운 점을 느끼고 있으며, 자기 결정권에 따라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즐거웠다고 밝힘. 이를 통해 활동 보조인이나 멘토의 도움이 있다면 거주 시설에 살고 있는 멘티도 자립 생활이 가능하다 생각됨.

성과 목표 3.	성과 지표	자료원 및 자료 수집 방법
탈 시설 장애인 중심 멘토링 시스템 구축을 통한 자립 지원 사업 안정화를 도모한다.	· 사례 회의, 피드백 회의 진행 횟수 · 보고집 발간 여부 · 간담회, 평가회 참여자 만족정도	· 각 기관 담당자 · 강사 · 멘토 장애인 · 네트워크 회의록 · 협약서 · 간담회 결과 보고서

평가 결과

- 탈 시설 장애인 중심 멘토링 시스템 구축을 통해 자립 지원 사업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프로젝트 팀에서는 연간 간담회를 13회, 워크숍을 2회 추진하였음.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캠페인 등에도 연대 기반이 만들어졌음.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 확대에도 많은 부분 성공하여, 활동을 지속 가능케 하는 망이 확충되었다고 사료됨.
- 평가회 및 피드백 회의를 진행, 당사자의 참여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양 기관이 힘을 모았음.

IV. 사업 성과 및 제언

1. 사업 성과

장애인 자립 생활 센터와 장애인 복지관이라는 두 시스템 간에 실리적 네트워크가 가능했던 것은 소통과 신뢰에 기반한 덕분이라고 생각되며, 이는 본 사업의 가장 큰 성과가 아닐까 한다. 이로써 연대의 가치를 깨닫고 장애인 복지관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다.

1) 탈 시설 당사자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 시설 거주 장애인 및 초기 탈 시설 자립 경험

멘토 양성 교육을 통하여 탈 시설 당사자가 직접 후배 당사자들의 멘토가 되어 활동할 수 있었으며, 멘토단의 사회 참여와 활동을 지지하고 격려하였다. 무엇보다 탈 시설 당사자가 동료 상담을 통해 자립 생활에 대한 경험을 나누며 편의 시설 이용법, 자기 선택권의 중요성, 어려움에 대한 조언 등 다방면의 멘토링을 펼침으로써, 후배 당사자들의 자립 생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

2) 자립 생활 프로젝트라는 공동 목적의 초석을 쌓음

영등포 지역에는 다양한 인권 단체와 II센터 등 다양한 복지 단체가 있어, 탈 시설 장애인 당사자의 사회 참여를 위한 안전망이 함께 구축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사업을 통해 각 기관의 강점을 알고 이해하면서, 탈 시설 당사자에게 있어 자립 생활이라는 사회적 망이 구축된 것이 아닐까 한다. 본 사업의 공동 수행 기관인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은 지역 내 마을 공동체 네트워크, 주민 조직과의 관점 공유 및 공동 행사 추진 등을 통해 탈 시설 장애인이 지역 사회 내 밀접한 관계 형성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장애인 복지관과 이들 기관은 자립 생활 자조 모임 등 협력 사업 수행을 통해 장애인 단체, 복지관, 마을 조직과의 시너지 효과를 상호 체감하였다. 아울러 초영역적 협력을 통한 장애인 자립 지원 사업의 가능성이 확대되었다.

2. 제언

본 사업의 경우 동료 상담과 많은 부분 유사하지만, 탈 시설 당사자와 프로젝트 팀이 내부에서 멘토링을 다시 정의해보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멘토링 중간에 가졌다. 멘토링을 정의한 후 멘토링을 하다 보니 멘토들은 멘토의 역할을 좀 더 숙지할 수 있었지만, 멘토 양성 과정에서 이 작업을 선행했다더라면 더 효과적이었으리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탈 시설 당사자뿐만 아니라 활동 보조까지 많은 인원이 참여했기에, 소규모 교육의 필요성을 느꼈다. 이런 부분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문 모임이 큰 도움이 되었다.

V. 향후 계획

1차 연도에 서로의 가치를 깨닫고 연대 방향을 설정했다면, 2차 연도에는 더 깊은 연대를 진행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탈 시설 장애인 당사자 중에 발달 장애인 당사자 영역까지 확장하여 더 깊은 선배 프로젝트를 추진하려고 하며, 장애인 자립 생활 센터와 장애인 복지관이 어떻게 강점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알려내고자 한다.

무엇보다 “선배에게 배우는 자립 이야기, 자립 생활 멘토링” 프로젝트의 가장 핵심이었던 멘토링 시스템 구축을 통해 탈 시설 장애인 당사자의 자립망을 안정화하고자 하며, 1차 연도에서 두 기관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다면 내년부터는 더 많은 기관과 연대하여 하나의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사례 22

청각 장애 청소년·대학생의 사회 진출 확대 및 지역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미디어 퍼포먼스 교육, 기획 & 제작, 공연 프로젝트

“DO(Deaf One's youth) 공연단”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최재연

I. 프로그램 실시 배경

대부분의 청각 장애인들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 후에도 사회 진출 및 통합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 진출 후 비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다가도 의사 소통, 배타적 이해 관계, 갈등으로 인해 결국 청각(농)사회로 재흡수되는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다. 이 문제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청각 장애인들의 사회 규범 이해 부족과 정보 접근성 제한, 낮은 수준의 교육으로 인한 자신감 부족 및 사회 진출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고, 두 번째는 ‘청각 장애인은 말도 하지 못할 것이며 함께 어울리기 힘들 것’이라는 그릇된 사회적 관념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진출을 앞둔 청각 장애 청소년 및 대학생 스스로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자신감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만 문제 해결 능력 및 체계적인 프로그램 부재로 참여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기관에서는 청각 장애 청소년 및 대학생이 관심이 많은 미디어 퍼포먼스(춤, 마임, 영상 제작)에 대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연 기획 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거리 공연, 지역 공연, SNS 활동을 통해 청각 장애로 인한 장벽, 어려움, 소통 방법 등을 알리면서 스스로 자신감을 향상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뿐만 아니라 공연 활동 및 메시지를 사회적으로 이슈화함으로써 비장애인들에게 청각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고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여 청각 장애인들의 다양한 사회 참여 및 통합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프로그램 개요

1. 목적

청각 장애 청소년 및 대학생에게 미디어 퍼포먼스(춤, 마임, 영상 제작 등)를 배울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공연을 기획·발표하면서 자신감을 향상시켜 사회 진출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한다. 또한 거리 공연, 문화 공연, SNS 활동을 통해 청각 장애로 인한 장벽, 어려움, 소통 방법 등을 알리고 사회 이슈화하여, 비장애인들에게 청각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고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고자 한다.

2. 목표 및 하위 목표

1) 목표

청각 장애인 인식에 대한 사회 구조 전반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활동하고자 한다. 지역 사회에서 청각 장애인 인식에 대한 앙케이트 조사를 하여 청각 장애 청소년 및 대학생이 직접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한다. 결과에 따라 영상 댄스 종목의 전문 교육을 받고, 청소년 및 대학생이 직접 댄스 공연을 하고 영상을 만들어 상영한다. 지역 사회에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청각 장애인의 어려움을 알리고 청각 장애 인식 개선에 지지하면서 자신감을 20% 향상한다.

2) 과정 목표

목표 1. 청각 장애 청소년 및 대학생 10명 모집, 면접을 통한 선별

목표 2. 지역 사회 현장 방문(앙케이트 조사)을 통한 결과 분석 2회 이상 진행

목표 3. 댄스 및 영상 종목에 대한 전문 강연 18회 이상 진행

목표 4. 사전·사후 조사를 통해서 자신감 향상 체크

목표 5. 댄스 및 영상을 위한 자조 활동(길거리 및 정기 공연) 2회 이상 진행

3) 성과 목표

목표 1. 청각 장애 청소년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기획, 진행, 홍보 활동을 지원하여 자신감을 20% 향상하고 두려움을 극복한다.

목표 2. 지역 사회(개인, 기업, 학교)에서 청각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파악한 후 2회 이상의 공연 활동을 통해 청각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한다.

III. 프로그램 진행 및 평가

1. 세부 프로그램 진행 내용

프로그램	일정	횟수	세부 내용	수행 평가	
기획·사전 단계 및 준비	기획·홍보	1~3월	1회	·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홍보지를 제작하여 진행 · 공연 업체의 프로그램 제안서 검토 후, 프로그램 진행 방향에 맞춰 일정·예산·내용 조율	· 관내 홈페이지 및 관내 게시판에 홍보 포스터 게재 · SNS 및 페이스북에 홍보 포스터 게재 · 공연 업체와 프로그램 진행 방향성에 대한 논의 및 협약
	대상자 모집·선발	1~3월	1회	대상자 모집을 위한 홍보 진행	· 교육청, 학교 공문 발송 · 농아인 협회, 수화 통역 센터 공문 발송 · 관내 홈페이지 및 관내 게시판에 홍보 포스터 게재 · SNS 및 페이스북 홍보 · 복지관 이용자, 지역 네트워크, 기관 실무자를 통한 추천
	오리엔테이션	3월	2회	· 프로그램 안내 · 댄스·영상 강사 소개 · 프로그램 규칙 및 일정 공지 · 프로그램에 대한 질의 응답	· 관내 강당을 이용 - PPT 자료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및 강사진 소개 - 참여 불가한 대상자를 위해 양일간 진행
미디어 퍼포먼스 교육	영상 촬영 기법 교육	4~11월	20회	· 월 3회 Adobe After Effect를 활용한 영상 제작 교육 · 청각 장애인 강사가 교육 담당	· 관내 4층 컴퓨터 교육실 이용 · 관내 컴퓨터에 프로그램 설치, 원활한 교육 환경을 갖추. · 영상 관련 직업을 가진 청각 장애인 강사를 섭외하여 교육을 진행함.
	댄스 기초 교육	4~11월	20회	· 이용자 일정에 맞춰 댄스 교육 진행 · LED 안무 사용 방법 습득	· 관내 강당 및 사당·이수 지역 연습실을 대관해 연습 진행함. · 전문 강사를 활용한 댄스 교육 진행
	워크숍	8월	1회	· LED 스토리 구성 · 댄스 연습 · 공연 의상 구성을 위한 옷 가게 답사	· 관내 강당을 활용하여 댄스 연습 진행함. · 워크숍을 계획할 때, 이용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받아 진행하였음. · 흥대 근처 옷 가게를 돌아다니면서 공연 의상을 구상함.
	앙케이트 조사	12월	1회	· 공연 전 사전 조사 설문지를 통해 청각 장애 및 청각 장애인에 대한 인식 조사	· 협동심 향상을 위해 아이스 뮤지엄 단체 체험을 진행함. · 사전 조사지를 미리 작성하여 안양대학교 담당자와 조율 뒤, 조사 진행
문화 교류 및 공연 활동	문화 공연 관람	8월	1회	· 공연 관람	· 이용자 의견 및 댄스 강사의 조언을 받아 공연에 도움이 될 만한 공연 선정, 단체 관람

프로그램	일정	횟수	세부 내용	수행 평가	
문화 교류 및 공연 활동	지역 길거리 공연	11월	1회	· 부평시장역 길거리 공연을 2차례 진행 - 총 4곡(단체 2곡, 솔로 2곡)의 무대를 준비해 공연함.	· 사전에 부평시장 역사와 연락해 장소 및 시간을 결정함. · 필요 물품 대여(스피커, 마이크, 의자) · 공연 홍보물(현수막, 배너)과 음원 등을 미리 준비해 공연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함.
	정기 공연	11월	1회	· 정기 공연 진행 - 총 관객 63명 · 댄스 동아리 - LED 공연을 포함, 10곡의 공연을 발표함. · 영상 동아리 - 오프닝 영상을 포함한 3개의 영상을 준비, 발표함. · 공연 후, 만족도 및 인식 개선에 관련한 조사 진행	· 포스터 및 배너, 현수막 제작 · 공연장 대관 예약 및 계약 · 댄스 동아리 : 공연 연습 및 공연곡 선정 · 영상 동아리 : 영상 제작(3가지 버전) · 댄스 동아리 및 영상 동아리 인터뷰 진행 · 공연 관련 기관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홍보 · 전국 농아인 협회 및 특수 학교를 중심으로 홍보지 우편 발송 ·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에 공연 관련 글 게재 · 공연 의상 및 필요 물품 준비 · 공연 큐시트 작성 및 인력 배치도 작성, 원만한 공연 진행 · 만족도 및 인식 개선 조사를 위한 패널 제작 · 부족 인원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인력 보충
	초대 공연	12월	1회	· 안양대학교에서 댄스 동아리 공연 진행 · 총 3곡(단체 2곡 및 듀엣 1곡)의 공연을 함.	· 공연 순서 및 곡 관련 사전 협의 - 댄스 동아리 소개 문구 및 사진, 음원 사전 발송 - 사전·사후 조사지 진행 관련 협의 - 사전·사후 조사 진행
	외부 자문	2, 4, 10월	3회	· 프로그램 진행 관련 자문을 받음 · 계획서 대비 변경할 부분에 대한 자문을 받고 그에 맞춰 계획을 변경, 프로그램을 진행함.	· 외부 자문 기관 -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 안산장애인종합복지관 · 프로그램 진행 관련 보고서를 사전 작성하여 프로그램 진행을 보고함.
	온라인 홍보	11월	3회	공연 포스터를 페이스북 및 관 홈페이지,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에 게재	·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에 공연 관련 글을 보내 게재 요청 · 기관 아이디를 이용하여 페이스북 및 관 홈페이지에 홍보 포스터 게재

2. 과정 평가

프로그램	목표량	산출량	평가 결과	
기획·사전 단계 및 준비	기획·홍보	1~3월	1회	· SNS, 인터넷을 중심으로 홍보 진행 · 교육청, 학교 및 농아인 협회, 수화 통역 센터로 공문 발송 · 홍보 결과 청각 장애인 청소년 및 대학생들의 관심을 끌었고, 관련 문의도 많았음. · 공연 업체의 프로그램 제안서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진행 방향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 후 프로그램 목적에 맞는 교육 과정을 마련함.

프로그램	목표량	산출량	평가 결과	
기획·사전 단계 및 준비	대상자 모집·선발	1회	1회	· SNS, 인터넷을 중심으로 대상자 모집 홍보를 진행해 관심을 보이는 대상자는 있었지만 일정 조율이 어려워 대상자 모집이 어려웠음. · 모집 기한을 연장하여 모집을 독려함. · 복지관 이용자 또는 지역 네트워크, 기관실 무자를 통한 추천을 받거나 관련 내용을 문자로 발송함. · 다양한 방법으로 대상자를 모집하였으나, 중도 탈락자가 있어 당초 계획보다 적은 인원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함.
	오리엔테이션	2회	2회	· PPT로 프로그램 내용·규칙·일정·강사에 대한 안내를 진행함. · 프로그램 관련 질문에 답변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자의 궁금증을 풀어줌. · 오리엔테이션을 이틀간 진행, 모든 참여 인원이 오리엔테이션 후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음.
미디어 퍼포먼스 교육	영상 촬영 기법 교육	18회	20회	· 영상 전문 강사를 활용, 전문적으로 영상 제작 기법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함. · 교육 전에 교육 내용과 관련한 문자 발송, 이용자들이 교육을 잊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청각 장애인 강사를 활용, 교육을 진행함. 수화를 하지 못하는 대상자는 담당자가 통역을 맡아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음. · 영상 제작 기법에 대해 더 배울 필요가 있어 교육 횟수를 늘려 진행하였음. · 공연에 사용할 영상(3가지 버전)을 제작함. · 교육 초반에는 이용자들이 다루어 본 적이 없는 프로그램을 배우는 것을 어려워하였으나, 지속적인 격려와 반복 학습으로 충분한 연습 시간을 주어 스스로 영상 제작을 하게 도움.
	댄스 기초 교육	18회	20회	· 댄스 전문 강사를 섭외해 전문적인 댄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복지관이 멀어 연습 후 귀가가 어렵다는 의견을 고려해 이용자가 모이기 좋은 장소를 섭외해 연습을 진행함. · 이용자들의 일정을 체크하여 연습 일정을 계획하였으나, 일정하지 않은 연습 일정과 장소 때문에 사전 공지를 했음에도 이용자들이 혼동한 점이 있었음. · 공연을 준비하려면 추가 강습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교육 횟수를 늘려 진행하였음. · LED 안무 및 공연 곡과 관련하여 연습을 진행하였음. · 학과 시간, 아르바이트와 겹쳐 안무 숙지를 힘들어하는 이용자도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안무를 열심히 외워 와서 공연을 준비함. · LED 안무 능숙자, 걸스 힙합을 경험한 이용자 등이 진도를 잘 따라오지 못하는 동료를 가르쳐주는 등 상호 지지적 체계가 이뤄짐.
	워크숍	1회	1회	· 이용자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워크숍을 계획하고 진행하여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았음. · 워크숍 진행에 필요한 장소나 공연장 등을 미리 예매하여 진행에 차질이 없게 하였음. · 댄스 교육을 심화하여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으나, 댄스 동아리 구성원 중 절반밖에 참여하지 않아 아쉬움이 있었음.
문화 교류 및 공연 활동	양케이트 조사	2회	1회	· 안양대학교 초대 공연 전 청각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 양케이트 조사 실시 · 방학 때 추가 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이용자들의 일정 조율이 어려워 1회만 진행함.
	문화 공연 관람	1회	1회	· 워크숍을 이용, 문화 공연 관람을 진행함. · 이용자와 댄스 강사의 추천을 받은 공연 관람을 통해 공연에 필요한 부분(무대 설치, 동작)을 배울 수 있었음.

프로그램	목표량	산출량	평가 결과
문화 교류 및 공연 활동	지역 길거리 공연	1회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평시장에서 길거리 공연을 약 1시간가량 진행하였음. · 공연과 관련해 부평구청에 연락, 허가를 받고 진행하였으며, 필요 자원을 제공받음. · 공연 시 필요 물품(배너, 현수막, 음원 등)을 사전에 준비해 공연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음. · 공연 곡에 대해 이용자와 강사가 함께 논의한 후, 단체곡과 솔로곡을 각각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여 순서를 정함. · 이용자들은 처음 대중 앞에서 공연하는 것에 대해 많이 걱정했으나, 많이 연습해서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된다고 격려함. 이에 이전보다 더 집중해 연습하는 모습을 보였음. · 공연을 시작하자 역사를 지나가던 시민들이 공연을 관람하며 크게 호응해 줌. · 2회 공연 중 첫 공연에서는 긴장한 탓에 동작도 작아지고 실수가 많았음. 중간 쉬는 시간에 두 번째 공연에 대해서 더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하자, 두 번째 공연에서 동작이 커지고 실수도 많이 줄어드는 등 자신감이 증가함. · 공연 후 평가 회의 진행 - 재미있고 좋은 경험이었으나, 연습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자체 평가함. 다음 정기 공연을 위해 더 열심히 연습하기로 다짐함. · 이후 1회 더 진행하려 하였으나 공연 희망 지역의 공사로 공연 허가를 받지 못했고, 시의성을 감안해 추가 진행하지 않음.
	정기 공연	1회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장 대관 및 홍보를 위해 포스터 · 배너 · 현수막을 제작하였음. · 다양한 곳(관내 홈페이지, 페이스북,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특수 학교 및 농아인 협회 등)에 포스터를 게재 및 발송하여 공연 홍보 진행 - 댄스 동아리 정기 공연 - 공연 곡을 선정하고 순서를 정해 약 한 달간 연습, 총 10곡을 공연하였음. - 청각 장애인의 삶을 담은 퍼포먼스를 하려 하였으나, 기술적 어려움(LED 프로그래밍) 탓에 프로그래밍된 LED 공연을 진행하였음. - 이용자가 스스로 공연하고 싶은 곡을 정하게 하고, 이에 맞춰 연습하고 공연을 준비함. - 공연 전 2차례 리허설에서는 긴장 탓에 안무 실수가 늘고 동작도 작아짐. 공연을 앞두고 긴장과 걱정이 커진 이용자들을 격려하고 자신감을 불어넣어 줌. - 이용자들은 첫 무대에는 많이 긴장했으나, 후반부로 갈수록 잘 웃고 동작도 크게 하면서 자신감 있게 무대를 누볐음. - 공연 후 평가 회의를 진행함. 공연을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사람들 앞에서 공연할 수 있어 좋았다고 이야기함. 다음 공연에서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싶다는 이용자도 있었음. · 영상 동아리 정기 공연 - 오프닝, 연습 과정, 인터뷰 영상을 편집한 3가지 버전의 영상을 만들어 공연 날 상영함. - 공연 관련 의상 및 필요 물품을 준비하여 공연이 차질 없게 진행되도록 하였으며, 공연 큐시트 및 인력 배치도를 작성해 공연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였음. - 공연 후 만족도와 인식 개선 설문을 진행함. 응답자 중 98%가 "공연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하여 "청각 장애인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 인식 확산의 기회가 되었음. - 상영 후 진행한 평가 회의에서는 스스로 영상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 좋았고, 뿌듯했다는 의견이 있었음.

프로그램	목표량	산출량	평가 결과
문화 교류 및 공연 활동	초대 공연	-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 공연 관람객에게서 공연 이야기를 들은 안양대학교 교양(수화 과목) 담당 교수가 안양대학교에서 시행할 '수화 뽀기' 대회 오프닝 무대나 엔딩 무대에서 달라고 제안해 줌. - 청각 장애에 대해 관심 있는 대학생들 앞에서 공연하면 청각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듯하고, 이용자들에게도 자신감 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이용자와 일정을 논의함. 초대 공연 날 모두 참여 가능해 초대 공연을 수락함. - 안양대학교 초대 공연 시 총 3곡을 공연함. 공연과 관련해 담당자와 사전 연락, 순서 및 준비 사항(댄스 동아리 소개 문구, 사진, 음원, 사전·사후 조사지)을 확인해 준비함. - 길거리 공연과 정기 공연 때보다 훨씬 더 자신감 있게 동작하는 모습을 보임. - 공연 후 또 다른 기회가 있다면 계속 공연을 하고 싶고, 객석에서 '박수'를 수화로 표현해주었던 것이 인상적이었다는 의견이 있었음. - 공연을 통해 청각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었고, 공연 후 청각 장애인에 대해 인식 개선에 대한 질문에 모든 응답자가 "변화되었다"라고 응답하여, 공연이 청각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의 장이 된 것을 알 수 있었음.
	외부 자문	1회	3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문 전 프로그램 진행 관련 보고서 작성, 보고함. · 자문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계획을 수정 진행
	온라인 홍보	1회	3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에 공연 관련 내용과 포스터를 보내 글 게재 요청. 글을 보고 공연 관람을 요청하는 기관이 있어 관람 예약을 받았음. · 기관 아이디를 이용하여 SNS 및 관 홈페이지에 홍보 포스터를 게재. 글을 보고 정기 공연 및 초대 공연 문의가 있었음.

3. 효과 평가

성과 목표 1.	성과 지표	자료원 및 자료 수집 방법
청각 장애 청소년 및 대학생 대상으로 교육·기획·공연·홍보 활동을 지원하여 자신감을 20% 향상한다.	· 사전·사후 분석을 · 청각 장애 청소년·대학생의 변화 체크 분석을	· 자신감 향상도 척도지 · 영상 촬영
평가 결과		

· 댄스 동아리 : 인터뷰를 통한 자신감 향상도 체크

- "춤을 출 때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드나요?" "댄스 동아리를 하면서 자신의 삶 중에서 변화된 부분은?"의 두 가지 질문으로 인터뷰를 진행함. 전반적으로 "댄스 동아리 활동을 한 후 자신감이 생겼다" "스스로 성장한 것 같다"고 답함. 답변을 볼 때,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공연을 준비한 것이 이용자들의 자신감을 향상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또한 "댄스를 하면서 힘든 것도 있었지만 보람을 느꼈다"는 응답에서 이용자들이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음.

- 이용자 A 인터뷰

질문 1. 춤을 출 때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드나요? : "작년에는 건청인이 아닌 농아인 선생님이 지도해 주셨습니다. 올해는 건청인 선생님(댄스 전문 강사)이 지도해주셨는데, 처음에는 잘 따라가지 못했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보람이 커졌습니다."

질문 2. 댄스 동아리를 하면서 자신의 삶 중에서 변화된 부분은? : "저는 어려서부터 자신감이 없었는데 지금은 자신 있게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싶습니다. 건청인 관객들뿐만 아니라 농아인 관객들 앞이라 더욱 떨리는데, 떨기보다는 정말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싶습니다."

- 이용자 B 인터뷰

질문 1. 춤을 출 때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드나요? : "지금까지 일반인과 함께 춤추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차별을 느꼈는데, 이번에는 같이 수화를 써 가면서 새로운 종목(LED)을 같이 하니 협동심도 생기고 좀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평가 결과
<p>질문 2. 댄스 동아리를 하면서 자신의 삶 중에서 변화된 부분은? : "우선 자신감이 생긴 것 같고, 항상 받기만 하다가 제가 아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하나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런 점에서 조금 변화된 것처럼 느낍니다."</p> <p>· 영상 동아리 : 프로그램 사전 · 사후 분석</p> <p>- 이용자 C : 사전 검사(22점)에 비해 사후 검사(27점)에서 자아 존중감이 5점 높아졌음. 프로그램을 통한 삶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 "친구들이랑 친하게 지내게 되었고, 자신감이 생겼고 좋다"라고 답한 것을 보아,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감이 생기고 자아 존중감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음.</p> <p>- 이용자 D : 사전 검사(23점)에 비해 사후 검사(20점)에서 자아 존중감이 3점 낮아졌음. 사후 검사 당시 어머니와 소통이 어렵고 학교 수업 진도 따라가기가 어려워 공부가 힘들다고 했는데, 이러한 가정 및 학교 환경이 검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프로그램을 통한 삶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라고 답함.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자의 자신감이 향상된 것을 알 수 있음.</p> <p>- 이용자 E : 사전 검사(28점)에 비해 사후 검사(26점)에서 자아 존중감이 2점 낮아졌음. 프로그램을 통한 삶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도 "아직 잘 모르겠다"고 답하였음. 프로그램이 이용자의 자아 존중감이나 삶의 변화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 같음.</p> <p>· 총평</p> <p>- 개인차는 있었지만 전반적인 이용자 인터뷰와 결과를 보았을 때, 프로그램이 이용자들의 자신감을 향상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를 통해 본 프로그램의 목표인 "청각 장애 청소년 및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기획·공연·홍보 활동을 지원하여 자신감 20% 향상"을 달성하였음을 알 수 있음.</p>

성과 목표 2.	성과 지표	자료원 및 자료 수집 방법
지역 사회에서 청각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파악한 후 2회 이상의 공연 활동을 통해 청각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제고,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한다.	· 앙케이트 조사를 통한 청각 장애인에 대한 변화율 조사(활동 전 · 후) · 계획 목표 대비 달성율	· 자료원 - 설문 조사지 - 인터뷰 영상 · 자료 수집 방법 - 공연 전 · 후(스티커 부착 유도, 인터뷰 영상 촬영)

평가 결과	
초대 공연	<p>· 사전 조사(설문 조사지)</p> <p>- "청각 장애인을 만나본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80%가 "청각 장애인을 만나본 적이 없다"에 응답하여, 청각 장애인을 만날 기회가 적음을 확인함.</p> <p>- "청각 장애는 어떤 장애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67%가 "보청기를 사용하면 들을 수 있다"에 응답하여, 청각 장애는 보청기를 사용하면 들을 수 있는 장애라고 생각함을 알 수 있음. 그 외에 "전혀 듣지 못한다" "인공 와우 수술을 받으면 들을 수 있다"에 응답해 비장애인의 청각 장애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었음.</p> <p>- "청각 장애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많은 응답자가 "도움이 필요하다"에 응답하였음. 그 외에 "별 생각이 없다"에도 20%가 응답해 청각 장애인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음을 알 수 있음.</p> <p>· 사후 조사(설문 조사지)</p> <p>- "공연은 어땠나요?"라는 질문에 모든 응답자가 "보통이다"에 응답하였고, 그중 87%가 "만족한다"에 응답하여 공연이 만족스러웠음을 알 수 있음.</p> <p>- "공연을 본 후, 청각 장애인에 대해 인식 변화가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모든 응답자가 "변화가 있다"에 응답해, 공연을 통해 청각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음을 알 수 있음.</p> <p>- "어떤 인식의 변화가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58%가 "청각 장애인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에 응답하여, 사전 조사에서 청각 장애인을 '도와주어야 하는 존재'로 여겼던 것과 달리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로 인식이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음. 또한 "청각 장애인도 나와 다를 것이 없다"에 40%가 응답하여, 공연을 통해 청각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음.</p> <p>· 총평</p> <p>- 사전 · 사후 조사 비교를 통해 공연이 청각 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의 기회가 되었음을 알 수 있음.</p> <p>- 공연은 '청각 장애인도 도와주어야만 하는 대상자가 아닌,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알린 계기이자, 청각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음을 알 수 있음.</p>

평가 결과	
정기 공연	<p>· 만족도 및 인식 개선 조사</p> <p>- 총 관객 63명(남자 23명, 여자 40명)을 대상으로 공연 만족도 조사를 실시함. 60명 응답, 3명이 무응답하였음. 인식 개선에 관련한 조사도 병행함.</p> <p>- 만족도 조사 : "오늘 공연 어떠셨나요?"에는 응답자 중 97%가 "좋았다"고 응답하였고, 나머지가 "보통(1%)", "별로(2%)"에 응답하였음. 관객들이 공연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음.</p> <p>- 인식 개선 조사 : 응답자 중 98%가 공연을 본 후 "농아인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에 응답하였고, 2%가 "잘 모르겠다"에 응답하였음.</p> <p>· 총평</p> <p>- 조사를 통해 공연 만족도가 높았음을 확인함.</p> <p>- 해당 공연이 '청각 장애인들도 장애를 넘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인식 개선의 장이 되었음을 알 수 있음.</p>
정기 공연 관람객 인터뷰	<p>· 관람객 A(남, 20대, 청인)</p> <p>- "아이들 얼굴에서 너무 행복함이 보이더라고요. 그거 보고 너무나 감동을 많이 받았고요. 제가 아는 학생이 한 명 있는데, 그 학생이 조금 힘들어서 너무 마음이 갔는데 이렇게 행복해 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춤출 때뿐만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무얼 하든지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p> <p>· 관람객 B(여, 40대, 청인)</p> <p>- "저는 마술 하는 친구 엄마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잘 아는 친구 한 명이 공연을 한다고 해서 보러 왔는데 이렇게 끼가 있고 잘하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직접 농인 아들들을 키우는 엄마로서 우리 농인 친구들에게, 또 농인을 키우고 있는 엄마 아빠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뭐든지 아이들에 대해서 한계를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이니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p> <p>· 관람객 C(남, 30대, 농인)</p> <p>- "처음부터 끝까지 공연 내용 잘 보았고, 많이 어려웠겠지만 오늘 공연을 보고 나니깐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처럼 학생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사회에서 더 큰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p>
댄스 동아리 강사 인터뷰	<p>· 강사 A(청인)</p> <p>- "청각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가르치기 전, 청각 장애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나요?"라는 질문에 "솔직히 크게 생각해보진 않았고, 이전에는 '청각 장애인들은 노래를 못 들어서 불쌍하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막상 청각 장애를 가진 학생들과 수업을 하려고 하니 막막했습니다. '음악을 들을 수 없는 친구들이 춤을 어떻게 출 수 있을까?' '어떻게 수업을 진행해야 할까?' 하는 생각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라고 답변함.</p> <p>- "청각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가르친 후에 청각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나요? 변화가 되었다면 어떤 부분이 변화되었나요?"라는 질문에 "음악을 잘 들을 수는 없지만, 열정을 가지고 임하면 즐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연습하고 공연하면서 즐거웠던 시간을 생각해보면 귀가 좀 안 들리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라고 답변하여, 열정만 있으면 청각 장애인도 춤을 함께 즐길 수 있음을 확인함.</p> <p>· 강사 B(청인)</p> <p>- "청각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가르치기 전, 청각 장애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나요?"라는 질문에 "잘 들리지 않아 춤을 출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춤은 음악을 듣고 추어야 하는데 모든 청각 장애인들이 음악을 들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고, 어떻게 댄스 교육을 진행해야 할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라고 답변함.</p> <p>- "청각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가르친 후에 청각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나요? 변화가 되었다면 어떤 부분이 변화되었나요?"라는 질문에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고 춤과 음악을 멀리하지 않고,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감 없고 소심한 모습을 보일 거라 생각했으나, 듣는 것이 불편할 뿐 정상적인 청력을 가진 사람들과 같다고 느꼈습니다. 같이 이야기하고 웃고 소통하는 경험을 통해 '편견은 나 자신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답변하여, 교육 후 자신의 편견이 깨어짐을 확인함.</p>

IV. 사업 성과

1. 청각 장애 청소년 및 대학생에게 자신감 부여

본 사업은 댄스·영상 교육에 참여한 청각 장애 청소년 및 대학생들이 미디어 퍼포먼스 공연을 진행하고, 이 공연을 본 비장애인 관객이 청각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를 바라며 시행했다. 본 사업의 첫 번째 성과는 청각 장애 청소년 및 대학생이 스스로 미디어 퍼포먼스 공연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얻은 자신감이다. 실제로 참여자 중 한 명은 “청인들 사이에서 배울 때 항상 청각 장애인으로서 차별을 느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다른 참여자를 가르쳐주고 하면서 성장할 수 있었고 자신감이 생겼다”고 밝혔으며, 또 다른 참여자도 “사업 참여 후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청각 장애 청소년 및 대학생의 자신감 향상은 사회 진출 시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것이다. 또한 참여자들은 사회라는 큰 장벽 앞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아갈 방법과, 다른 사람과 협동한다면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점을 배울 수 있었다.

2. 청각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인식 변화

청각 장애 청소년 및 대학생의 미디어 퍼포먼스 공연 관람 전,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청각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설문 조사한 결과 대부분 “청각 장애인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청각 장애인을 의존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공연 관람 후 진행한 설문 조사에서는 “청각 장애인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와 “청각 장애인도 나와 다를 것이 없다”에 응답하여, 청각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이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긍정적 인식을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V. 향후 계획

본 사업에서는 전문 강사를 고용하여 사업 참여자들이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참여자 만족도가 높았고, 공연을 준비할 때도 전문가의 조언 하에 양질의 공연을 선보일 수 있었다. 향후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면 전문 강사에게 위탁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댄스 동아리의 경우, 비장애인 전문 강사가 교육을 맡아 처음에는 서로 어색하고 어려워하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 대해 이해하면서 소통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비장애인 강사 입장에서는 청각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는 계기였고, 청각 장애 청소년 및 대학생도 비장애인과 소통하는 법에 대해 배울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후에도 비장애인 전문 강사를 섭외하여 또 다른 인식 개선의 장을 만들도록 하겠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댄스 동아리와 영상 동아리가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적다 보니 서로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영상 동아리에서 댄스 공연과 관련한 영상을 제작할 때 어려움이 있었다.

이후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영상 동아리와 댄스 동아리가 함께 공연을 기획하고 준비해 서로의 활동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사업 종료 이후에도 초대 공연과 관련한 문의가 오고 있어, 본 사업 참여자의 일정을 조율해 공연 가능한 곳은 협의 후 공연을 진행하여 지속적으로 청각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을 해 나갈 예정이다.

다문화 장애 아동 가정을 위한 통합적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모델화 사업

“다문화 장애 가정 희망 - MAP 프로젝트” 두 번째 이야기



안산시장애인복지관 윤란

I. 프로그램 실시 배경

1. 점점 늘어나는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주민

국내 다문화 혼인은 2005년 4만 2,356건으로 최고치를 경신해, 이후 약 10년간 매년 평균 3만 쌍의 다문화 가정이 탄생하고 있다. 이는 매년 전체 혼인율 중 적게는 8.3%, 많게는 13.5%를 차지한다(통계청, 2014). 또한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2015년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당해 1월 1일 기준 한국 거주 외국인 주민은 174만 1,919명이었는데, 이는 전체 인구 5,133만 명 중 3.4%에 해당하며, 최근 10년 새 3배 늘어난 숫자이다(아시아경제, 2015. 7. 6).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다문화가정을 위한 국가 정책과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을 대두시키는 요인이다.

2. 다문화 가정과 장애라는 이중고

우리나라 가정의 장애 출현율이 약 4.6%인 데 비해 전체 다문화 가정 중 장애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8.6%이다. 이 중에서도 자녀가 장애인인 가구는 11.2%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2). 그러나 장애 자녀 또는 장애 위험 자녀를 양육하는 다문화 가정은 다문화 가족 지원의 범주 안에서 그들의 요구를 충족하기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 가정은 사회적 적응이나 교육 과정에서 ‘다문화 가정’이라는 점과 ‘자녀의 장애’라는 이중적인 특성 탓에, 한층 더 심각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김기홍, 2012).

3. 체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다문화 장애 가정의 현실

다문화 가정의 장애 및 장애 위험 아동 교육은 ‘장애’와 ‘문화적 다양성’ 측면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특수 교육과 다문화 교육 분야의 상호 이해가 부족한 현실이다. 다문화 교육 분야에서는 언어 발달과 사회성 발달이 늦은 이유가 ‘다문화 가정’이라는 환경적 측면에 있다고 보고, 장애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일반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그치기 쉽다. 한편 특수 교육 분야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문화적 배경에 대한 고려 없이 다른 장애 아동들과 동일한 방식의 교육이 이루어진다.

다문화 가족은 그들만의 특수성을 반영한 적절한 지원을 요구하지만, 현장에서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하고 부모의 정서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체계적인 상담이나 지원을 못 하는 실정이다(전혜영·이미숙, 2014)

4. 다문화 가정 내 장애 자녀 양육의 어려움

다문화 가정의 장애 아동은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가정이라는 점뿐 아니라 장애가 있다는 두 가지 특수성 탓에 자녀의 발달 지연을 문제로 인식하는 시기가 늦어, 치료 및 특수 교육적 조기 접근도 늦어지기 쉽다. 자녀의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다문화 가정의 가족이 겪는 어려움은 다른 한국인 가정에서 겪는 인연 어려움보다 한층 더 심각하다. 때문에 ‘다문화’와 ‘장애’라는 각각의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 내 다문화 가정 자녀 발달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연 발달에 대한 조기 개입 지원 체계가 시급하다. 부모에 대한 지속적인 양육 지원 또한 필요한 실정이다.

5. 1차 연도 지원 사업 성과와 시스템 정착을 위한 지속 지원의 필요성

우리 복지관에서는 2015년 삼성복지재단의 지원으로 다문화 장애 아동 가정을 위한 통합적 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문화 장애 가정 희망 - MAP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하였다. 1차 연도 사업에서는 지역 사회 내 다문화·장애 관련 10개 기관의 실무자 13명을 중심으로 ‘다문화 장애 가정 희망 - MAP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기존에는 다문화 가정의 장애 아동을 의뢰받았을 때 장애인 복지관과 다문화 지원 기관에서 각각 서비스를 계획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즉 장애인 복지관은 재활 치료 관점에서, 다문화 지원 기관은 결혼 이민자의 사회 적응에 중점을 두고 단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본 프로그램에서는 다문화와 장애라는 두 가지 분야에 각각 전문성을 갖춘 두 기관의 통합적 서비스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었다. 다문화 관련 기관과 본 복지관 담당자가 함께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주 육구가 어떤 것인지, 어떤 강점이 있는지, 지역 사회에서 지원 가능한 자원이 있는지 함께 파악하고, 큰 틀에서 어느 기관에서 주 사례 관리를 할 것인지, 각 기관의 역할은 어떤 것인지 먼저 고민하고 협력하는 네트워크 체계를 형성하였다.

1차 연도 사업에서 다문화 장애 가정의 통합적 서비스 체계에 대한 필요성을 알리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어렵게 네트워크를 형성한 만큼, 2차 연도에도 지속적이고 활발한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 내 다문화 장애 가정의 통합적 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한다.

II. 프로그램 개요

1. 목적

다문화 장애 가정 희망 - MAP 위원회를 통해 안산 지역 다문화·장애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속적 연계 활동을 통해 네트워크를 작동한다. 이를 통해 다문화 가정 내 장애 위험 및

의심 아동을 조기 선별해 개입하고, 각 가정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개별화 가족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부모 및 가족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사회 적응력을 높이도록 통합적 서비스 지원 체계 모델을 제시한다. 아울러 1차 사업을 기반으로 2차 연도 사업을 통해 본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한다.

2. 목표

목표 1. 다문화 장애 가정 희망 - MAP 위원회의 지속적 네트워크 활동으로 사회적 지원망을 강화한다.

목표 2. 다문화 장애 위험 아동에 대한 조기 발견, 조기 개입 시스템을 구축한다.

목표 3. 다문화 장애 가정의 부모 역량 및 가족 기능을 강화한다.

목표 4. 다문화 장애 가정의 지역 사회 적응력을 향상한다.

3. 프로그램 대상

대상자 범위	개념적 범위	안산시 거주 다문화가정 중 장애 위험 및 장애아동을 둔 가정
	기관 이용자	다문화가정 중 장애 위험 및 장애아동을 둔 가정 중 진단, 특수 교사 방문, 희망 이웃(멘토) 활동에 동의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가정
대상자 구분	주된 참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산 지역 내 다문화, 장애 관련 유관 기관 네트워크(다문화 장애 가정 희망 - MAP 위원회) 담당자 10명 장애 위험 및 장애아동을 둔 다문화 가정 10가정 다문화 장애 가정 지원 희망 이웃(멘토) 5명 의사 소통이 가능한 다문화 이주민 2명 한국인 선배 장애아 부모 3명
	주변 참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산 지역 내 다문화 가정 관련 유관 기관 담당자 안산 지역 내 다문화 장애 가정

Ⅲ. 프로그램 진행 및 평가

1. 세부 프로그램 진행 내용

프로그램	일정	횟수	세부 내용	수행 방법
네트워크 구축	희망-MAP 위원회 7, 10, 11월	3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총 9명) : MOU 체결 5개 기관 실무자 7명, 한국 부모 대표 1명, 다문화 부모 대표 1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 다문화 부모 대상 장애 위험 및 장애 자녀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 방안 2차 : 다문화 부모 대상 선별 진단 다국어 안내문 제작 방안 3차 : 다문화 부모 대상 선별 진단 다국어 안내문 배포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5년 1차 사업 수행 시 MOU를 체결한 기관 중 다문화 장애 자녀 부모 관련 유관 기관인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안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안산시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안산삼성어린이집, 시립대부어린이집 기관 실무자와 한국인, 다문화 부모 대표 각 1인으로 위원 위촉 2차 연도 사업 목적에 따라 다문화 부모 대상 다국어 안내문 제작 관련 주제로 위원회 진행

프로그램	일정	횟수	세부 내용	수행 방법	
네트워크 구축	사례 회의	3, 5, 7, 9월	4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공동 주관한 다문화 통합 사례 회의 참석 기관 내용 :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동 주관 안산 지역 내 다문화 관련 사례 회의 실시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공동 주관으로 안산 지역 내 다문화 사례 3건과 다문화 가정 내 장애 자녀를 위한 지역 사회 내 지원 방안 공유
	사례 발견자 양성 교육	3, 7, 8월	3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 다문화 통합사례 회의 참석자,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지도사,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 위험 및 의심 아동의 특성 - 선별 진단이란? - 선별 진단을 통한 조기 개입의 중요성 - 본 복지관 다문화 장애 가정 지원 프로그램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 관련 사업 진행 실무자 대상 다문화 가정 내 장애 위험 및 장애 아동에 대한 선별 및 지원에 대한 교육 실시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지도사 대상 교육 실시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대상 홍보 안내문 발송을 통한 사례 발견자 양성 교육 실시
	통역사 지원	6, 7, 10, 11, 12월	5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 통역이 필요한 다문화 가정 3곳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 결과에 따른 자녀 발달 안내 시 통역사 지원 - 가정 방문, 치료실 이용 시 통역사 지원 연계 	1차 연도 사업 수행 시 발견된 다문화 장애 자녀 가정 부모 중 통역이 가능한 부모가 통역사로 활동함.
	보급 자료 제작, 배포	3, 12월	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 통역이 필요한 다문화 가정 3곳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MAP 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반영한 안내 자료 제작 - 다문화 가정 내 자녀 발달에서의 위험 신호 - 안산 지역 내 지원 기관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연도에 제작한 실무자 대상 안내문을 안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해 안산 지역 내 어린이집 원장, 보육 교직원에게 배포 안산 지역 내 영유아 양육 중인 결혼 이민자 중 출신 비율이 가장 높은 4개국, 즉 중국, 베트남, 우즈벡, 필리핀(영어)의 주 사용 언어와 한국어를 포함한 5개 국어로 안내문 제작 안산 지역 내 다문화 관련 유관 기관에 배포
다문화 가정 내 장애 위험 및 장애 아동 발견(진단)	선별 진단	상시	6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 의뢰받은 다문화 가정 내 장애 위험 영유아,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계 의뢰 아동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에서 의뢰한 다문화 가정 내 장애 위험 영유아 선별 진단 검사 및 부모 상담 -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지도 프로그램 이용 중 장애 의심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연도에 제작한 실무자 대상 다문화 가정 내 장애 아동 관련 안내문 배포로, 1차 연도와 비교하여 선별 진단 아동 수가 높아짐.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방문 지도 서비스 이용 아동 중 장애 의심 아동에 대한 의뢰 건수가 많아짐. 의뢰 후 한 달 이내에 매주 목요일 진단 프로그램 실시 각 치료 영역별 심층 진단 및 부모 상담 지원

프로그램	일정	횟수	세부 내용	수행 방법	
다문화 가정 내 장애 위험 및 장애 아동 발견(진단)	심층 진단	상시	12회	· 대상 : 선별 진단 결과 심층 진단이 필요한 영유아, 유관 기관에서 의뢰된 다문화 가정 내 발달 지연 아동 · 내용 - 선별 진단 및 유관 기관 의뢰 아동 중 심층 진단이 필요한 경우, 본 복지관 내 진단 판정팀에 의뢰 - 물리, 작업, 심리, 언어, 특수 교육 영역의 진단 실시	
다문화 장애 가정 양육 능력 강화	다문화 개별화 가족 지원 계획	진단 시 3, 12월	44회	· 대상 : 선별 진단 결과 심층 진단이 필요한 영유아, 유관 기관에서 의뢰한 다문화 가정 내 발달 지연 아동 · 내용 - 심층 진단에 따른 필요 치료 및 교육에 대한 재향 방향 설정 - 가정 내 양육 방법 안내	· 심층 진단 결과에 따라 다문화 개별화 가족 지원 계획 1차 수립 · 가족과 아동에 대해 수립한 목표를 바탕으로 가정 내 양육 지원 방법 안내 · 특수 교사 방문형 양육 지원 시 목표 모니터링 및 평가 실시
	방문형 양육 지원	1~12월	32회	· 대상 : 장애 위험 및 장애 자녀를 둔 다문화 가정 11곳 · 내용 - 특수 교사를 통한 가정 방문 실시 - 장애 위험 및 장애 자녀에 대한 이해 도모 - 가정 내 양육 방법 안내	· 심층 진단에 따른 가정 내 장애 자녀 발달 수준에 대한 자세한 안내 · 다문화 개별화 가족 지원 계획에 따른 가정 내 지원방법 모델링 제시 · 필요 시 자녀를 위한 교재 및 교구 지원 · 초등학교 입학 앞둔 아동의 경우 초등학교 특수 교사와 상담 지원
	다문화 장애 가정 부모 모임	11월	1회	· 대상 : 방문형 양육 지원 가정 9곳 · 내용 - 같은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장애 가정의 친목 도모 - 다문화 장애 가정 부모와의 모임 및 교육을 통한 양육 능력 강화	다문화 장애 가정 주말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던 부모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하고, 2017년도 사업에 대한 욕구 확인
	가족 나들이	5, 10월	2회	· 대상 - 1차 : 방문형 양육 지원 8가족 21명 - 2차 : 방문형 양육 지원 8가족 24명 · 내용 : 다문화 가정 내 장애 자녀를 둔 가족 간의 나들이를 통해 유대감을 높이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흥미를 유발해 양육 스트레스를 해소	· 1차 장소 선정 시 2015년 만족도 조사에서 희망 여행지로 언급된 곳 중 2016년도 가족 나들이 장소를 선정하여 진행함. · 가족 나들이에 대한 욕구가 높아, 계획을 변경하여 1회 더 가족 나들이 실시
주말형 프로그램	8~10월	8회기	· 대상 : 안산 지역 내 다문화 장애 가정 아동 · 내용 - 심리 운동 프로그램을 통한 장애 아동의 발달 촉진 - 스트레스 해소	· 매주 토요일 오전 90분씩 8회기 동안 심리 운동을 매개로 주말 프로그램 진행 · 다문화 가정 내 장애 아동들이 경험해보기 어려웠던 치료 영역인 심리 운동을 선정하여 다양한 감각을 체험하고 1회기, 8회기를 보호자와 함께 진행하여 양육 역량을 높임.	

프로그램	일정	횟수	세부 내용	수행 방법	
다문화 장애 가정 지원 동료 활동가 (멘토) 양성 및 파견	멘토 모임	8~10월	6회	· 대상 : 다문화 부모, 1차 연도에 양성된 멘토 한국 선배 부모 3명 · 내용 - 장애 자녀 양육 경험 나누기 - 멘토 활동 계획하기 - 체험 프로그램 : 화장품, 가족 공예 - 다문화 요리 체험 - 스트레스 해소 : 웃음 치료	· 1차 연도에 양성된 멘토 중 관심 있는 3명의 선배 부모가 함께 진행함. · 주말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다문화 장애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 · 참여자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계획, 실시함.
	선배 장애 자녀 부모 파견 지원	1~3월	22회	· 대상 : 멘토 신청 3가정 · 내용 - 장애 자녀 양육의 정서적 지지 - 지역 사회 내 장애 자녀를 위한 기관 이용 (어린이집, 초등학교, 치료실) 지원 - 장애 자녀 양육을 위한 가정 내 지도 방법 안내	· 월 1~2회 멘티 가정 방문을 통한 가정 내 양육 지원 · 한국에서 장애 자녀를 둔 부모로서 필요한 지역 사회 기관 이용 지원 · 3월까지 지원한 이후 프로그램 참여도가 낮아 멘토 모임으로 변경

2. 과정 평가

프로그램	목표량	산출량	평가 결과	
네트워크 구축	희망 - MAP 위원회	3회/30명	3회/26명	· 2차 연도 희망 - MAP 위원회 목적을 다문화 가정 내 조기 선별로 선정하고, 3회기 모임 동안 안내문 구성 → 다국어 번역 국가 선정 → 배포처 등 과정에 따른 안건을 선정 논의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위원회를 실시함. · 당사자인 한국 장애 자녀 부모 대표 1인, 다문화 장애 자녀 부모 1인이 위원회에 함께 참여하여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었음.
	사례 회의	3회/30명	4회/59명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공동 주관으로 안산 지역 내 다문화 실무자들과 다문화 가정과 관련된 사례 케이스 지원 과정을 나누고, 각 기관별 지원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지역 사회 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적 지지망을 구축함.
	사례 발견자 양성 교육	2회/40명	3회/33명	· 안산 지역 다문화 관련 실무자,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지도사,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을 대상으로 다문화 가정 내 장애 자녀 조기 선별의 중요성과 선별 진단, 심층 진단, 다문화 장애 가정 지원 방향에 대해 안내함. · 교육 이후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지도사를 통해 4명의 다문화 가정 내 장애 위험 아동들이 의뢰되어, 다문화 개별화 가족 지원 계획에 따른 개입을 실시함.
	통역사 지원	15회/15명	14회/14명	· 지역 내 통역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다문화 장애 가정 부모 중 유창한 한국어 통역이 가능한 부모 2인(베트남)을 통역사로 지원함. · 다문화 장애 가정 부모가 통역사로 활동함으로써 장애 자녀에 대한 양육 지원 방법과 지역 사회 내 지원 서비스에 대해 일반 통역사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었음.

프로그램	목표량	산출량	평가 결과
네트워크 구축	보급 자료 제작, 배포 1회/400명	1회/250명	· 3월 안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1차 연도에 제작했던 실무자 대상 다문화 장애 가정 선별 진단 안내문 250부를 배포 · 12월 말 희망 - MAP 위원회를 통해 제작한 다문화 부모 대상 자녀의 발달 체크 안내문 500부를 다문화 유관 기관에 배포 · 실무자와 다문화 부모를 대상으로 각각 안내문을 마련하고, 이를 PDF로 변환해 안산 지역 외 복지관 홈페이지에 게시 · 홍보하여 타 지역 다문화 관련 기관에서 활용하게 할 예정임.
진단	선별 진단	12명 9명	· 어린이집 내 다문화 가정 의뢰 아동 대상 선별 진단 실시 · 1차 연도 실무자 대상 안내문 홍보를 통해 어린이집 내 다문화 가정 선별 진단에 대한 인식을 높여, 의뢰가 1차 연도 대비 30% 높아짐. · 선별 진단 시 5개국의 다국어 선별 진단 검사지를 마련하여 다문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모함.
	심층 진단	12명 9명	· 선별 진단 아동 중 심층 진단이 필요했던 아동 7명, 유관 기관에서 연계된 장애 등록 아동 혹은 의심 아동 2명을 포함, 총 9명을 심층 진단함. · 본 복지관 진단 판정팀에 의뢰해 한 달 이내에 물리, 작업, 언어, 심리, 특수 교육 영역에 대한 심층 진단을 실시함으로써 발달 지연 상황을 확인하고 재활 방향을 설정함.
다문화 장애 가정 양육 지원	다문화 개별화 가족 지원 계획	4회/40명 3회/33명	· 1차 연도 연속 지원 가정의 경우 - 자녀 장애에 대한 인식과 지역 내 지원 서비스 찾기에 중점을 둔 2015년도 계획에서 나아가, 가정 내 장애 자녀의 효과적인 양육 방법과 어린이집, 학교와 함께 협력하는 부모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계획으로 발전됨. · 신규 가정의 경우 - 심층 진단에 따른 각 가정별 재활 방향 및 가정 내 지도 방법에 대해 개별화 가족 지원 계획을 수립, 다문화 장애 가정에 대한 지원 목표를 설정함.
	방문형 양육 지원	40회/8명 43회/10명	· 심층 진단을 통해 가정 내 양육 지원이 필요하거나 부모가 서비스에 동의한 신규 가정 4곳, 기존 참여 가정 6곳을 포함한 총 10가정을 대상으로 특수 교사 방문형 양육 지원 실시 · 가정 내 긍정적 양육 경험을 높이기 위해 부모와 함께하는 놀이나 활동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아동에 따라 필요한 교재 교구를 지원해 부모들의 양육 참여도를 높임.
	가족 나들이	1회/30명 2회/45명	· 1차 연도 사업 종결 시 가고 싶은 장소 조사 결과로 나온 수족관 방문과 도자기 체험 활동을 계획해 가족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 경제적 문제나 교통 접근성 등의 어려움으로 함께하지 못했던 가족들이 가족 나들이를 통해 함께 시간을 보내며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높은 만족도가 나타남에 따라 가족 나들이를 1회 더 추가 진행함. · 한국 농촌 마을 체험을 통해 고구마 캐기, 전 부치기, 떡에 치기 등 새로운 경험을 함.
	주말 프로그램 (심리 운동)	8회/48명 8회/90명	· 평일에는 경제 활동으로 방문형 양육 지원에 참여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 지원이 제한된 다문화 장애 아동들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에 부모와 함께 참여하는 심리 운동 프로그램을 8회기 실시함. · 계획 대비 참여 장애 아동 수가 많고, 비장애 형제자매도 함께 참여해 목표를 초과 달성함. · 대상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8회기로 진행되었을 때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영역으로 심리 운동 영역을 선정함. · 1회기, 8회기 진행 시 부모가 함께 자녀와 활동함으로써 가정 내 놀이 및 감각 활동 지원 방법을 안내하여 양육 역량을 높임. · 매주 토요일 심리 운동을 통해 장애 아동들의 스트레스 해소 및 또래와의 관계 경험을 통한 사회성 발달 향상

프로그램	목표량	산출량	평가 결과
다문화 장애 가정 양육 지원	다문화 장애 가정 부모 모임 1회/10명	1회/9명	· 주말 프로그램 참여 부모 대상으로 2016년 2차 연도 사업에 대한 소감과 함께, 사업 지속의 필요성, 변화된 지원 요구를 파악함. · 멘토와 멘티가 함께 교외 분위기 좋은 식당에서 식사와 차를 나누며 다양한 소감과 의견을 나눔.
다문화 장애 가정 지원 동료 활동가 (멘토) 양성 및 파견	멘토 모임	3회/10명 8회/80명	· 사업 계획 시 부모 파견 지원 후에 멘토들만의 모임으로 각 가정 별 지원 상황과 개선 방향을 나누고자 하였으나, 부모 파견 지원 요청 멘티들의 수가 적음에 따라 주말 프로그램 진행 시 함께 참여하는 다문화 부모 8명과 한국인 멘토 3명을 대상으로 실시함. · 한국인 부모 멘토와 함께 회기별 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베트남 요리도 함께 만들어 장애 자녀 양육 시 느낀 어려움과 궁금증을 해소하여 멘티들의 양육 역량이 강화됨.
	선배 장애 자녀 부모 파견 지원	80회/8명 3회/3명	· 멘티인 다문화 부모의 경제 활동, 이혼, 가정 방문의 부담감 등의 이유로 멘토들이 가정으로 방문하는 서비스의 욕구가 낮아, 멘토 모임을 통한 멘토 · 멘티 활동으로 사업을 변경 실시함

3. 효과 평가

성과 목표 1.	성과 지표	자원 및 자료 수집 방법
다문화 장애 가정 희망 - MAP 위원회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활동으로 사회적 지원망을 강화한다.	· 희망 - MAP 위원회 회의 참여율 · 사례 발견자 양성 교육 참여율 · 보급 자료(팜플렛) 제작 및 배포 여부	· 회의록 명부, 교육 출석부 · 보급 자료(팜플렛), 배포처
평가 결과		

· 희망-MAP 위원회 회의 참여율
- 1차 연도 MOU 체결 기관 중 안산 지역 내 다문화, 교육 및 보육, 한국 장애아 부모, 다문화 가정 내 부모를 대표로 다문화 장애 가정 희망 - MAP 위원회 구성(7/14)
- 희망 - MAP 위원회에 11명의 위원이 총 3회기 참석하여 87%의 참여율을 보였으며,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함께 공동 주관한 사례 회의는 총 4회기, 59명이 참석하여 197%의 높은 참여율을 보임.
- 1차 연도와 비교하여 희망 - MAP 위원회를 통해 지역 내 다문화 장애 가정에게 좀 더 필요한 지원을 확인하고, 조기 발견을 위한 다국어 안내문 제작으로 목표를 정한 뒤 과정을 함께 진행함으로써 희망 - MAP 위원들의 역할과 책임이 높아짐.
· 사례 발견자 양성 교육 참여율
- 사례 회의를 통해 희망 - MAP 위원회 연계 기관보다 더 많은 다문화 관련 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적 지원망 강화
- 다문화 가정을 직접 지원하는 방문 지도사, 어린이집, 다문화 실무자 33명을 대상으로 사례 발견자 양성 교육을 3회기 실시, 다문화 장애 가정에 대한 인식을 높임.
· 보급 자료(팜플렛) 제작 및 배포 여부
- 1차 연도 제작 안내문 배포 : 2015년 실무자 대상으로 제작한 다문화 장애 가정 인식 개선 안내문을 어린이집 원장, 보육 교직원 250명에게 배포함(안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 3/26 시행).
- 2차 연도 제작 안내문 배포 : 희망-MAP 위원회를 통해 장애 위험이 있는 0세~만 5세 아동에 대한 선별 진단 과정에 대한 안내, 안산 지역 내 지원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정보를 담아 제작함. 한국어, 중국어, 우즈베크어, 영어, 베트남어로 번역 제작 완료하고, 12월 넷째 주 연계 기관을 우선 방문하여 배포

질적 평가	연구 질문 1. 조기 발견, 선별 진단 시스템 구축은 지역 사회 내 다문화 장애 가정에 어떤 결과(효과)를 가져왔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월 2차, 11월 3차 간담회 인터뷰 발제 - 1·2차 연도 희망-MAP 위원회를 통해 안산 지역 다문화 가정 내 장애 자녀의 조기 발견 및 지원 시스템이 구축된 것이 가장 큰 의의가 있었음. - 각 기관별 지역 사회 내 다문화가정을 위한 역할을 함께 공유하고, 유관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다문화와 장애의 어려움을 함께 겪는 다문화 가정 장애 아동과 가족에게 적합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함께 지원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 · 각 유관 기관 담당자 인터뷰 -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두 기관이 함께 협력하여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유관 기관들과의 사례 회의를 공동 주관하고,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 교육을 실시하여 현장의 전문가들이 보다 빨리 장애 위험을 확인하고 지원 요청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 이전에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면서 장애 아동을 만났을 때의 막막함이 많이 없어짐. - 안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 장애가 의심될 경우 어린이집에서 이것을 바로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음. 그러나 안산 지역 내에서 조기 발견, 선별 진단 시스템을 구축한 후에는 어린이집에 관련 문의가 오면 안산시장애인복지관에, 다문화 관련해서는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연계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조기 발견을 도모할 수 있고, 다문화 가정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안산시특수교육지원센터 : 최근 중도 입국 학생들이 많아짐에 따라, 안내문을 바탕으로 진단 시 모국어로 진행하지 한국어로 해야 할지 어려움이 많이 있음. 이 부분은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안산이주아동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하고, 장애 위험 아동 선별 부분은 안산시장애인복지관과 연계하여 어려움을 함께 나눔으로써 다문화 장애 가정에게 보다 나은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안산삼성어린이집 : 다문화 가정 내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기관 지원에 어려움이 많음. 유관 기관에서 다문화 장애 가정에 대한 지원 체계가 있어 함께 고민하고 통역사 지원, 방문형 양육 지원 등을 함께 지원함으로써, 조기에 치료 및 특수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어 다문화 장애 가정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었음. - 시립대부어린이집 : 다문화 장애 가정의 선배 다문화 부모를 양성하여 후배 다문화 부모들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조기에 치료 및 교육적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임을 경험하였음. 조기 발견, 선별, 진단 체계 구축을 통해 더 많은 다문화 장애 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길 바람. - 한국 선배 장애 부모 : 자녀의 장애를 인정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다문화 부모라면 그것을 이해하는 게 더 어려울 텐데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함. - 베트남 다문화 장애 부모 : 느린 것, 치료, 어린이집 어디로 가야 할지 힘들었어요. 자기 나라 말로 안내 자료가 있고 선생님들이 함께 알아봐주고 알려줘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성과 목표 2.	성과 지표	자료원 및 자료 수집 방법
다문화 장애 위험 아동에 대한 조기 발견, 조기 개입 시스템을 구축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기관의 선별 진단 의뢰 건수 · 심층 진단 건수 · 진단 아동의 개별화 가족 지원 계획 수립 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별 진단 결과지 · 심층 진단 결과지 · 개별화 가족 지원 계획서 작성
평가 결과		

- 관련 기관의 선별 진단 의뢰 건수
- 어린이집 대상 다문화 가정 내 장애 위험 및 의심 아동에 대한 선별 진단 홍보
- 어린이집에서 9명의 다문화 장애 의심 아동 진단 의뢰
- 계획 대비 상반기 평가 시 의뢰 아동 수가 적어 실적을 12명에서 6명으로 축소하였으나, 하반기 어린이집 내 선별 진단 요청이 높아져 적정 수준을 달성함.
- 선별 진단 의뢰 아동 중 7명이 전문가를 통한 각 영역별 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심층 진단 의뢰함.
- 심층 진단 건수
- 어린이집과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9명을 연계, 선별 진단 의뢰 아동 7명을 포함한 다문화 가정 내 장애 위험 및 장애 아동 9명 발굴로 성과 목표 적정 수준 달성함.
- 심층 진단을 통해 본 복지관 물리, 작업, 언어, 심리, 특수 교육 영역에서의 다문화 가정 내 장애 위험 및 장애 아동에 대한 현재 발달 수준 파악 및 재활 방향, 가정 내 양육 지원 방법을 안내함.
- 진단 아동의 개별화 가족 지원 계획 수립 건수
- 심층 진단 이후 7명의 신규 지원 아동 개별화 지원 계획을 작성하였으며, 1차 연도 지원 아동 중 2차 연도에 연속 지원하는 아동 5명을 포함, 총 12명의 가정 대상 개별화 가족 지원 계획 수립 33건을 달성함.

성과 목표 3.	성과 지표	자료원 및 자료 수집 방법
다문화 장애 가정의 부모 역량 및 가족 기능을 강화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모임, 가족 나들이 참여율 · 주말 프로그램 만족도 3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지원 프로그램 시 출석부 명단 체크 · 주말 프로그램 실시 후 만족도 조사
평가 결과		

- 부모 모임, 가족 나들이 참여율
- 가족 나들이 욕구와 만족도가 높아 1회기에서 2회기로 1회 추가 진행함.
- 가족 나들이 1회 8가족 21명, 2회 8가족 24명, 총 45명 참석하여 목표 대비 150% 달성함.
- 8~10월 진행한 주말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부모 모임에 9명 참석, 목표 대비 90% 달성함.
- 다문화 장애 가정의 부모 역량 및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해 실시한 가족 나들이와 부모 모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음을 확인함.
- 주말 프로그램 만족도 3점 이상 달성 여부
- 참여 아동 12가정 중 8가정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말 프로그램 심리 운동을 통한 장애 자녀 양육의 도움을 받았는가?"에 대한 자체 만족도 조사 질문에 응답자 100%가 "그렇다"고 응답함.
- 참여자 부모 대다수는 평일에는 양육을 통해 장애 자녀 발달을 향상시키는 역량에 자신이 없었으나, 주말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장애 자녀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즐거워하는 등 프로그램 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함.
- 주말 프로그램 참여자 가족 인터뷰
- A의 외조모(중국) : "집에만 있었을 텐데 주말마다 와서 너무 좋았어요. 공놀이, 감각 놀이 이런 거 좋아해서 토요일에 복지관 가자 하면 좋아하면서 왔어요."
- B의 모(중국) : "아이한테 체육이 좋다고 해서 찾아보는데 어려웠어요, 복지관에서 하면서 친구, 형, 누나들 보고 즐거워서 좋았어요."
- C의 모(베트남) : "우리 아이 뛰는 거, 만지는 거 이런 거 좋아해요. 저도 같이 하면서 배워서 좋았어요."
- D의 모(태국) : "아이가 동생들이랑 오빠들이랑 즐거워해요. 저하고 같이 해보고, 재밌었어요."
- E의 모(필리핀) : "행복해요, 우리 애들 너무 해피해. 애들이 좋아. 나도 좋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질적 평가	연구 질문 2. 다문화 장애 가정의 부모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인가? 부모로서의 역할은 무엇인가?
-------	---

- 1차 연도 연속 지원 아동의 사전 가정 방문 인터뷰
- 1차 연도 사전 인터뷰 시에는 장애 자녀에 대해 "불쌍함, 마음이 아픔, 힘듦"으로 표현하며 자녀의 발달 지연으로 인한 사회적인 편견, 경제적인 어려움, 다문화 결혼 이민 여성으로서 겪는 한국 사회 부적응으로 인해 더 힘든 재활 치료 과정에 대해 많이 호소하였음.
- 2차 연도 사전 인터뷰에서는 "불쌍하다"고 보고하던 것에서 벗어나, 어떻게 지원해야 장애 자녀에게 더 좋은 양육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임.
- D의 모(태국) 부모 인터뷰 사례 : "애가 학교 좋아해요, 가서 많이 웃어요, 근데 언어 치료 안 좋아해요. 인지 선생님 좋아해요."
- 2차 연도 신규 아동의 사전 가정 방문 인터뷰
- 가정 중 발달 지연이 오래 아동과 큰 차이가 없거나, 자녀의 장애를 수용하는데 어려움을 보인 3가정 부모는 자녀를 정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글자, 숫자 학습과 같이 부모가 반복적으로 알려주는 교육을 가장 큰 부모의 역할로 인식함. 따라서 방문형 양육 지원을 하거나 장애 아동 관련 서비스를 안내하였을 때 매우 거부적인 태도를 보임.
- 2차 연도 신규 대상 B의 모(중국) 인터뷰 : "우리 애는 말만 느려요. 글자 좋아해요. 집에서 맨날 글자 공부해요."
- 지속적인 방문형 양육 지원을 통해 가정 내 장애 자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유도하고 양육 방법을 안내해줌으로써, 장애 자녀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양육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확인함.

성과 목표 4.	성과 지표	자료원 및 자료 수집 방법
다문화 장애 가정의 지역 사회 적응력을 향상한다.	희망 이웃(멘토) 활동에 대한 만족도 점수 3점 이상	희망 이웃(멘토) 활동 후 만족도 설문지 작성
평가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반기 평가 시 희망 이웃(멘토) 활동에 대한 다문화 장애 가정 부모들의 욕구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주말 프로그램 심리 운동 진행 시 6회기 멘토-멘티 모임으로 진행함. · 한국 선배 장애 부모 3명이 함께 활동에 참여하여, 참여자들이 함께 계획한 활동을 진행하며 2~3명의 다문화 후배 부모들과 함께 이웃의 정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함. · 이 모임을 통해 멘티는 장애 자녀에 대한 양육 경험과 함께 한국사회에 대한 궁금한 점에 대한 어려움을 멘토들과 함께 나누었으며, 모임 때마다 "언니 오늘 안 와요?"라며 한국 선배 부모 멘토를 찾거나 안부를 궁금해 하는 모습을 보임. 		
질적 평가	연구 질문 3. 다문화 장애 가정에게 '지역 사회' '이웃'은 어떤 의미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모임, 사후 양육 지원 가정 방문 인터뷰 - 지역 사회 기관과 이웃에 대해 프로그램을 지원받으며 장애 자녀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거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같이 나눌 수 있는 지원자로 긍정적이고 친숙하게 인식함. · 인터뷰 사례 - E의 모(필리핀) : "나 한국말 몰라, 어려워. 복지관 선생님 같이 통역 같이 하니 좋아요. G 엄마(한국 멘토) 같이 서점 우리 아이 공부 책 사요. 정말 좋아요." - C의 모(베트남) : "다문화 선생님, 복지관 선생님 같이 도와줘서 고마워요. 다른 베트남 엄마 도와줘서 좋았어요." - F의 모(베트남) : "우리 애가 왜 공부 못하는지 잘 몰랐어요. 여기서 검사하고 다문화 방문 선생님, 학교 선생님, 같이 알려줬어요. 언니들이랑 이야기하고 너무 좋았어요." 		

IV. 사업 성과

1. 안산 지역 내 다문화 장애 가정을 위한 사회적 지원망 강화

1차 연도 다문화 장애 가정을 위한 통합적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첫 출발점이었던 '다문화 장애 가정 희망 - MAP 위원회' 구성 이후, 정보 교류와 지역 사회 내 다문화 장애 가정에 대한 현황 파악에서 더 나아가, 위원회에서 함께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고민하며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활성화함으로써 다문화 장애 가정에 대한 지원 체계를 보다 더 강화하였다.

2. 다문화 장애 위험 아동의 조기 발견, 조기 개입 시스템 구축

다문화 장애 위험 아동의 조기 발견을 통한 조기 개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다문화 관련 실무자, 보육 교직원 등 사례 발견자를 양성하고, 1차 연도에 제작한 실무자 대상 안내문을 배포함으로써 다문화 가정 내 장애 위험 아동에 대한 문제 인식을 높일 수 있었다.

이전에는 실무자들이 장애 위험을 인식하더라도, 자녀의 발달 지연 및 장애 위험에 대한 다문화 부모의 인식이 낮아 의뢰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았다. 이에 본 프로그램에서는 다문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안내문을 제작해 다국어로 자녀의 장애 위험 신호를 인식하고 지원 요청하는 방법, 안산 지역 내 지원받을 수 있는 기관 정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다문화 가정 내 장애 위험 아동의 조기 발견을 시스템 내 사례 발견자를 통한 의뢰에 국한하지 않고, 다문화 부모를 통한 의뢰로 확대하였다.

3. 다문화 장애 아동 가정을 위한 통합적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모델 제시

본 프로그램은 다문화 장애 아동 가정에 대한 지역 내 인식을 높이고, 지원 체계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다문화 가정 내 장애 위험 아동 조기 발견을 위한 교육 및 조기 발견·진단·조기 개입 시스템 구축, 다문화·장애·보육·교육 관련 기관들과 함께 희망 - MAP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 내 다문화 장애 가정을 위한 지원망을 마련, 다문화 장애 가정의 양육 지원을 실시하였다. 본 사업 수행을 통해 지역 사회 내 다문화 장애 가정의 현황과 욕구를 파악하고, 유관 기관과의 연계 체계와 다문화 장애 위험 아동에 대한 조기 발견 시스템을 마련하여, 다문화 장애 가정의 양육을 지원하는 다문화 장애 가정을 위한 통합적 서비스 지원 체계 모델을 마련할 수 있었다.

V. 향후 계획

본 프로그램을 통해 구축한 다문화 장애 가정을 위한 통합적 서비스 지원 체계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복지관 자체 프로그램으로 계획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지역 내 사회적 지원망 지속을 위해 가장 큰 핵심인 희망 - MAP 위원회를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공동 주관해 다문화 장애 가정을 위한 정기적 사례 회의로 진행하며, 1·2차 연도 프로그램에서 제작한 실무자, 다문화 부모 대상 다문화 장애 위험 및 장애 아동 선별을 위한 안내문 배포를 확대하여 조기 발견을 높이고자 한다. 또한 방문형 양육 지원과 다문화 장애 가족을 위한 주말형 프로그램을 개발·실행함으로써 다문화 장애 가정을 위한 통합적 서비스 지원 체계를 모델화 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자 한다.

전환기 발달 장애 가정의 부모 역량 강화를 통한 맞춤형 진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맘 코치가 간다! II”



중곡종합사회복지관 김은정

I. 프로그램 실시 배경

현재 발달 장애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의 불확실한 진로와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한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 발달 장애 자녀의 진로 지도를 위한 다양한 사회 서비스가 제공되기는 하나 장애 부모들이 주로 호소하는 어려움 및 요구에 맞는 부모 교육 및 훈련 서비스는 매우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중곡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5년 발달 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진로 지도 역량 강화 프로그램 “맘 코치가 간다! I”을 실시하여 부모들이 경험하는 자녀 진로 지도의 어려움 해소에 긍정적 효과를 얻었으며, 부모들이 수행해야 할 역할 훈련 및 필요한 역량을 강화시킴으로써 발달 장애 청소년의 진로 지도에 있어 부모가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배경과 과정을 바탕으로 2016년 2차 연도 사업에서는 정상화 이론을 기반으로 기존의 부모 교육에서 나아가 진로 코치로서의 주도적 성장과 발달 장애 자녀에 대한 실질적 진로 설계를 실천하며, 지역 사회 내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동료 부모에 대한 진로 코치로서 전문적인 활동 기회를 지원하고자 하였다.

“맘 코치가 간다! II” 사업은 발달 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원하는 부모 교육 및 훈련 서비스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현 사회 서비스의 한계에서 벗어난 새로운 대안이다. 부모들이 주체가 되어 활동할 기회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발달 장애인 진로 지도를 위한 부모 교육 서비스 지원 환경을 마련하여, 지역 사회 내 관련 지원 체계 구축과 발달 장애인 진로에 대한 인식 확산을 이루고자 한다.

II. 프로그램 개요

1. 목적

전환기 발달 장애 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장애 특수성에 맞는 진로 지도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 사회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동료 부모에 대한 진로 코치로서 전문적인 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사회 내 발달 장애인 진로 문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진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목표 및 하위 목표

목표 1. 전환기 발달 장애인 부모의 주도적 성장 지원 및 내적 역량 강화

하위 목표 1. 월 1회 전문성 강화 교육을 통해 발달 장애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습득한다.

하위 목표 2. 연 4회 TFT 리더십 교육을 통해 전문 리더를 양성한다.

하위 목표 3. 월 1회 TFT 회의 및 정기 회의를 통해 자조 모임 활동 공유와 주체적 활동을 장려한다.

목표 2. 전환기 발달 장애인 부모의 진로 코치로서의 실천 능력 강화

하위 목표 1. 연 1회 전문 기관을 연계하여 발달 장애 자녀의 적성 및 강점을 파악한다.

하위 목표 2. 연 6회 자원 탐색 활동을 통해 진로 연계 기관 및 자원을 발굴한다.

하위 목표 3. 연 2회 진로 설계를 통해 발달 장애 자녀의 맞춤형 부모 진로 지도를 돕는다.

목표 3. 전환기 발달 장애인 부모의 주체적 진로 지도 활동을 통한 지역 사회 인식 확산

하위 목표 1. 3개 이상의 기관과 발달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지원에 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하위 목표 2. 연 1회 발달 장애인 진로 지도 자원부를 발간하여 관련 기관에 배부한다.

하위 목표 3. 연 1회 정책 제안 참여를 통해 발달 장애인 진로 및 가족 지원, 개선 사항을 제안한다.

하위 목표 4. 연 2회 지역 내 기관과 연계한 코칭 실습 및 파견 활동을 실시한다.

3. 프로그램 대상

대상자 범위	개념적 범위	· 14~19세의 발달 장애인 자녀가 있는 가정의 주 양육자 · 특수 교육 대상자 중 중고생 발달 장애 자녀가 있는 가정의 주 양육자 - 발달 장애 : 지적 장애, 자폐성, 아스퍼거 증후군 판정을 받았거나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 - 연령 : 19세를 초과했다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는 포함함.
	기관 이용자	“맘 코치가 간다!” 1차 연도 사업에 참여한 발달 장애 청소년 부모
대상자 구분	주된 참여자	1차 연도 사업을 수료한 발달 장애 청소년의 부모 10명
	주변 참여자	· 1, 2차 연도 사업 참여자의 발달 장애 자녀 10명 · 지역 내 특수 학교 및 학급에 다니는 발달 장애 아동 및 청소년의 부모

III. 프로그램 진행 및 평가

1. 세부 프로그램 진행 내용

프로그램	일정	횟수	세부 내용	수행 방법	
부모 진로 코치 활동 (성장맘)	대상자 선정	3월	1회	대상 선정	· 사전 설명회 실시 · 선정 기준 확정 · 참여자 신청서 접수 · 면접 및 in-take · 대상자 선정 회의 · 선정 결과 통보
	오리엔테이션	3월	1회	· 사업 설명 · 사전 검사	· 사전 척도 검사 · 서비스 동의서 작성 · 연간 사업 내용 및 일정 안내 · 교육 및 세부 서비스 관련 욕구 파악 · 참여자 서약 · 개인 목표 설정 · 임원 선발
	자조 모임 지원	3~12월	9회	· 경비 및 자원 제공 · 진행 사항 점검 및 피드백 제공	· 자조 모임 욕구 조사 · 추가 참여자 모집 홍보 지원 · 활동 계획 추진 과정상의 피드백 제공 · 예산 계획과 집행 시 피드백 · 기관 공간 대여 · 필요 물품 구입, 강사 섭외 · 공연, 교육 나눔, 영화 관람, 토크 콘서트, 농성장 방문, 취업 기관 · 교육 기관 방문 활동 지원
	TFT 회의	4~11월	4회	임원 운영 회의	· 자조 모임 운영 계획 수립 · 임원의 책무와 역할 교육 · 자조 모임 운영 원칙 결정 · 실습 준비 및 자료 제작 논의
	전문성 강화 교육	5~11월	9회	· 발달 장애 관련 전문 교육 · 참여자 욕구에 기반한 주제 선정	· 1회기 : 사회적 경제의 이해 1 · 2회기 : 사회적 경제의 이해 2 · 3회기 : 발달 장애인 진로 계획 · 4회기 : 얼굴 인식과 감정 읽기 · 5회기 : 성교육 방법 · 6회기 : 성공하는 직장 예절 · 7회기 : 이미지 메이킹 · 8회기 : 진로 설계와 평생 설계 · 9회기 : 직장 적응
	TFT 리더십 교육	5월	4회	· 임원 대상 교육 · 긍정 리더십 교육	· 1회기 : 개인 강점 검사 · 2회기 : 긍정 심리학 이해 · 3회기 : 강점 상승 대화법 · 4회기 : 강점 피드백
	정기 회의	3~11월	9회	· 월별 정기 회의 · 참여자 주도형	· 각 모임별 진행 결과 공유 · 전 회의 결과 반영 여부 점검 · 당월 활동 평가 · 익월 계획 최종 심의

프로그램	일정	횟수	세부 내용	수행 방법	
자녀 진로 코칭 활동 (실천맘)	진로 자원 탐색	5~12월	6회	발달 장애 교육 기관, 취업처 견학	· 1회기 : 베어베터 · 2회기 : 나사렛대학교 · 3회기 : 노원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 예림예술학교 · 4회기 : 호산나대학교 · 5회기 : 성문대학교 · 6회기 : 희망일터보호직업장 & 희망의 학교
	진로 적성 검사	12월	1회	진로 적성 검사 이해	· 카드로 알아보는 흥미 유형 · 자녀 적성 알아보기
	맞춤형 진로 설계	12월	1회	자녀 진로 설계	· 진로 설계의 과정 · 가치관 유형별 관련 직업 · 진로 설계서 작성 · 진로 설계 슈퍼비전
	평가 회의	12월	1회	실천 활동 평가	· 진로 지도 행동 척도검사 · 진로 지도 효능감 척도 검사 · 진로 지도 계획 수립 결과 점검 · 프로그램 인터뷰
지역 사회 인식 강화 활동 (밴드맘)	웹 기반형 정보 공유	3~12월	10회	밴드를 활용한 정보 교류	· 참여자가 직접 관리 · 발달 장애인 관련 정보 교류 · 정책 및 사회적 이슈 공유 · 자조 모임 홍보 장소로 활용
	실습 및 파견	3~10월	8회	· 지역 특수 학급·학교 연계 실습 · 활동가로서 파견 · 수준별 실습 진행	· 1학기 장애 인식 개선 교육 · 청소년 직업 흥미 프로그램 · 2학기 장애 인식 개선 교육 · 장애아동 1 : 1 매칭 진로 지도
	정책 제안	11~12월	2회	장애인 정책 관련 제안	· 1회기 : 발달 장애인 공공 후견인 지원 사업 관련 정책 토론회 · 2회기 : 정책 토론회 전달 교육
	수료식	12월	1회	수료식	· 수료증, 이수증 전달 · 우수맘 코치 시상

2. 과정 평가

프로그램	목표량	산출량	평가 결과
부모 진로 코치 활동 (성장맘)	대상자 선정 10명	10명	· 2015년 사업 수료·평가식 진행 시 사업의 주요·주변 참여자를 포함해 향후 계획과 사업 홍보. 전년도 참여자 15명 전원 신청함. · 2016년 사업의 경우 전문가 교육 과정으로 진행됨에 따라 목적에 맞는 대상자 선정 과정이 필요했으며, 비선정자에 대한 사후 관리 또한 필요했던 부분이 있었음. · 개별 면접과 전년도 관찰 사항을 통해 확인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정 심사표를 작성, 선정 기준에 따라 본 사업 목적에 적합한 대상자 10명 선정. 명확한 선별 과정과 안내를 통해 참여자가 책임 의식을 느낄 계기가 됨. · 선정되지 않은 5명의 경우 자조 모임 및 공개 교육 과정으로 연계 계획, 사후 관리함.

프로그램	목표량	산출량	평가 결과	
부모 진로 코치 활동 (성장مام)	오리엔테이션	10명	10명	· 구체적인 사업 안내를 통해 2016년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문 교육과 회의 관련 욕구를 파악, 각자 목표를 설정함. · PPT, 교육 자료, 일정표를 활용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질의응답과 의견 제시 기회를 제공해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높임.
	자조 모임 지원	90명	125명	· 매월 자조 모임 활동과 관련된 피드백과 경비, 자원을 제공하여 "커피 토크", "희망 탐방" 자조 모임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관내의 홍보를 통해 자조 모임이 점차 활성화되고 참여 인원이 증가해 안정적으로 운영됨.
	TFT 회의	24명	22명	· 자조 모임 운영 시간, 내용, 방법에 대해 논의했으며 자조 모임을 통해 기대하는 바와 전달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발표함. · 자조 모임과 관련한 구체적 지원 방법 및 지원 예산을 공유하고 TFT로서의 책무와 역할, 기관의 역할, 운영 원칙을 결정함으로써 서비스 수혜자로서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닌, 주도적 역량을 키우는 자리가 되었음.
	전문성 강화 교육	90명	128명	· 나사렛대학교, 단국대학교, 연세대학교 연구소, 한국복지대학, 장애인고용공단, 중앙청소년성문화센터, 광진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등 전문 기관 및 단체 교수와 전문가, 실무자를 강사로 초빙해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을 진행, 부모의 내적 역량 강화에 도움을 줌. · 참여자 및 교수 자문을 통해, 교육 주제 및 수준에 따라 보편적인 주제로 다루지는 부분에 한해 공개 강좌를 진행해, 보다 많은 발달 장애 부모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함.
	TFT 리더십 교육	24명	17명	교육에 참여한 5명의 임원들이 자조 모임 회원 및 본 사업 대상자들에 대해 강점 카드 검사 및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집단 참여를 촉진시키고 긍정적 정서를 확산시키는 효과를 확인함.
	정기 회의	90명	66명	· 매월 정기 회의를 실시해 전차 회의 결과의 반영 여부 점검, 매월 진행한 교육 및 자조 모임 운영과 평가, 익월 진행할 내용에 대한 의견 수렴 형식으로 전체 회의를 진행함. · 회의 진행 후 식사를 함께하며 친목 도모 · 정기 회의를 통해 참여자들의 욕구를 수시로 파악, 참여자 주도의 민주적 의사 결정을 통한 사업 운영이 된 것으로 평가함.
자녀 진로 코칭 활동 (실천مام)	진로 자원 탐색	60명	66명	· 기관 설외 · 홍보 · 참여자 모집 · 평가 과정에서 "희망 탐방" 자조 모임의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향후 자원복 제작과 관련된 정보 수집을 위해 참여자 및 "희망 탐방" 자조 모임과 사전 논의를 토대로 작성한 사전 질문지와 활동지를 활용, 다양한 관점의 정보를 수집하였음.
	진로 적성 검사	10명	8명	· 자녀 연령이 검사 기관 및 직업 평가 대상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여,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과 검사 방식을 교육함. · 시간의 흐름과 경험 축적에 따라 자녀의 진로 적성과 흥미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 수시로 활용할 수 있는 자가 진로 적성 검사 방법을 안내하고 카드를 활용해 자녀의 적성과 흥미를 손쉽게 파악하도록 함.
	맞춤형 진로 설계	20명	8명	· 기존 직업 설계서의 경우 외부 슈퍼바이저의 자문을 거쳐 수정 · 보완함으로써 본 사업 취지와 목적에 맞는 맞춤형 설계 진행 · 개별 맞춤형 진로 설계를 기반으로 자녀의 성인기 준비를 도울 수 있었으며, 1차 연도 사업에서 작성한 개인 설계서를 함께 비교하여 참여자 개인의 역량 변화 또한 확인함.

프로그램	목표량	산출량	평가 결과	
자녀 진로 코칭 활동 (실천مام)	평가 회의	10명	8명	· 사후 척도 검사 외에 FGI와 개별 인터뷰를 병행 진행하여 전반적인 사업의 효과성을 파악할 수 있었음. · 참여자 당사자의 본 사업 필요성과 목적을 다시 재확인하고, 참여자와 장애 자녀의 변화와 목표 달성 정도를 확인함. · 지역 사회의 기여 정도를 확인하고 향후 방향성을 기관, 담당자, 참여자가 함께 고민함.
지역 사회 인식 강화 활동 (밴드맘)	웹 기반형 정보 공유	9건	75건	· 1차 연도에 개설한 맘 코치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여 발달 장애인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함. 부모 역할, 장애 이해, 진로 지도, 기타 장애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였음. · 그 외 프로그램 진행 사항, 일정과 참여자 간 안부 연락 등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짐.
	실습 및 파견	10명	18명	· 인근 초등학교와 연계한 파견 활동을 상 · 하반기에 실시함. - 상반기 : 실습 보조자로 참여, 비장애 아동의 장애 인식 정도와 수준을 파악하는 경험 제공 - 하반기 : 자료 제작 · 기획에 참여하도록 독려함. 비장애 아동들에게 장애 아동 보호자로서의 경험, 자녀의 학교 생활 등 사례 중심의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진행해, 진로 전문가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함. · 자원봉사를 신청한 비장애 청소년 30명을 대상으로 진로 적성과 흥미를 파악하는 활동을 직접 연구하고 기획 준비하여 진로 전문가 활동에 필요한 기술 습득과 실천의 장을 마련함.
	정책 제안	10명	11명	· 발달 장애 정책의 최근 이슈와 흐름을 파악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 토론회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함. · 토론회 참가자의 경우 이후 해당 정책에 대한 내용 및 본인 의견과 참여 소감을 비참여자에게 전달하는 교육 시간을 제공함. 이를 통해 지역 사회 및 전국 발달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에 관련된 현안을 파악하고, 단순한 욕구 표현을 넘어 체계적으로 당사자의 목소리를 높일 계기가 됨.
	수료식	10명	9명	실습 참여 및 교육 과정 이수 정도를 파악하여 각각 수료증과 이수증을 전달함. 임원들을 대상으로 공로상을 수여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기여한 자신들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역할 수행에 대한 보상과 지속적인 활동에 대해 동기 부여할 수 있도록 함.

3. 효과 평가

1) 양적 평가

성과 목표 1.	성과 지표	자료원 및 자료 수집 방법
전환기 발달 장애인 부모의 주도적 성장 지원 및 내적 역량 강화	· 리더십 변화 정도 · 가족 역량 변화 정도 · 자조 모임의 지속적 운영 여부	· TFT 임원 및 주 참여자 · 사전 · 사후 척도 검사 · 월별 회의록
평가 결과		
<p>· 부모 진로 코치 활동 중심의 "성장مام" 프로그램 총평</p> <p>- TFT 리더십 교육, TFT 회의, 정기 회의, 전문성 강화 교육, 자조 모임 지원을 통해 참여자의 리더십과 가족 역량이 향상되고, 자조 모임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음. 교육을 통해 강화한 전문성을 지속해서 활용, 적용할 환경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부모들이 자체적으로 모임을 개설, 운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역량을 이끌어 낼 수 있었음.</p> <p>- 이는 본 프로그램이 발달 장애인 부모의 주도적 성장과 내적 역량 강화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음.</p>		

평가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مام" 성과 1 : TFT 임원의 리더십 향상 - 리더십 프로그램(긍정 심리 기반 리더십 교육, TFT 회의)에 참여한 TFT 임원 대상으로 프로그램 참여 이전과 이후의 리더십 지수에 대해, 척도 검사를 통해 평균 점수를 비교한 결과 사전 198.1점에서 사후 검사 7.1점으로 9점 증가함. 따라서 전체 TFT 임원 평균 리더십 점수는 사전 검사와 비교하여 4.54% 향상됨. · "성장مام" 성과 2 : 전체 참여자의 가족 역량 증진 - 전체 참여자의 프로그램 사전·사후 검사 결과 가족 역량 척도 평균 점수는 사전 120.2점에서 사후 124.5점으로 4.3점 증가함. 따라서 전체 참여자 평균 가족역량 점수는 사전과 비교하여 3.57% 향상됨. · "성장مام" 성과 3 : 자조 모임 2개의 지속적 운영 - 참여자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요구한 자조 모임을 2개 구성, 지원하였고, 전문성 강화 교육과 TFT 리더십 교육, 기존 1차 맘 코치 사업의 교육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3월부터 12월(현재)까지 각 자조 모임 임원과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한 활동이 매월 평균 3회 주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자조 모임 "희망 탐방" : 발달 장애인에게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고등 교육, 연령에 적합한 사회 활동 및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발달 장애인 취업 & 교육 기관 탐방을 목적으로 운영 중임. - 자조 모임 "커피 토크" : 힐링 체험 활동을 중심으로 신규 모임 회원을 계속 모집하고, "맘 코치가 간다!" 1차 연도 사업에서의 교육과 경험을 적극 활용하여 자녀 양육 및 진로 정보를 공유하는 모임으로 운영 중임.

성과 목표 2.	성과 지표	자료원 및 자료 수집 방법
전환기 발달 장애인 부모의 진로 코치로서의 실천 능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사회 자원 발굴 여부 · 진로 계획 수립 여부 · 진로 지도 행동 변화 정도 · 진로 지도 효능감 변화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참여자 · 자원 리스트 · 진로 설계서 · 사전·사후 척도 검사

평가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 진로 코치 활동 중심의 "실천مام" 프로그램 총평 - 참여자들은 진로 자원 탐색, 진로 적성 검사, 맞춤형 진로 설계, 평가를 통해 진로 지도 행동 및 진로 지도 효능감이 향상되었으며, 지역 사회 관련 자원을 발굴하고 전원 진로 지도 계획 수립을 수립하는 효과가 있었음. - 이는 본 프로그램이 발달 장애인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진로 코치로서의 실천 능력을 강화하는 데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음. · "실천مام" 성과 1 : 진로 지도 행동 및 진로 지도 효능감 향상 - 전체 참여자의 프로그램 사전·사후 검사 결과, 진로 지도 행동 척도 평균 점수는 사전 149.8점에서 사후 164.3점으로 평균 14.5점 증가함. 따라서 전체 참여자 평균 진로 지도 행동 점수는 사전과 비교하여 9.7% 향상됨. - 전체 참여자의 프로그램 사전·사후 검사 결과 진로 지도 효능감 척도 평균 점수는 사전 78점에서 사후 114.6점으로 평균 36.6점 증가함. 이는 전체 참여자 평균 진로 지도 효능감 검수가 사전과 비교하여 31.9% 향상된 수치임. - 본 사업은 진로 지도 행동보다 진로 지도 효능감 향상에 더 큰 효과가 있음을 확인함. · "실천مام" 성과 2 : 지역 사회 자원 20기관 발굴 - 진로 자원 탐색 프로그램을 통해 발달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직업 훈련 및 취업 가능 기관과 교육 기관을 조사함. 참여자들과 함께 사전 기관 조사와 선호 기관에 대한 욕구 조사를 진행하고, 이에 따라 선별한 6개 기관 외에 후보에 함께 올랐던 20개 기관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정보를 공유함. 특히 발달 장애의 경우 지적, 자폐성, 아스퍼거 증후군 등 다양한 유형이 있고 그 안에서 다양한 행동 특성과 성격이 있음을 고려하여 다양한 지역 사회 기관에 대한 조사가 필요했음. - 실질적으로 지원 고용, 보호 고용 형태의 직업 시설과 장애·비장애 통합 대학, 발달 장애인 단종 직업 대학, 직업 재활 및 교육, 평생 교육 기관, 대안 학교, 그 외 발달 장애인의 진로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단체 등 다양한 지역 사회 기관 자원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실천مام" 성과 3 : 참여자 전원 장애 자녀 진로 지도 계획 수립 - 참여자 9명 전원이 발달 장애 자녀 진로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서를 작성하였음. 참여자들은 이상적인 학교와 직업 생활, 실제 자녀가 선호하는 진로 영역과 흥미 영역, 선호 학과 및 교육 기관, 좋아하는 취미와 습관, 자녀의 꿈과 목표를 현실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과 주변 자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 진로 관련 기본 사항을 작성함. 구체적으로 이를 실천하기 위해 지도할 영역별(대인 관계, 건강, 직업, 교육, 기타)의 준비도 수준을 체크하고 장·단기 목표를 수립함.

성과 목표 3.	성과 지표	자료원 및 자료 수집 방법
전환기 발달 장애인 부모의 주체적 진로 지도 활동을 통한 지역 사회 인식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제안 실천 여부 · 발달 장애 진로 자원복 발간 · 교육 참여자들의 인식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관련 기관 및 참여자 · 자료원 분석

평가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사회 인식 강화 활동 중심의 "밴드맘" 프로그램 총평 - 참여자들은 웹 기반형 정보 공유, 실습 및 파견, 정책 제안, 수료식을 거쳐 전문 진로 코치로 성장하였으며, 지역 사회 내 발달 장애인과 이들의 진로에 대한 새로운 인식 확산에 기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이로 미뤄보아 전환기 발달 장애인 주체적 진로 지도 활동을 통한 지역 사회 인식 확산에 대한 본 성과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됨. 단, 이는 성과 목표 달성 후에도 지속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인 만큼 기관과 참여자들의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 "밴드맘" 성과 1 : 참여자 9명 전문 진로 코치로 양성 - 본 프로그램 참여자 9명을 대상으로 참여 시간과 수준에 따라 수료증과 이수증으로 구분하여 수여함. 수료증은 전문성 강화 교육(9회기 18시간)과 실습에 100% 참여한 총 4명의 참여자에게 수여함. 이수증은 전문성 강화 교육(9회기 18시간)과 실습 과정에 일부 불참한 총 5명의 참여자에게 수여함. 수료자의 경우 향후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필요하며, 이수자는 해당 교육 이수 기회 제공을 통해 수료를 독려할 예정임. · "밴드맘" 성과 2 : 발달 장애아 부모의 주체적 참여를 통한 지역 사회의 인식 변화 - 1차 연도에 개설한 맘 코치 SNS 밴드를 계속해서 참여자가 공개 운영함. 이에 지역 사회 중심으로 동료 부모 및 가족, 장애인 당사자가 가입하여 발달 장애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 창구로 활용함. - 2015년에는 참여자들만의 친목을 위한 소규모 모임을 형성했다면, 2016년에는 참여자 외에도 지역 사회 내 발달 장애 부모들까지 포괄하는 더 큰 범위의 자조 모임을 운영함. 이로써 단순 서비스 수혜자를 넘어 서비스 제공 주체로 참여함. - 외부적으로는 발달 장애인 공공 후견 정책 토론회에 참여해 발달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을 위한 정책을 제안함. 토론회에 대한 내용과 의견을 자료로 작성한 후, 토론회에 불참한 발달 장애 가정 부모들에게 전달 교육을 실시함. 이 과정에서 후견인의 필요성과 고려할 점, 보완할 정책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도록 관심을 유도함. - 사업 진행 과정과 주변 참여자의 섭외 과정에서 본 사업 주 참여자들이 직접 홍보 활동에 함께 참여함. 기관뿐 아니라 지역 사회 관련 기관, 발달 장애 자녀의 부모, 활동 보조인들이 본 사업에 대해 계속 문의하게 되었으며, 점차 발달 장애인 진로 문제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었음. - 자조 모임 "희망 탐방"과 기관이 함께 준비하고 공개 진행한 진로 자원 탐색 활동에 참여한 지역 내 발달 장애 부모 6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진로 resource에 대한 정보 습득에 도움이 되었는지?" 묻는 문항에 응답자 62명(93.9%)이 긍정적으로 응답함. 자조 모임 중심의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지역 발달 장애 부모들에게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함. - 또한 위 활동을 통해 TFT 임원들과 논의 과정을 거쳐 제작한 자원복의 경우, 미니북으로 제작하여 관련 기관에 배포하고, 동시에 E-book으로 제작하여 활동성이 낮은 장애인과 발달 장애 부모 당사자가 이용하게 하였음. 이를 통해 발달 장애인과 부모에게 지역 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과 관심, 이용률이 높아지는 효과를 유발함과 동시에, 지역 내 발달 장애인 진로 인식과 지역 기관 참여를 촉진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사료됨. - 맘 코치 참여자들이 실습으로 진행한 진로 적성 및 흥미 프로그램에 참여한 비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진로·직업 흥미 유형 파악에 도움이 되었는지" 묻는 문항에 응답자 34명 중 31명(91.1%)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음.

2) 질적 평가

연구 질문	자료원 및 자료 수집 방법
"맘 코치가 간다!" 사업은 본인에게 어떤 의미였는가?	주 참여자 심층 면접
본 프로그램을 통해 본인이 느끼고 변화된 점은 무엇인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인가?	주 참여자 심층 면접
프로그램 참여와 활동이 지역 사회 안에서의 발달 장애인들의 진로 지도에 대한 주변 환경과 인식의 변화 정도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커스 그룹 인터뷰 (FGI) · 개별 인터뷰

평가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질문 1. “맘 코치가 간다!” 사업이 주는 의미(심층 면접 응답) - 장애 인식 개선과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 교육이 필요해 참여하면서, 정보 공유나 장애 엄마들 간의 소통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 혼자 고민하고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 모르는 발달 장애 엄마들에게 소스를 제공해주기 위해 이 사업이 존재한다. - 우리 아이들을 위한 진로 결정, 성장 과정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다. - 발달 장애 아들의 진로를 결정하고 부모들 모두의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 아이를 이해하고 싶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싶은 나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 - 장애를 가진 아이와 초보 엄마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이다. - 발달 장애인 엄마들 간의 정보 교류와 위안, 치유와 공감의 시간들, 그리고 아이들의 진로와 직업을 알아볼 수 있었던 유익하고 뜻 있는 사업이었다. - 소외되는 장애아 부모들의 위안 장소이자 소통 공간과 모임으로, 나아가 정보 공유, 진로와 아이에 맞는 맞춤형 미래 설계를 고민하고 나누는 교류의 장이다. · 연구 질문 2. 본인이 느끼는 변화와 경험(심층 면접 응답) - 나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겼고 역량이 강화되었다. - 분노 게이지가 낮춰졌다. 장애는 장애물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내 자녀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진로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었다. - 많은 정보를 맘 코치 선생님들과 공유하며 마음을 나눌 수 있었다. - 장애아를 키우는 엄마로서 맘 코치 역할을 조금은 할 수 있을 것 같다. - 긍정적 이미지, 전문적 이미지로 바뀐 것 같다. 얼마 전 학교 선생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 교육자로 활동하세요? 말투와 행동이 전문적이신 것 같아요. 저보다 말을 더 잘 하세요”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 여러 교육 기관의 정보(장단점)를 습득하고, 우리 아이의 학령기 이후 학업, 취업 준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힐링이 되었고 동료 엄마들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아이의 진로 문제를 더 알게 되었고 처음 목표한 바를 모두 이룬 것 같다. - 아이를 바라볼 때 조금 여유가 생긴 것 같고, 어떤 대학이든 진로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 - 내가 행복해야 가정에 평화가 생기고 아이에게도 좋은 영향이 가는데, 행복감도 높아지고 한 주 한 주 참여하면서 아이에게 좋은 부모로 성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만족스럽다. - 여러 교육과 실습을 통해서 지역을 떠나서 같은 장애 엄마들의 궁금증(학교 상황, 선생님과의 관계, 진로 고민)을 해소해줄 수 있게 된 것 같다. · 연구 질문 3.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여(포커스 그룹 인터뷰 응답) - 맘코치에서 운영한 자조 모임으로 많은 어머님들께 장애 아이들의 진로 정보를 공유했고, 어머님들께 힐링이 되는 수업들을 진행하여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며, 재능 기부로 풍성한 마음까지 가지게 되었다. - 진로 코치 역할, 장애 인식 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 정보만 갖고 있던 엄마들을 끌어내 같이 탐방하고 전문가들과의 만남과 강의를 주선해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 부모들이 교류와 소통을 나누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우리가 많은 도움을 준 것 같다. - 우리 엄마들이 모여서 신세 한탄만 하는 수다 모임이 아니라, 장애 인식 개선으로 학교에 지원을 나가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계기를 마련해준 “맘 코치가 간다!”인 것 같다. - 나와 우리 가족이 알고 있는 다른 발달 장애 엄마들에게 적용해보고 알려주고 이해시켜 주는, 고로 다시 나까지 변한 것에 기여한 것 같다. - 여러 교육 기관을 탐방한 후, 같은 장애아 엄마들에게 교육 기관 소개나 설명을 해주면서 도움을 주었다. - 발달 장애인에게도 다양한 진로 개발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 앞으로의 방향(포커스 그룹 인터뷰 응답) - 부모 교육(학령기 아이들 성교육, 문제 행동 중재 방향), 실전 상황 알기(대학, 취업 사업장 등), 아이들과 함께하는 캠프 및 견학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한다. - 맘 코치 자조 모임을 활성화해 많은 장애 어머님들이 참여하길 희망한다. 아울러 홍보도 필요할 것이다. - 맘 코치 교육을 받은 우리들이 계속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다. - 먼저 이 사업을 이끌어난 우리는 수료를 하고 떠나지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교육을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만남이 우리에게 정보 공유의 시간이기 때문이다. - 우리 아이들보다 어린 맘들도 우리처럼 교육과 힐링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 발달 장애인 진로 개발을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진로 탐색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 낯설어하는 부모들에게 끊임없이 다가가는 교육이 필요하다. - 이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되어 선후배 관계가 형성되고 우리가 배운 내용을 후배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으면 한다. 그 부분에서 우리는 역량과 준비가 된 것 같다.

평가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인터뷰 사례 1 -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계기 : “애들 크는 동안에 어렸을 때는 이런저런 만남이 자주 있었는데 성장하면서 그런 모임이 적어지다 보니까 서로 정보가 한정적이고 공유되지 않았다. 그리고 복지관이나 교육 기관보다는 엄마들 입소문으로 정보를 알게 되는 경우가 더 크다. 그런데 그런 게 없을 뿐만 아니라 광진구에는 엄마들에 대한 교육이 많지가 않다.” - 이 프로그램에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참여하셨는데 그만두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도록 붙잡게 해준 것이 있다면? : “아이들의 미래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통해 발달 장애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 개별 인터뷰 사례 2 - 2년 동안 참여하면서 무슨 활동을 했는지, 활동을 통해 느낀 점 : “엄마들은 비장애인이든 장애인이든 자식에 대한 꿈과 희망이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꿈과 희망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될 거야’라고 생각하며 목표를 이루려는 부모도 있다. 이런 상황에 처한 부모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맘 코치는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이 좌절할 때 우리가 좌절의 폭을 줄여주는 것, 꿈이 너무 컸다면 목표를 조금 낮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용기를 심어주는 거라 생각한다.” · 개별 인터뷰 사례 3 - 2년 동안 참여하면서 무슨 활동을 했는지, 활동을 통해 느낀 점 : “엄마들 마음은 똑같다. 이상적인 부모가 되고 싶어 하는데 다 될 순 없다. 교육을 듣고 나면 ‘내가 저랬구나, 그렇게 했으면 안 됐는데... 고쳐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그런데 그 뒤로 일주일 지나다 보면 또 잊어버린다. 반복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꼈는데 그런 점에서 맘 코치 내용이 좋았다. 교육과 더불어 알찬 취미 생활을 할 수 있었고, 다양한 배움이 있어서 힐링의 시간이 된 것 같아 좋았다.” · 개별 인터뷰 사례 4 - 내년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맘 코치를 소개해준다면? : “아이를 돌보면서 한 가지에 몰두했던 시야를 조금 넓게 바라볼 기회가 될 거라고 확신한다. 좀 더 배우게 되면 아이들의 미래가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맘 코치를 하면서 내가 몰랐던 것을 다른 엄마가 알고 있어서 서로 함께 알아갈 수도 있고 그것을 통해 내 생각이 다시 정리된다. 다양한 배움을 통해 힐링도 덩으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IV. 사업 성과 및 제언

1. 사업 성과

1) 주 양육자의 발달 장애 자녀 진로 지도 역량 강화

“맘 코치가 간다!” 2차 연도 사업 참가 부모들은 1차 연도에 비해 장애 자녀의 진로에 대해 좀 더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다양한 선택지 속에서 자녀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원조하는 부모로 성장하였다. 한 참여자는 교육과 탐색-진로 설계-실천과 평가로 이어지는 단계적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자녀의 특성을 고려한 대학을 선택했고, 2017년 3월 자녀의 대학 입학 준비하고 있다. 또 다른 참여자는 자녀의 재능과 적성, 습관을 파악하여 현재의 삶을 유지하며 자연스러운 성인기 전환이 가능하도록, 자녀가 금속 공예 전문 직업 교육 시설에 다닐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 외에 전체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검사에서도 사업 참여 후 진로 지도 행동, 진로 지도 효능감, 가족 역량 측면에서 참여 이전에 비해 긍정적으로 향상된 변화를 통해 본 사업의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부모 당사자를 중심으로 한 발달 장애인 진로 전문 지원 체계 마련

본 사업이 진행된 지역은 발달 장애인과 그 가족, 특히 발달 장애인 진로와 관련해 제공되는 서비스가

없는 지역이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학교에서 이뤄지는 획일화된 직업 교육과 단순 견학이 전부인 부모 교육만으로는, 발달 장애 청소년의 졸업 후 진로 정보와 준비에 대한 서비스나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자녀의 성인기 전환이 실패할 때 온전히 홀로 뒷감당을 해야 하는 장애 청소년 부모의 어깨는 무겁다. 교육과 지원 시스템에 대한 이들의 욕구와 수요는 높아졌지만 뒷받침할 서비스가 없는 현실에서, “맘 코치가 간다!” 사업은 1차 연도에 부모 욕구와 우선적 문제 해결을 위한 부모 교육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2차 연도에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부모들이 발달 장애 영역의 진로 전문가로 성장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참여자들의 교육 관심 영역과 개개인의 역량에 따라 장애인식 개선, 진로 적성 및 흥미 코칭, 1:1 장애 청소년 진로 코칭 지도 분야로 나누어 지역 사회 안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고, 발달 장애인 당사자 및 부모, 지역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사업 초기 참여자들만으로 구성되었던 소규모 자조 모임은, 광진구 발달 장애아를 둔 부모들을 위한 2개의 자조 모임으로 성장하면서 발달 장애에 대한 진로 고민 상담, 치유, 진로 관련 기관을 탐방하는 모임으로 지역 사회 안에서 자리매김했다. 발달 장애인 진로 정보를 공유하고 확대하기 위해 “맘 코치가 간다!” 사업에서 운영하는 밴드 활동과, 온라인·오프라인 자원북을 함께 제작 배포해 발달 장애인과 가족들에게 진로 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높였다.

이처럼 “맘 코치가 간다!” 사업은 참여자 개인의 성장 외에 지역 사회 부모들에게 진로 정보를 제공하고 양육과 진로에 고민하는 부모들을 위한 동료 상담과 기관 견학, 장애 인식 개선, 장애·비장애 청소년 진로 적성·흥미 코칭, 장애 청소년 1:1 진로 코칭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여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부모 당사자를 중심으로 한 진로 전문 지원 체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성과로 이어졌다.

2. 제언

“맘 코치가 간다!” 사업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발달 장애 부모들, 그것도 동일한 대상으로 2년 연속 참여를 이끌어갔던 점이었다. 각 가정이 처한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 속에 참여 의지가 줄어들거나, 도중에 목적 의식을 잃고 새로운 욕구를 표현하며 다시 의존적인 태도로 변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그럴 때 그들이 끝까지 버텨내고 도전할 수 있게 한 힘은 바로 참여자들 간의 동질감, 격려, 공감, 지지적 태도 등의 ‘관계’였다. 발달 장애인의 진로와 이에 대한 부모들의 고민, 이 연결고리가 순기능으로 역동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은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사회복지사나 교육 전문가가 주는 것이 아니라, 같은 아픔과 비슷한 경험을 지닌 공통점, 값진 동료애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발달 장애뿐만 아니라 아픔을 가진 부모들의 역량 강화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바로 소통과 교류의 장을 계속 만들어주고 이들이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일임을 유념해야 한다.

V. 향후 계획

2년간의 “맘 코치가 간다!” 사업 참여자들은 다양한 교육과 경험을 통해 발달 장애인 진로와 관련한 정보량을 늘린 것은 물론 그 질적 수준도 높아졌다. 이처럼 향상된 개개인의 역량을 한데 모아 집단 지성으로 발휘하면서, 참여자들은 다양한 사례 앞에서도 각자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대안과 방법을 다각도에서 조언하는 수준으로 성장하였다. 향후에는 이들이 집단 지성과 네트워크를 서비스에 접목해, 지역 사회와 발달 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는 활동가로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2017년 “맘 코치가 간다!” 시즌 3은 청소년기 발달 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학부모 학령기 발달 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로 대상을 확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이로서 선후배간의 관계 형성과 힐링의 시간,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성인기-청소년기-학령기로 이어지는 발달 장애인과 부모들의 확고한 사회적 지지망을 형성하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발달 지연 아동 가족의 자기 주도적 미래 청사진 설계를 통한 가족 역량 강화 프로그램

“Step by Step 초보 가족 일기”



춘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정영숙

I. 프로그램 실시 배경

발달 지연이란 영유아가 특정 연령이 되었지만 그 연령에 기대되는 언어, 운동, 사회성 등 발달적 성취 정도를 나타내는 발달 지표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특정 장애로 진단을 내리기에는 너무 어리므로 진단명을 가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윤지형 외, 2005). 영유아기는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사회적 측면에서 급속히 성장하는 시기이며 발달 지표에 따라 과업을 성취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는 2008년 1월부터 영유아에 대해 7차례에 걸쳐 건강 검진 시 발달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영유아 건강 검진으로 발달 지연을 조기 발견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발달 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의 수도 증가하였다. 영유아 건강 검진을 통해 장애를 조기 발견할 경우 적절한 시기에 치료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해당 아동의 가족은 문제를 발견하더라도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아동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정보가 부족해 혼란을 겪게 된다. 이에 본 복지관에서는 발달 지연 아동 가족, 즉 주 양육자인 부모를 대상으로 전문가와 부모가 함께하는 아동 발달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부모가 주도하는 아동의 평생 계획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II. 프로그램 개요

“초보 가족 일기”는 자녀의 발달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족에게 전문가의 진단을 토대로 한 가족 주도적인 아동 발달 계획, 긍정적 부모 역할 수립을 위한 솔루션 회의, 아동과 가족의 상호 작용 능력 향상을 위한 놀이 활동, 부모 역량 강화를 위한 부모 교육 등을 제공하여 불확실한 가족의 미래를 명확히 함으로써 희망적인 가족 미래상을 수립하고, 미래상 설계 과정에서 가족의 자발성과 주도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참여 가족이 프로그램 내용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실천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변화된 결과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통해 가족이 스스로 자녀 양육 및 교육에 대한 장기적인 미래 계획을 주도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가족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1. 목적

발달 지연 아동 가족의 주도적인 아동 발달 계획 수립과 아동·가족 간의 상호 작용 능력을 향상함으로써 자기 주도적 가족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2. 목표 및 하위 목표

목표 1. 발달 지연 아동 가족의 주도적 아동 발달 계획을 수립한다.

하위 목표 1. 아동 발달 계획 수립을 위한 진단·평가를 실시한다.

하위 목표 2. 아동 발달 계획 수립을 위한 가족이 함께하는 솔루션 회의를 실시한다.

하위 목표 3. 아동 발달 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 자원 연계망을 수립한다.

목표 2. 발달 지연 아동 가족이 함께하는 놀이 활동을 통하여 가족 구성원 간 상호 작용 능력을 향상한다.

하위 목표 1. 가족 놀이 치료 활동을 실시하여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 작용 능력을 향상한다.

하위 목표 2. 가족 캠프 활동을 실시하여 가족 간의 긍정적 상호 작용 능력을 향상한다.

목표 3. 발달 지연 아동 가족의 긍정적 부모 역할 수행을 통하여 부모 역량을 강화한다.

하위 목표 1. 가족 컨설팅 회의를 실시하여 부모 역할을 강화한다.

하위 목표 2. 부모 교육을 실시하여 부모 역량을 강화한다.

3. 프로그램 대상

대상자 범위	개념적 범위	인지, 언어, 개인성·사회성 및 일상 생활에서 나이에 맞는 기능적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은 발달 지연 아동
	기관 이용자	· 지적 및 지폐성 장애 등록이 된 만 3~6세 아동 · 발달 지연으로 진단한 의사 소견서가 있는 만 3~6세 아동
대상자 구분	주된 참여자	· 만 3~6세 발달 지연 아동 5명 · 만 3~6세 발달 지연 아동 가족 5가족
	주변 참여자	· 본 복지관 언어 치료사, 특수 교사, 직업 치료사, 심리 치료사 · 특수 학급 교사 및 복지 관련 실무자

Ⅲ. 프로그램 진행 및 평가

1. 세부 프로그램 진행 내용

프로그램	일정	횟수	세부 내용	수행 방법	
아동 발달 계획 수립	이용자 모집	2월	수시	그룹 놀이 활동이 가능한 3~6세 아동 공개 모집	· 복지관 홈페이지 공고 및 관내 게시판 공지 · 복지관 1개 이상 개별 치료 대상자 문자 발송
	참가자 선정	2~3월	1회	전반적인 발달 장애 아동으로 본관 개별 치료를 이용하지 않는 아동	언어, 감각 통합, 인지, 심리 진단을 통해 놀이 활동 그룹 형성
	아동 발달 진단·평가	2~3월	8회	· 사전 진단 - 언어, 감각 통합 - 인지, 심리 진단	· 아동 7명을 대상으로 언어, 감각 통합, 인지, 심리 진단 4개 영역을 평가함. · 본 관에서 이미 진단을 실시한 아동은 진단을 실시하지 않음.
		9~10월	14회	· 사후 진단 - 언어, 감각 통합 - 인지, 심리 진단	· 아동 5명을 대상으로 언어, 감각 통합, 인지, 심리 진단 4개 영역을 평가함. · 본 관에서 개별 치료를 실시한 아동은 진단을 하지 않음.
솔루션 회의	1차 솔루션 회의	3월	7회	· 언어, 인지, 감각 통합, 심리 진단 결과(사전 진단) - 아동 발달 단계 회의 - K-ASQ : SE 부모 작성형 유아 사회 정서 모니터링 검사지 작성	· 대상 - "초보 가족 일기" 참여 부모 14명 - 전문가 6명(언어 치료사, 특수 교사, 심리 치료사, 작업 치료사, 사회복지사) · 장소 : 본관 프로그램실 · 방법 : 아동 부모를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7회 실시
	2차 솔루션 회의	9월	1회	· 아동 부모 4명을 대상으로 아동의 발달 단계에 대한 집단 회의 · 참고 책자 읽기 - 발달 단계별 놀이 프로그램, 발달 장애 아동의 마음 읽기	· 대상 : "초보 가족 일기" 참여 부모 4명 · 장소 : 본관 프로그램실 · 방법 : 아동 발달 단계에 대한 책자를 통하여 아동의 현재 발달 단계에 대한 부모 보고 및 아동의 강점 나누기
	3차 솔루션 회의	11월	4회	· 언어, 인지, 감각 통합, 심리 진단 결과(사후 진단) · 아동 부모 5명을 대상으로 아동 발달 단계에 대한 회의 실시	· 대상 : "초보 가족 일기" 참여 부모 4명 · 장소 : 본관 프로그램실 · 방법 : 아동 부모를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5회 실시
	4차 솔루션 회의	11~12월	5회	· 아동 부모 5명을 대상으로 아동 발달 계획 최종 수립 - 치료 교육 계획 - 재정 계획 - 교육 계획	· 대상 : "초보 가족 일기" 참여 부모 5명 · 장소 : 본관 프로그램실 · 방법 : 아동 부모를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5회 실시
지역 자원 연계망 구축	기관 방문	11~12월	5곳	· 강원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 놀이 치료 센터 · 심리 상담 센터 · 언어 치료 센터 · 가족 상담 센터	· 대상 : 각 기관 담당자 · 장소 : 5개 기관 방문 · 방법 : 담당자 기관 방문

프로그램	일정	횟수	세부 내용	수행 방법	
지역 자원 연계망 구축	지역 자원 연계망 지도 작성	11~12월	1회	춘천시 발달 장애 아동 치료, 교육 및 지원 기관 지도 작성 배포(2017년 1월)	· 대상 : 춘천시내 발달 장애인 부모 및 각 기관 · 장소 : 개인 및 기관 · 방법 : 지도 작성 후 각 기관 및 개인 배포
모아 놀이 활동	내부 활동	4~10월	17회	· 아동과 부모가 상호 작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수행함 · 부모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놀이 활동으로 구성, 부모 역량 강화 · 아동의 놀이를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대상 : "초보 가족 일기" 참여 아동 7명 및 부모 또는 모 · 장소 : 미술 활동실 · 내용 : 음률 활동, 공예 활동, 미디어 교육, 미술 활동 등
	외부 활동	4~11월	7회	· 문화 센터와 연계하여 유아 체육 활동 프로그램 개설 · 지역 자원을 활용한 서비스 연계 마련	· 대상 : "초보 가족 일기" 참여 아동 7명 및 부모 또는 모 · 장소 : 문화센터 · 내용 : 지역 사회 내의 문화 센터와 연계한 체육 활동
가족 캠프		10월	1회	· 외부 활동을 통한 아동의 활동 관찰 · 아동을 둘러싼 가족 지지 체계의 직접적 관찰 · 아동과 부모의 상호 작용 관찰 · 관찰한 내용으로 3차 솔루션 회의 시 자료로 활용	· 대상 : "초보 가족 일기" 참여 아동 및 가족, 담당자, 심리 치료사 · 장소 : 남이섬 · 내용 : "초보 가족 일기"를 이용하는 아동 가족의 지지 체계에 대한 분석 및 아동 놀이 활동 관찰
가족 컨설팅	1차	6월	5회	· 부모 대상 MBTI 검사 실시 및 상담 · 부모 양육 태도 검사 및 상담 · 가계도 및 생애도 작성 후 가족 관계 상담	· 대상 : "초보 가족 일기" 이용 아동 부모 10명 · 장소 : 본관 상담실 · 내용 : 성격 유형 검사, 부모 양육 태도 검사, 생애도 및 가계도 작성, 세부 상담
	2차	9~12월	3회	지역 가족 상담소 연계	· 대상 : "초보 가족 일기" 이용 부모 4명 · 장소 : 가족 상담소 · 내용 : 부부 의사 소통 유형 검사 후 가족 관계 상담
부모 교육	1차	10월	1회	· 가족 지원 계획(IFSP) · 개인별 지원 계획	· 대상 : "초보 가족 일기" 대상자 및 부모 교육 희망자 · 장소 : 본관 3층 다목적실 · 내용 : "장애 아동과 가족의 미래, 무엇을 준비할까?"
	2차	11월	1회	감각 통합에 대한 이론과 실제	· 대상 : "초보 가족 일기" 대상자 및 감각 통합 치료 대기 아동 부모 · 장소 : 2층 프로그램실 · 내용 : "감각 통합과 우리 아이들"

2. 과정 평가

프로그램	목표량	산출량	평가 결과	
아동 발달 계획 수립	이용자 모집	5명	7명	· 아동 : 3~6세 미만 발달 지연 아동 중 부나 모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가족 · 본관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한 이용자 모집 · 본관 개별 치료를 대기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문자를 발송하여 이용자 모집 실시 · 홈페이지 및 게시판 홍보보다 개별적인 문자 발송을 통한 이용자 모집이 효과가 높았음. · 개인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중도 포기하는 가족을 감안해 7명으로 선정함.
	참가자 선정	5명	7명	· 우선 선정 기준 - 4개 영역(언어, 감각 통합, 인지, 심리) 진단을 실시한 3~6세 발달 지연 아동 · 놀이 활동 24회기에 부모 중 1명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가족 · 솔루션 회의, 가족 컨설팅에 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가족 · 우선 선정 기준을 통하여 프로그램의 목적에 부합하는 부모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아동 발달 진단·평가	40건	22건	· 발달 지연 아동을 대상으로 5개 영역을 계획하였으나, 운동 영역을 제외한 4개 영역으로 축소 진행함. · 사전 진단의 경우 본 프로그램 외(개별 치료 대기)에 실시된 진단을 제외하였으며, 진단 후 개별 치료를 대기하는 경우 진단 건수에 포함하지 않아 목표 대비 실적치가 낮게 기록됨.
솔루션 회의	1차 솔루션 회의	5회	7회	· 초기 5명 아동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중도 결원에 대비하여 7가족을 선정하여 진행함. · 아동의 부·모, 언어 치료사, 작업 치료사, 특수 교사, 심리 치료사, 사회복지사가 함께하는 회의를 통해 아동 부모에게 신뢰감을 형성해 솔루션 회의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음.
	2차 솔루션 회의	1회	1회	· 모아 놀이 활동 20회기가 진행된 후 그룹으로 2차 솔루션 회의를 1회기 실시함. · 개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발달 단계 책자를 통한 부모 교육을 위해 집단으로 실시하였음. · 발달 단계에 대한 기초 자료를 토대로 회의를 진행했으나, 1시간만 진행되어 깊이 있는 회의는 하기 어려웠음.
	3차 솔루션 회의	5회	5회	· 3차 솔루션 회의 전 4개 영역에 대한 아동 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하여 솔루션 회의를 실시함. · 1차 솔루션 회의에 참여한 아동의 부·모, 언어 치료사, 특수 교사, 심리 치료사, 작업 치료사, 사회복지사가 참여하여 아동 진단 내용에 대한 회의 실시
	4차 솔루션 회의	1회	5회	· 4차 솔루션 회의는 그룹으로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그룹으로 진행했던 2차 솔루션 회의의 효과가 낮아 개별 가족 단위로 변경 실시함. · 최종 단계로 아동 발달 계획 수립에 대한 실제적인 계획표를 작성함. · 아동 발달 계획 수립 계획서를 작성한 후 각 단위 프로그램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함.

프로그램	목표량	산출량	평가 결과
지역 자원 연계망 구축	10곳	5곳	· 발달 장애 아동의 치료 교육 및 지원 기관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기관 방문을 계획하였으나, 부모들의 일정 조율이 어려워 담당자 1인의 방문으로 축소 진행함. · 활용할 수 있는 지역 자원에 대한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지 못해 아쉬움. · 초기에는 지역 자원 연계망 지도를 소규모로 자체 제작하려 했으나 향후 복지관 자체 사업의 지속성 유지를 위한 자원을 확보하고자 지도 작성 규모를 확대, 춘천시에 배포함.
모아 놀이 활동	240명	219명	· 내부 활동 17회기 - 7명의 아동 및 부·모를 대상으로 6회기 진행했으며 개인 사정으로 2가족이 종결해 5명의 아동 및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 - 초기에 외부 강사를 초빙한 놀이 활동을 계획했으나, 활동가와 담당자의 협력을 통해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내부 언어 치료사가 진행하여 예산 절감, 놀이 시간 연장 등으로 프로그램 효율성을 높였음.
	-	-	· 외부 활동 7회기 - 외부 활동은 2회기로 계획하였으나 아동의 역동적인 신체 활동을 원하는 부모의 요구로 지역 사회 자원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신설 진행, 부모 만족도를 높였음.
가족 캠프	25명	20명	· 총 4가족이 참여하였으며 1가족은 개인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함. · 아동 가족과 심리 치료사가 함께 캠프에 참여해 아동의 외부 활동을 관찰할 기회를 마련함. · 직원 2명과 봉사자 1명만 투입해 활동을 진행했으나 가족이 아동과 함께한 덕분에 원활하게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음. · 담당자 및 심리 치료사가 가족과 함께하면서 가족의 지지 체계를 파악할 수 있었고, 아동의 활동 수준을 관찰할 기회가 되어 3차 솔루션 회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었음.
가족 컨설팅	10명	15명	· 1차 가족 컨설팅(담당 사회복지사) - 부부를 중심으로 한 성격 유형 검사, 가계도·생태도 그리기 등을 통한 상담 실시 - 1가족의 경우 비장애 형제를 대상으로 한 성격 유형 검사를 통한 상담 실시 · 2차 가족 컨설팅(외부 가족 상담사) - 1차 가족 컨설팅을 진행한 2가족을 대상으로 3회의 가족 상담을 진행함. - 지역 사회 자원을 연계, 전문 상담을 진행했으나 1회성 실시에 그쳐 만족도가 낮았음. - 예산 및 투입 인력 대비 1차 부모 컨설팅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가 높았음. 2명의 상담가가 진행하기보다는 라포가 형성된 1명의 상담가가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었을 것으로 보임.
부모 교육	10명	41명	· 1차 부모 교육 - 초기에는 현재 "초보 가족 일기"에 참여하고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계획하였으나, 예산 대비 효율성을 고려하여 희망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함. · 2차 부모 교육 - 1차 교육과 같이 "초보 가족 일기"에 참여하고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계획하였으나, 공개 모집으로 변경해 2가족이 추가 참여함.

3. 효과 평가

성과 목표 1.	성과 지표	자료원 및 자료 수집 방법
발달 지연 아동 가족의 주도적 아동 발달 계획을 수립한다.	아동 발달 계획표 완성	·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모 · 아동 발달 계획표 · 지역 자원 연계망 지도 · 솔루션 회의 만족도 조사

평가 결과

- 전체 참여자 7가족 중, 모아 놀이 활동 6회기에 개인 사정으로 중도 포기한 2가족을 제외한 5가족이 1차에서 4차 솔루션 회의를 거쳐 아동 발달 계획을 수립하였음.
- 솔루션 회의 참여자(아동 6명의 부모 또는 모)의 만족도 조사 결과
- 솔루션 회의 만족도에 6명의 부모가 응답하였으며 내용 면에서는 응답자 5명(83%)이 "매우 만족"에 응답하였음. 특히 솔루션 회의의 전문가 평가 내용이 아동의 발달 계획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음.
- 솔루션 회의 만족도 서술식 응답 결과
- "다양한 경험과 아이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진단 및 해결책을 제시하고 아이와 더욱 친밀하고 아이에 대해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 "갈 길이 먼 우리 아이가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는 계기와 기회가 되었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중심을 잡은 것 같아요."
- "춘천시에 발달 장애 아동이 접할 수 있는 교육 시설이 많지 않은데 한 자리에서 다양한 전문가 분께 평가를 받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무엇보다 차후 미래 모습을 생각하고 현재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관해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힘든 부분을 함께 공유하고 나만 힘든 것이 아님을 확인하고 함께 힘이 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지역 자원 연계망 지도를 12월에 제작하여 2017년 1월 배포

성과 목표 2.	성과 지표	자료원 및 자료 수집 방법
발달 지연 아동 가족이 함께하는 놀이 활동을 통하여 가족 구성원 간 상호 작용 능력을 향상한다.	가족 구성원 간 상호 작용 향상도	·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모 · MIM 행동 평정 척도 · 모아 놀이 활동 만족도 · 과정 기록지

평가 결과

- 놀이 활동에 참여한 7명의 아동 및 부모를 대상으로 MIM 행동 평정 척도 검사를 사전·사후 실시하였음. 전문 놀이 치료사가 검사를 실시하지 못해 신뢰도는 낮았으나, 언어 치료사 및 담당자 2명의 기준으로 검사를 실시함. 사전 검사 결과 부모는 평균 2.5에서 3.2로 0.7 향상되었으며 아동은 평균 1.6에서 2.2로 0.6 향상되었음. 부모와 아동 평균이 상승한 것에 반하여 아동과 부모 상호 작용에 대한 평균은 1.8에서 2.1로 0.3 상승해, 부모와 아동을 개별 평가할 때의 약 절반에 그쳤음. 이는 부모와 아동을 개별적으로 평가했을 때는 향상을 보였으나 아동과 함께 하는 과제 활동에는 상승률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놀이 활동 만족도 조사
- 모아 놀이 활동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활동 내용 및 감사에 대해서는 총 6명의 응답자 중 5명이 "매우 만족"에 응답하여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음. 그러나 아동 발달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었는가에 묻는 문항에서, 솔루션 회의는 응답자 중 5명(83%)이 "매우 만족"으로 응답하였으나 모아 놀이 활동은 4명(67%)만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음.
- 이는 솔루션 회의의 경우 아동에 대한 평가 결과를 전문가가 직접 제시하여 치료 계획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놀이 활동은 부모와 아동이 놀이하는 과정에서 부모가 아동을 스스로 관찰하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측면에서 발달 계획 수립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됨.
- 놀이 활동 만족도 서술식 응답
-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아이와 친밀하게 활동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아빠가 아이와 놀아주는 방법도 배웠어요.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다가갈 수 있었어요."
- "평상시 쉽게 하지 못했던 활동으로 아이의 반응 및 개선해야 할 점을 발견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엄마인 저도 제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과 참여하는 게 힘들었는데, 선생님들께서 모든 상황을 이해해주시고 먼저 케치해 주셔서 힘든 상황을 빨리 대처할 수 있게 해 주셨네요."

평가 결과

- "놀이 활동으로 인해 아이의 새로운 점들을 파악할 수 있었고 많은 자극이 되었어요. 특히 유아 체육 활동을 아이가 많이 좋아했고, 활동적인 아이라 도움이 되었어요."
- "쉽게 접할 수 없는 수업(만들기, 미술, 체육 등)을 할 수 있어서 너무 만족했고요. 집에 가서도 관심을 가지고 노네요. 좋은 내용과 수업으로 많이 배울 수 있었고 아이들이 호기심이 많이 생겼네요."
- "새로운 환경 조성 방법과 하루 동안의 가족 여행 등이 아주 참신하고 좋은 방법이라 여겨지며, 중간 중간 가족 상담 체크 또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정보책 등이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성과 목표 3.	성과 지표	자료원 및 자료 수집 방법
발달 지연 아동 가족의 긍정적 부모 역할 수행을 통하여 부모 역량을 강화한다.	아동 양육 태도 변화	·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모 · 부모 양육 태도 검사지 · 가족 컨설팅 만족도 조사 · 부모 교육 만족도 조사

평가 결과

- 부모 양육 태도에 대해서는 총 8개 영역에 걸쳐 검사를 실시하였음. 지지 표현, 간섭, 처벌이 각각 3명으로 이상적인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8개 영역 중 가장 이상적인 기준보다 높게 나타난 영역은 감동이었음. 이는 발달 지연 아동의 경우 부모의 감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으로 보임. 특히 가장 많은 변화를 보인 항목은 비일관성으로 사전·사후 검사 총 7명중 1명이 이상적 기준(20)에 도달했고 4명이 이상적 기준으로 변화하였음. 이는 일관적인 태도로 아동을 양육하기 위한 부모의 노력이 엮여오는 결과로 분석됨.
- 가족 컨설팅 만족도 조사 결과
- 가족 컨설팅에서는 부부를 대상으로 성격 유형 검사(MBTI)를 실시하고 검사지를 통해 부부와 담당자가 상담을 진행하였음. 부부가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리로, 전반적인 내용 및 부부 성격 유형 검사에 대한 만족도는 5명(83%)이 "매우 만족"으로 응답함.
- 그러나 부부 상담 및 아동의 발달 계획 수립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4명(67%)만 "매우 만족"으로 응답하였음. 이는 성격 유형 검사에 의한 부부 상담이 1회, 외부 상담소를 통한 부부 상담 또한 1회만 이루어져 지속적 상담이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됨.
- 가족 컨설팅 만족도 서술식 응답
- "부부 상담 성격 유형 테스트를 통해서 이미 대충 알고 있었던 나의 성격과 상대방의 성격을 정확하게 알게 되고(...) 수업을 다녀오고 수업에 대해 대화하면서 아이 문제에 대해 서로 의논하고 해결책을 논의하는 것이 수월해졌어요."
- "처음으로 받아본 상담이었는데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왜 트러블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알게 되었고 싸우기 전에 한 번 더 되돌아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만족스러워요."
- "가장 큰 원인이 부부 문제인 것 같네요. 부부 관계가 안 좋으니 예민한 아빠, 엄마가 되었고 아이에게 그 영향이 미칠 테니 그 동안 얼마나 아이에게 미안했는지... 많이 늦었지만 앞으로는 엄마, 아빠가 노력을 많이 해서 더 큰 사랑을 줄 겁니다."
- "남편의 고민과 성향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특히 다른 자녀의 심리 상태를 엿볼 수 있고 해결 방안을 찾고자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족 컨설팅 해결 방안 모색 횟수를 증가하여 치료 방향을 함께 찾아보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 부모 교육 만족도 조사
- 부모 교육은 "초보 가족 일기" 이용 부모 4명과 교육을 희망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총 34명의 부모가 참여하였으며, 장애 자녀에 대한 부모의 미래 계획 인식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사전·사후 조사를 실시하였음. 부모는 자녀 미래의 궁극적 목적인 자립을 위하여 경제력 확보, 치료·교육 프로그램 이용,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으나, 실제로는 가족 지원 계획이나 개인별 지원 계획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개념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며,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가 전달되는 치료·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IV. 사업 성과 및 제언

1. 사업 성과

1) 부모와 함께한 놀이 활동이 아동 발달 계획 수립의 중심점이 됨

아동과 부모가 함께하는 놀이 활동을 통해 부모와 아동의 상호 작용 능력을 향상하고, 놀이 방법을 습득하고자 계획했던 놀이 활동으로 부모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었다. 또한 담당자에 대한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이후 진행한 가족 컨설팅 및 솔루션 회의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다. 저연령 아동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놀이와 같은 실제적인 활동이 중심적 역할을 하고 다른 가족과의 유대감을 형성하며 상호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을 확인하였다.

2) 자녀 양육에 어머니뿐 아니라 아버지 역할도 중요함을 부각할 기초 마련

모아 놀이 활동에 참여한 1명의 아버지를 포함하여 솔루션 회의, 가족 컨설팅에 아버지를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아동 양육 과정에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게 하였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의 참여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했던 솔루션 회의와 가족 컨설팅에 아버지가 전원 참여하였으며, 아버지 프로그램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었다.

발달 지연 아동의 경우 어머니가 주 양육자를 맡고, 아버지는 아동의 치료 및 교육에 대하여 직접 관여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배우자와 지지적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가족 컨설팅과 솔루션 회의에 참여하여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존 프로그램에서 볼 수 없었던 아버지들의 적극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아버지와의 지지적인 관계가 아동 양육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전문가와 부모가 함께하는 아동 발달 계획 수립

4개 영역(언어, 인지, 심리, 감각 통합)의 진단을 통해 아동에 대한 객관적 평가에만 머무르지 않고, 전문가 및 부모가 함께하는 회의를 통해 서로 다져놓은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아동의 발달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다. 부모 스스로 솔루션 회의를 통해 아동의 약점이 아닌 강점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치료 및 교육에만 의존하던 기존의 양육 방식을 넘어 부모가 아동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립 및 재정 계획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여 한 단계 앞서가는 부모로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다.

2. 제언

기획 당시에는 발달 지연 아동의 부모가 본 프로그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아동의 발달 계획을 수립하기를 기대하였으나, 2월부터 12월까지 7개 단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정 조율 및 참여를 제외하면 담당자가 주도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부모의 욕구를 토대로 한 놀이 활동을 중심으로 전체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참여한 부모 간의 응집력을 높일 수 있었고, 프로그램 중에 부모와 담당자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부모의 욕구를 파악할 계기를 제공하였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저연령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가족 지원 프로그램은 부모만 참여하는

프로그램만 기획하기보다 아동에게 직접 서비스가 전달되는 프로그램을 병행해야만 참여의 지속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발달 지연 아동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교육 및 재정 계획에 대한 심층 교육을 실시한다면, 부모가 아동의 발달 계획을 수립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V. 향후 계획

몇 가지 보완할 점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달 지연 아동과 함께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모는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내년에도 연속해서 동일한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였다. 이에 본 복지관에서는 2016년도에 진행한 “초보 가족 일기”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2017년도에는 전년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사후 프로그램을 계획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저연령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상반기와 하반기 두 그룹으로 나눠 실시할 예정이다.

실무자 소감

과천시장애인복지관 김광욱

평생 설계(permanency planning)! 많이 들어보긴 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라는 막막함으로 인수인계를 받았던 지난 3월을 떠올려봅니다. 전 담당자 이민희 원장님의 도움으로 발령 후 가이드북과 워크북을 제작하며 여러 차례 읽고 또 읽었던 지난 날.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시작한 부모님들과의 첫 만남. 사업의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던 첫날을 돌이켜보니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리 지역의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인근 지역의 부모님들을 만나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나를 늘 따뜻하게 챙겨주신 부모님들께 무엇보다 감사합니다. 열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덕분에, 참여 부모들이 현재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고, 장애 자녀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변화된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 사회 자원과 인적 자원을 형성하는 과정에서도 함께 고민을 나눌 수 있음을 알게 되고, 보다 넓은 시각으로 사업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면서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부모님 역시 더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금번 사업을 통해 부모의 역량 강화, 평생 설계 사업의 기반 마련, 평생 설계 필요성 및 인식 확산, 과천시 평생 설계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늘 저를 믿고 지지해주며 도전할 수 있도록 조언해주신 관·국장님, 평생 설계 전반에 함께해주신 이민희 원장님, 실무자들이 진정성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섬세하게 조언해주신 이지수 교수님과 삼성복지재단에 감사드립니다.

군포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김승재

그동안 복지관 타 팀에서 외부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심 부러움이 컸습니다. 과연 주간 보호 센터에서는 지원받을 사업이 없을지 늘 고민했습니다. 주간 보호라는 타이틀의 제약 때문에 이용자와 담당자들이 주눅들어 있을 때, 삼성복지재단에 신청한 지원 사업이 선정되었다는 소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았습니다. 정기적으로 진행된 자문 회의에서 이지수 교수님과 여러 선생님들이 보내주신 따뜻한 격려와 조언, 그리고 녹록지 않은 현실에서 나와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인식이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삼성복지재단의 지원이 있었기에 저희 기관과 이용자, 그리고 저 자신도 한층 성장할 수 있는 한 해였습니다. 이제 또 다른 시작을 위하여 다시 용기를 내어봅니다.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정다운

처음 삼성복지재단 공모 사업 신청서를 작성했던 작년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음장애인자립 생활센터와 함께 사업 신청서를 쓰면서도 우리가 지금보다 더 잘 모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컸습니다. 면접 일자가 정해져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이 함께 인터뷰를 했던 그날의 떨림은 아직도 마음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선배에게 배우는 자립

이야기, 자립 생활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두 기관이 함께 서로 응원하며 강점을 찾고, 강점을 실천 사업으로 이루어낸 시간들은 잊을 수 없을 듯합니다. 혹시 서로 마찰이 생길까봐 불안해하고 이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던 사업 초기와 달리, 1년이 지난 지금 이음장애인자립 생활센터와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은 서로 다른 기관이지만 깊은 신뢰가 쌓였으며, 각자 지닌 색깔에 매료되어 서로의 강점을 나누며 상호 지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상생의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년 동안 함께 발로 뛰어준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서울시립 영등포장애인복지관의 복지생태계 가족참여팀 모두 감사드리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 내년에도 더 좋은 모습으로 열심히 활동하는 사회복지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문 모임마다 좋은 의견으로 방향성을 함께 고민해준 이지수 교수님과 실행 기관 선생님들께도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최재연

연약한 나비의 날갯짓이 다른 곳의 날씨를 변화시킨다는 나비 효과와 같이, “DO 공연단”을 통한 청각 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와 아이들이 가진 자신감은 비록 지금 시점에서 보기에는 작을지라도 이후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는 시점에는 큰 차이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사업 종료 후에도 “DO 공연단”은 그 변화를 위해 활동할 것이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청각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어울리고 소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안산시장애인복지관 윤란

작년 이맘때쯤 다문화 장애 가정을 위해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할까 고민하던 시간이 떠오릅니다. 처음 시작한 사업이어서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 사업에 보람을 느끼기보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감에 힘들었지만, 2년차 사업을 마무리하는 지금은 2년이란 기간 동안 지역 사회에서 함께해주신 여러 기관의 기관장과 실무자 분들,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부모님들, 함께해주신 한국인 멘토 어머님들의 모습이 떠오르며 행복한 미소를 짓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다문화 장애 가정을 처음 만났던 6년 전, 다문화 가정이자 장애 자녀를 둔 가족으로 그분들이 겪는 이중고를 지켜보며 ‘이 가정들을 위한 지원을 언젠가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던 저의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2년 동안 프로그램에 대해 함께 고민해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자문해주신 이지수 교수님의 애정 어린 말씀과 격려 덕분에 사업이 잘 뿌리 낼 수 있었기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년간 저와 함께 다문화 지원 사업을 함께해주시고 앞으로도 지원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주실 김선일 팀장님과 김민정 선생님, 장애인 복지 기관에서 다문화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연계를 해주신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문 교수 소감

중곡종합사회복지관 김은정

2016년 한 해가 전속력을 다해 100미터 달리기를 한 것처럼 순식간에 지나간 느낌입니다. 연초에 사업 참가자 분들께 “어머님, 일주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라고 건넰 인사는 언제부턴가 “선생님, 이번 실습은 어땠나요?”라는 말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장애 자녀 교육에서 전문가 못지않은 열정과 지식을 보여주신 “맘 코치가 간다!” 사업 참가자들의 무수한 노력과 의지가, 저를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리게 해준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이야말로 사회복지사로서 가장 큰 보람과 기쁨을 느낄 수 있게 해준 감사한 분들이었습니다. 삼성복지재단을 통해 2차 연속 지원을 받으면서 1차 연도에는 완성되지 않았던 희미했던 무언가가, 이제 어느덧 형태를 찾아가는 듯합니다. 지난 1년은 기존에 존재했던 단편적인 서비스 제공을 넘어, 지역 사회와 문제의 근본까지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지수 교수님과 함께한 실무자들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어서 함께한 시간이 더욱 즐겁고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자문팀 워크숍에서의 깜짝 선물, “이지수와 인재들!” 그 문구를 잊지 않고 마음에 새겨 사회복지 분야의 인재가 되도록, 항상 노력하고 고민하고 실천하는 사회복지사가 되겠습니다.

춘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정영숙

2016년 한 해 동안 “초보 가족 일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이 부모님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담당자인 나 자신이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지원서를 쓰고 난 후 ‘내가 왜 이렇게밖에 쓰지 못했을까’ 고민만 했는데, 실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나는 장애 아동들과 부모님들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사업을 계기로 부모님들과 많은 만남을 가지면서 마음을 나누고 신뢰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큰 보람이자 성장의 기회였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삼성복지재단에 감사드리고, 자문을 맡아주신 이지수 교수님, 그리고 우리 팀 7개 기관 선생님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지수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작은나눔 큰사랑’의 자문 교수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의 후배 사회복지사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행운을 한 해 더 얻은 것이지요. ‘교수’라는 직함 때문에 늘 가르치는 위치에 설 것을 요청받지만, 사실 ‘작은나눔 큰사랑’을 통해 제가 더 많이 배우고 깨닫게 되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자문팀의 후배 사회복지사님들은 참으로 ‘능력자’들입니다. 그들은 사회복지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 큰 그림을 보는 혜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 발전은 우리 사회에 끊임없는 경쟁과 배제, 부의 집중과 격차를 확대하고 있지만, 사회복지의 협력과 통합, 정의와 평등을 지향합니다. 장애인 복지 분야에 한정하여 말한다면, 이는 장애인의 사회 통합과 자립에 대한 지향입니다. 후배 사회복지사들은 이 큰 흐름을 통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회복지의 이 큰 흐름을 사업 안에 어떻게 구체화시킬 수 있는지 간파하는 명민함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장애인의 사회 통합과 자립 지향이라는 화두는 개별 사회복지 프로그램 안에서 구체화되고 실현 가능한 과제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반드시 담당 사회복지사의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제가 만난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은 너무나 지혜롭게 추상을 구체화하는 능력을 갖췄으며, 정책적 지향을 사업 목적과 목표로 전환시킬 줄 아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동료와 어떻게 협력하고 서로를 도와야 할지 아는 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에서 얻은 귀한 실천 지식과 노하우를 나누는 데 주저함이 없었고, 내가 겪어본 적 있는 장애물을 나의 동료가 맞닥뜨렸을 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건넬 줄 알았습니다. 동료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함으로써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할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덕분에 자문 모임은 늘 활기차고 따뜻했습니다. 이 따뜻한 기운이야말로 각자의 사업 안에서 지역 사회 내 타 조직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된 듯합니다.

그들은 클라이언트와 함께 호흡하는 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젊은이 특유의 자유분방함과 겸손함으로 클라이언트에게 격의 없이 다가섰고,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많은 권한을 위임할 줄 알았습니다. 이는 클라이언트의 주도성과 역량 강화라는 결실로 돌아왔습니다.

자문 모임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면 제 마음을 꼭 채웠던 것은 ‘현장에서 맘 흘리는 사회복지사들이 이 사회를 버티는 기둥이구나’라는 생각과, 그 길을 저도 함께 걷고 있다는 자부심이었습니다.

직장을 옮긴 뒤에도 끝까지 팀의 맏언니 역할을 기쁘게 맡아주신 마포푸르메직업재활센터 이민희 선생님, 사회복지사들만 모인 자리에서 특수 교사의 전문성을 발휘해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주신 안산시장애인복지관 윤란 선생님, 사회복지관에서 발달 장애인 복지의 꽃을 피우기 위해 고군분투하면서도 늘 웃음을 잃지 않는 중곡종합사회복지관 김은정 선생님, 중증 장애인의 자립을 꿈꾸며 일당백의 끈기와 저력을 보여주신 군포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김승재 선생님, 발달 장애 영유아 가족의 든든한 지원가이자, 가족 상담 전문가로 새 길을 개척하신 춘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정영숙 선생님, 발달 장애인 평생 계획 사업을 지속·확산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헌신하신 과천시 장애인복지관 김광옥 선생님, 청각 장애 청소년에 대한 무한한 애정으로 함께 호흡하며 그들의 잠재된

끼를 깨워주신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주혜경 선생님과 최재연 선생님, 끝으로 장애인 복지관과 자립 생활 센터의 협력을 이끌어내며 지역 사회 연대의 폭을 확장한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의 정다운 선생님, 모두들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2016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지원 작은나눔 큰사랑 우수사례집
발행일 2017년 2월 | 발행처 삼성복지재단 | 문의 02-2014-6863 | www.samsungwelfare.org



04348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55길 60-16

Tel. 02-2014-6863

www.samsungwelfare.org